

안 동 병 산 서 원
종 합 정 비 계 획

2013

제 출 문

안동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06월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연구책임 임 원 현

I. 계획의 개요

- | | |
|-------------------|----|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7 |
|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8 |
|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 12 |

II. 일반현황

- | | |
|--------------|----|
| 1. 일반현황 | 17 |
| 2. 관련계획 및 법규 | 28 |

III. 병산서원의 현황

- | | |
|-----------------|-----|
| 1. 병산서원의 개요 | 43 |
| 2. 병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 44 |
| 3. 서원현황 | 141 |
| 4. 관리현황 | 185 |
| 5. 활용현황 | 191 |

IV. 기본구상

- | | |
|------------|-----|
| 1. 정비 기본방향 | 195 |
| 2. 정비 기본구상 | 200 |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205
2. 시설물정비계획	216
3. 경관정비계획	228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259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261
3. 관리현황종합	262
4. 활용계획	267
5. 홍보방안	275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279
2. 사업투자계획	280

■ 부록

1. 서원관계자 의견	289
2. 관계전문가 자문	290
3. 건축물 조사표	295
4. 사진자료	327
5. 도면자료	336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 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병산서원은 1613년(광해 5)에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으로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을 담당하여 수많은 학자를 배출하였고,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 2012년 1월 10일 조선 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되었고, 이 중 병산서원도 포함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계획의 목적

- 이에 본 용역에서는 병산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산서원이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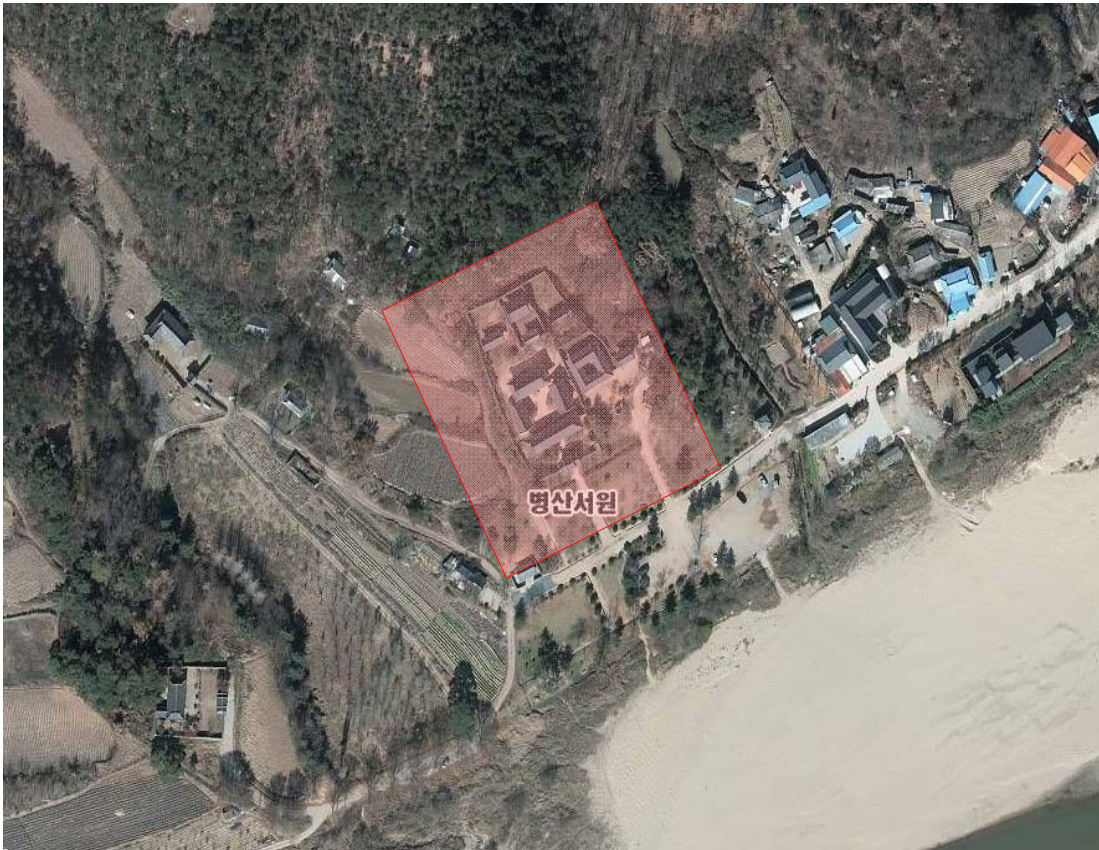
2-1. 계획의 범위

2-1-1. 공간적 범위

■ 안동 병산서원 일원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지정구역 면적 : 22,620m²)

■ 그 외 문화재보호구역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안동 병산서원 위치도_다음 위성사진(<http://map.daum.net>)

2-1-2. 시간적 범위

■ 2012년 06월 22일 ~ 2013년 06월 13일

2-1-3.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병산서원의 자연적 환경 및 인문적 환경, 지리적 특성을 조사
- 병산서원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 수집된 자료를 분석, 정리

■ 사례조사

- 국내의 서원 정비계획 자료 수집, 분석
- 시설 유형, 규모, 재료 등의 사례조사

■ 사진 촬영

- 병산서원의 환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
- 병산서원의 문화유산 촬영

■ 전문가 의견 수렴

-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을 받음
- 지적 및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반영

■ 보고서 작성

- 기초자료, 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
- 기초자료, 국내사례 조사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2-2. 계획의 방법

2-2-1. 문헌조사

- 병산서원 및 관련 선현에 대한 고문헌 및 기록 조사 정리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병산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2-2-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안동시의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 병산서원 현황조사

- 현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기존 건물에 관한 도면은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누락 부분은 간이 실측을 통한 도면 작성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과 경관 현황 검토

■ 주변 문화유적자원 조사

-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관광문화환경 등

■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 분석
- 자료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부처별 관련계획을 총망라하여 검토
-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 기본구상에 따른 각종 세부계획에 대한 지표설정 및 기본계획안 설정
- 역사문화환경 연계계획 :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2-2-4.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병산서원의 정비계획
- 병산서원의 원형고증에 따른 복원 또는 철거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 동선계획 수립 - 보행자 및 차량동선계획, 관람동선계획 등
- 시설물 계획 - 서원 관리사 건립 등
- 조경 계획 - 병산서원 전면의 낙동강변 소나무 숲 복원 등
- 각종 편의시설 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핵심지대(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와 완충지대(경관 보호구역-500m)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계획을 수립

2-2-5.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추진방향 설정

- 사업추진에 따른 전제조건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 활용방안 수립

- 정비 후 나타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병산서원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방안 제시
-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모색

■ 사업추진계획

- 년차별,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제시
-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방안 제시

■ 관리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 관리 및 운영체계 제시

2-2-6.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 반영

2-2-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원고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 선정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 수록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3-1. 계획 수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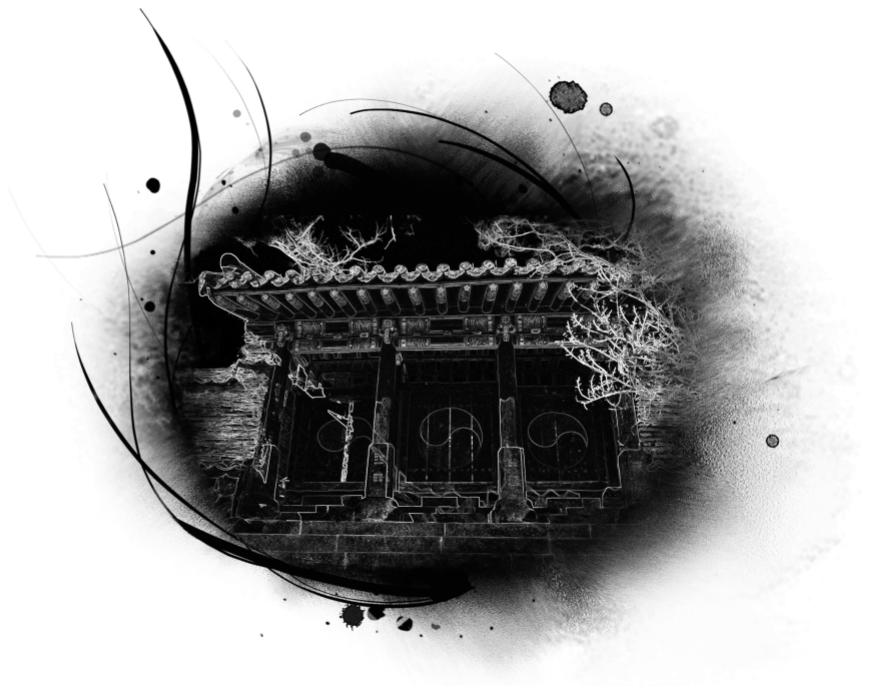


3-2. 참여연구진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관련계획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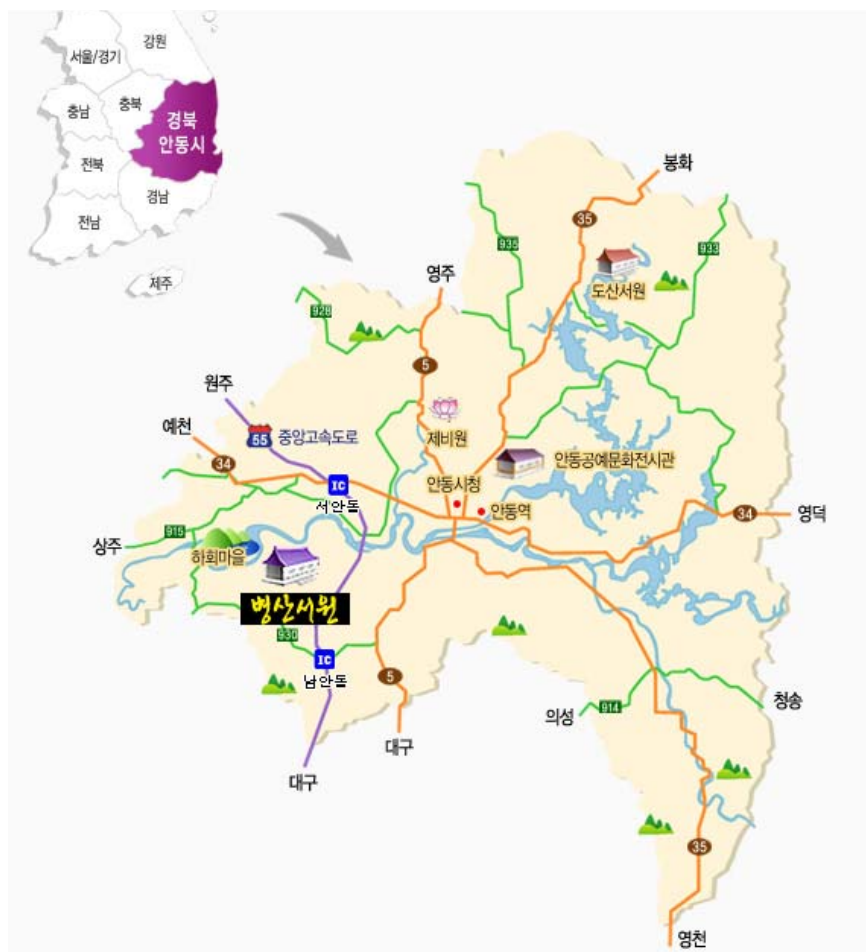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1. 자연지리적 환경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위치하는 서원으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5~1607)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주산主山인 화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풍산豐山 류씨柳氏 집성촌인 하회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화산을 등지고 병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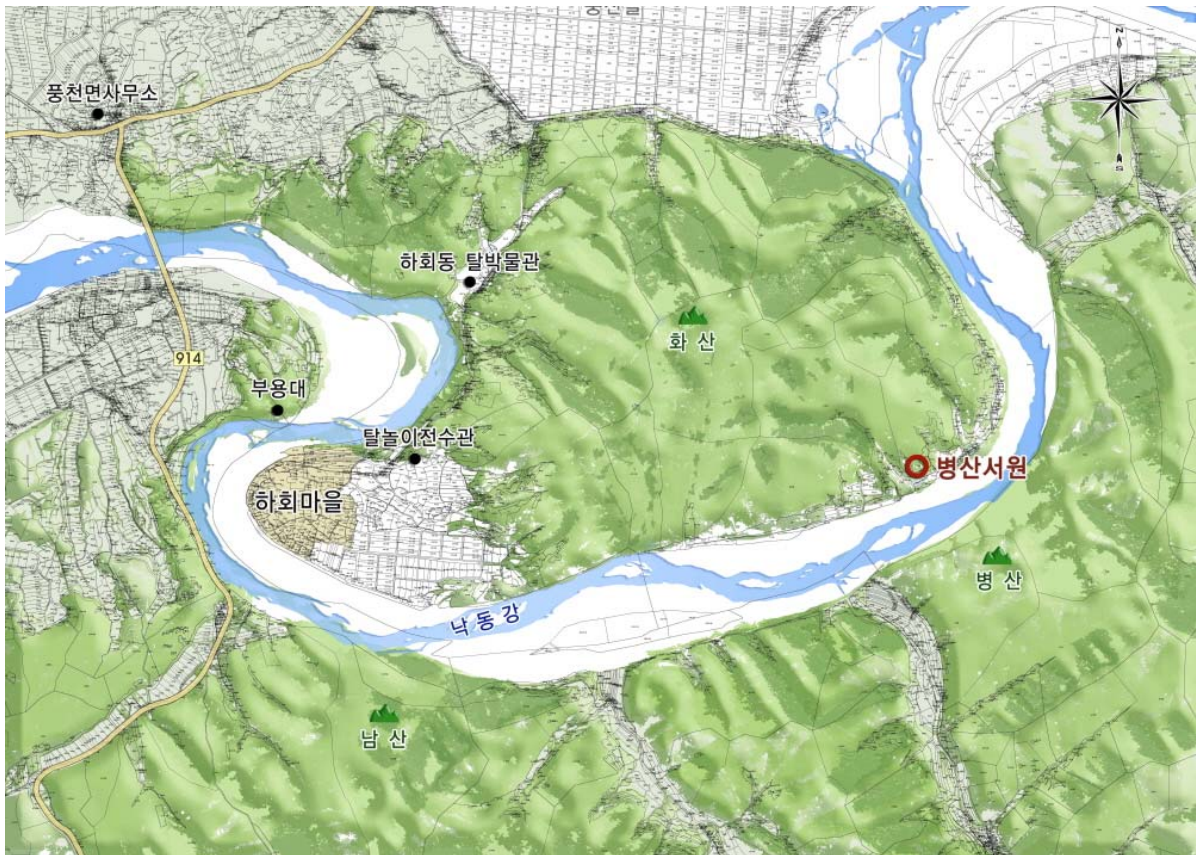
병산서원은 풍산읍에서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국도에서 화산의 북쪽을 한 바퀴 도는 형태로 분기된 임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임도는 1985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으로 병산마을까지 개설된 2km 정도의 비포장도로이다.



병산서원의 지리적 위치(<http://www.byeongsan.net>)

병산서원은 병산마을 중에서도 서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주변 지형 중 제일 높은 지반에 낙동강을 바라보며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병산서원 앞으로는 백사장과 낙동강, 강 건너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병산屏山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병산의 암벽은 매우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는데 이는 안동 일대의 두 개의 큰 산인 학가산鶴駕山과 일월산日月山의 지질이 확연히 다른데서 오는 차이이다. 즉 병산서원 북쪽에 위치한 학가산계 지질은 누런 사암층인데 반하여 낙동강 건너 위치한 일월산계 지질은 붉은 단층의 암벽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계열의 지질이 만나는 지점에 일월산계의 병산을 바라보며 학가산계의 사암층 위에 병산서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병산서원의 주산은 학가산과 일월산인데, 두 산은 백두대간에서부터 이어지는 태백산계가 일월산계에 이어지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가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서원 뒤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으로 이어지며, 일월산계의 중심인 일월산은 원지산을 지나 병산서원이 바라보이는 안산案山인 병산에 마치게 된다. 일월산계와 태백산계가 이르는 두 지맥사이로 낙동강이 흐르며, 이들 산계가 마치며 대응되는 곳에 병산서원이 위치한다. 1)



병산서원 주변 위치도

병산서원은 풍수상 '연화부수형'으로 서원의 전형적인 입지방식인 풍수지리에 입각한 명당이다. 조산인 학가산에서 시작한 지맥은 풍천면 일대의 줄기를 지나 화산에서 꽃을 피우고 꽃의 수술에 해당하는 정혈定穴에 서원이 위치하게 된다.²⁾ 또 병산서원의 입지를 '밀개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에서

1) 문희춘, 「屏山書院의 晩對樓」에 보이는 視覺體系와 그 意味에 관한 研究, 1998,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2

2) 이승희, 「전통조경공간에 나타나는 美意識에 관한 연구」,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6

서로 흐르는 강을 동쪽의 강한 산세가 급히 떠미는 형국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지형은 강물이 실어 오는 땅의 기운이 쌓일 틈이 없어서, 이곳은 양반지주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지만 서원의 입지로는 최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한적한 분위기는 교육환경에 적합함은 물론이고, 행정권(안동부)으로부터의 격리를 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³⁾ 더욱이 유급하지 않고 빨리 졸업해야하는 학생들의 희망과도 맞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1-2. 인문사회적 환경

1-2-1. 조선시대 서원



성균관 명륜당



강릉향교

유교를 치국 이념으로 내세워 유교 정치를 펼쳤던 조선왕조의 교육기관으로는 관학(官學)으로서 성균관(成均館), 사부학당(四部學堂), 향교(鄕校) 등이 있었으며, 사학(私學)으로서는 서원(書院), 서당(書堂), 정사(精舍) 등이 있었다. 관학 가운데에 성균관은 후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부학당과 향교는 시대에 따라 쇠미해지고⁴⁾ 사학 교육기관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봉화 가평리계서당



안동 하회검암정사

3) 이호, 「韓·中 書院建築의 比較研究」, 2012,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9

4) 조선 중기 16세기이후 향교는 과거 준비의 장으로 변질되어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양식 있는 선비들은 관학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관들도 향교를 떠나 학문에는 뜻이 없고 벼슬에만 관심 있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사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서원은 이러한 기능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가 된 곳이었다. 이와 같이 서원은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세력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⁵⁾

서원의 명칭은 원래 당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정의 도서관 혹은 개인의 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나라 현종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는 서적만을 편수하였으나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사숙私塾에 서원의 이름을 사명賜名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칭이 되어 수양서원睢陽書院·석고서원石鼓書院·악록서원嶽麓書院·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의 4대 서원이 생겼으며, 주자朱子가 강론하던 백록동서원이 특히 유명하였다.⁶⁾

한국의 서원은 신라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사학교육私學敎育과 고려시대부터 발생하여 세워진 사묘제도祠廟制度가 결합하여 성립된 사학교육기관으로, 서적을 수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이미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으나, 소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과 세종의 사학장려책에 힘입어 고려 말 이래로 발전해 온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의 사학이 한층 융성하여 유학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다.

사학과 사묘가 각각 발전해 오다가 조선 연산군 이후 지방 사림의 발전과 주자 숭배사상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542년(중종 37)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안향安珦(1243-1306)의 고향인 순흥에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당 앞에 학문을 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소수서원)'을 건립하여 한국 최초의 서원이 성립되었다.



안향



백운동서원(소수서원) 전경

이러한 서원은 명종 때까지는 건립상황이 미미한 상태였으나, 17~18세기에 양반관료 사이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당自黨의 선사先師, 선배를 경쟁적으로 봉사하면서 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서원이 남설濫設되기 시작하면서 수적 증가에 반비례해 질적 하락을 가져오면서 서원에 대한 폐단과 비판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고종 8년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게 되어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5)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7.

6)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6.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서원명	지정별	주향인	소재지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60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	1570	1566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	1522	1575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 의정부	1695	1697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30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	1687	1742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	1627	1687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	1695	1700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488	문경공 김광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	1605	1607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170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	1574	1575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	1634	1660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	1615	1696
문회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	1599	1628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	1613	1863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	1695	1696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	1725	1726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19	홍유후 설 충(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	1561	1623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55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경북 영주	1543	1550
송양서원(松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	1573	1575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	1650	1650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52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	1714	1789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154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	1573	1574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	1691	1752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10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	1648	1675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	1685	1699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耆)	강원 김화	1650	1652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10	문간공 성 훈(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	1568	1650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	1590	1662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	1702	1705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	1785	1785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	1841	1841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尙 書 石 星)	평남 평양	1603	1709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鄉侯 諸葛亮)	평남 영유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	-	-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	1717	172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	1642	1658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	1606	1624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	1614	172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	1697	1727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	1681	1682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	고려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	1601	1603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	1665	1668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	1738	1738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蓄)	평북 정주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	1731	1736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	1688	1693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	1691	1701

조선시대 건립 기록이 남아있는 서원은 935곳인데, 그 중 경상도가 352곳(37.6%), 전라도가 194곳(20.7%), 충청도가 111(11.9%), 경기도가 83(8.9%) 등으로 경상도의 건립 서원수가 월등히 많다⁷⁾. 이는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이래, 초창기 이황李滉은 서원 건립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이황은 향교鄕校와 국학國學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科擧와의 관련에서 올바른 학문에 심잠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세주의나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떠나 순수한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서원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서원이 이황과의 관련 속에서 건립되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건립에는 크게 인적 환경요소와 지리적 환경요소 2가지의 장소성이 나타난다.⁸⁾ 첫째, 인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로 한정되거나, 주향자 자신이 세운 강학장소가 서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지리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은둔적 성향이 강하고, 풍수지리상 풍광이 빼어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부분의 서원은 주향자와 관련이 있는 산기슭이나 중턱에 배산임수背山臨水 혹은 배산背山 임야臨野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들 서원중에는 옥산서원, 남계서원처럼 조선시대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典型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가 하면, 필암서원, 흥암서원처럼 전형적인 배치 형식을 변화시켜 새롭게 구성한 예, 수림서원, 죽정서원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를 보이는 예도 있다. 또 많은 서원들은 병산서원, 도동서원처럼 서원을 앉힐 땅과 그 주변 자연경관을 잘 이해하며 해석하여, 그 속에 자연과 어울리는 탁월한 건축 공간을 엮어내고 있다.

이들 서원은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며, 동시에 주변환경이 서원의 한 부분이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되게 한다. 건축은 그것이 들어서는 터, 즉 장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다. 그 중에는 도산서원, 목계서원, 화양서원처럼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1130-1200)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연상케 하는 입지를 갖춘 계곡이나 강을 낀 곳을 찾아 세운 서원도 있다. 이러한 서원들은 모두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되어 되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 한국 서원건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⁹⁾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읍내에 위치하여 번잡한 곳이 아니라 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다.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해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이는 유생들이 산수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7) 최미경, 「영남지방 書院樓의 건축계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6.

8) 옥선호, 「서원건축의 立地와 向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동서논문집, 2002, p.376.

9)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9.

전형적인 배치 형식		전형에서 변화된 배치 형식	
			
옥산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흥암서원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 형식		주변 경관에 부합된 배치 형식	
			
수림서원	죽정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

조선시대 서원의 배치

1-2-2.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¹⁰⁾

조선시대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 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이 지녔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서원의 고유 기능은 역시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였다. 그리고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 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 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상징적 기구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

10) 『서원 보존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p.10-12.

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자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유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경서經書를 기본으로 유가儒家, 역사歷史, 전기傳記 등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 된 도서 외에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 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 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 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和 ‘천리절문天理節文’의 예禮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泉石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서원 전면에 생기 있는 안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자연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1-2-3. 서원과 안동문화

안동에는 유독 서원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성(盛)할때는 원우(院宇)가 62개소였고 지금도 26개소가 남아있고, 사우(祠宇)마다 춘추(春秋)로 향사(享祀)를 치르고 있다. 문헌상에 기록된 안동지방의 원우는 62개소나 건립되었는데, 그 중 건립시기를 고증할 수 있는 것은 선조 때 5개소, 광해군 때 4개소, 인조 때 1개소, 현종 때 3개소, 숙종 때 12개소, 영조 때 3개소, 정조 때 10개소, 순조 때 3개소, 철종 때 2개소 등 모두 43개소이다. 그러나 고종 때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은 훼철(毀撤)되었으며, 그 후에 복설한 서원이 13개소, 신설이 2개소, 사우나 강당이 현존하는 원우는 모두 26개소이다.

안동은 우리 민족 오천년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이어 온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써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적인 엄숙성과 전통을 가꾸어 나가고자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안동은 우리 역사상 시대적으로 잘 갈무리된 다양한 문화를 지켜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이 지역의 독특한 풍토에서 나온 것으로써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역은 북으로는 소백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동으로는 태백산맥이 가로막아 외부의 적이나 외래문화의 침입을 막는 요새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과거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보수성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조선조 500년 동안 치국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학의 사상적 흐름 속에 퇴계 이황 선생을 정점으로 한 영남학파는 대의명분과 정의를 중시하였는데, 안동사람들이 지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연구와 양반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 유교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지역으로, 공자에 의해 주창된 유학은 주자에 의하여 집대성되었으며 새롭게 학문적 영역을 전개한다. 이를 성리학 즉 신유학이라 하는데,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신유학이 조선조 500년을 지탱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의 유학자가 이 지역에서 배출되어 성리학적 문화전통의 중심이 되는 영남사림의 줄기를 형성하고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 와서 완전한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 후 퇴계의 학맥인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은 자신들만의 학문적 세계를 넓혀 영남학파의 근간이 되며 안동사람의 기질로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동의 선비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고 덕성을 기르는 인격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학자적 긍지를 지켜왔다. 선비가 지녀야할 덕목으로써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생활화하며 선비의 높은 도덕률로 양반의 체통을 지켰다. 그들은 대의명분을 따져서 이에 순할 수 있는 의리와 용기와 지조를 가지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철저한 유교적 충효관으로 국가와 가문, 사회에의 공헌을 귀중히 여겼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적 교육기관(官學)으로 중앙에 성균관을 두고 지방인 주, 부, 군, 현에 각각 향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러 관학이 그 권위와 학문적 역할을 상실하고 빈번한 사화에 따라 중앙 관계에 진출해 있던 사대부들이 지방의 연고지로 낙향하여 자연 속에

은둔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풍토가 성함에 따라 사학인 서원이 융성하게 된다. 관학인 향교가 행정의 중심지인 관아에 접해있거나 도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서원은 행정권력과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아수양을 추구할 목적으로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교외의 물가나 산 속에 자리 잡았다. 퇴계 이황은 도산서원을 건립하면서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경개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만큼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했다.

선비들에게 배움으로서의 학문은 출세나 현실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성선설性善說 즉 사람은 도덕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되 아직은 미완성의 존재인 채 태어난다고 믿었던 유학자들에게 배움은 그러한 미완성의 존재인 인간이 완성을 향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특히 추구해야 할 진리가 높은 먼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사람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학자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경험이 다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독서와 강학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로를 계발시키고 분발하는 학교의 공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경향 각지에 걸쳐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등 공사립의 다양한 등급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학적 지식인인 선비를 양성하고 세련되고 깊이 있는 유교 문화를 기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서원이었다. 조선사회는 선비들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었고 선비들은 교육을 통해 길러졌으며, 선비 양성의 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서원이었다.

1-3. 역사문화적 환경¹¹⁾

병산서원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 류성룡의 문집 등 1,000여 종 3,0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1978년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병산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1868년)에도 훼손撤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병산서원은 류성룡이 타계하고 6년 후인 1613년(광해 5)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1563~1633)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존덕사를 창건하고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그 이듬 해에 완성되었다. 본래 서원의 전신은 고려 말 풍산현에 있던 풍산류씨의 교육기관인 풍악서당豐岳書堂이었는데, 1572년(선조 5)에 류성룡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1620년(광해군 12)에는 류성룡의 도가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존도사尊道祠에서 철식膾食¹²⁾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림의 공론에 따라 임천서원臨川書院에 있던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위판位版과 함께 류성룡의 위판을 퇴계 이황을 모시는 여강서원廬江書院¹³⁾으

11) 『書院享祀 병산서원·옥산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1~13.

12) 학덕이 높은 유학자나 신 가문의 조상 등의 신주(神主)를 문묘(文廟)·서원·사우(祠宇) 등에서 주벽(主壁) 좌우에 봉안하여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3) 여강서원은 호계서원의 전신으로 1573년(선조6) 지방유림의 공의로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안동 월곡면 도곡동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서원이다. 1676년(숙종 2)에 ‘호계(虎溪)’라 사액되었으나, 이황은 도산서원, 류성룡은 병산서원, 김성일은 임천서원으로 각기 주향으로 모심에 따라 호계서원은 강당만 남게 되었다.

로 옮겨 동·서로 나란히 배향配享하였다. 그러나 서애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1627년(인조 5)에 이르러 서애의 위패를 다시 존덕사로 옮겼는데, 이 당시 많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선생이 머물렀던 곳에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병산屏山·담로湛盧는 한 읍에 두 개의 서원으로서 '건녕建寧의 고사'가 있다고 하면서 위판을 다시 병산서원에 봉안한 것이다.¹⁴⁾ 이전에는 스승과 제자를 모신 사당을 한 부府에 둘이나 두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라 병산서원에서 봉안하던 서애의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겼던 것인데, 이 때에 와서 중국 주자의 고사를 들어 위패를 다시 병산서원으로 옮긴 것이다.

병산서원은 1863년(철종 14)에 사액賜額되었는데, 그 해 10월 30일에 교리校理 이계노李啓魯가 임금을 만나는 자리에서 청액請額하는 소疏를 올렸고, 비변사에서 선택宣額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12월 8일에 철종이 승하하여 편액은 받지 못하였다.



병산서원 전경(『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1)

14) 건녕은 주자가 잠시 살았던 곳으로 병산의 주자(朱子)의 스승 유자휘(劉子翬)의 서원이고, 담로는 주자의 서원이다.

2. 관련계획 및 법규

2-1. 관련계획 검토

2-1-1. 도시계획 검토

1)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본 계획은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의해 세워진 계획으로서, 6대 기본 추진 전략 아래에서 권역별·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은, '산업과 문화, 첨단과 전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도산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는 '문화세기를 선도하는 민족고유의 문화 관광산업육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의 성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있다.
- 또한, 개방형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도산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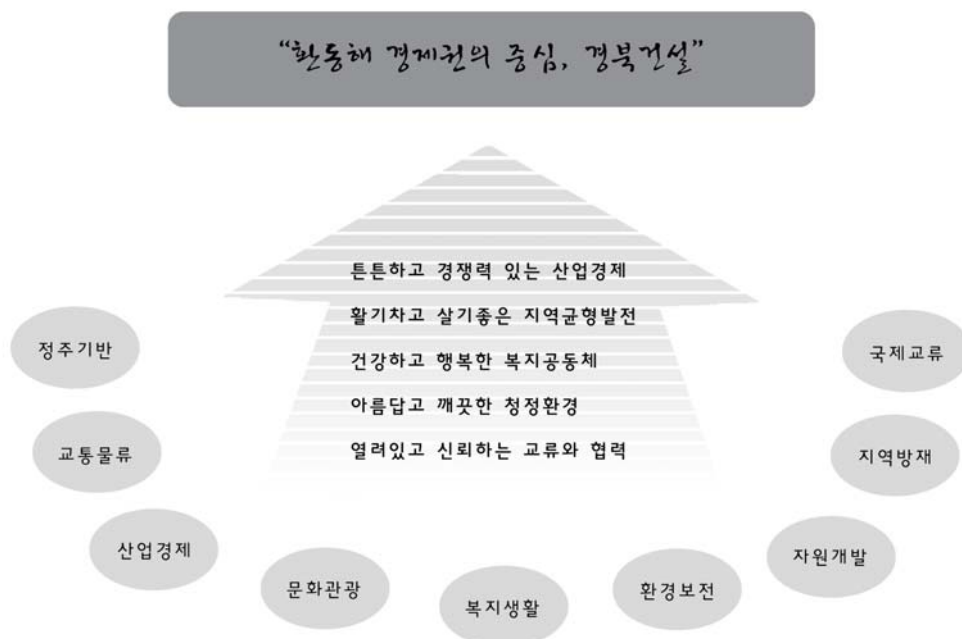
국토형성의 기본골격_국토해양부

2) 2008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본 계획은 2008년 경상북도 건설도시 방재국에서 세운 계획으로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도 단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시키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것이다.
- 계획은 향후 12년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에 걸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시군별 발전방향등을 제시하고있으며, 세부추진전략 가운데 '한국 속의 문화관광지대 조성'은 도산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을 포함한다.
- 경상북도는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지정하여 이에 어울리는 거시적차원의 복합적 관광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관광중심지 재정비 및 관광명소 발굴·육성, 지역밀착형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안내시설 및 홍보서비스 체계 정비이며, 도산서원은 기지정된 문화재로서 재정비, 보완의 대상이 된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계획의 비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경북건설
기본목표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환경 열려있고 신뢰하는 교류 협력
추진전략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와 자유화 각종 권한의 지방 분산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정보화의 진전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식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된 21세기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지역으로 육성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이념과 기초

3) 2016 안동도시기본계획(1998-2016)

- 본 계획은 1998년, 안동시청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 편리하고 안전한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목표 가운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도시 만들기'가 있으며, 세부발전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전통을 바탕으로 신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 지역특성을 살린 잠재력 있는 환경이 조화된 도시
 -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민문화 교류가 활발한 도시
- 부문별 관광계획을 통해 안동시는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하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함으로써 특색있는 문화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도산서원에 대한 활용이 양호한 보존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문화유산등재작업의 보전관리 원칙과 상응하는 부분이다. 또한 도산서원의 유·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유교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각 자원별 특성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발한 활용을 도모함
 - 둘째,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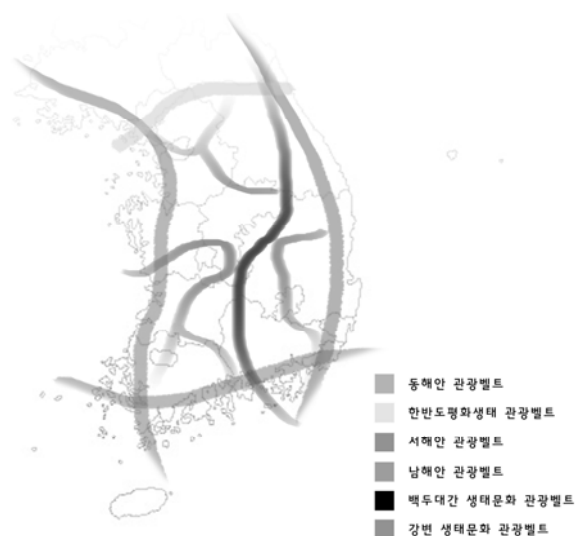
2-1-2. 관광계획 및 관련사업 검토

1)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이 계획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산업국이 세운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 관광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목표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고, 대구·경북관광권의 경우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으로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컨텐츠를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실현하며, MICE산업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육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광역관광권 (16개 시도관광권 포함)



초광역 관광벨트 (계획권역 보완)

2) 2000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이 계획은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북부에서 2000년부터 2010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이다. 본래 2011년에 재수립 되어야 하였으나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0년 계획을 살펴보면 경북북부 지방을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탁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발굴·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북북부지방에 집중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새로운 관광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과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
- 도산서원 인근 지역을 도산서원과 유사한 유교생활문화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후 도산서원 주변 환경이 급격한 도시화 등 대상지를 위해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2012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 ~ 202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이 지닌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 낙동강 등이 어우러진 녹색자원, 화랑, 선비(양반), 새마을, 불교문화 등 한국정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북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Korea in korea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경북관광의 비전을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로 설정하였다. 4대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로 설정하였다. 이는 도산서원이 가진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 경북 새천년 만들기-21세기 신경북 비전(1995 ~ 2020년)

■ 다시 찾고 싶은 『관광경북』 구현

-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3대 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구축
-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주력
-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을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
- 경북의 정체성 정립과 향토문화 사랑운동을 전개

경상북도 관광개발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실적
숙박휴양거점 조성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지구의 시행 중인 사업은 조성공사 추진과 기반조성공사 완료로 원활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편의시설 사업 등 공공분야의 기반시설의 원활한 투자로 숙박시설, 상가 등 민자유치가 활발
문화관광루트개발	시·군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진입도로, 주차장 및 화장실, 탐방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과 교통접근성 향상에 기여
중점정비	전통마을중점 정비, 유교문화자원 정비, 전통가옥 정비, 청송덕천마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
관광지개발	휴양단지 조성, 마을정비개발, 박물관건립, 공원조성 등 중점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자진행
문화자원 정비보수	유교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유교·불교·역사문화자원에 중심으로 서원이나 향교의 정비·보수사업과 각종 성역화, 공원화 사업을 비롯, 각종 유적지를 보수·정비
안내센터설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휴양거점, 집중지역, 터미널,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축제활성화 및 연계도로망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주요 지역축제의 신규발굴 및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 발전유망 축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고, 접근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사업추진

2-2. 관련법규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 토지이용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2-2-1. 토지이용 관련법규

1)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 의 건축제한)	<p>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p> <p>[별표 22] <개정 2009.7.16></p> <p>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시설·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2)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 의 건축제한)	<p>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p> <p>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2</p> <p>【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단서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08. 05></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8. 05></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개정 2011. 08. 05></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개정 2011. 08. 05></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1. 08. 05></p>

2-2-2. 문화재 관련법규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 관리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 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p>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제20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1)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안동시에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05. 10>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동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지역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지역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문화유산 지정·해제 등)	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05. 10> ②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유산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그 기록을 수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0> ④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10>
	제12조 (보존관리)	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점검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개정 2006. 05. 10> ②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제14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05. 10>

2)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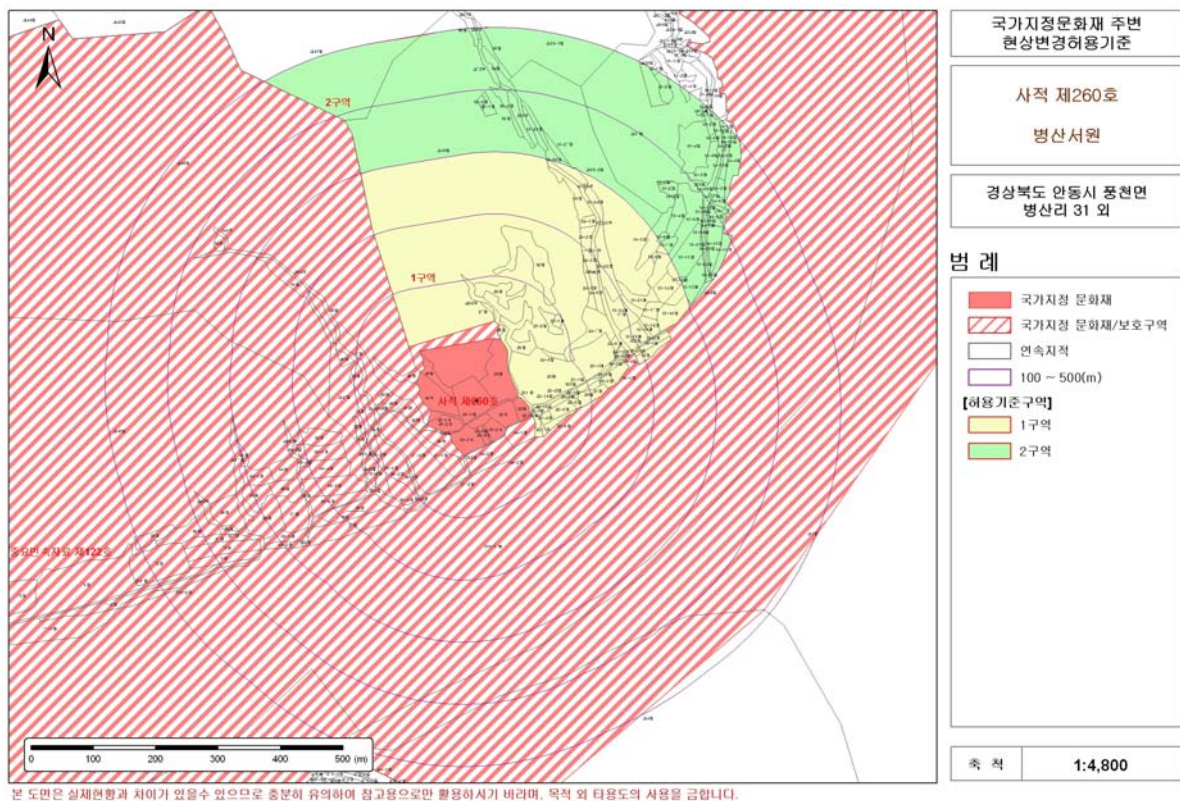
안동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시장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 (유산의 지정서)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2-4.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산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안동 병산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	
1 구 역	○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전통한식지붕에 한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Ⅲ. 병산서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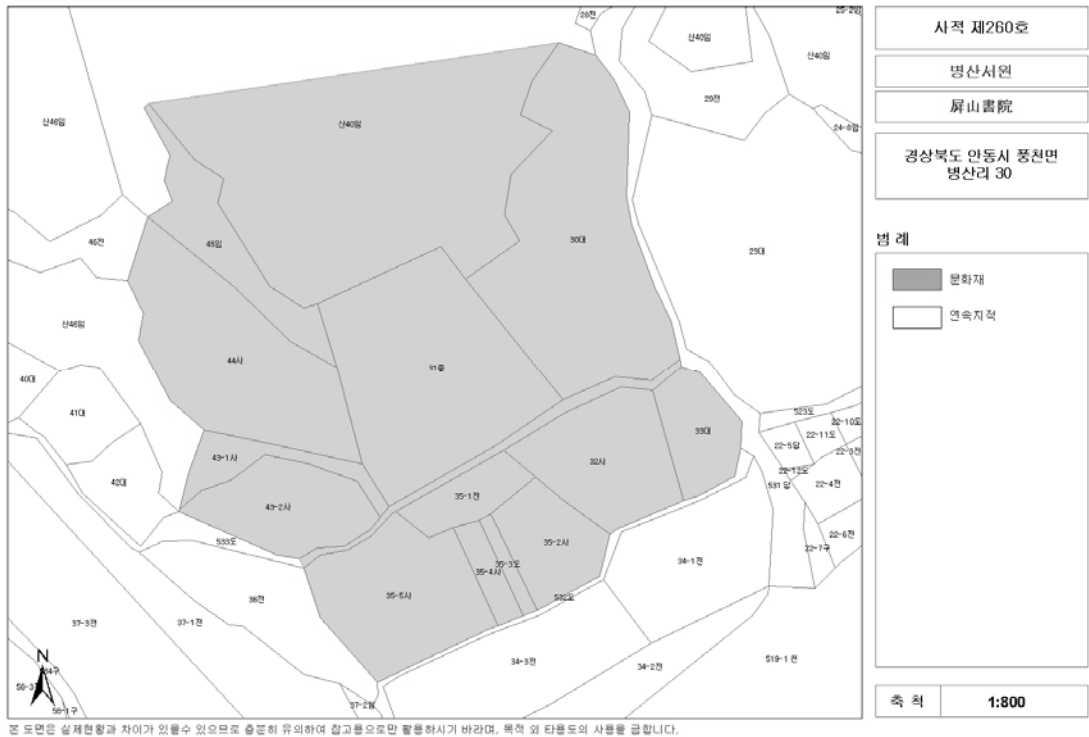
1. 병산서원의 개요
2. 병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3. 서원현황
4. 관리현황
5. 활용현황



Ⅲ. 병산서원의 현황

1. 병산서원의 개요

일 반 현 황	명 칭	안동 병산서원(安東 屏山書院)
	건립년도	1614년(광해군 6)
	사액년도	1863년(철종 14)
지 정 현 황	종 목	사적 제260호
	분 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면 적	보호구역: 143,434㎡ 지정구역: 22,562㎡ 서원경내: 3,019㎡
	지정(등록)일	1978년 03월 31일
	소 재 지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좌표 : N 36°35'49", E 128°33'93"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병산교육재단
	관리자(관리단체)	안동시
	지정구역내 지정문화재	배롱나무(안동시지정보호수) ·지정일 : 2008년 4월 7일 ·수령 : 380년 ·수고 : 8m ·나무둘레 : 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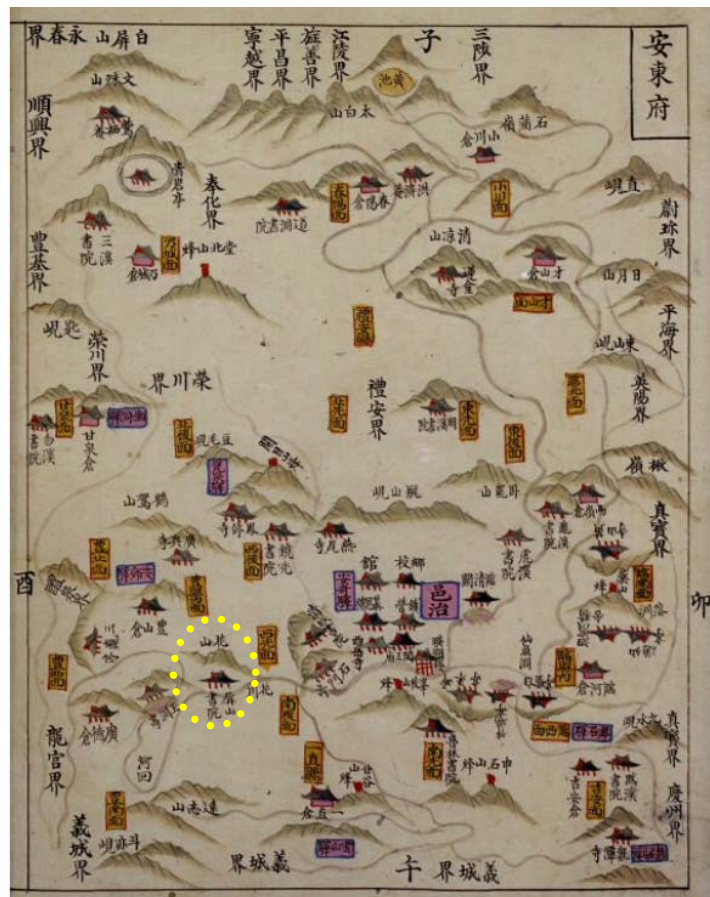
병산서원 문화재구역도

2. 병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2-1. 병산서원의 연혁

2-1-1. 병산서원의 건립

병산서원 屏山書院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원으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과 그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珍(1582~1635)을 함께 배향하고 있다. 지금의 풍천면은 조선시대까지 경상도 안동부의 속현屬縣인 풍산현豊山縣으로 존재했던 고을인데, 풍산현은 1608년 편찬된 『영가지永嘉誌』에서 확인되듯이 병산서원이 건립될 무렵에는 임하현臨河縣·길안현吉安縣·감천현甘泉縣·내성현柰城縣·일직현一直縣·춘양현春陽縣·재산현才山縣 등의 속현과 개단부곡皆丹部曲·소천부곡小川部曲 등의 부곡과 함께 안동부의 임내任內로 존재하였었다.



광여도 경상도 안동부(규장각한국학연구원)

풍산현이 위치한 안동부는 일찍이 인근 예안현禮安縣 출신의 명유名儒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영향을 받아 16세기 이래 영남을 대표하는 사림士林과 학자들을 다수 배출시킨 고을로, 이와 맞물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사림의 강학 및 교화 장소인 서원이 건립되었다. 퇴계 자신이 주도하여

예안현에 우탁禹倬(1263~1342)을 배향하는 역동서원易東書院을 건립하였고, 그 영향으로 안동부 거의 전역에 서원을 비롯한 서당書堂·서재書齋·정사精舍 등이 건립되었던 것이다. 『영가지』에서 확인되는 당시 안동부의 서원·서당·서재·정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영가지」에서 확인되는 안동부 서원·서당·정사 현황

명칭	위치 및 배향 인물	설립자
여강서원 (蘆江書院)	부(府) 동(東) 여산촌(廬山村) 백련사(白蓮寺) 옛 터 이황, 김성일(金誠一), 류성룡 배향	이황 문인, 지방 사림
삼계서원 (三溪書院)	내성현(奈城縣) 사현(沙峴) 권벌(權撥) 배향	지방 사림
병산서원 (屏山書院)	풍산현	류성룡 문인, 지방 사림
풍악서당 (豐岳書堂)	풍산현 북	류성룡
양파서당 (陽坡書堂)	부 동	이인(里人)
도생서당 (道生書堂)	임하현 본곡리(本谷里)	
팔우서당 (八耦書堂)	임하현 검암(儉巖)	배용길(裵龍吉)
용천서당 (龍泉書堂)	용정산(龍井山) 동 물야촌(勿也村)	
이계서당 (伊溪書堂)	부 북(北) 이화어촌(伊火於村)	권대기(權大器)
서간서당 (西澗書堂)	부 북서(北西) 가촌(可村)	이한(李漢)
지양서당 (芝陽書堂)	부 북 마암촌(馬岩村)	정사성(鄭士誠)
경광서당 (鏡光書堂)	부 서(西) 금야촌(金也村)	
가야서당 (佳野書堂)	부 동 가야남록(佳野南麓)	김언기(金彦璣)
옥병서재 (玉屏書齋)	임하현 낙연(落淵)	
용협서당 (龍峽書堂)	임하현 나천촌(羅川村)	
면제서당 (面提書堂)	일직현	현인(縣人)
귀담서당 (龜潭書堂)	일직현 구미촌(龜尾村)	류경심(柳景深), 장대보(張大輔) 김수일(金守一), 이입중(李中立) 이종선(李種善)
봉산서당 (鳳山書堂)	감천현 진장동(珍藏洞)	이개립(李介立)
청성정사 (靑城精舍)	청성산(靑城山) 하(下)	권호문(權好文)
한서정사 (寒棲精舍)	부 서 송파리(松坡里)	권호문
석문정사 (石門精舍)	성산(城山)	김성일
겸암정사 (謙巖精舍)	풍산현 하회(河回)	류운룡(柳雲龍)
원지정사 (遠志精舍)	풍산현 하회	류성룡
옥연정사 (玉淵精舍)	풍산현 하회	류성룡

풍산현은 비록 안동부의 속현이었지만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퇴계의 대표적인 제자인 류성룡을 비롯하여 그의 일족이 거주하였기에, 이들이 주도한 서원 등이 적지 않게 분포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병산서원 건립 배경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영가지』에 수록된 풍산현의 강학 장소 중 풍악서당豊岳書堂은 바로 병산서원의 전신이다. 처음 서당으로 만들어졌다가 대략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서당형태를 벗어나 서원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풍악서당은 16세기에 건립되었다. 다만 일설에는 고려시대에 풍악서당이 건립되었으며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올 때 이곳을 지나다 난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책과 토지를 내려 격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이는 실상이 아니다. 『영가지』 권4의 '서원' 편에는 풍악서당과 병산서원의 내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豊岳書堂 在豊山縣北一里 嘉靖癸亥創立 生員權景綰等上疏 仍賜學田 其後西厓柳成龍以院在路傍 不合於藏修之所 勸諸生移卜于屏山

풍악서당은 풍산현 북쪽 1리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가정嘉靖 계해癸亥(1563년)에 창립되었다. 생원生員 권경전權景綰 등이 상소上疏하고, 이로 인하여 학전學田을 내려주었다. 그 후 서애 류성룡이 서원이 노방路傍에 있어 장수藏修의 장소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여러 학생들에게 권해서 병산屏山으로 이복伊卜하였다.

屏山書院 本豊岳書堂 在花山屏山之間 對截壁臨長淵 最爲奇絶 萬曆壬辰爲賊兵所焚 乙巳移建于南岡子坐午向之基

병산서원은 본래 풍악서당으로 화산花山과 병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절벽을 마주보고 있고 장연長淵을 임하여, 가장 기절奇絶하다. 만력萬曆 임진壬辰(1592년)에 적병에 의해 소실되어, 을사년乙巳年(1605년)에 남쪽 뒷부리 자좌오향子坐午向의 터로 이건하였다.

『영가지』에 수록된 두 기록에 따르면, 1563년(명종 18) 최초 풍악서당이 풍산현에 건립되었음이 나타난다. 건립 주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곳이 풍산 류씨가 연고를 가진 곳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주축이 되어 가문 및 향촌의 자제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건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때의 풍악서당은 조선후기의 서당들처럼 초보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향교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지역 청·장년층이 출입하며 과거 준비 등의 공부를 하던 장소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표에 나오는 다른 서당·서재·정사의 예와 같이 해당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가 건립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풍악서당은 생원 권경전 등 풍산 지역 사림의 상소로 조정으로부터 학전을 하사받게 되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가지는 풍악서당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지 않은 반대도 있었다. 뒤에 여강서원의 원장 김언기金彦機(1520~1588)가 안동부사에게 풍악서당에 학전을 지급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것을 여강서원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후 풍악서당은 류성룡 주도로 건물의 위치를 병산 쪽으로 옮기게 된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옆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이 조용하게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즉 서당 이건은 풍산의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면서 류성룡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이에 류성룡이 병산의 경치가 뛰어난데다 사람의 왕래도 없어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 판단하여 병산을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듯하다. 류성룡의 문집인 『서애집西厓集』 권1에 수록된 시) 「시풍악서원유사示豐嶽書院有司」에는 당시 류성룡이 가지고 있던 서원 이건의 뜻이 나타나 있다. 서당 이건에 있어 류성룡의 영향력과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때가 1572년(선조 5) 경으로 이후 서당은 이름을 병산서당屏山書堂으로 고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병산서원으로 탈바꿈하는 발판이 되었다.

풍악서당에서 병산으로 옮겨진 서당은 어느 시점 서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도중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건물이 전소되는 우환을 겪게 된다. 이에 지역 사람들이 서당 중건을 논의하게 되었고, 1605년(선조 38) 지금의 위치인 뒷부리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서원 건립 논의는 류성룡 사후 2년인 1607년(선조 40)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건립을 주도한 것은 류성룡의 문인들이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안동 지방 사림의 지원을 받아 병산서원 건립을 주도한 것이다. 그들은 류성룡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를 제사지내기 위해 1613년(광해군 5) 8월 1일 병산서당 뒤에 사당을 세워 존덕사尊德祠라 이름을 짓고, 그 이듬해인 1614년(광해군 6)에 완성하여 위판을 봉안함으로써 제사기능과 교육기능을 겸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류성룡의 대표적인 문인인 정경세鄭經世(1563~1633)를 비롯하여 안담수安耽壽·김윤사金允思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풍악서당에서 출발한 병산서원은 병산서당을 거쳐 명실상부한 서원으로 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2-1-2. 위패의 이봉移奉과 복향復享

류성룡의 위패는 1620년(광해군 12) 이황이 배향된 여강서원¹⁵⁾의 위패와 함께 류성룡의 위패를 합향合享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동안 서원의 기능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같은 고을에 동일한 인물의 위패를 복수로 모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류성룡의 대표 문인이었던 정경세는 임천서원臨川書院에 배향되어 있는 김성일의 위패와 함께 류성룡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나란히 합향할 것을 모색하였다. 여기에는 평소 안동부 내에 서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걱정했다는 류성룡의 유지도 한 명분이 되었는데, 실상 17세기 초반 안동권 일대 퇴계 이황의 적전嫡傳을 둘러싼 지역 사람들의 경쟁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5) 조선 선조 6년(1573)에 월곡면 도곡동에 여강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처음에는 퇴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다가 광해군 12년(1620)에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두 분의 위패를 함께 모시게 되었다. 숙종 2년(1676)에 임금으로부터 ‘호계’라는 이름과 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없어졌다가 7년 뒤에 강당만 새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3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다시 지었다.



여강서원(호계서원, doopedia.co.kr)

여강서원은 1575년(선조 8) 안동부에 건립된 서원으로 예안현의 도산서원과 더불어 퇴계학파退溪學派의 양대 본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위상과 도통의 전수관계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원향院享, 즉 서원 배향자의 속성은 문인들의 추향의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정경세 등에 의해 거론된 류성룡·김성일의 합향론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김성일·류성룡은 여강서원 합향이 발론되기 전에 이미 각기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에 배향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두 문인들이 양인의 합향에 부심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1614년(광해군 6)에 있었던 조목趙穆(1524~1606)의 도산서원 종향이였다. 비록 조목의 도산 종향이 대북大北 정권의 지원에 힘입은 혐의는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조목이 퇴계 고제高弟로서의 입지를 선점했다는 의미는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은 류성룡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정경세 등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류성룡의 문인임과 동시에 정경세의 문인이었던 김봉조金奉祖(1572~1630)는 이러한 정경세의 의중을 잘 헤아리고 1619년(광해군 11) 류성룡과 김성일의 여강서원 합향을 타진하게 되었고, 이에 정경세가 적극 호응하였다. 아래의 편지는 정경세의 문집인 『우복집愚伏集』 권11에 수록된 「답김효백봉조答金孝伯奉祖」로, 정경세가 김봉조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를 통해 합향론의 과정과 명분을 간략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평소에 서애 선생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있으니, 옥연玉淵과 서동西洞에서 한가로이 모시고 있을 때, 매번 본부本府(안동부)에 서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걱정하시면서 “끝내는 반드시 난처한 걱정이 있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이는 먼 뒷날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무신년戊申年(1608년) 가을에 김윤안金允安, 김태金兌와 함께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모였을 때, 서애와 학봉 두 선생을 여강서원에 함께 향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고하였습시다. 그 뜻은 대개 선생께서 일찍이 걱정하시던 바를 가지고 선생을 존봉하는 일에 시행하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서원의 과다함을 우려했던 류성룡의 유지를 명분으로 합향의 당위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경세·김봉조의 합의와 조율을 거친 합향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1620년(광해군 12)이었다. 그해 10월 여강서원의 원장 김봉조, 임천서원의 원장 정전鄭詮(1569~1639)이 예안현의 도산서원 측에 류성룡·김성일의 여강서원 합향을 알리는 통문通文을 발송함으로써 합향론은 안동권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김봉조·정전이 제시한 합향의 명분은 고제인 류성룡과 김성일을 여강서원에 합향함으로써 서원 첩설의 폐단을 막자는데 있었고, 입향의 형태로 종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도산서원의 유림들은 위치位次의 선후 문제, 위패의 ‘칭선생稱先生’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뜻을 보였으나, 평소 서원의 설립에 따른 각종 폐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향에 찬동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였다. 합향을 두고 도산서원과 향교 등에 전달된 통문이 공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김봉조와 정전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독단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첩설의 방지를 빙자하여 류성룡·김성일을 천양闡揚코자 했던 합향론자들의 속내를 규탄해 마지않았고, 내심 배향을 결정하고서도 종향을 통보한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풍산현 일대에서는 김윤사金允思·김윤안金允安 형제를 중심으로 합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게 되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병산서원에 대한 강렬한 애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강서원 합향은 병산서원 존덕사의 철향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던 바, 병산서원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 형제가 합향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더욱이 김윤안이 여강서원에 단자를 올려 합향론의 중지를 촉구하고, 또 다른 류성룡의 고제인 이준李塹(1560~1635)조차 존덕사 철향의 부당성을 강변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에 정경세가 전면에서 나서 난국 수습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이미 열읍에 합향 일자까지 통지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이견으로 인해 자칫 합향이 무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였다. 이에 정경세는 김윤사·김윤안 형제를 설득하는 편지를 아래와 같이 보낸다.

여강서원에 합향하는 일은 사문의 성대한 거조입니다. 두 노형께서 “병산의 사당을 훼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인정에 있어 절실한 것입니다. 다만 중한 바가 따로 있으니,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양쪽을 다 보존해 두자는 의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두 형제께서 더욱 더 머뭇거리면서 어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향사는 날을 점차 날짜를 알리는 글이 이미 열읍에 두루 돌아서 원근에 사는 선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장차 들뜬 마음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날짜를 뒤로 물리는 거조가 있게 된다면, 비단 일이 아이들 장난처럼 되어 여러 동지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식을 듣고는 놀라면서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쪽에서 존봉하는 논의를 귀일시키지 못하고서 파하였다고 망령되게 생각한다면 어찌 거듭해서 바깥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딸린 이해관계가 적지 않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즉 두 형제에서도 반드시 그 사이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기필하는 일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편지는 『우복집』 권11 수록 「여김이득이정윤안與金而得而靜允安」이다. 이 편지에서는 병산서원 유치론留置論으로 반대론을 무마하고, 공사론公事論으로 합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형제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였다. 이에 정경세는 다시 아래의 편지를 보내 그들을 재차 설득하였다. 아래 편지는 『우복집』 권13 수록 「답병산원장答屏山院長」에서 확인된다.

지금 합향하자는 논의는 바로 두 분 선생을 높이 받들어서 다른 여러 서원들과 차이가 나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사의에 아주 합당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영구히 폐단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상대와 나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지 말고,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말고, 이해가 있고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선생께서 이곳에 있는 것과 저곳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중해지고, 또 높아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일을 따르거나 여기는 것도 두 말할 필요 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향의 취지와 본질이 류성룡 추승에 있음을 기탄없이 설파한 정경세의 이 편지는 반대론의 대표인사 김윤사 형제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로써 풍산현 일대의 반대 여론도 잠잠해지게 되었다. 반대론의 종식으로 합향론도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지만 난관은 남아 있었다. 바로 제향의 등급, 위치位次의 선후문제, ‘칭선생稱先生’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김영은 류성룡·김성일의 합향론이 제기되자, 조목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종향이 마땅하고, 선생의 칭호도 각기 자신의 주원主院에서는 쓸 수 있어도 이향과 병칭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합향론자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제향의 등급에 있어서는 배향을, 위패에도 ‘선생’의 칭호를 쓰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론을 통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통보가 되었다. 여강서원의 원장 김봉조, 임천서원의 원장 정전, 병산서원의 원장 권행가權行可(1553~1623) 등은 도내에 합향 일자를 통보하면서 배향이나 종향이나 그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부향附享’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이들의 의도는 배향에 있었지만, 배향·종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도산서원에 종향된 조목의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기타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게 하였고, 논란 끝에 정경세는 배향으로 확정하였다. 이때 그는 ‘칭선생’ 여부, 원향의 좌차座次 등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종결하였다. 이에 대한 정경세의 생각은 아래의 『우복집』 권13 수록 「답삼서원여강병산임천제사우答三書院廬江屏山臨川諸士友」에서 확인된다.

배향하는 것은 참으로 중한 것이지만 두 선생에게 시행한다면 아마도 과중하다는 혐의는 없을 것입니다. ... 창주정사滄洲精舍는 선성先聖께 석채釋菜를 드리는 곳인데도 주령계周濂溪 이하를 모두‘선생’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런 즉 후학들이 존경하는 칭호는 존귀한 분을 위해 압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라는 글자는 아마도 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이 없을 것을 염려한다면, 남강에서 올린 제문의 규식에 따라‘서애선생류공西厓先生柳公’과‘학봉선생김공鶴峯先生金公’이라고 쓰는 것이 더욱 마땅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좌차는 단지 문묘의 규식에만 의거해야지 다른 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정경세의 소신은 류성룡과 김성일의 경우 배향이 전혀 혐의될 것이 없고, 선생의 칭호는 반드시 써야 하며, 배향할 위패의 자리는 문묘의 좌차에 의거하여 동서로 분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는 통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경세와 김봉조가 배향을 독단했다는 풍문이 돌아, 이들을 비방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심지어 합향 직전까지도 종향으로 알고 행사에 참가했던 300여 명 인사들의 대대적인 항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번복되지 않았다. 결국, 배향·종향 여부 역시,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또한 정경세의 주도하에 배향으로 결정됨으로써 조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여강서원 합향의 최대 난제는 이것 말고도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 문제가 있었다. 같은 배향이라도 동배위와 서배위는 인식상의 차등이 있었고, 동서 위치에 따라 양인의 지위도 판가름 날 수 있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강서원 합향론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류성룡·김성일의 학문적인 조예에 대해 등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관작官爵과 나이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우려가 표명된 바가 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경세는 『우복집』 권13 수록 「답삼서원여강병산임천제사우」라는 편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두 선생의 위차 선후에 대해서는 감히 후학이 망령되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두 선생의 평일 처지에 의거하여 서차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나 상호 간 작위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이의異議가 없을 것입니다.

류성룡·김성일의 나이 차는 근소하지만 관작의 차이는 현격한 바, 마땅히 류성룡을 동배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결국 이 문제는 정경세의 재량에 따라 작위가 우선시되어 ‘애동학서厓東鶴西’, 즉 류성룡이 동배위, 김성일이 서배위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되고 1620년 11월 3일 정경세의 주관하에 여강서원 합향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합향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는 퇴계의 대표적인 제자를 누구로 어떻게 설정하고, 그 권위를 통해 당대 지역 사람들의 지위에 대한 우열을 표방하는 바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1620년 여강서원 합향으로 류성룡의 학적 지위는 퇴계의 대표적인 제자인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병산서원 철향에 따른 후유증은 여전하였다. 당시 정경세와 합향을 주도했던 김봉조에 대한 류성룡 문인 일각의 비판적 시선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김봉조는 동문 결속이 필요하다며, 1628년(인조 6) 이번에는 정경세에게 복향을 건의한 것이다. 정경세는 처음에 첩설을 우려했던 류성룡의 유지를 내세워 복향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끝내 김봉조의 청을 수락함으로써 복향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그리하여 1629년 장현광張顯光(1554~1637)의 자문을 거쳐, 류성룡의 위패를 다시 봉안함으로써 여강서원에 이봉한지 9년 만에 존덕사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었다. 이때 정경세는 김봉조의 청에 의해 복향제문을 지었으며, 이준이 이봉례移奉禮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 이러한 병산서원으로의 복향은 류성룡 문인들의 결속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병산서원에는 처음에 류성룡만 배향되었으나, 1662년(현종 3)에는 류성룡의 셋째 아들 류진의 위

패도 봉안되었다. 류진이 병산서원에 배향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산림^{山林}으로 징소^{徵召}되어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역임하는 등 정치·사회적, 학문적 비중이 높았고, 『서애연보^{西厓年譜}』의 찬과 같이 위선^{爲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병산서원은 주향^{主享} 류성룡, 종향^{從享} 류진의 구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1-3. 병산서원의 사액

병산서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류성룡·류진 부자를 배향하며, 도산서원·호계서원과 더불어 안동권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액은 단순히 조정으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교화 기관으로 인정되어 이름을 특별히 하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교육적 혜택도 있었다.

병산서원의 사액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배향자 류성룡이 남인^{南人}의 핵심 인사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광해군 연간에는 그의 정적이었던 대북^{大北}의 정인홍^{鄭仁弘}(1535~1623) 일파가 집권하였기에 사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는 남인과 대결한 서인^{西人}, 그리고 거기서 분당된 노론^{老論} 일파가 집권하였기에 사액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7~18세기 치열하게 전개된 당쟁^{黨爭} 속에, 서원이 각 붕당^{朋黨}의 지역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반대파의 극심한 견제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병산서원은 17세기 남인 대 서인의 구도로 전개된 예송논쟁^{禮訟論爭}의 중심지로 운영되었기에 그 견제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병산서원의 적극적인 사액 추진은 특정 붕당이 사실상 정권을 독점하고 있던 19세기 이후였다. 먼저 1800년(정조 24) 유학^{幼學} 정광익^{鄭光翊}이 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음이 확인된다. 이를 시작으로 병산서원의 사액 논의는 지속되었다. 특히, 류성룡의 학통을 계승한 류규^{柳圭} (1730~1806), 류태좌^{柳台佐}(1763~1837), 정상리^{鄭象履}(1774~1848)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병산서원의 사액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예를 들어 당시 서원 남설 때문에 금지하고 있던 첩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사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32년(순조 32)에는 영남의 유생 이순발^{李詢發}을 소두^{疏頭}로 하는 1,250인의 연명 상소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사액 건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철종 연간이다. 여기에는 당시 남인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중앙에 진출해 있던 남인계 관료들의 역할이 컸다. 이에 1853년(철종 4) 호군^{護軍} 이동순^{李同淳}(1778~1860)이 상소를 올려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이동순은 퇴계 이황의 후손으로 1807년(순조 7) 문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던 인사였다. 그의 상소 내용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이황과 류성룡의 학통 전수 관계를 설정한 부분으로 “[퇴계의] 급문제현^{及門諸賢} 중 문충공^{文忠公}(류성룡)만이 실로 그 적전^{嫡傳}을 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소의 논리는 이후에 올려지는 상소에도 적용되었다.

1863년(철종 14)에는 교리^{校理} 이계로^{李啓魯}(1828~?)가 조정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계로의 상소에 대해 비변사^{備邊司}에서 합당함을 회계하였고, 국왕의 재가를 얻어 사액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바로 철종이 사망함에 따라 왕이 내리는 새로운 이름의 현판은 받지 못하였다. 사액 서

원이지만 다른 사액서원들처럼 국왕이 내리는 현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지어졌던 '병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우여곡절 때문이다.

2-1-4. 서원 훼철과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위상은 고종 초 집권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1820~1898)의 서원훼철 정책속에서도 지속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양반들의 세력 확장 기반이자 각종 경제적 폐단의 온상이었던 서원 정리 작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국 1871년(고종 8) 3월,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배향자 1인 1원(院) 이외로 첩설(疊設)한 것은 모두 철폐하게 하여 전국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이 모두 훼철되었다. 그러나 병산서원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서원 훼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안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훼철을 피한 서원이 병산서원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류성룡의 후손들이 중앙정계의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있었던 것도 한 몫 한다. 그 중에서도 류후조(柳厚祚)(1798~1876)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류후조는 흥선대원군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1866년(고종 3)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인물이다. 류후조는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 훼철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 될 때, 편지를 흥선대원군에게 보내어 병산서원 훼철 불가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적이 있다.

근자에 사원(祠院)을 훼철하라는 명을 잇달아 내리시니, 참으로 합하(閣下)의 이 거사가 국가를 위하여 서원의 폐단을 깊이 통찰하신 일이라 초야에 있는 몸으로 황송한 마음 이길 수 없사옵니다. 그런데 병산서원의 사액 역시 훼철하는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서원은 지난 날 철종 계해년(癸亥年)(1863년, 철종 14)에 사람들이 사액을 청하는 소를 올려 특별히 윤허를 받은 것임은 온 조정이 다 같이 듣고 본 사실이옵니다. 비록 선하(宣下) 하심은 얻지 못하였으나, 또한 시행하지 말라는 하교도 없었으니, 선대왕의 내리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오늘날 이러한 왕명을 받지 못한 향현(鄕賢)들의 서원과 함께 일률적으로 훼철한다면 자손들의 원통함은 비록 말할 것이 못되오나, 국법을 밝히는 데서 지나쳤다는 한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소생이 비록 보잘 것 없는 위인이오나, 어찌 이러한 의리를 모르고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문충공(文忠公)(류성룡)은 봉향한 서원으로서 사액을 받지 못한 남계서원(南溪書院) 같은 곳은 일시에 다 같이 훼철되었으나, 동일한 선조의 서원이었는데도 감히 아무 말씀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산서원에 있어서는 지난날 사액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지금 사액된 서원을 제외하라는 명령을 받들었던 까닭이옵니다. 만약 다른 서원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 소생이 그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그 원통한 훼철을 목도하였다면 반드시 그 실상을 진달하여 분간 처분하여 주시도록 청하였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의 선조 서원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면서 강 건너 불을 보듯, 밝게 살피시는 은총 내리옵기를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앞드려 비옵건대 깊이 통촉하시와 특별하신 처분을 내려주시기 천만 번 충심으로 비읍니다.

위의 편지는 지난 1995년 뒤늦게 간행된 류후조의 문집 『낙파집(洛坡集)』에 수록되어 있다. 1868년(고종 5) 보낸 것으로, 비록 사액을 받지못했지만 사액을 내리라는 선대왕의 명령이 있었으며, 서애

류성룡을 봉향한 남계서원이 훼손될 당시에도 감히 아무 말씀도 아뢰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구구절절이 쓰여 있다.

그 결과 서원의 주요 건물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존립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강당은 1921년에, 사당은 1937년 각각 다시 지어졌다. 1969년에는 병산서원 유적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60호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한편, 병산서원의 공식 명칭은 2011년 11월부로 '안동 병산서원'으로 불리고 있다.

2-2. 배향인물

2-2-1. 류성룡(柳成龍)(1542~1607)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이견(而見), 호號는 서애(西厓)이다. 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 류중영(柳仲郢)의 차남이며, 모친은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1542년 외가인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서림(西林)에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평가 받으며 이황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수학하였다. 1564(명종 19)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66년(명종 21)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가 되었다. 1569년(선조 2) 성절사(聖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부수찬(副修撰) 지제교(知製敎)로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과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겸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이조(吏曹) 좌랑(佐郎)·검상(檢詳)·응교(應敎)를 거쳐 1578년(선조 11) 사간(司諫)이 되고 다음해 직제학(直提學)·동부승지(同副承旨)·지제교(知製敎)로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춘추관(春秋館) 수찬(修撰)을 겸하고, 이조(吏曹) 참의(參議)를 거쳐 1580년(선조 13) 부제학(副提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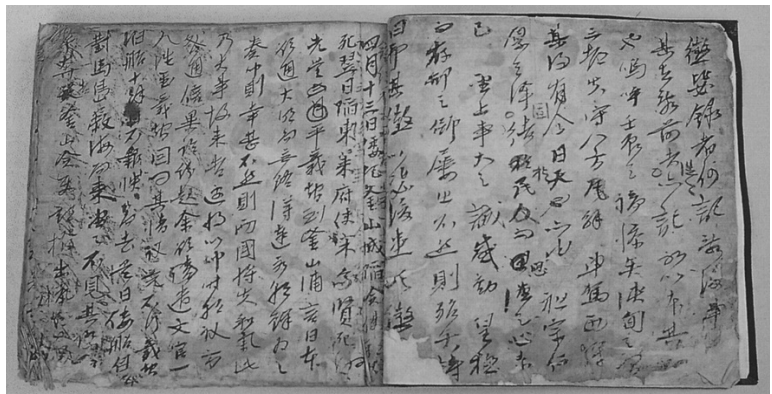
1582년(선조 15) 대사헌(大司憲)에 승진하여 왕명으로 「황화집서(皇華集序)」를 찬진하고 1583년(선조 16)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로 임명되었다. 다음해 예조(禮曹) 판서(判書)로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와 제학(提學)을 겸하였으며, 1585년(선조 18) 왕명으로 「정충록발(精忠錄跋)」을 지었다. 1589년(선조 22) 대사헌(兵曹) 판서(判書)·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그해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己丑獄死)가 있자 관직을 사퇴하였다. 1590년(선조 23)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으로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선조 24) 우의정으로 이조(吏曹) 판서(判書)를 겸하고 이어 좌의정(左議政)에 올랐으며, 왜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형조(刑曹) 정랑(正郎) 권율(權慄)을 의주목사(義州牧使)에, 정읍현감(井邑縣監) 이순신(李舜臣)을 전라도(全羅道) 좌수사(左水使)에 천거하였다.

1592년(선조 25) 4월 일본이 침입하자 병조 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하였다. 이어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왕을 호종하였으나 평양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의주(義州)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1593년(선조 26)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을 되찾고, 이어 충청·경상·전라 3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坡州)까지 진격하였다. 이해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 도체찰사를 겸하여 군사를 총지휘하였는데, 이때 군대양성·화기제조 및 성곽수축을 건의, 군

비확충에 노력하였다. 10월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경략經略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진상을 변명하러 가지 않는다는 북인北人의 탄핵을 받아 관작官爵이 삭탈되었다.

전란이 끝난 이듬해인 1600년(선조 33) 다시 복관復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이 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도학·문장·글씨·덕행으로 이름을 떨쳤고, 영남 유생들의 추앙을 받았다.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당시 여강서원)·병산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문집인 『서애집西厓集』을 비롯하여, 『징비록懲毖錄』·『신종록愼終錄』·『영모록永慕錄』·『관화록觀化錄』·『운암잡기雲巖雜記』·『난후잡록亂後雜錄』·『상례고증喪禮考證』·『무오당보戊午黨譜』·『침경요의鍼經要義』 등이 있고, 편저로는 『대학연의초大學衍義抄』·『황화집皇華集』·『구경연의九經衍義』·『문산집文山集』·『정충록精忠錄』·『포은집圃隱集』·『퇴계집退溪集』·『효경대의孝經大義』·『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등이 있다. 저서 가운데서는 특히 『징비록』과 『서애집』이 주목되는데, 이 두 책은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징비록(안동디지털문화대전)

2-2-2. 류진柳珍(1582~1635)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류성룡의 셋째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0년(광해군 2)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12년(광해군 4) 해서海西 지방에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났을 때에 무고를 당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616년(광해군 8)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다시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봉화현감奉化縣監이 되었다.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무田畝와 부세賦稅를 바로잡았다고 한다. 이듬해 형조刑曹 정랑正郎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옥冤獄을 해결하여 판서判書 이서李曙의 경탄을 샀다. 1627년(인조 5)에 청도군수淸道郡守가 되었는데, 이듬해 수포장인收布匠人에 대한 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여 파직罷職당하였다. 1634

년(인조 12)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장령 강학년姜鶴年이 당시 서인西人 정권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를 두둔하여 대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고관대작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세신世臣의 후예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보냈다고 한다.

사후 이조吏曹 참판參判에 추증되었으며, 1662년(현종 3) 부친 류성룡이 배향된 안동 병산서원에 종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수암집修巖集』이 전한다.

2-3. 병산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

2-3-1. 병산서원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그 위상

1) 사회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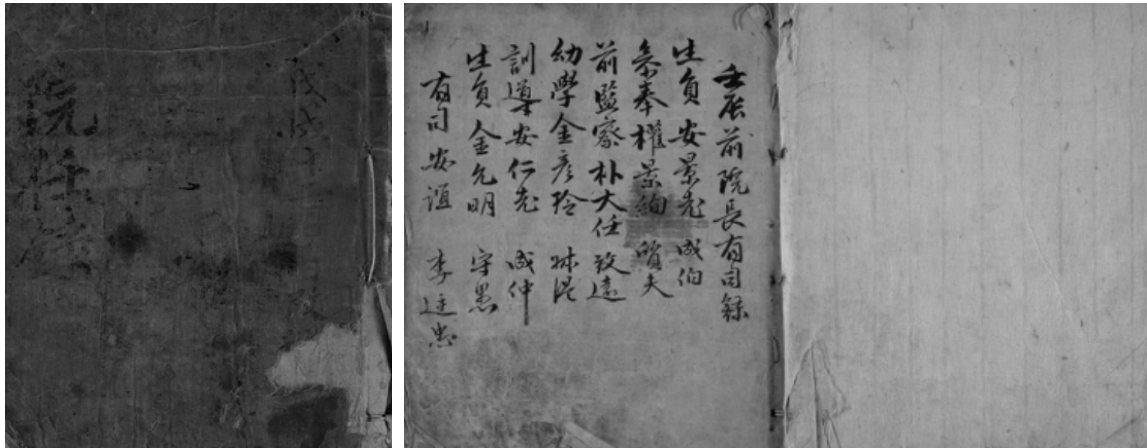
조선시대 병산서원의 사회적 기반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서원이 위치한 안동부의 지역적 기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안동부는 경상도 내 4개 계수관界首官 중 하나로,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기호학파畿湖學派에 대칭되는 영남학파·퇴계학파의 중심지, 그리고 서인西人·노론老論 집권층에 대항하는 재야 남인南人의 중심지로서 도내 유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던 곳이다. 또한 안동부는 조선의 명족名族인 안동권씨安東權氏·안동김씨安東金氏의 본관으로서 재지세력의 성장이 빨리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향약鄉約·향규鄉規·동규洞規·향안鄉案·동안洞案 등을 제정하여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또한 향교·서원·서당으로 대표되는 교학 체계도 확립시킴으로써, 조선시대 영남학파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안동 지역 재지세력의 활동처로는 서원이 주목되는데, 병산서원의 사회적 기반도 재지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17세기 초반 처음으로 존덕사에 류성룡의 입묘가 이루어질 때의 인사들은 『병산서원봉안록屏山書院奉安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도감都監으로 전前 현감縣監 안담수安耽壽, 전前 찰방察訪 김윤사金允思, 전前 참봉參奉 권가행權可行 외 5인, 유사有司로는 석물유사石物有司 12인, 번와유사燔瓦有司 2인, 각리유사各里有司 15인(현내 2인·북면 4인·서면 7인·남면 3인), 각면유사各面有司 16인(부동 2인·부남 1인, 부서 2인·부북 2인·임하 4인·내성 2인·감천 1인·일직 2인)이며, 1612년(광해군 4)에도 도감 13인·유사 4인·단청유사丹靑有司 1인·석물유사 1인이 임명되었고, 1614년(광해군 6) 봉안 때에는 문인인 강릉부사江陵府使 정경세가 제문을 하였고, 집사로는 현관 전주제독全州提督 안담수·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 전이성全以成·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김영조金榮祖 이외 진설陳設·대축大祝·찬자贊者·알자謁者 등이 임명되었으며, 이때 참석자는 모두 180여인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병산서원 건립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사 대부분은 현존하는 초창기 병산서원의 『입원록入院錄』과 『원임안院任案』에 등재된 인사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나 관직을 살펴보면, 안동의 유학幼學이 압도적이다. 특히 설립 당시 각리各里·각면各面의 유사가 임명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 병산서원이 일향 유림의 공동 발의로 창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후의 남인계 서원 대부분이 후손

이나 문인 등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몇몇 집단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병산서원과 안동 유림과의 연관 관계 및 병산서원의 사회적 성격을 『원임안』, 『입원록』, 『심원록』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서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원임의 구성을 보면, 초기에는 상유사^{上有司}·하유사^{下有司} 또는 도유사^{都有司}·재유사^{齎有司}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원장제^{院長制}의 신설로 원장·유사 체제로 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영남 지역 서원의 경우 퇴계 이황의 이산원규^{伊山院規}를 모범으로 함으로써 초기에는 대체로 원임을 상·하유사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592년 이전~1807년 원임안(한국고문서자료관)

『원임안』에 기재된 인물을 살펴보면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원록』에 등재되고 있다. 이 두 안을 상호 비교해 보면 입원생 중 빠르면 10년 이내, 늦으면 10~20년 후, 원장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유사 ^{유사}의 경우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원임이 철저히 과거 입원생 중에서 선출된다는 것은 서원 운영에 있어서 자치적 성격의 일단면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원사^{院事}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원생^{入院生}이 대개 일향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원 존립 및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원장은 학연·혈연 관계로 상주목^{尙州牧}·영해부^{寧海府}·예안현^{禮安縣} 등 인근 지역 사람(류규·정의목·이재·이진동)으로 임명되어 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안동 지역의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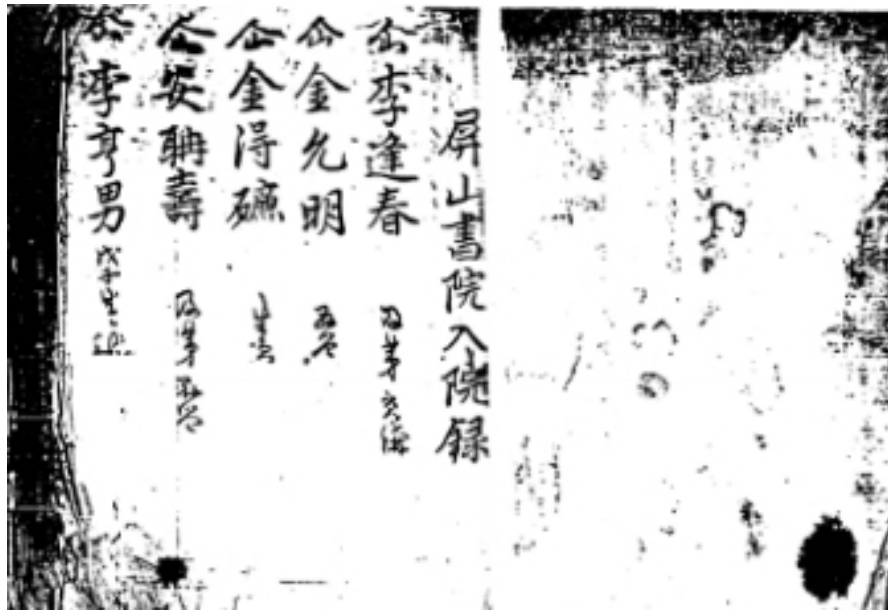
병산서원의 원임, 그 중에서도 원장으로 임명되는 인물들의 자격 규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역대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의 면면이나 전력을 통해, 17~18세기와 19세기가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 17~18세기 『입원록』을 관직별로 분석해 보면 현직 지방관 및 관료로서 임명되는 경우는 없고, 유학^{幼學}·생원^{生員}·진사^{進士}가 압도적인 가운데 전직 지방관, 하급 관료 등이 임명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영남 남인이 인조반정 이후 재야로 밀리고 있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나, 기본적으로 퇴계 이후 서원을 사람들의 자치제로 여기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류성룡의 문인으로 병산서원 창건의 주역이었던 정경세·이준 등이 인조반정 이후 현직 중앙관료로 있었지만 원장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로 넘어오면 17~18세기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서도 1830년(순조 30)을 기점으로 해서 다수의 현직 지방관 또는 관료가 원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후의 원장은 유학 100인, 생원과 진사 12인, 전직 지방관과 관료 31인, 현감 3인, 군수 5인, 부사 2인, 대사간 1인, 호군護軍 1인, 통정대부通政大夫 8인, 참서參書 1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시기에 오면 향촌 유림의 공동체적 내지 향촌자치제적 성격은 감소하고, 서원의 유지 존립을 위해서는 관권과의 연결이 그 이전보다 더욱 절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영남 남인계 서원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 진전에 따른 서원의 질적 저하는 원장 임기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원장의 임기는 여타 남인계 서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원의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2년 또는 일기향사一期享祀 등으로 나타나고 중임과 재임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세기 원장의 인명수가 72인이었으나, 18세기는 150명, 19세기(1800~1858년, 이 중 1808~1826년은 제외)는 166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임기가 단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노론계 서원 원장이 임기 종신제의 현직 고위 관료로 임명되며, 또한 여러 서원을 겸임하였다는 데서 일종의 명예직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임기 단축은 어찌되었던 원장의 서원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즉 18세기부터는 원장 본연의 기능이 점차 축소하고 있었으며, 19세기에 오면 원장이 일향 사림의 명예직과 같은 존재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기 후반부터 원장 선출자 중 스스로 임명을 수리하지 않은 인사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원임록』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은 17세기 후반부터 처음으로 피봉사자, 즉 류성룡의 후손인 류세장柳世長이 원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기점으로 17세기에는 10명, 18세기에는 41명, 19세기에는 47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18세기 이전까지의 향촌공동체적 성격에서 벗어나 점점 가문 중심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원사의 건립은 향중 공동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였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점차 서원이 문중 활동의 중심처로 변질해 가던 양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만 병산서원의 경우 일향을 대표하던 서원이었던 만큼, 후손 중심의 임원 선출 추이는 다른 일반 서원에 비해 완만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입원록』은 병산서원의 학생 명부로 『원임안』과 더불어 병산서원의 인적구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먼저 17세기 이전부터 1653년까지의 『입원록』 수록 인사 467명을 성씨 및 가문별로 분류하면, 이씨(진성眞城·고성固城·경주慶州·전의全義·한산韓山·예안禮安) 102명, 김씨(안동安東·의성義城·광산光山·순천順天·선산善山·강릉江陵) 132명, 순흥안씨順興安氏 19명, 안동권씨 62명, 류씨(풍산豐山·전주全州) 49명, 정씨(청주淸州·동래東萊) 27명, 남씨南氏 25명, 흥해배씨興海裴氏 7명, 평산신씨平山申氏 9명, 영월이씨寧越李氏 2명, 한양조씨漢陽趙氏 1명, 평해황씨平海黃氏 1명, 변씨卞氏 1명, 여산송씨礪山宋氏 4명, 반남박씨潘南朴氏 11명, 봉화금씨奉化琴氏 1명, 민씨閔氏 2명, 최씨崔氏 1명, 손씨孫氏 3명, 오씨吳氏 2명, 진주하씨晉州河氏 1명, 남양홍씨南陽洪氏 1명, 단양우씨丹陽禹氏 1명, 그 외 미상 3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안동부의 대표적인 사림 가문을 망라한 것으로 17세기까지 특정 가문에 치중되지 않고, 공론 또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718년 입원록(한국고문서자료관)

병산서원의 입원 학생의 추이는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인조반정 이전까지 입원 학생은 연평균 5.1명이었으나, 이후에는 10.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서원과 다른 추이다. 예를 들어 인근 풍기의 소수서원이나 예안의 역동서원을 살펴보면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입원생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17세기 이후 서원이 자연·학연·혈연에 따라 계속적으로 설립·분화되어 관심의 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산서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안동이 영남 도내의 유생수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영남 남인의 중심지였다는 지역적 문제도 고려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병산서원의 고을 내 영향력 확대 현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원규범書院規範』에 따르면, 병산서원의 상주 유생수는 일반적으로 5명 정도로 규제하는 것 같다. 상주 유생수는 서원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한 듯하다.

입원 학생의 거주지는 예안현·봉화현·용궁현龍宮縣·영천군榮川郡 등 예외는 있으나, 대체로 일향, 즉 안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원생이 지역적으로 한 고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17세기 이후 각 지역에 따라 서원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서원이 일향 재지사림의 집합소라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입원록』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당시 영남 향촌 유림들의 유일한 정치활동이자 자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유소儒疏가 병산서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것이다. 지방 유생들의 집단 상소를 대표하는 영남 유소는 16세기 중반 이후 퇴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학파가 형성되고, 도내 각읍마다 향교·서원·문중을 중심으로 각기 유생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병산서원도 그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병산서원의 입원생 중 역대 영남 유소의 소수疏首로 활약한 인사를 들어보면 1604년(선조 37) '변회재피무辨晦齋被誣' 청오현승무소請五賢陞庶疏'의 김윤안, 1611년(광해군 3) '변회퇴피무辨晦退被誣' 공척정

인홍소攻斥鄭仁弘疏'의 김봉조, 1650년(효종 1) '우율승무반대소牛栗陞庶反對疏'의 류직柳稷, 1666년(현종 7) '영남예론소嶺南禮論疏'의 류세철柳世哲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류직의 '우율승무반대소'에서 보면 안동에서 동원된 335명 가운데 약 100명 정도, 소록출문疏錄出文 인사 19명 중 12명이 병산서원 원생으로 확인되며, 또한 소행疏行 중 풍산현사豊山縣舍에서 숙박할 때도 병산서원의 원임 및 고을의 사위가 모두 와서 전송하기도 했다. 특히 류세철을 소수로 한 예론소는 병산서원에서 발의 주관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1728년(영조 4)의 '송상은덕소頌上恩德疏'의 정동규鄭東奎, 1788년(정조 12) '변영남피무辨嶺南被誣 진무신창의록소進戊申倡義錄疏'의 이진동李鎭東, 1792년(정조 16) '청사도세자추존소請思悼世子追尊疏'의 이우李瑀 등은 병산서원의 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었다. 유소의 핵심 인사들이 병산서원 『입원록』과 『원임록』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위상과 병산서원이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었을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입원록』과 『원임록』이 병산서원 상층의 인적 구성을 말해 준다면, 서원 방문 인사의 기록인 『심원록尋院錄』은 병산서원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외적 연고를 말해준다. 병산서원 『심원록』은 거주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본관만 기재되어 있어 거주지별 분석은 불가능하나, 대체로 안동을 중심한 예안·영주·순흥·풍기·예천·용궁·영해·의성 등 넓은 의미의 안동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지방관이 아닌 노론이나 소론계 인사의 내방來訪은 거의 없었다.

서인 또는 노론·소론계 인사의 내방이 거의 없는 것은 배향자의 당색, 그리고 병산서원의 정치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영남 남인계 서원이라 하더라도 정몽주鄭夢周·이언적李彦迪·이항 등 당색과 무관하거나, 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물의 배향 서원과는 내방자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언적을 배향한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심원록에는 동인 내지 남인이 주축이 되지만 지방관을 비롯해 서인이나 노·소론계 인사의 내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병산서원에 배향된 류성룡은 선조조 동·서 내지 남북南北 분당을 겪는 과정에서 북인·서인 등 반대당으로부터 봉당 발생의 장본인으로, 또는 남인의 영수로 지목 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병산서원은 항상 반대 당파에게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병산서원 소장 『심원록』에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다.

2) 경제적 기반

서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립 목적에 부합되게 지속적인 강학과 제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학을 위해서는 원생들에 대한 접대와 숙식, 학자의 초청, 교육용 책자의 마련이 필요하고, 제향을 위해서는 제향에 필요한 각종 물품, 특히 제수 용품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 서원에서 사회적 현안을 유지하거나, 상소를 통한 정치적 활동을 할 때도 적지 않은 물품과 비용이 필요하다. 건물의 보수와 각종 공사에는 특히 많은 비용이 든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서원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나누어보면 물적 기반으로는 서원전書院田·원노비院奴婢·현물 경제 세 가지가 있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로 가면, 전답·노비의 비중은 약해지고 액외원생額外院生·원보院保·서원촌書院村 등 피역자로부터의 납전納錢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된다.

병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전답안田畵案』이나 『노비안奴婢案』 등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서원의 토지, 즉 원위전院位田이나 원노비院奴婢가 분명 이 시기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2대 재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서원에 따라서는 중앙·지방관료 또는 향교·서원·유림들에 의한 부조 및 서원 소용의 어염魚鹽·지紙·서책書冊 등 현물 공여도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외에 양인良人·해부海夫·격군格軍·염간鹽干·장인匠人 및 수직군守直軍을 포함한 원납생願納生도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기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로는 병산서원의 전반적인 경제적 기반을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1663년 병산서원 노비안(한국고문서자료관)

먼저 노비의 경우 17~18세기 아홉 해(1663·1666·1669·1679·1690·1738·1750·1757·1762년)에 걸친 병산서원 소유 노비 액수가 확인되는데, 적게는 105구(1663년)에서 많게는 170구(1690년)까지 확인된다. 노비는 우선적으로 거주지별로 구분되는데, 서원 인근의 원하院下와 안동부 내 거주자가 대다수이며, 그 외 은풍·예천·상주·풍기·영천·봉화·다인·용궁·영양·선산·의성·군위·칠곡·문경·인동·함창·예안·강릉·원주·충주 등지에 분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속공屬公이나 매득買得 또는 속량방매贖良放賣를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도망 노비와 사망한 노비도 기재해 놓았다.

이러한 노비의 보유 형태는 일반 사대부가의 노비 보유 형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노비 보유 형태를 보면, 18세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즉 도망 및 사망, 속량이나 방매를 제외한 실제 노비 수는 173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18세기 노비안에서부터 그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노비속량이나 방매, 노비 도망도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조선사회의 경제적 변동, 즉 노비 관리의 어려움에서 나타난 토지에 비한 노비 가치의 상대적 하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병산서원 창건 당시 노비수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자료상의 한계로 알 수가 없다. 다만 1663년 노비안에는 병산서원의 전신인 풍악서당 당시 소속노비 7구가 확인되고, 이외 서원 설립 이

후 지방관에 의한 여섯 차례에 걸친 속공영급_{屬公永給} 노비 8구가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서원 노비는 설립초기에는 일정한 정해진 액수가 없었고, 다만 국가에서 사역을 내리는 경우 서적·전답과 함께 지급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관노비의 속공·매득·납상_{納上} 및 생산 등의 형식을 통하여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병산서원 또한 매득·원납·면역소납 등의 방법으로 노비를 확보하였고, 초창기 10여 구 정도였으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노비 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1690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확보된 노비는 각종 사역_{使役} 및 생산 활동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신공_{身貢}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비 신공이었다. 병산서원 노비 신공에 관한 기록은 1666년과 1669년 두 건의 노비안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이 두 건의 노비안은 공납_{貢納}의 유무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老·약弱·도망·고노비_{故奴婢} 등을 제외하면 모든 노비가 신공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공을 거두는데 있어 특기할 점은 원저노비_{院底奴婢}, 즉 병산서원 인근의 노비들도 어김없이 공납 노비_{貢納奴婢}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서원의 경우 대체로 원저노비는 서원에 거주하면서 서원의 제반 잡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댓가로 신역_{身役}을 면제 받는 경우와 서원 인근에 독립호_{獨立戶}로 거주하면서 향사_{享祀}·유회_{儒會}·향회_{鄉會} 등 대소사가 있을 때 윤회입번_{輪廻立番}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공을 납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의 신공량은 외거노비에 비해서는 다소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렇게 본다면 병산서원 내의 천역잡무_{賤役雜務}를 담당한 명부는 따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비안에 나타나는 노비 거주지 분포 형태를 보면, 서원의 영향력이 '타관거노비_{他官居奴婢}'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미칠 수 있는 원저·안동부 내 노비가 17~18세기를 거치면서 약 70% 정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타관 거주지는 17세기 중반의 상주·풍기·영천(현 영주) 지역에서 17세기 후반, 18세기로 오면서 봉화·용궁·영양·군위·의성·칠곡·문경 및 타도_{他道}의 충주·강릉·원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병산서원 노비가 타관으로 이거하는 주된 원인은 혼인 내지 도망 노비로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병산서원은 18세기 초까지 비교적 소속 노비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타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원노비의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병산서원 소유 원노비의 관리체제 이완 현상은 1762년 노비안에 수록된 「서문」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노비안의 「서문」에 따르면 원래 매 식년_{式年}마다 노비안을 작성했으며, 그것을 안동부로부터 관인_{官印}을 받아 보관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병인년_{丙寅年}(1746년)에 발생한 흉년으로 노비 태반이 도망치고 여러 사정으로 방매를 많이 하는 바람에 현재 서원 노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18세기 이후의 동일한 양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17~18세기 노비안을 비교해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7세기 노비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노비속량_{奴婢贖良}·방매, 확인 불가능한 문차노비_{門次奴婢}가 18세기 이후 상당수 나타난다. 특히 이들 노비의 대부분이 '타관거노비'였다는데서, 이들 노비의 관리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망노비의 경우도 소재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관리가 쉽지 않았던 만큼, 속량·방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대체로 17세기까지 노비의 거주지 분포는 서원의 영향력 행사 범위로 파악될 수 있으나, 18세기에 와서는 이들 '타관거노비'의 관리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원노비의 거주지, 이동 상황은 대체로 일생동안 한곳에 거주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인근 안동부 내의 이주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며, 타관으로의 이주는 대체로 혼인·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병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전답안』을 통해 서원 보유의 전답 규모와 그 성격을 살펴보고 하겠다. 병산서원과 관련된 자료로는 현재 1762년(영조 38)에 만들어진 『건륭乾隆 27년二十七年 병산서원屏山書院 전답안田畵案』 단 1책만 전해지고 있다.

해당 『전답안』에는 전답 소재지 별로 규모가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분포 지역은 풍현내豐縣內·대천월사비원원大川越沙飛院員·고도원孤島員·적지赤旨·현내보縣內補·고도孤島·풍서豐西·풍남豐南·풍북豐北·서선西先·남후南後·감천서면유점甘泉西面鑰店으로, 안동 일대에만 병산서원 전답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유 규모는 전田 34결結 46부負 6속束, 답畓 5결 38부 7속으로, 총 39결 85부 3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 지역의 유력한 서원이었던 소수서원·도산사원·옥산서원·도남서원道南書院·도동서원道東書院 등이 보유한 전답 규모가 평균 20~30결임을 감안한다면, 병산서원 보유 전답 규모가 비교적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서원들은 서원전 확대에 있어서 먼 곳의 전답보다는 서원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이들 서원의 매득 전답은 본읍本邑에 치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전답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영남 사족들의 최대 향전인 병호시비의 경비로 1855년(철종 6)에 풍남 소재 전 6부, 답 80부 1속이 방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서원은 소속 사림의 개별 또는 집단행동인 유회·유소·상소시上疏時에 물력의 일부를 보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당시 서원의 경제기반 확보는 유림 공동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었던 것이다.

3) 정치·사회적 위상

조선시대 서원은 단순히 교육과 교화라는 본연의 기능만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공론정치를 표방하고 있던 사림들은 16세기 이래 서원을 구심처로 정치·사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향교나 유향소, 그리고 서원 같은 곳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중앙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서원은 16세기 후반 공론정치를 표방하던 사림들이 분열되며 당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서원은 특정 당색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구심처 역할을 하였다. 병산서원 역시, 확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사림들의 여론을 결집시키며, 정치·사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심지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병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17세기 이후에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논란들을 살펴보면서 확인 할 수 있다.

■ 회퇴변무론晦齋退溪論과 병산서원

광해군은 정인홍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권과 결집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

1611년(광해군 3) 대북 일파는 문묘文廟에 배향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8~1553)과 퇴계 이황의 위패를 철향撤享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남인南人으로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묘에 배향되지 못한 남명南明 조식曹植(1501~1572)의 학통을 계승한 북인 세력들에게 있어, 이러한 부분은 그들의 학문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인들은 이언적과 이황의 위패를 문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학문적 위상의 열세를 만회하려 했던 것이다.

정인홍의 이러한 주장은 남인들뿐만 아니라 서인西人들까지 반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은 철향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특히 퇴계의 주요 근거지였던 안동권 사람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당시 병산서원은 아직 서원으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기 이전이었지만, 철향 추진에 반발하는 안동권 사림의 중심지가 되었다. 류성룡의 문인이었던 김봉조와 김윤안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이언적과 이황의 철향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회퇴변무소晦退辨誣疏」를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립 초창기부터 병산서원이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예송논쟁禮訟論爭과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정치적 위상은 현종 연간의 예송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송논쟁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였던 자의대비慈懿大妃(1624~1688) 조씨趙氏의 복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 2차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1차 예송은 효종孝宗의 죽음으로 인한 자의대비의 복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 그리고 각 학파별로 전개된 예학禮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자의대비 조씨의 복제를 두고 서인은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기년복壽年服(1년복)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참치복斬衰服(3년복)을 주장하였다. 처음엔 단순한 복제 논란이었지만 왕통王統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산되었다. 실상 남인은 송시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예론의 허점을 공격함으로써, 정국 전환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차 예송은 왕통 문제를 제기한 강경 남인 인사들이 처벌 받고, 현종이 함구령을 내림으로써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에 함구령이 내려졌음에도 지역 사림들에 의한 치열한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남인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영남의 남인들도 이에 동조하여, 서인들을 공격하는 집단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 올라간 가장 대표적인 상소가 병산서원을 거점으로 추진되었던 「복제소服制疏」이다. 이 상소문은 류원지柳元之(1598~1678)와 류세철柳世哲(1627~1681) 주도로 추진되었다. 류원지는 류성룡의 손자이며, 류세철은 류성룡의 형 류운룡柳雲龍의 증손이었다.

1666년(현종 7) 영남 남인계 사람들은 류원지와 류세철 주도로 병산서원에 소청疏廳을 설치하여, 서인의 예론을 공격하는 상소문을 준비하게 된다. 안동의 유생들이 이 상소를 처음 결의한 것은 1665년(현종 6) 12월 3일이었다. 그들은 먼저 안동권의 향교와 서원에 통문을 보내 이듬해 1월 7일 병산서원에서 소회疏會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처럼 병산서원이 소회의 장소로 정해진 것은 영남 남인의 예설을 이 서원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산소회에서 유림들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남 유림 전체의 공론을 형성해야 함을 합의한

다. 이에 2월 7일 의성현에서 도회都會할 것을 결의하고, 경상도 각지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발송했다. 이날 의성도회에서 유생들은 소청疏廳을 설치해 장의掌議와 공사원을 선발하는 한편, 만장일치로 류세철을 소수로 추천했다. 관례대로 몇 차례 의례적인 고사를 하던 그는 주위의 간곡한 권유라는 수순을 거쳐 이를 수락하고 소사疏事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정오 류세철은 소행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소유疏儒들을 객사대문에 설치된 독소청讀疏廳에 모이도록 했다. 의례를 끝낸 상소의 무리들이 용궁·문경·조령·달천·용인을 거쳐 한강을 건넌 것은 예전을 출발 한 지 일주일만인 16일이었다. 3월 17일 날이 샐 부렵 건복巾服을 갖춘 유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대궐로 향했다. 앞에 두 사람이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 뒤를 봉소奉疏 한 명이 따랐으며, 그 다음에 조사曹司 두 사람이 소본이 든 소궐疏樞를 좌우에 나누어 들고, 소수 이하 배소유생 백 명이 그 뒤를 따랐다. 대궐문 밖에 이르러 배소유생들이 부복하고 소수가 승정원에 들어가 승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소 내용의 대각을 적은 소대개疏大概와 소본을 도승지에게 제출했다. 경상도 진사 류세철 등 103명의 상소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고, 왕이 도승지에게 소문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영남 70읍, 1,100명의 유생이 연명한 이른바 ‘영남의례소嶺南儀禮疏’가 봉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영남 유림이 당시 봉입한 의례소는 제명록을 제외하고 소문疏文과 「상복고증喪服考證」 상편 16조, 하편 15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예론이 국가윤리를 뒤바꾼 것이자 왕실의 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선왕인 효종의 원한을 갚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영남 유림의 일치된 공론에 따라 상소하게 되었음을 밝힌 내용이다. 「상복고증」 상편은 중국 및 우리나라의 각종 예서를 참고하여, 자의대비 조씨의 효종에 대한 복상이 3년이라는 점을 논증한 것이며, 하편은 송시열이 그동안 조정에서 주장한 예론을 조목조목 논박한 내용이다.

영남 유림의 의례소는 기해예송을 뒤엎는 데는 실패했으나, 1674년(현종 15) 인선왕후仁宣王后에 대한 자의대비 조씨의 복상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을 때, 남인이 승리하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군주가 영남 유림의 주축이 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남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자 왕권강화와 정국운영에 영남 유림 공론의 필요성과 효용가치를 절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위력을 발휘했던 영남 유림의 중심지가 바로 병산서원이었던 것이다.

■ 병호시비屏虎是非

병호시비는 18세기 이후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향촌 사회 갈등 중 대표적인 사건이다. 류성룡을 배향한 병산서원과 김성일을 배향한 호계서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병호시비라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시비是非는 주로 서원 또는 사우祠宇의 배향, 위패의 서차 문제, 선조의 학통과 사우연원師友淵源 문제, 문자시비文字是非 등 문중門中 간의 우열 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호시비도 그 중 하나이나, 이는 단순히 가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영남의 여론을 양분했던 매우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병산서원이 있었던 것이다.

병호시비는 대체로 1805년(순조 5) 이래로 영남의 유림이 병론屏論(또는 병파屏派)과 호론虎論(또는 호파虎派)으로 나뉘어 상호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시비의 발단은 1620년(광해군 12)에 퇴계

이항을 주향으로 하는 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종향자인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의 위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1620년 퇴계 이항을 주향으로 하는 여강서원(廬江書院)(1676년 호계서원으로 바뀌어 사액을 받음)을 건립하면서 종향자인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가운데 누구의 위패를 퇴계의 원편에 둘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애학(厓鶴)'이나, '학애(鶴厓)'냐 하는 위치 문제였다.

애학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류성룡이 영의정을 지냈고, 김성일은 관찰사를 역임했으니 관직의 높낮이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고, 학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 풍속에 나이가 우선이니 네 살이 위인 학봉이 왼쪽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당시 영남을 대표하는 상주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에게 자문을 구하여 서애를 왼쪽, 학봉을 오른쪽에 배향함으로써 위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학봉과 서애의 위치 문제는 200여 년이 지난 1805년(순조 5) 다시 제기되었다. 당시 영남에서는 4현, 즉 류성룡·김성일·정구(鄭逵)·장현광(張顯光)의 문묘중사를 청원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역시 순서를 류성룡과 김성일 순으로 할지, 아니면 김성일과 류성룡의 순서로 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시비는 문묘중사 운동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종식되는 듯 하나 얼마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1812년(순조 12) 호파 일각에서 호계서원에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1711~1781)을 추가로 배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두고 병파에서는 적극 반대하였고, 결국 병파는 호계서원과 절연하고 서애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옮겨버렸다. 병호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병파와 호파는 서로 대립하는 형세를 지속하게 되었다.

병호시비를 보합(保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은 흥선대원군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영남을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서 삼고자 했었다. 하지만 병호시비는 우익인 영남 남인의 단합을 깨는 문제였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1866년(고종 3)부터 병호시비를 수습하고자 나섰다. 그 구체적인 역할을 당시 판중추부사이던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祚)(1798~1876)와 안동부사 심동신(沈東臣)에게 맡겼다. 흥선대원군은 심동신에게 "영남의 선비들이 단합해야 그 기운으로 원자(元子)(고종의 아들)의 탄생을 바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충역(忠逆)과 관계된 일이다"라는 논리로 선비들을 설득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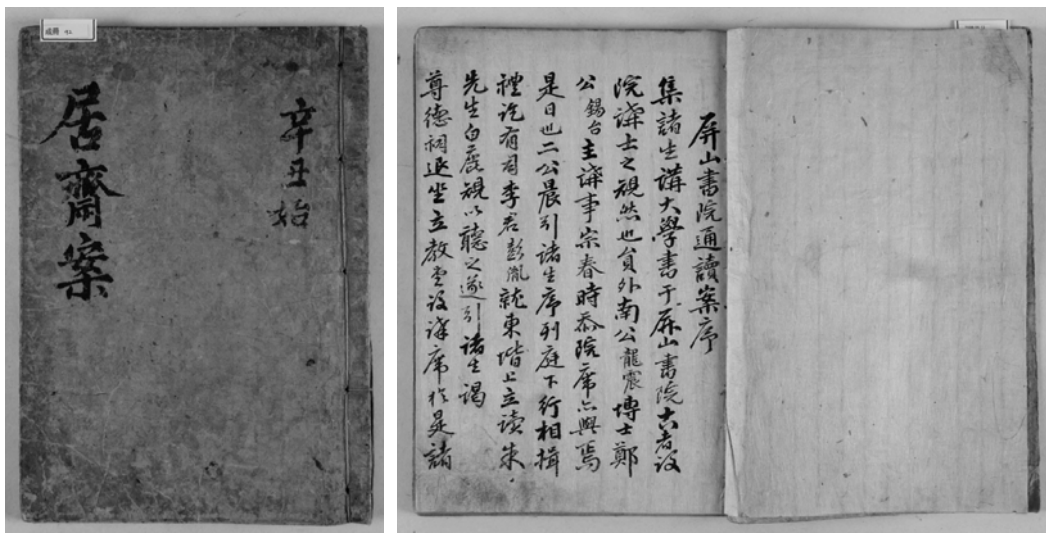
1870년(고종 7) 호계서원에서 호파 유림 600여 명, 병파 유림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심동신이 대원군의 지시를 전하면서 단합을 촉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원군은 12월 호론과 병론을 대변하고 있는 『대산실기(大山實記)』와 『여강지(廬江誌)』 판본을 관정에서 파괴함으로써 보합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최근에야 호계서원의 사당 복원사업을 계기로 경상북도 당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류성룡을 왼쪽, 김성일을 오른쪽에 종향하기로 합의하여 일단락되었다.

2-3-2. 병산서원의 교육·강학 기능과 도서관·출판 기능

1) 교육·강학 기능

서원의 일차적인 목적은 강학, 즉 교육에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원의 원래 목적인 교육 보다는 제향祭享 또는 사회활동의 중심처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사실상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병산서원에는 강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남아 있어, 교육의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서원으로 변모한 병산서원의 교육 시스템은 다른 서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률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병산서원 나름대로의 입학 기준을 가지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머물게 하며 교육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서원의 교육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원임院任, 서원을 대표하는 원장院長, 교육 담당인 강장講長과 훈장訓長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병산서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몇 점의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거재안』 신축통독안 서문(유교넷)

먼저 1781년(정조 5)에 작성된 「신축통독안辛丑通讀案」은 1781년 5월 11일부터 동월 14일까지 병산서원에서 『대학大學』을 통독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당시 원장이었던 류종춘柳宗春이 작성한 서문序文과 함께 통독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성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서문에는 통독회를 개최한 경위와 학생들이 강학에 힘쓸 것을 당부해 놓았다. 서문에는 『대학』 통독회를 개최한 전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유생을 모아 병산서원에서 『대학』을 강독하였는데, 옛적 서원을 세워 선비들을 교육하던 규칙이 그러하였다. 원외랑員外郎 남공南公(용진龍震)과 박사博士 정공鄭公(석태錫台)께서 강사를 주관하였으며, 종춘도 그때에 외람되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 날에 두 공께서 여러 유생을 인도하여 뜰아래에 늘어서 상읍례相揖禮를 행하고, 마치자 유사有司 이군李君(팽윤彭胤)이 동쪽 계단 위로 가 서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어 듣게 하였다. 이를 마치고

여러 유생을 당도하여 존덕사에 배알하고 물러나 입교당立敎堂에 앉아 강석講席을 마련하였다.

이때 여러 유생으로 의관을 갖추고 둘러앉은 자가 거의 60여 명이었는데, 각기 『대학』 한 책을 소지하고 차례대로 앉으니, 그 모습이 자못 숙연하였다. 앉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두 공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아 (『대학』) 수장首章을 읽고 경의經義의 대략을 강론하자,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따라 서로 의견을 주고 답기를 수차례 거듭하였다. 그런 뒤 다음 사람이 또 나아가 다음 장을 읽고 경의를 강론하기를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 달 계미癸未일에 시작하여 4일을 넘겨 병술丙戌일에 마쳤으니, 이것이 강사講事의 전말이다.

이러한 통독의 전말은 강학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일찍이 한강 정구가 「통독회의通讀會議」를 작성한 바 있고, 실제 서원에서 통독회를 개최한 사례가 여러 자료에서 산견되지만, 류종춘이 작성한 위의 서문에서처럼 당일의 행사 진행 과정이 요령있게 정리된 자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위의 전말은 단순히 병산서원에서 이루어졌던 '통독'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서원에서 '통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서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의 서원 교육 세태에 대해 비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서원을 세운 근본은 강학을 통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데 있지 단지 유현儒賢을 봉사奉祀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옛날의 서원은 경학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봄과 가을에 절차대로 제사하면서 여러 유생을 불러 모아'4서6경四書六經'등의 여러 책 중 심신心身에 절실한 것들을 주야로 강습하게 하여 네 차례를 넘기고도 그치지 않았으니, 선비를 만드는 것의 성함과 택술擇術의 정밀함이 이와 같았다.

지금의 서원은 이와 정반대로 중하게 여기는 바는 봄과 가을의 제사뿐이다. 심지어 무리를 모아 학업을 연마하는 것도 비록 간혹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과장科場에서 공리功利를 다투는 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른바 경학을 강토講討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니, 아! 그 폐단이 고질이 되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바 "사람의 심술心術을 어지럽히고 광란으로 내달아 돌아오질 않는다."고 한 것에 불행하게도 가깝게 가버렸다.

그런즉 오늘의 거사를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한 고을이 같은 마음이 되고, 여러 선비가 같은 소리를 내며, 문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 보며 책선하며, 진퇴進退와 음양損議의 절도가 있고, 존현尊賢과 상덕尙德의 위위威儀가 있으며, 절차타마切磋琢磨의 도가 있었다. 하물며 그 강독한 책이 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방도이자 우리 유자儒者들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니, 비록 서원을 세워 선비들을 교육하는 규칙을 감히 망령되게 들먹이지 않더라도 유궁儒宮에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자, 우리들이 성대한 집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나의 무지몽매함이니, 외람되이 강독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이 책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 여러 유현의 질문에 답할 방도가 없으며, 헛되이 강사講士의 이름만 있고, 강사의 실질이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다.

서원들이 강학 보다는 제향에 치중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아울러 강학을 하는 경우에도 경학이 아니라 과문科文에만 열중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병산서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통독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100여 명의 유생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서문에 나타난 서원교육관은 통독회 개최를 전후로 한 병산서원의 교육적 지향이나 병산서원의 학풍

學風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문 다음에는 당시 『대학』 통독에 참여했던 107명의 명단이 망라된 '통독회안通讀會案'이 수록되어 있다. 명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원장 류종춘과 강장講長 남용진南龍震·정석태鄭錫臺를 위시하여 최연장자 류습柳潑(당시 74세)과 최연소자 류복칠柳復七(당시 41세) 등 45인의 성명과 자, 출생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정상호鄭象昊(당시 47세)부터 류달柳澹(당시 16세)까지 총 62인의 성명과 자, 출생 간지를 '유생儒生'이라는 표기와 함께 기록해 놓았다. 앞·뒤 명단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앞부분의 인사들이 4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고, 뒷부분의 '유생'들은 40대에서 10대에 이르는 연소자들로 확인된다. 이때 병산서원에서 『대학』을 공부했던 이들은 후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82년(정조 6)에 작성된 「신축임인거재안辛丑壬寅居齋案」은 병산서원에서 신축년(1781)과 임인년(1782)에 10월 16일부터 12월 보름까지 4순四巡으로 나누어 각 15일 동안 공부한 인사들의 성명과 강학 서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교육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의 연령이나 가문의 특성, 그리고 이들이 공부했던 과목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1781년 거재안에는 모두 45명의 인원이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순별 거재생을 안배한 특징이 있다. 이들이 학습한 서책을 회수 순으로 나열하면, 『대학』·『중용中庸』·『주서朱書』·『시전詩傳』·『논어論語』·『서전書傳』·『심경心經』·『주역周易』·『맹자孟子』·『예기禮記』 순으로 확인된다. 학습한 서책은 『춘추』를 제외한 '4서5경四書五經'과 『주서』·『심경』과 같은 성리서性理書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이 『대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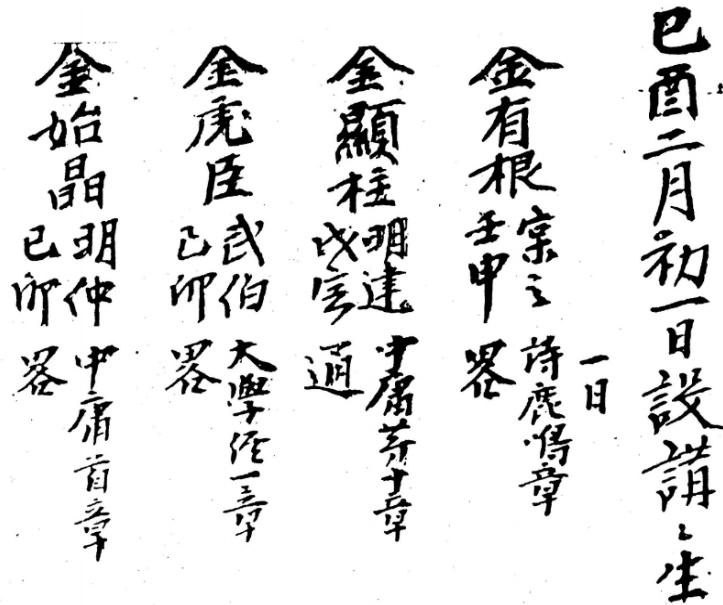
1782년의 거재안에는 모두 46명의 인원이 공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781년의 학생들에 비해 연령은 낮은 편이다. 이때 학습한 서책을 회수별로 나열하면 『논어』·『중용』·『대학』·『맹자』·『서전』·『주역』·『주서』·『시전』·『심경』 순이다.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학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두 해에 걸쳐 확인되는 거재생의 나이는 적게는 18세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분포하고 있다. 지역 내 청·장년층을 참여시켜 기본 교양을 닦고 심성 수련하는데 필수적인 유학과 성리학을 학습시켰던 것이다.

「기유강안己酉講案」은 1789년에 작성된 강안이다.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유년 2월 초하루 고강考講 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같은 해 4월 초이틀 고강 강안이다. 2월 강안에는 참여한 강생講生의 성명과 자, 출생 간지, 공부한 서책, 성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동몽童蒙'이라는 표시 하에 고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명과 출생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4월의 강안에도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병산서원이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먼저 2월 초하루 고강을 살펴보면 총 63명의 강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22명은 동몽이다. 동몽을 제외한 강생의 나이는 최연소자가 16세, 최연장자는 38세이다. 대체로 20~30대의 젊은 유생들이 고강에 참여하고 있었다. 동몽의 경우, 최연소자가 7세, 최연장자는 22세이다. 동몽과 일반 유생을 구분할 때 연령 이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초 소양의 수준이 반영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때 서책별로 고강한 강생 수는 각각 『논어』 2명, 『맹자』 6명, 『대학』 14명, 『중용』 4명, 『시경詩經』 8명, 『서경書經』 7명, 『역경易經』 1명이다. 아울러 고강 성적을 기재했는데, 순통純通·통통·약·조粗 4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그러나 동몽의 경우 별도로 고강한 서책과 성적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1789년 강안(한국고문서자료관)

다음으로 4월 초이틀 고강의 강안을 살펴보면 25명의 참여 유생과 20명의 동몽 명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의 강안은 2월의 강안과는 달리 강생의 자와 출생 간지를 기록하지 않아 당시 병산서원에서 공부했던 유생들의 정확한 나이 분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4월 고강 때에는 2월 고강 때와 마찬가지로 '4서3경' 전반에 걸친 서책을 공부하였으며, 고강 성적도 4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다만, 2월의 강안에는 동몽들의 고강 기록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4월의 강안에는 동몽들의 고강한 서책과 그 성적을 기재해 놓았다. 서책별 강생 수는 일반 유생의 경우 『논어』·『맹자』·『대학』·『중용』·『시경』·『서경』·『역경』이고, 동몽의 경우 『맹자』·『논어』·『대학』·『시경』·『소학小學』이 나타난다. 당시 어린 학생 또는 초학자들이 학습하였던 서책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병산서원의 교육 활동은 18세기 후반의 사실을 추려낸 것이며, 그것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적어도 병산서원에서는 지금의 윤독 학습과 비슷한 '통독通讀', 서원에서의 학생 기숙과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재居齋', 시험을 쳐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고강考講'이라는 유형의 강화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년에 특정 기간을 정하여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일동안에 함께 강독하는 형식으로 지역 유생들을 학습시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학생이나 초학자들에게도 강화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후 병산서원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강화학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계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심성 수양이라는 병산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은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병산서원에서 학교법인 병산교육재단을 만들어 현재 풍산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서원 본연의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도서관과 출판 기능

조선시대 병산서원은 지역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젊은 인재를 교육시키는 순수한 강학 기능뿐만 아니라, 유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병산서원과 관련된 인사들의 업적을 추숭(追崇)함으로써 그 행적을 본받고 교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는 병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출판기능, 더 나아가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병산서원은 창건 초기부터 경상도 안동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서원이었던 만큼 많은 책자들을 수집하였고, 19세기 들어 사액 이후에는 다수의 내사본(內賜本)을 소장할 수 있었다. 내사본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간행한 책 가운데 임금이 하사하던 책으로, 서원의 가장 큰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사액 이후에 내려지는 조치이다. 건립 후 모여진 병산서원 소장 전적들은 서원 강당인 입교당(立敎堂) 오른쪽에 위치한 서재(西齋) 안 장서실(藏書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병산서원 소장 전적은 그 후 서애 류성룡의 유물 전시관인 영모각(永慕閣)으로 이전되었다.

영모각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65년 건립되었는데, 서애 류성룡의 종택인 하회마을 충효당(忠孝堂) 옆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관리의 편의를 위해 류성룡 집안 대대로 수집한 전적과 고문서, 각종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였고, 이때 병산서원 소장 자료도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거기다가 영모각에는 다른 풍산류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적, 일대 영남 지역 사림 가문에서 보내온 자료들도 소장하고 있다. 즉 병산서원 서책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양한 자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경우 자료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구분이 가능하나 일반 서책의 경우 모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렇게 모여진 서책들은 지역 내 유생들이 열람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서책을 구하기 어려웠고, 보존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서원 소장 서책들에 대한 관리의 엄중하였다. 비록 서원 내부의 인사라 할지라도 외부로 서책은 반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책을 관리하던 임원들은 인수인계를 할 때, 서책의 종류와 현황을 면밀히 기록하여 누락됨이 없게 하였다.

당시 병산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존하는 서책들이 영모각으로 옮겨져 종택의 서책들과 뒤섞이는 바람에 그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적지 않은 서책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방 이후 병산서원이 지역 사회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장하고 있었던 서책 현황에 대한 파악은 1965년 충효당이 영모각 건립 이후에 이루어졌다. 다행히 조선시대 때 엮여진 『병산선원서책목록(屏山書院書冊目錄)』이 전해져, 당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던 병산서원 소장의 서책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총 5차에 걸쳐 파악된 서책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 1639년(인조 17), 2차 1673년(현종 14), 3차 1759년(영조 35), 4차 1766년(영조 42), 5차 1769년(영조 45)으로 당해 마련된 서목書目을 수록해 놓았다. 당시의 서원 유사가 특별한 분류 방식 없이 편의에 따라 소장 서책 명을 기록하고, 그 전적의 현존 유무·구비 연도 대출 기록 등을 기재해 놓는 형식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130년간의 기록으로 19세기 이후 전적 구비와 관련해서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 병산서원의 전적 보관 규모와 운영형태를 파악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서책을 보면 우선적으로 서원 운영과 관련된 서책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어, 서원 문고의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 서책에 있어서는 초기 서목에서 경서經書·통감通鑑·유가류儒家類 서책과 약간의 전기傳記·문집文集으로 주구성되어 있으나, 후기 서목에 이르러서는 인쇄술의 발달과 서원 경제의 부흥으로 인하여 인출된 개인 전기·문집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장서적의 저자 구성에 있어서도 초기 서목에는 중국학자들 서적이 많이 보이거나 후기 서목에 이룰수록 서원 소재지와 류성룡의 학맥으로 영남학파의 인물들의 문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징비록懲毖錄』·『서애선생별집西厓先生別集』을 비롯하여, 이원익李元翼(1547~1634)의 문집인 『오리집梧里集』, 권시權誥(1604~1672)의 문집인 『탄옹집炭翁集』 등의 일부 서적은 간행 연도와 편찬 연도를 비롯하여 유통 경로 등도 확인되어 병산서원이 어떠한 형태로 서책을 소장하게 되었는지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병산서원은 서책을 소장하고 대출 및 열람케 함과 동시에 출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1788년(정조 2)에 만들어진 『누판고鑪板考』라는 책자에 따르면 이때까지 병산서원은 모두 3종의 책자를 직접 간행하였음이 확인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역 사회 내에서 출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모각 건립 이전까지 병산서원에서 출판을 위해 제작하였던 책판들은 입교당 뒤쪽에 위치한 장서각藏板閣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여기에 서가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1965년 영모각이 건립되자 다른 전적 등과 더불어 서애 류성룡의 종가인 충효당의 행랑채로 옮겨졌다. 영모각에 있는 서책들과 마찬가지로, 책판 역시 문중에서 제작되거나 어떠한 경로로 충효당에 전해진 다른 책판과 함께 보관되었던 것이다. 이 책판들은 수십 년간 방치되다 2004년이 되어서야 대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문중회의를 거쳐 그해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관리 되었다.

2-4. 병산서원의 제향 의례¹⁶⁾

교육과 더불어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은 교화教化이다. 그 교화는 선현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본 받아 그들이 추구했던 마음가짐과 자세의 배움을 뜻한다. 서원에서 그것은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祭享, 즉 향사享祀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선현을 보고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

16) 사진자료-『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향촌사회라는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간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과 정치·사회적으로 여론을 선도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그리고 존현^{尊賢}을 통한 교화라는 목적 하에 세워진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거듭되는 사회로 말미암아 유생들의 세력기반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서원에서 존현 활동을 통해, 공동의 선현 앞에서 사람들이 교제를 넓히고 향촌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논을 교환하는 향촌자치운영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병산서원은 이상의 기능을 배향자인 류성룡과 그의 셋째 아들 류진 부자를 배향하는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이 중 류성룡은 병산서원에 처음 배향된 인물로 사당에 그의 위패가 주향^{主享}되어 있으며, 그의 셋째 아들 류진은 종향^{從享}되어 있다. 주향이란 향사의 주인공을 말하고 종향은 주향과 관련을 갖는 사람의 위패를 함께 모신 것을 뜻한다. 한편, 서원에서 향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각, 그리고 제수는 서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씩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병산서원의 향사 일자는 3월과 9월의 초정^{初丁}으로 정해져 있다. 초정이란 10천간^{十天干} 가운데 정일^{丁日}이 드는 날로, 한 달에 세 번 있는데 초정은 첫 번째 정일이다.

2-4-1. 향사의 준비 과정

1) 분정례^{分定禮}(역할을 나누어 정함)

서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참석하는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정하는 것을 분정례라고 한다. 병산서원의 제사에서 잔을 올리는 헌관과 진행을 돕는 집사들은 오후 3시경에 도착한다. 오후 6시 30분경에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서원을 지키는 고지기와 몇몇 사람들은 분정례를 준비한다. 8시 30분이 되면 향사를 총괄하는 문중 어른이 명성재^{明誠齋}에 들러 분정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린다. 동재와 서재에 대기하고 있던 참석자들은 입교당에 모인다. 동쪽부터 헌관들이 배석하고 서원의 소임을 맡은 유사들과 초헌관^{初獻官}을 안내하는 알자^{謁者}와 향사의 전 과정을 적은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찬자^{贊者} 등 제사를 지내는 제관들이 배석한다.

배석이 끝나면 고지기가 “개좌^{開座} 아뢰오”라고 세 번 외친다. 그러면 향사를 주관하는 원장은 새로 임명된 임원의 명단과 향사를 지낼 때 참석한 사람들이 자필로 쓴 일종의 방명록인 향사시도록^{享祀時到錄}을 준비하고, 정해진 역할을 분정판에 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정한다.

그리고 유사 1명과 고지기가 나와서 지난 향사 때 분정한 집사들의 명단이 적힌 한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한지를 붙이고 나서 선임도니 임원과 집사의 명단을 적는다. 시도가 끝나면 한 학생이 분정판을 들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좌중을 한 바퀴 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서 자리를 끝내자는 뜻으로 “파좌^{罷座}합시다”라고 세 번 외치면 모두가 일어나서 같이 외친다. 끝으로 찬자가 새로운 집사들의 역할과 이름을 낭독하면 고지기가 다시 따라 외치는데, 그 순서는 분정판에 적힌 순서로 맨 처음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 이하 여러 집사의 순으로 불려진다.



사분정



분정판

2) 진설陳設(제사 음식을 진열함)

예부터 제사는 자시子時(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많은 서원과 가정에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병산서원의 향사는 이른 아침에 시작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각을 아침으로 바꾸었는데, 풍산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제사에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변경된 것이다. 제사가 이른 아침 시각에 시작되므로 진설은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헌관·찬자·유사들은 분정이 끝난 다음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인 제수를 점검하여 밀봉을 하기 위해서 고직사 마루에 모인다. 이들은 향사에 사용될 제수들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품목이 기록된 물목 단자를 보면서 고지기로부터 쌀·대추·밤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근봉謹封'이라 쓰인 한지와 함께 묶는다. 참고로 주향인 정위正位와 종향인 종사위從祀位에 올리는 제수의 물목은 아래와 같다.

정위 제수 물목			
쌀 3되	조 3되	청주 1항아리	돼지머리 1두
쇠고기 포 5꼬지	쇠고기 육젓 1그릇	조기 젓 1그릇	김치 1그릇[청저(靑菹)]
부추 1그릇[구저(菹菹)]	밤 2되	대추 2되	큰 초 1쌍
작은 초 1쌍	축문지 1장	한지 1장	향 1봉지
연갑(硯匣) 1개	고리(古里) 1개		
종사위 제수 물목			
쌀 3되	조 3되	청주 1항아리	돼지머리 1두
쇠고기 포 5꼬지	조기 젓 1그릇	김치 1그릇	밤 2되
대추 2되	작은 초 1쌍	한지 1장	향 1봉지

제수 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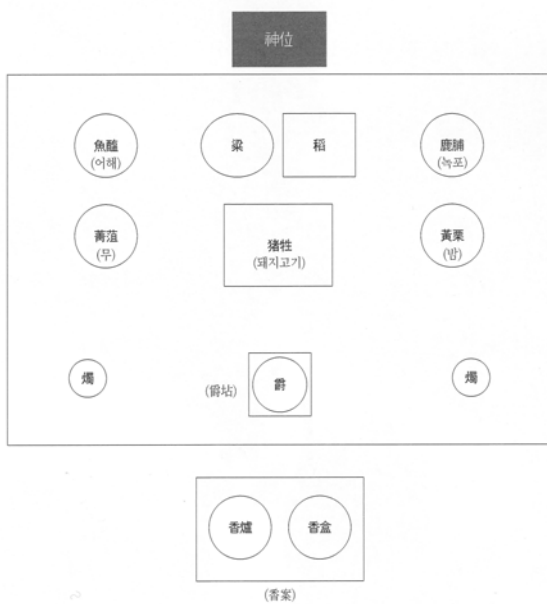
제사에 사용되는 제수는 익힌 음식이 아니고 모두 날것을 사용한다. 예전부터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제사에는 희생犧牲이라 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고지기는 곧바로 주안상을 마련하여 초헌관·유사의 순으로 술을 따라 올린다. 주안상을 물리고 나면 제수를 옮긴다. 제물은 전사청祀廳에 보관하였다가 이튿날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사당인 존덕사尊德祀로 옮겨야 하지만 제수의 보관이 쉽지 않아서 바로 존덕사로 옮겨진다고 한다. 제수가 존덕사로 들어갈 때는 동쪽에 집사와 학생들이 연장자 순으로 서고 서쪽에는 초헌관과 유사들이 직위 순으로 서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읊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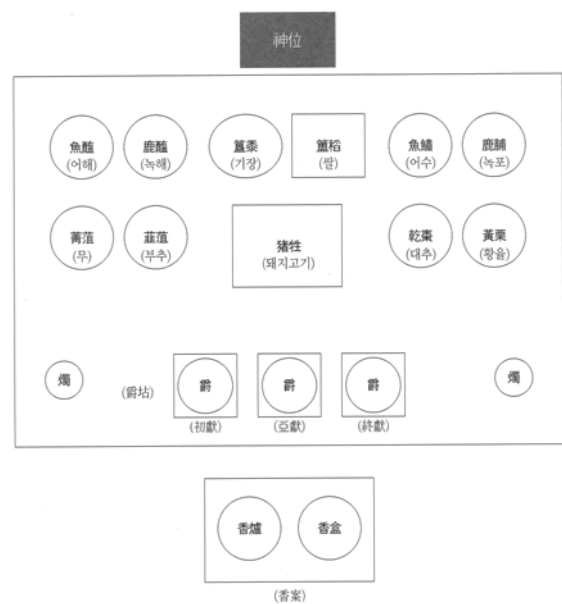
근봉



제물진설



종사위 제물진설도



정위 제물진설도

2-4-2. 향사의 진행 절차

제사는 아침 7시 경부터 시작된다. 이 시간이 되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복祭服으로 갈아입고 사당 앞마당에 두 줄로 늘어선다. 사당의 정문 앞에서 서쪽에 초헌관 이하 헌관과 알자·찬인이 서고, 동쪽에 집사들과 참석자들이 선다. 초헌관의 제복은 자주색이며, 아헌

관·종헌관·분헌관은 푸른색의 관복을 입고, 나머지 제관들은 삼베로 만든 제복이나 무명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 행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찬자가 제사의 순사가 적힌 홀기를 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존덕사 앞에서 두 번 절하고 손을 씻는 의식인 관세위盥洗位를 한 후에 홀기를 낭독하면서 제사가 시작된다.

홀기에 적힌 순서에 따라서 알자와 찬인은 헌관들을 사당 밖에 모셔두고 축관祝官을 비롯해서 제사의 진행을 맡은 집사들을 사당으로 인도한다. 집사들은 두 번 절하고 관세위로 가서 손을 씻고 각자의 책무에 따라 자기의 위치에 선다. 축관은 술 항아리와 제기의 뚜껑을 연다. 이 때 사당 밖에 있던 헌관들과 참석자들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사당 앞마당에 서는데 헌관은 앞줄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뒷줄에 선다.

알자는 초헌관 좌측 앞으로 나아가서 읊하고 행사의 시작을 청한다. 초헌관은 알자의 안내를 받아 관세위에서 손을 씻은 다음, 오른쪽 계단을 통해 존덕사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 꿇어앉는다. 이때 알자는 초헌관을 가운데 문까지만 안내하고 동쪽 문에서 기다린다. 초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을 할 수 있도록 향로의 뚜껑을 열어 도와준다. 삼상향이 끝나면 초헌관은 몸을 굽혀 엎드렸다 일어나서 동문으로 나간다. 알자는 동문에서 초헌관을 맞이하여 제자리로 안내한다.

1) 초헌례初獻禮(처음 술잔을 올리는 예)

찬자가 초헌례를 올릴 것을 알리면 알자는 초헌관을 술 항아리까지 안내하고 서쪽을 향해 서서 기다린다. 초헌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잔을 올리고 몸을 굽혀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앉는다. 그 다음은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년 모월 ○○삭朔 모일 후학後學 ○○○(초헌관 이름)는 감히 고합니다. 영의정 문충공文忠公 서애 류성룡은 학문이 넓고 견해가 분명하셨으며, 행동과 마음이 한결 같았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돼지를 잡아 공경스럽게 제사를 올리오며 이조참판吏曹參判 추증追贈된 수암 류공께도 올리옵니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초헌관은 몸을 굽혀 엎드렸다 일어난 뒤 동문으로 나가서 알자의 안내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초헌례-헌작(獻爵)



초헌례-독축(讀祝)

2) 아헌례亞獻禮(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예)

아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손 씻는 자리에 가서 손을 씻고 제주 향아리 앞에 나간다. 찬인은 서쪽을 향해 서 있고 아헌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잔을 올리고 나서 찬인의 안내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례-아헌관 인도



종헌례-분헌관 분향

3) 종헌례終獻禮(마지막으로 술잔을 올리는 예)

종헌관과 분헌관分獻官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각기 제주가 담긴 향아리 앞으로 나간다. 종헌관은 주향의 신위 앞에 분헌관은 종향의 신위 앞에 꿇어앉는다. 종헌관은 술잔을 올리고 몸을 굽혀 엎드렸다 일어나서 동문으로 나온다. 분헌관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린 후에 몸을 굽혀 엎드렸다 일어나서 동문을 통해 나온다. 찬인은 종헌관과 분헌관을 제자리로 안내한다.

4) 음복례飲福禮(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



음복례-음복상



망예-음복상

음복례에서는 먼저 축관이 제주 향아리 앞으로 나아가서 잔으로 술을 뜨는데, 복이 담긴 술이라 하여 이를 복주라고 한다. 알자가 초헌관을 안내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간다. 초헌관은 서쪽을 향해 꿇어앉고 축관은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초헌관에게 술잔을 준다. 초헌관이 이를 받

아 마시면 축관은 제사에 쓰인 조육조육을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은 이를 받아다가 다시 준다. 초헌관은 알자의 안내를 받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초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헌관들이 사당을 향해 두 번 절을 한다. 이어서 축관이 제기의 뚜껑을 닫고 모든 집사와 학생들이 사당을 향해 두 번 절한다.

5) 망예망예(축문을 땅에 묻는 예)

알자가 초헌관을 안내하여 망예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선다. 축관이 축문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축문을 묻으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향사례가 끝이 났음을 알린다. 알자와 찬인은 각기 헌관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축관과 집사들은 원래의 자기 자리에서 두 번 절한다. 이어서 찬자와 알자 및 찬인들은 모두 두 번 절하고 밖으로 나간다.

다음으로 제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이 시작된다. 헌관들은 동쪽에 자리하고 왼쪽에는 제사에 참여한 제관들이 앉고 오른쪽으로는 유사들이 앉는다. 음복상이 놓여지면 학생 중에 한 명이 초헌관을 비롯해서 모든 제관들에게 술을 따르고 “초헌관 순배순배 드십시오”라고 세 번 외친다. 순배란 원래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향사를 지낸 초헌관을 비롯한 아헌관·종헌관의 순으로 돌아가면서 음복술을 마시는 것을 가리킨다.



음복례-순배

순배가 끝이 나면 여러 집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헌관들 앞에 나와서 “제사 공론합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초헌관이 “제사 중에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 다음 연장자가 “행사에 실례가 없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자리에서 제사의 준비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다음 연장자가 “제사공론 마칩시다”라고 한다. 그런 후 서원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차기 향사의 임원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서 모든 행사의 일정을 마치는 뜻으로 “파좌파좌합

시다”라고 세 번 외치면 음복례가 끝이 난다.

서원의 임원을 정하고 후보자 명단인 망기望記를 보내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사위원은 겸암파謙菴派에서 1명, 서애파西厓派에서 1명을 뽑고, 풍천면에서 2명, 풍산읍에서 2명, 그리고 종손이 선임된다. 인사위원회는 보통 향사가 있기 10일 전에 개최된다.

2-5. 병산서원의 자료 현황

병산서원의 자료현황표

구 분		내 용
관찬 기록	조선왕조실록	-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 병산서원 원장자리와 한주집 소각과 관련하여 불거진 영남사람들의 갈등을 다룬 기사
	승정원일기	- 병산서원에 대한 사액 청원에 대한 상소.
	일성록	- 병산서원청액 상소 - 국왕이 사액을 허락한다는 내용 - 병산서원 원장 임명을 둘러싼 사건을 다룬 기사
	비변사등록	- 국왕이 병산서원의 사액을 윤허한다는 내용
고문서	제향 자료	「봉안록(奉安錄)」, 「집사록(執事錄)」, 「분향록(焚香錄)」,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제물의식(祭物儀式)」, 「제기(祭器)」, 「제수물목(祭需物目)」
	교육 자료	「입원록(入院錄)」, 「거재안(居齋案)」, 「강안(講案)」
	조직과 운영 자료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원암요람(院案要覽)」, 「원임록(院任錄)」
	서원 경제 자료	「전여기(傳與記)」, 「원노비안(院奴婢案)」
	향촌사회사 자료	「상소(上疏)」, 「경로회안(敬老會案)」, 「통보(通報)」, 「동안(洞案)」, 「향록(鄉錄)」, 「계약(契約)」, 「상대계첩(霜臺契帖)」, 「변무록(辨誣錄)」
전적 및 문집	전적	- 총 1,071종 3,039책의 문집 및 전적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놓았음 - 병산서원과병산서원 배향자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 수집한 것이 혼재되어 있음 - 모두 25종 1,907매의 책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보관 중임
	문집	- 병산서원과병산서원 배향자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 수집한 것이 혼재되어 있음 - 병산서원이남인계 서원이었던 만큼 남인계 인사들의 문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암유고(可庵遺稿) 외에 700여권의 목록이 있음

2-5-1. 병산서원을 기록한 관찬기록

조선왕조의 관찬 기록 가운데, 병산서원을 망라한 자료의 집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 DB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에는 『고종실록』에 병산서원과 관련하여 두 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871년(고종 8) 기사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철폐를 면한 47개 서원에 병산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1907년(광무 11)의 기사는 병산서원 원장 자리와 『한주집漢洲集』 소각과 관련하여 불거진 영남 사람들의 갈등을 다룬 기사이다. 두 기사의 전문과 원문은 아래와 같다.

■ 『고종실록』 권8, 8년(1871) 3월 20일

예조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의 개성開城 송양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의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의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상도의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の 영월寧越 창절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の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백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の 북청北靑 노덕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の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禮曹以書院疊享毀撤事 謹依兩度下教 臣秉昌進詣大院君前稟議 則以爲 ‘聖廟東西廡配食諸賢及忠節 大義卓然炳烺 實合百歲崇奉之四十七院外 竝爲撤享撤額’ 之意 奉承教意 已賜額常存處四十七院 謹茲別單書入 待啓下 行會各道啓

京畿 開城崇陽書院 龍仁深谷書院 坡州坡山書院 驪州江漢祠 江華忠烈祠 廣州顯節祠 金浦牛渚書院 抱川龍淵書院 果川四忠書院 陽城德峰書院 果川鷺江書院 高陽紀功祠 忠清道 連山遯巖書院 鴻山彰烈祠 清州表忠祠 魯城魯岡書院 忠州忠烈祠 全羅道 泰仁武城書院 光州褒忠祠 長城筆巖書院 慶尙道 慶州西嶽書院 善山金烏書院 咸陽藍溪書院 禮安陶山書院 尙州玉洞書院 安東屏山書院 順興紹修書院 玄風道峰書院 慶州 玉山書院 尙州興巖書院 東萊忠烈祠 晉州彰烈祠 固城忠烈祠 居昌褒忠祠 江原道 寧越彰節書院 鐵原褒忠祠 金化忠烈書院 黃海道 海州清聖廟 白川文會書院 長淵鳳陽書院 咸鏡道 北青老德書院 平安道 永柔三忠祠 安州忠愍祠 寧邊酬忠祠 平壤武烈祠 定州表節祠

■ 『고종실록』 권48, 44년(1907) 1월 21일(양력)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지금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이윤용(李允用)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이유인(李裕寅)의 안건(案件)을 검사(檢事)가 공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리하니, 피고 이유인은 지난 신축년(1901년) 봄 경상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에 영남 유림들의 영수 자리를 차지할 계책을 가지고 자기에게 빌붙는 몇몇 아첨꾼들을 은밀히 사주하여 안동군 병산서원 원장의 직임을 도모해서 차지하였습니다. 이 서원의 유생 중에서 유만식(柳萬植), 이중화(李中華), 박해령(朴海齡) 등은 이유인이 좌도 출신으로서 유림의 중한 직임을 함부로 차지한 것은 청의(淸議)에 전혀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논박하면서 도산서원 도회회석(道會會席)에서 피고 이유인이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때문에 유감을 품고 유만식 등과 그 외에 자기에게 빌붙지 않는 일반 사류들을 일망타진할 흥계를 은근히 꾸미던 참이었습니다. 피고 장지원(張志遠)은 그의 옛 스승인 이진상(李震相)의 유집(遺集)을 불살라버린 유만식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갚을 뜻을 품고 있었는데 계묘년(1903) 4월경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이진상의 아들 이승희(李承熙)는 자기 아버지의 유집을 불살라버린 원한을 기어이 풀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문인 이태훈(李台勳)과 한통속이 되어 사전에 모의한 다음 함께 피고 이유인을 방문하여 한바탕 담화를 하여 유만식 등을 모함하여 해치기로 쌍방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만식 등은 시골에 살면서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흠 잡힐 만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무함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층 더 기묘한 계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운현궁(雲峴宮)과 친근한 사람인 대구에서 사는 전(前) 군수(郡守) 이현주(李玄澍)를 역적의 괴수로 날조하여 모함하고, 유만식 등을 비롯하여 유감을 품은 여러 사람을 모두 같은 패거리로 몰아넣기로 하고 미리 한 통의 문목기(問目記)를 만들었는데, 피고 이유인이 조작하여 부르면 피고 장지원은 부르는 대로 받아썼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무고를 황제께 아뢰어 후에 주선을 받아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어 이현주, 유만식, 김규일(金圭一) 등을 차례차례 잡아가두고 여러 번 형신(刑訊)하였는데, 그 문목기의 제4조에는, 「500년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 일어나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아무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아무개는 네가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말이

없고 쓰지 않는 계책이 없다. 을미년(1895) 8월 어느 날 모의를 찬동하면서 스스로 신출귀몰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너는 늘 국태공國太公과 아무개를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스럽게 여겼으며, 너는 임금을 내쫓기 위한 모의를 하면서 종사宗社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을미년 8월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 너는 경주군수로서 온 경상도의 대소 인민들을 선동하면서 아무개를 찬양하며 추대하기를 원했고 천심이 쓸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 말을 퍼뜨리고 한편으로는 조정에서 회의하였으니, 이것은 반정反正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우리나라는 정령政令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지금 서울과 지방에서 몹시 바라는 자는 오직 아무개이다. 아무개는 천품이 출중하고 영걸스러우며, 용모가 비범하고 목소리는 큰 종소리 같다. 오희한 코에 미골尾骨이 불룩하게 솟았으며 용처럼 다니고 범처럼 걸으며 손을 내리면 무릎을 지나니, 바로 세상을 구원할 참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장화식張華植 부자 및 강석호姜錫鎬, 유한익劉漢翼, 강봉조姜鳳朝는 자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장가 부자는 천하의 인재이고 대원군의 강직한 신하로서 장차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정상正常으로 회복시킬 큰 공신이 될 것이니, 그가 얼마나 귀하게 될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장화식 부자, 박해령, 유만식, 이중화, 유명우柳永佑, 안효제安孝濟, 윤석우尹錫祐, 유덕영柳德榮, 이광룡李光龍, 이중식李中植, 김계상金啓相, 김규일 등 36인은 아무개의 강직한 심복이라고 하면서 내직과 외직의 높고 중한 벼슬에 배당하여 임명하기로 이미 도록都錄을 만들었는데 아무개란 바로 이준용李埈鎔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장화식 부자는 큰 일을 치를 만한 사람이다. 이번 장교각藏教閣을 새로 짓는 일에 대해 상소한 것도 내가 획책劃策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나의 패거리들이 움직였다. 연전에 도산서원의 위패를 잃었을 때에 서울에서 주선하여 시골에 있는 아무 아무개로 하여금 회원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데, 그때 모임에 참가한 자는 수천인이나 되었다. 병산서원에 모였을 때에 모인 자는 500여 인이었고 『한주집寒洲集』을 불사를 때에 상주에 모인 자는 수천인이었다. 한기동韓耆을 예장禮葬할 때에 모인 자는 300여 인이었고 의령宜寧에서 도회道會 때에 회원은 수천인이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지휘한 것이다. 박해령, 이중화, 유만식, 정재기鄭在幾, 안효제, 유덕영, 이광룡 등은 진심으로 호응하는 사람들로써 나의 명령에 따라 임의로 모이기도 하고 해산하기도 한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백만 인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고, 항상 유림들의 일에 핑계를 대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우리 패거리들 중에 몇 만 금을 가진 큰 부자가 몇 집 있는데, 이는 바로 박해령, 이중화, 유덕영, 유명우, 윤석우 등이다. 그 다음가는 부자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모두 아무개에게 더없이 정성스러우니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있는 재산을 다 털어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이 또한 하늘이 아무개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황제를 욕하고 종사의 전복을 꾀하며, 불순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서울과 지방에 세력을 뻗치고, 해외로 나간 역적들과 연계를 맺고 군사를 거느리는 놈들과 합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을미년 어느날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에 술자리를 벌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취한 김에 춤을 추며 노래를 지어 서로 축하하기를, 『해가 솟아 밝게 비추니 구름이 흩어지고, 삼각산이 다시 솟으니 한강 물이 맑아졌네. 요녀 하나 지옥 가자 온 나라가

편안하다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망극한 참변이 일어난 후에 또 다시 획책하기를, 풀을 베면서 뿌리까지 없애버리지 못하여 싹이 돌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영남 71개 주의 민심은 모두 아무개를 추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늘 말하기를, 「연전에 이준용이 안경수安駟壽, 권형진權滢鎭 두 역적의 구조口招에서 나와 서울과 지방의 인사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역적을 성토하였는데, 이현주는 본래 대원군 쪽의 사람으로서 한번도 상소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원수처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1년 동안 감금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화식 부자는 향락을 만들고 장교각을 짓기 위해 상소한 것 때문에 혐의가 생겨 이어 원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효제는 갑오년(1894) 연간에 상소하여 진령군璣靈君을 누이니 아우니 하였다는 말을 들추어 내었는데, 그에게서 지적을 받자 이 때문에 원망을 품었습니다. 윤석우, 유덕영, 유영우, 이광룡, 이중식, 김계상, 김규일, 정재기 등은 모두 병산서원의 논의를 주관한 무리들이므로 같이 혐의를 지은 사람들이며, 강석호, 강봉조도 병산서원의 유생들을 비호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유한익, 정준호鄭駿好, 한시동韓始東, 유성준俞星濬 등 여러 사람은 이현주와 서로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몰아넣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장지원, 유만식 등은 체포된 뒤에 이 사건이 사전에 모의된 전말을 편지로 시골에 있는 이승희와 이두훈李斗勳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경무사로 교체된 뒤에 이현주의 무옥誣獄은 현안懸案으로 남아 미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피고 이유인은 가까운 사람인 피고 김준식金準植을 암암리에 사주하기를, 「군君은 평소에 봉화 군수奉花郡守 한 자리를 원하였는데 안동 군수도 하게 될 것이다. 이현주의 옥사는 군이 스스로 맡아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 신문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김준식이 난색하며 말하기를, 「이현주 외의 체포된 여러 사람의 문제를 틀림없이 나에게 물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는 너는 모른다고 대답하라.』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의 죄안을 만들어낸 기록장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일찍이 민치헌閔致憲에게서 써 받은 것으로 대답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니,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실상이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민치헌은 이미 죽은 몸이다. 죽은 자에게 누가 따지겠는가?」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 사건은 이미 이처럼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인데, 대질 신문을 하는 마당에서 이현주가 어찌 기꺼이 자복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현주가 자복하지 않으면 네가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녕 들은 듯이 분명하게 말하면 이가는 틀림없이 억장이 막혀 감히 공초를 바치지 못할 것이고, 법관은 반드시 자복한 것으로 귀결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진년(1904) 봄에 피고 김준식이 스스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하였는데, 이현주를 여러 번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별로 죄가 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광무 9년 1월 11일에 본원에서 방면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이태훈은 도망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유인은 경상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영천군永川郡 이기선李琪宣의 손자 이국영李國永을 잡아가두고 경약소京約所에 획부劃付한 그 군의 향약전鄉約錢 중

에서 엽전 1,300냥을 탈취한 것으로 칭하였고, 음력으로 올해 7월 10일경에 종신 유배 죄인 이세직李世植이 오랫동안 배소로 출발하지 않고 몰래 찾아오자 피고는 그를 환대하였고, 당시 경무관 유기량柳冀亮을 밀실에서 회견하게 하고 하룻밤을 유숙시켰다는 사실이 각 피고의 진술, 자복 및 대질 신문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따지지 않는 율문律文, 제325조의 가두지 말아야 할 자를 가두되 재물을 받아 장오臧汚가 중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631조의 불법적으로 800냥 이상 장오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단한다는 율문에 따라 처결하겠습니다. 피고 장지원은 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논하지 않는 율문, 제135조의 증범從犯은 수범首犯의 형률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율문에 따라 종신 징역에 처하겠습니다.

피고 김준식은 같은 조항, 같은 율문에 따라야겠지만 전부 이유인의 꾀임과 사주에 따라 중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두 어리석은 탓으로 빚어진 것이니 정황을 참조하여 고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의율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징역 15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 장지원, 김준식 등은 마땅히 해원該院에서 의율한 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피고 이유인이 병산서원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린 데 대하여 유감을 품고 아첨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사람을 무함한 것은 어리석은 율분이 치밀어 오른 데서 나온 것이며 당시 모함당한 여러 사람들도 이미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참작하여 살려주는 것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당 범인 이유인을 본률本律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징역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다. 모두 특별히 세 등급을 감하여 유배로 바꾸라.”

하였다.

法部大臣李夏榮奏

現接平理院裁判長李允用質稟書 內開 被告李裕寅案件 由檢事公訴審理 則 ‘被告李裕寅 去辛丑春莅任慶尙北道觀察使時 以嶺南儒林領袖地望占居之計 陰嗾附己幾箇諂佞之徒 圖得安東郡屏山書院院長之任矣 該院儒生中 柳萬植李中華朴海齡等 駁論以爲 李裕寅以左道進身之人 冒據儒林重任 大不合於清議 陶山書院道會會席 剔去被告李裕寅院長之任名矣 被告李裕寅 因此含憾柳萬植等及其外不附己之一般士流 陰蓄一網打盡之兇計之際 被告張志遠 以渠之先師李震相遺集 見燒於柳萬植之嫌怨 有報復之意 癸卯四月間上京之時 李震相之子李承熙 以其先人遺集見燒之冤期於伸雪之意委托 故與其同門生李台勳 連腸綢繆 同爲訪見被告李裕寅 一場談話 而柳萬植等陷害之意 兩相投合 而柳萬植等居鄉守操 不矧無瑕可執 以私怨誣陷該人 則世人指目 有難回避 做出一層奇計 親近於雲峴宮之人大邱居前郡守李玄澍 構陷以反逆巨魁 柳萬植等及含憾諸人 竝以

同黨驅入 一問日記 豫爲構成 而被告李裕寅作之呼之 被告張志遠 隨呼筆記 被告李裕寅 將此誣奏天陛 後警務使周旋被任 李玄澍柳萬植金圭一等 次第捉囚 屢度刑訊 而該問日記第四條曰「五百年必有王者興 今時則其時也 某人則其人也」第五條曰「某人以汝師事 無言不聽 無計不用 乙未八月某日之贊謀 自謂神出鬼沒」第六條曰「汝常恨國太公與某人 不用汝 廢立之謀 以至宗社必亡之境」第七條曰「乙未八月極變後 汝爲慶州郡守 唱動全嶺大小人民 以某人謳歌願載 謂天心之歸附 一邊遊說日本 一邊會議朝廷 則其謂反正 自然之事也」第八條曰「我國政令日亂 生靈塗炭 今中外頤祝者 惟某人 某人 天挺英傑 相貌異凡 聲如洪鍾 隆準龍顏 龍行虎步 垂手過膝 卽命世之真人也」第九條曰「張華植父子及姜錫鎬劉漢翼姜鳳朝 頻數相對 以俟其日 而張某父子天下人才 雲宮骨鯁 將爲撥亂反正之大功臣 其貴不可量也」第十條曰「張華植父子朴海齡柳萬植李中華柳永佑安孝濟尹錫祐柳德榮李光龍李中植金啓相金圭一等三十六人 謂以某人心腹骨鯁 排備內外之大官緊任 旣成都錄 而某人 卽指李堉鎔」第十一條曰「張華植父子 爲人可做大事 今番藏教閣創建事陳疏 亦吾所以劃策 動得在京之吾黨 前年陶山書院失牌時 在京周旋 使某某之在鄉者 唱起會員 其時參會者爲屢千人 屏山書院會時來集者 五百餘人 寒洲集燒火時 尙州會集者屢千人 韓耆東禮葬時來集者 三百餘人 宜寧道會時會員數千人 此皆吾所指揮 朴海齡李中華柳萬植鄭在夔安孝濟柳德榮李光龍等血心響應 聽吾指教 任意聚散 推此觀之 雖百萬人 可一朝動得 每常憑藉儒林之事 則世不相疑」第十三條曰「吾黨中累巨萬富人幾家 此是朴海齡李中華柳德榮柳永佑尹錫祐等也 其次饒富之人 不知其數 皆血誠于某人 將臨事傾財 不愛其有者也 此亦天之所以與之某人」第十七條曰「詬罵至尊 謀革宗社 蜷結不執之黨 跨勢京鄉 連絡於渡海之賊 符合於領軍之漢」第十八條曰「乙未某日極變之後 置酒南下 乘醉起舞 作歌相賀曰『日出明兮雲飛揚 三角復高兮漢水清 一妖逝兮四方安』」第十九條曰「罔極之後 又復劃策曰『斬草不除根 剪纔如萌』」第二十條曰「嶺以南七十一州之民心 咸戴某人」被告李裕寅恒言曰「年前李堉鎔 出於安駟壽權滢鎮兩賊之口招 京鄉人士齊聲討逆 而李玄澍 素以雲邊之人 一不參於陳疏 反視我如仇讎 故此不可不痛治 前此經年囚禁 亦吾所爲 張華植父子 作嫌於鄉錄 藏教閣陳疏事 仍成讎怨 安孝濟甲午年間疏劾臻靈君 曰妹曰弟之說 指斥於渠 以此含嫌 尹錫祐柳德榮柳永佑李光龍李中植金啓相金圭一鄭在夔等 皆是屏山主論之輩 同爲作嫌 姜錫鎬姜鳳朝 亦是袒護屏山儒生 其餘劉漢翼鄭駿好韓始東俞星濬諸人等 謂與李玄澍相從 竝爲驅入」被告張志遠柳萬植等被逮後 該事綢繆之顛末 致書通報於在鄉之李承熙李斗勳矣 被告李裕寅警務使遞任之後 李玄澍誣獄懸案未決矣 同年十月 被告李裕寅 暗囑所親人被告金準植曰「君於平日 願得奉化郡守一窠 安東郡守 亦將爲之矣 李玄澍獄事 君自擔當 以發告人出頭質辨」也 被告金準植難之曰「李玄澍外被捉諸人之事 必問於吾矣 吾何以對之」被告李裕寅曰「此則汝以不知對之」也 被告金準植曰「李玄澍罪案構成之錄紙一款 將何以對之」被告李裕寅曰「此則汝以曾於閔致憲許錄給樣對之」也 被告金準植曰「以無實之辭 將何以辨之」被告李裕寅曰「閔致憲 今已身故 則死者有誰憑問乎」被告金準植曰「李玄澍之事旣如是構虛 其於對質之場 李豈肯自服乎」被告李裕寅曰「李若不服 汝其張目揮拳 以丁寧得聞樣分明質辨 則李必臆塞 不敢納供 法官必歸之以自服」甲辰春被告金準植 自以發告人出頭就質 李玄澍屢度盤覈 別無可罪之證 光武九年一月十一日 自本院處分放免 而現今李台勳在逃未捉 且被告李裕寅 在任慶尙北道觀察使時 捉囚永川郡李琪宣孫國永 稱以劃付於京約所 討取同郡鄉約錢中葉錢一千三百兩 陰曆本年七月旬間 流終身罪人李世植 久不發向配所 暗地來訪 被告款接請邀 其時警務官柳冀亮 使之會見于密室 留宿一夜之事實 證於各被告 陳供自服及質辨明白 被告李裕寅照刑法大全第二百八十四條「人을 反逆을 誣告한 者는 已決未決을 勿論律」

第三百二十五條「應히囚치 아니홀 者를 囚호되 受財호야 賊이 重홀 者律」第六百三十一條「枉法贓八百兩以上律」第二百二十九條「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는 其重호 者를 從호야 處斷」文 處辦 被告張志遠 照第二百八十四條「人을 反逆을 誣告호 者는 已決未決을 勿論律」第三百三十五條「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文 處懲役終身 被告金準植 當照同條同律而一從李裕寅甘誘指使 至犯重科 都由於愚迷所致 則參究情跡 宜有酌量 故於原擬律 減一等 處懲役十五年何如云矣 被告李裕寅張志遠金準植等 當依該院所擬律處辦 而竊伏念被告李裕寅 含憾於屏山書院院長任名之剔去 締結諂佞之徒 誣捏良善 出於愚憤所激 其時被誣諸人 亦既昭哲矣 參酌情狀 合論傳生 該犯李裕寅於本律 減一等處懲役終身何如 制曰 不無斟酌 宜有參恕之端 竝特減三等 換以流配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32년의 기사 1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영남의 유생 이순발李恂發이 소두疏頭가 되어 1,000여 명이 올린 연명 상소이다. 상소의 내용은 병산서원에 대한 사액 청원이다.

■ 순조 32년(1832) 9월 19일

慶尙道儒生幼學李恂發權宅夏李晚受洪載淵李在恒 … 等疏曰 伏以臣等 竊伏惟念聖王所以闡儒教正士趨 使一世之人 觀感興起者 莫大乎尊賢 夫賢者道之所存也 學窮天人 行通神明 格致誠正之工 眞知而實踐 禮樂刑政之教 由體而達用 上而爲國家之著龜 下而爲儒林之宗匠 百世之後 有所模範而依歸者 是謂大賢 而賢者不世出 苟有其人 則生而尊寵之 沒而崇報之 於是乎又爲之立祠以享之 賜額以表之 躋而置諸國學之列者 卽我列聖朝尊道崇儒之懿典徽規 卓越乎前代 而爲磨俗致治之本者也 臣等所居道內安東地 有屏山書院 卽故領議政文忠公臣柳成龍暇食之所也 其規模設置 蓋嘗略備 而于今數百年 尚闕宣額之典 道德勳業之合於祭法者 未免爲鄉賢社祭之比例 此實一道儒士所共咨嗟抑鬱 而有不敢終默者也 臣等竊以我東方道學之正 必以先正臣文純公李滉爲宗 而當日及門諸賢 惟文忠實得其嫡傳 蓋其天分甚高 穎悟絕倫 自少爲學 一以窮理·明善·精思·力踐爲主 李文純大加稱詡 嘗曰 此子天所生也 卒畀以心學正訣 其以書狀赴京也 斥僧道二流之序於前列者曰 吾輩以冠裳之人 不可立於道釋之後 又語太學儒生曰 陳白沙見道未精 王陽明禪學換面 不如薛文清之一出於正也 及還 李文純 以書賀之曰 陸禪懷裏於天下 公能發此正論 點檢其迷 不易得也 暨受知于我宣祖大王 自在經幄 以格君心 爲致治之本 每有進對 積其誠意 開陳義理 凡修己用人之道 存心清化之要 出入經義 委曲懇惻 宣廟嘗下教曰 柳成龍君子人也 雖謂之當今大賢 可也 觀其人與之語 不覺心服 又教曰 古之人君 於其臣也 有臣之者 有友之者 有師之者 卿十載經幄 一德無瑕 論其學 非章句之儒 語其才 足以當大事 知卿莫如予也 其學問造詣之見許於君上 有如此 逮夫龍蛇之變 身都將相 盡瘁王室 中興再造之勳 簡冊載之 彝鼎銘之 固不待臣等之覩縷 而蓋其模猷籌畫 錯綜萬變 粹然一出于正 皆從學問中推將去 眞箇是有體有用之學 命世王佐之才也 一代諸賢 有如文忠公臣李恒福 文莊公臣鄭經世 副提學臣李俊 文正公臣許穆 皆所謂汙不至阿好者 而或以謂體用兼備 或以謂勳業餘事 論其學術則有曰 莊敬之工 表裏如一 論其文章則有曰 錦繡河漢 精義流出 論其氣象則有曰 萬古和風 一天明月 莫不以盛代醇儒 中興名相 一辭稱服 而至若大聖人褒許之隆 有可以徵信於百世者 猗我先大王甲寅致侑時 親撰誄文 有若曰 咸誦西厓 農夫紅女 鹽梅舟楫 輒起曠想 又於御製題家藏皇朝諸將書畫帖 有若曰 故相之所以爲故相 今猶可想見

抑予之起感於故相者特有之 風氣日漓 人才遞降 趣舍招湊 一皆爲虛文所束縛 而凡經世大典 禮樂兵農之事 儲置胸中 倒篋而出 如故相者何人哉 不厚其棟 不能任重 重莫如國 棟莫如才 倘故相之無愧色也 嗚呼 人臣之受遇於君上者 前後何限 而至如當今大賢一德無瑕之褒 親承於筵席之上者 惟文忠一人 況於數百載之後 紆宸感於曠世 渙隆獎於雲漢 至謂之以故相之無愧色者 此誠千古罕有之事 而兩聖朝大哉之言 如日中天 則臣等又何敢一一枚陳而稱述之乎 今其院宇 距文忠所居五里而近 丹岸碧泓 景物蕭爽 允合仁智之趣 文忠嘗樂之 築室數架 讀書講道于其中 遺芳未沫 後學起慕 因其舊堂而增修之 薦以俎豆而揭虔之 號其詞曰 尊德 名其院曰 屏山 事在萬曆甲寅 而距今二百餘年矣 衿紳之藏修游息者 莫不依歸于此 山川草木 尚帶光輝 籩簋香火 若接聲響 而但恩額未宣 院體不重 大爲昭代之闕典 儒林之欠事 故向在庚申春 道內多士 冒陳天陛 則惟我先大王 招致疏首儒生于政院 下教若曰 文忠公功勳卓越 本院之至今不宣額 甚是異事 何待儒生陳疏 朝家當別施恩典 爾等宜退歸 疏儒等抱此以歸 奉若成命 布告一道 朝夕顒俟者 已過三十年所 而於戲不忘之思 至今如一日矣 迺者我殿下 適丁今年 穆然興感 念中興之勞勩 想明良之契遇 致侑之命 至及家廟 聖德休光 前後相符 院額一事 殆若有待於今日 伏況庚申下教 旣以不宣額爲甚異 又許以別施恩典 則此實先王有志未遑之典也 及乎今日 特許恩額 使廟貌重而興鬱伸者 非但爲國家尊賢勵世之令典 亦豈非我聖上繼述之一事 而大有光於後世者乎 本院尸祝之後文忠之子贈參判臣祔 實從享焉 蓋祔克承家學 恬靜自守 其學以窮理居敬爲本 以遺逸薦授南臺 爲時名儒 眞所謂是父是子不顯亦世者也 故一道公議 配食于該院 亦已年久 而其他同時之諸賢 後來之名碩 皆不與焉 此尤可見本院事體之極其謹嚴 而非他院之比也 臣等於今年春間 治疏伏閣之際 適有本家祠版致祭之命 而又因喉院仰稟 姑令退去 故義難瀆擾 黽勉徑歸 然經夏徂秋一道多士之忱 愈久而愈鬱 茲敢相率更顒 伏乞聖明 淵然深思 仰體先朝別施之意 特許屏山書院宣額之典 以光聖德 以幸斯文 千萬顒祝 臣等無任云云 省疏具悉 所請令廟堂稟處 爾等退修學業

3) 일성록 日省錄

5건이 확인되는데 첫 번째 1832년의 기사는 이순발李洵發 등이 올린 병산서원 청액 상소이다. 두 번째 1853년의 기사는 호군護軍 이동순李同淳 등의 병산서원 청액 상소이다. 세 번째 1863년 10월 기사는 교리校理 이계로李啓魯 등의 병산서원 청액 상소이다. 네 번째 1863년 11월 기사는 교리 이계로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국왕이 사액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 1906년 기사는 병산서원 원장 임명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순조 32년(1832) 9월 19일

강 嶺南儒生李洵發等一千二百五十人陳疏請柳西厓 屏山書院宣額賜批
 목 疏略曰使一世之人觀感興起者莫大乎尊賢夫賢者道之所存而不世出苟有其人則生而尊寵之歿而崇報之於是乎又爲之立祠以享之錫額以表之躋而置諸國學之列者卽我列聖朝尊道崇儒之懿典也臣等所居道內安東有屏山書院卽故領議政 文忠公臣柳成龍暇食之所也其規撫設置蓋嘗略備而于今數百年尚闕宣額之典道德勳業之合於祭法者未免爲鄉賢社祭之比例此實一道儒生所共咨嗟抑鬱而有不敢終默者也宣祖嘗下教曰柳成龍君子人也雖謂之當今大賢可也觀其人與之語不覺心服又教曰古之人君於其臣也有臣之者有友之者有師之者卿十載經幄一德無瑕論其學非章句之儒語其才足以當

大事知卿莫如予也其學問造詣之見許於君上有如此逮夫身都將相中興再造之勳簡冊載之矣猗我先大王甲寅致侑時親撰誄文有若曰咸誦西厓農夫紅女鹽梅舟楫輒起曠想又於御製題家藏皇朝諸將書盡帖有若曰故相之所以爲故相今猶可想見抑予之起感於故相者特有之風氣日漓人才遞降趣舍指湊一皆爲虛文所束縛而凡經世大典禮樂兵農之事儲置胸中倒篋而出如故相者何人哉不厚其棟不能任重重莫如國棟莫如才倘故相之無愧色也兩聖朝大哉之言如日中天則臣等又何敢一一枚陳而稱述之乎今其院宇距文忠所居五里而因其舊堂而增修之薦殖豆而揭虔之號其祠曰尊德名其院曰屏山事在萬曆甲寅而距今二百餘年矣但恩額未宣院體不重故向在庚申春道內多士冒陳天陞則惟我先大王招致疏首儒生于政院下教若曰文忠公功勳卓越本院之至今不宣額甚是異事何待儒生陳疏朝家當別施恩典爾等宜退歸疏儒等抱此以歸奉若成命布告一道朝夕顒俟者已過三十年矣迺者我殿下適丁今年穆然興感致侑之命至及家廟聖德休光前後相符院額一事殆若有待於今日而本院戶祝之後文忠之子贈參判臣袞實從享焉蓋袞克承家學恬靜自守其學以窮理居敬爲本以遺逸薦授南臺爲時名儒眞所謂是父是子不顯亦世者也故一道公議配食于該院伏乞仰體先朝別施之意特許屏山書院宣額之典批以所請令廟堂稟處爾等退修學業

■ 철종 4년(1853) 1월 2일

강 護軍 李同淳從縣道上疏請屏山書院宣額賜批

목 疏略曰天佑宗祔我聖上踐位御極已三年于茲矣睿智天縱學問日就此誠右文崇德之一大機會也臣聞帝王之學異於匹庶非記誦尋數而止宥密祈永之本修己治人之要皆從知行上做去昔在宣廟朝臣先祖文純公臣滉進聖學十圖收放操存之功輔世範俗之具無不該貫而備載若於講對之暇特賜宣覽則其爲聖學之資益顧不多歟因是而又有所夙昔齋志之爲殿下陳者臣所居道內安東地有屏山書院即故領議政 文忠公臣柳成龍妥食之所而其子逸持平贈吏曹參判臣袞實從享焉于今數百年尚闕宣額之典一道衿紳所共咨嗟念臣先祖先正臣滉爲東方道學之宗而當日及門諸賢惟文忠實得其嫡傳逮夫龍蛇之變盡瘁王室中興再造之勳彝鼎銘之固不待臣之覩縷而且其子袞服習詩禮恬靜自守眞所謂率行趾美不顯亦世者也今其院宇即文忠所嘗讀書講道之地遺芳未沫後學起慕但恩額未宣院體不重大爲昭代之闕典臣於奄奄垂死之年控茲耿耿不一籲於絃纊之下則是負殿下也伏願特降屏山書院宣額之命以章聖德焉批以所陳切實當體念而下款事令廟堂稟處

■ 철종 14년(1863) 10월 30일

강 校理 李啓魯上疏請屏山書院宣額仍陳勉賜批

목 疏略曰竊念東方道學之能集大成者即先正臣文純公李滉是已當時及門諸賢故領議政文忠公臣柳成龍乃其嫡傳也逮夫龍蛇之難盡瘁王室謨猷籌畫一出於正卒成中興之元勳一國之人孰不尊慕而嶺南安東之地即文忠生長退休讀書講道之所也後學因其舊堂而增修揭之嘉號而尸祝之祠曰尊德院曰屏山仍以逸持平贈吏曹參判臣柳袞從享焉袞即文忠之第三子也繼承家學服習詩禮恬靜自守爲時名儒配食斯院殆若九峯之配於西山也斯院之設久矣而但額號未宣體貌不重實是昭代之闕典特降屏山書院賜額之命以幸世教臣因此而有仰勉者方今聖學日新既有以振儒風正士趨而尤致意於本源緝熙之地則風動倬志之應自此始矣懋哉懋哉批以疏辭令廟堂稟處尾陳當體念矣

■ 철종 14년(1863) 11월 12일

강 許施屏山書院宣額之請

목 備局啓言卽見校理 李啓魯上疏則備陳文忠公柳成龍道學勳功之實仍請屏山書院宣額事有令廟堂稟處之命矣柳文忠道學勳業之爲士林師表國家宗臣列聖朝所以崇報者備矣而主享書院之訖闕恩額誠未遑之典也此與祠院疊設有異依儒臣所請許施允之

■ 광무 10년(1906) 12월 8일

강 照律時因李裕寅 張志遠 金準植

목 法部奏言被告李裕寅等案件自平理院審查則裁判長 李允用質稟書以爲裕寅照刑法大典使人誣告以反逆者勿論已決未決律及不應囚者囚之受財贓重者律與枉法贓八百兩以上律二罪以上同時俱發境遇從其重者處斷文處辦志遠照使人誣告以反逆者勿論已決未決律條從犯於首犯律減一等處懲役終身準植當照同條同律而一從李裕寅甘誘指使至犯重科都由於愚迷所致則參究情跡宜有酌量故於原擬律減一等處懲役十五年云矣當依該院所擬律處辦而竊伏念裕寅含憾於屏山書院院長任命之剔去締結諂佞之徒誣捏良善出於愚憤所激其時被誣諸人亦旣昭晰矣參酌情狀合論傳生於本律減一等請處懲役終身批以不無斟酌宜有參恕之端并特減三等換以流配

4)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건이 확인되는데 비변사에서 올린 계를 보고 국왕이 병산서원의 사액을 윤허한다는 내용이다.

■ 철종 14년(1863) 11월 12일

비변사의 계사에 “방금 교리 이계로李啓魯의 상소를 보니,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이 도학에 끼친 공훈에 대한 실상을 갖추어 진달하고는 이어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선택宣額할 일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비지에 ‘상소의 내용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문충공 유성룡의 도학에 대한 공훈은 사림士林의 사표師表가 되며 국가의 종신宗臣이라 하여 열성조列聖朝에서 숭상하여 보답한 것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향主享인 서원에 대해 아직도 사액의 은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미처 은전을 내릴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원祠院을 중첩해서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니 유신儒臣이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校理李啓魯上疏 則備陳文忠公柳成龍 道學勳功之實 仍請屏山書院宣額事 批旨有疏辭 令廟堂稟處之命矣 柳文忠道學勳業之爲士林師表 國家宗臣 列聖朝所以崇報者備矣 而主享書院之訖闕恩額 誠未遑之典也 此與祠院疊設有異 依儒臣所請許施 何如 答曰 允

2-5-2. 병산서원의 고문서

병산서원에 전승되던 고문서는 현재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의 영모각에 다른 전적 자료와 혼재되어 있다. 서책의 경우 성격상 충효당 전래의 것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고문서나 성책류와 같은 것은 작성 경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병산서원이 소장하고 전승했었던 자료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병산서원 소장 고문서는 부득이 충효당 전래의 전적들과 함께 조사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1981년 『경북지방고문서집성慶北地方古文書集成』(이수건 편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는 병산서원이 아닌 풍산류씨 문종과 관련된 자료였다. 영모각 소장 자료 중 병산서원에서 작성되었던 주요 성책류를 포함한 고문서에 대한 소개는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20-병산서원편屏山書院篇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책자는 영모각 소장 자료 중 병산서원과 관련된 것을 추려내어 간행한 것으로, 병산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관련된 성책류와 고문서를 영인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학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에서는 『고문서집성』에 소개된 자료의 영인 이미지와 원문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영모각의 자료를 위탁받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명문가의 고문서’의 풍산류씨 충효당 편으로 1,439점에 달하는 성책류와 고문서 원문·서지·이미지·해제 등의 정보를 유교넷(<http://www.ugyo.net>)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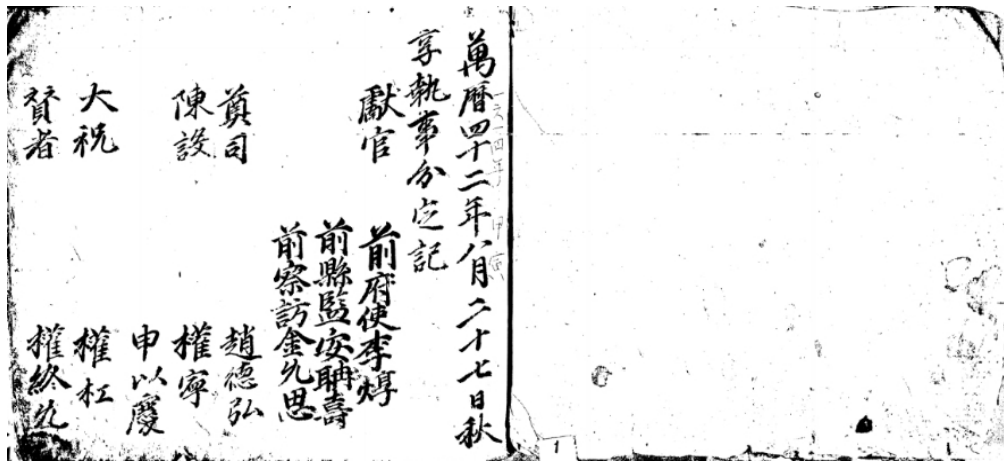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자료 전래 상황과 조사 현황을 감안하여, 병산서원 전승 주요 고문서와 성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제향 자료

■ 「봉안록奉安錄」

류성룡을 병산서원 사당에 배향하던 시기 참여한 각종 집사자 및 유사의 명단, 그리고 제문을 엮어 놓은 자료로 1610년(광해군 2)부터 1614년(광해군 6)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610년과 1612년에는 서원에 봉안되기 전 봉안 준비를 맡은 각종 유사(석물유사石物有司, 각리각면유사各里各面有司 등)가 기록되어 있고, 1614년에는 강릉부사江陵府使 정경세鄭經世 찬한 ‘서애류선생봉안문西厓柳先生奉安祭文’을 수록해 놓았다.

제문 다음에는 헌관獻官이하 봉안시奉安時의 집사록執事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유학幼學·생원·진사 등 직역職役이 기재된 경우에도 이들이 ‘집사執事’ 부분에서는 ‘학생學生’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사록에도 마찬가지로인데, 유학·학생의 호칭, 그리고 신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로 판단된다.



1614~1639년 집사록(한국고문서자료관)

■ 「집사록執事錄」

병산서원에서 치러진 춘추향사 때의 집사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시기별로 엮여져 있으며 모두 4책이다. 이 중 1책은 1614~1639년, 2책은 1658~1664년, 3책은 1666~1668년, 4책은 1723~1735년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다. 본 자료의 정식명칭은 '춘추향사집사분정기春秋享祀執事分定記'이며, 향사 시기는 대개 춘향春享 3월 초, 추향秋享 9월 초로 확인된다.

■ 「분향록焚香錄」

삭망朔望, 즉 매월 초하루와 보름 때 묘우廟宇에 분향焚香한 사람의 명단을 적은 문서이다. 이 명단에는 분향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관직이나 직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분향자의 명단이 기재된 시기는 1823년(순조 23)부터 1826년(순조 26)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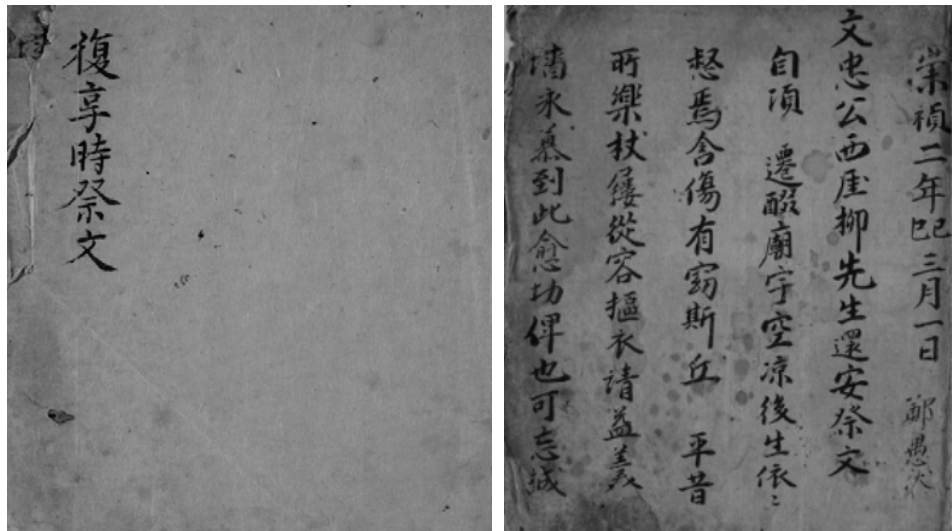
■ 「상량문上樑文」

류규柳圭(1730~1806)가 1771년(영조 48)에 지은 병산서원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이다.

■ 「제문祭文」

2책으로 엮여진 자료이다. 첫 번째 것은 정경세鄭經世가 류성룡의 위패를 여강서원에서 다시 병산서원으로 복향할 때에 찬한 제문이며, 두 번째 것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 류진柳軫의 위패를 종향할 때에 찬한 제문이다. 두 인물의 위패 봉향과 관련하여 제문이 작성된 시기는 1629년(인조 7)으로 확인된다. 다만 두 번째 자료 뒷부분에 '상지이십사년上之二十四年'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1698년(숙종 24)을 뜻한다. 즉 본 자료는 이옥李沃이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698년에 작성된 것을 후대에 다시 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 「제물의식祭物儀式」



1629년 제문(한국고문서자료관)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 종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의례절차儀禮節次와 제물祭物 등에 관해 적어놓은 정식定式이다. 6면에 '고조고찬성부군高祖考贊成府君', '조고영의정부군祖考領議政府君'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의 찬자를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찬성부군贊成府君은 류성룡의 조부 류공작柳公緯이며, 영의정부군領議政府君은 류성룡이다. 따라서 이글의 찬자는 류성룡의 손자 류원지柳元之임을 알 수 있다.

작성 시기는 류성룡 사후 류원지 생존 연간인 1607~1674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나 아마도 류원지의 노년인 1650년대 이후일 것이다. 이 문서는 불천위제不遷位制의 실제實際 모습을 비롯한 양반가의 제사의례와 그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병산서원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서애 류성룡 종택과 연관이 많다.

■ 「제기祭器」

1615년(광해군 7)과 1617년(광해군 9) 두 해에 걸쳐 작성된 문서가 합철되어 있다. 내용은 전후원임前後院任, 즉 도유사都宥司와 유사有司간에 이루어진 제기祭器의 인수인계서이다. 「전여기傳與記」나 「원임록院任錄」처럼 병산서원 임원들의 임무 교체 시 작성된 자료이다.

■ 「제수물목祭需物目」

각각 정위正位와 종사위從祀位로 배향된 류성룡, 류진 부자의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자료이다. '기유己酉'라는 간지만 나타나 있어 정확한 자료의 작성시기는 확인 할 수 없다.

2) 교육 자료

■ 「입원록入院錄」

병산서원의 원생, 즉 학생으로 들어온 인사들의 명단이다. 자료는 당대에 바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시기별로 정리된 전사본이다. 입원자入院者는 서원 건립 이전인 풍악서당 시절부터 소급해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최초의 입원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17세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자료에 실린 입원록 중 맨 뒷장 무술년戊戌年 명단 가운데 류성천柳聖天(1690~1746)의 생졸년이 확인된다. 이를 미루어 보아 1718년(숙종 44)이 마지막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기재사항으로는 생사여부(만약 사망한 인물이면 '선仙으로 기재), 관직, 과거 사항(생원·진사문과 표시와 합격 시기) 기타 개명 사항 등이다.

■ 「거재안居齋案」

입원자入院者들이 서원에 기거하면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사람의 명단을 적은 명부이다. 입원자들이 특정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각자의 집을 떠나 서원에서 거주하였는데, 대개는 기간과 순번을 정해 공부하였다. 순번은 모두 4순巡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부내용은 주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경전을 통독通讀, 즉 낭송하는 것이었다. 본 「거재안」에는 류종춘柳宗春(1720~1795)이 찬한 '병산서원통안서屏山書院通讀案序', '통독시회안通讀時會案', '거재안居齋案'이 함께 엮여져 있다.

먼저 신축년申丑年(1781년) 거재안의 '통독시회안通讀時會案'에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거재하면서 『대학大學』을 함께 통독한 인물들의 명단을 적고 있다. 명단에는 거재한 인물의 자字, 또는 호號 그리고 출생 간지를 기재해 놓았다. 또한 「거재안」에는 1781년(정조 5) 신축년, 1792년(정조 16) 임자년 2개 연도 분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거재 시기는 2개년도 모두 10월부터 12월에 1~4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1회 동안 거재하는 기간은 15일간이었다. 신축년 10월 거재안의 경우, 거재자들은 초순(제1회)에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5일 동안 거재했고 통독한 책은 『주서朱書』, 『중용中庸』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기재사항 역시 자와 호, 그리고 출생 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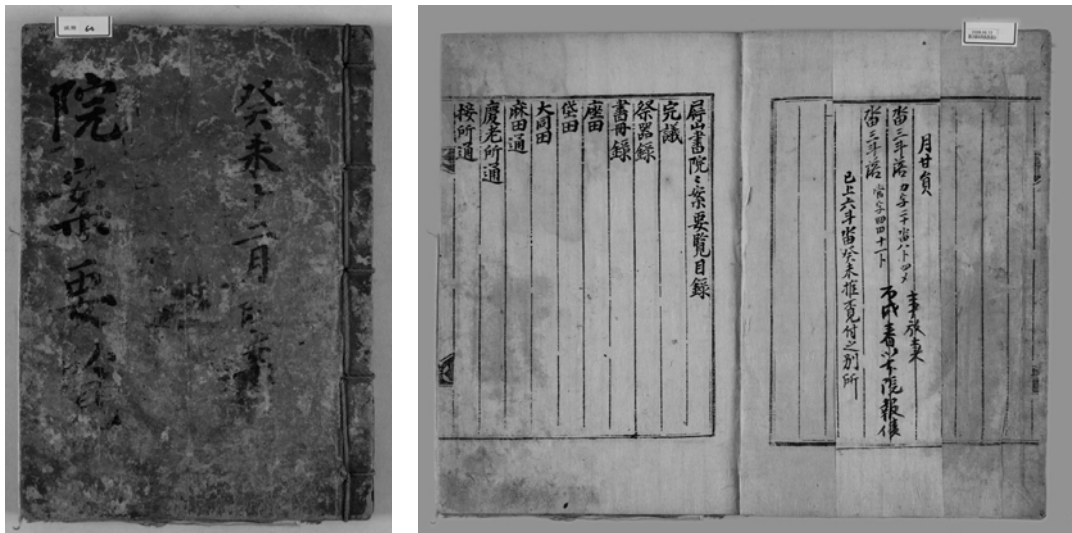
■ 「강안講案」

정식 명칭은 '기유2월초1일설강강생己酉二月初一日設講講生'이다. 서원에서 원생院生들이 강講을 한 뒤 그 점수를 통通·약略 등으로 매겨 기록한 명부이다. 강한 서적은 주로 사서삼경으로 나타난다. 작성시기가 기유년己酉年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는 강생 가운데 류성조柳晟祚(류강조柳岡祚로 개명, 1769~1834)의 생졸년으로 미루어 보아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해는 류성조가 20세가 되던 해이다. 이 자료는 실제 병산서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으며, 또한 병산서원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3) 조직과 운영 자료

■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 원규院規, 절목節目 등 서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이협李浹이며, 「원임록院任錄」에 1717년(숙종 43) 그가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기사의 작성 시기는 1717~171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암요람(유교넷)

■ 「원암요람院案要覽」

서원운영 전반에 걸친 지침서이다. 모두 3책이 전한다. 가장 앞선 것은 1841년(헌종 7), 두 번째 것은 1853년(철종 4), 세 번째 것은 1883년(고종 20)과 1896년(고종 33)에 만들어졌다. 이 요람은 '수석지임首席之任'으로 있던 이정모李貞模가 서원문부書院文簿, 고적古蹟이 오래되어 훼손이 심해 임원들이 의심나는 곳이 있어도 증빙할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요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정모의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풍산류씨 가문의 외손이었다.

요람의 내용은 제기祭器·잡물雜物·서책書冊의 관리, 기타 전답田畠 및 노비奴婢의 수세收稅·수공收貢 등에 관한 것이다. 서원운영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요람은 원래 3년에 한번씩 개안改案토록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요람은 3책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람은 류우목柳宇睦(1811~1886), 류도생柳道性이 이정모의 요람에다 추가해서 엮은 것이다.

■ 「원임록院任錄」

1592~1640년, 1592~1716년, 1592년 이전~1807년, 1652~1671년 서원 운영을 담당한 임원 즉 원장院長과 유사有司 등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자료로 4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원임록」은 작성 당시의 원본과 이를 일괄적으로 베껴놓은 전사본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원본이 마멸, 혹은 분실로 말미암아 부분으로 전사하여 비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원 중 원장은 일명 도유사都宥司라고도 했는데, 교체될 때마다 재유사齎有司, 고유사庫有司를 비롯

한 서원 임원들이 수결手決을 하고 인수인계하였다. 특히 1592년 이전~1807년에 만들어진 「원임록」은 '임진전원장유사록壬辰前院長有司錄'이라 하여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풍악서당 당시의 임원을 뒤에 추가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서원 경제 자료

■ 「전여기傳與記」

‘전여傳與’란 말 그대로, 병산서원 임원 교체시 서원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서이다. 작성 시기는 단순히 정해丁亥~기축己丑으로 간지만 기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업무인계인수자는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결手決만 확인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명확한 신상은 확인할 수 없다. 인수인계하는 물품은 병산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곡식과 포목布木 등이 해당된다. 병산서원이 상비되어 있던 재산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 「원노비안院奴婢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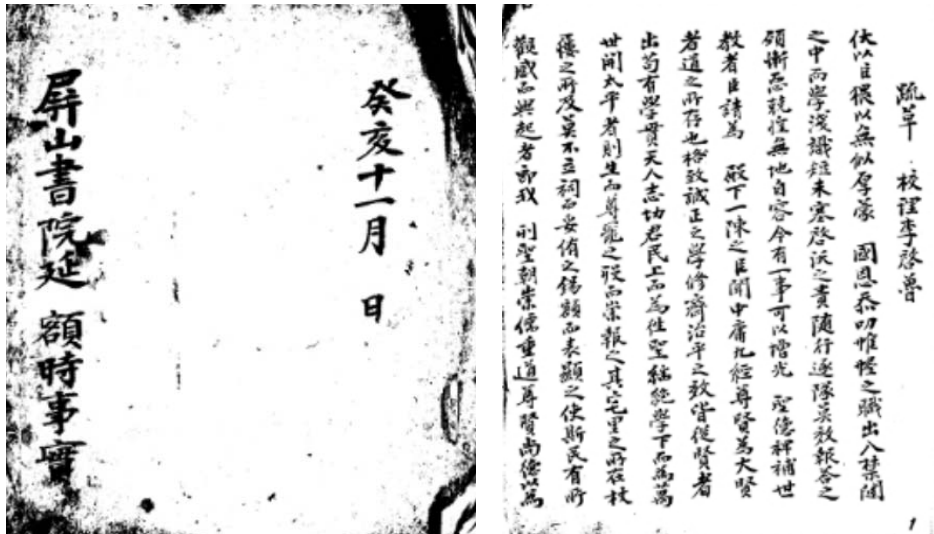
「원노비안」에는 노비명단을 적은 순수 노비안과 노비의 부모父母·소생所生·거주지居住地·수공여부收貢與否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추쇄안推刷案의 두 가지 종류가 전해진다. 모두 7책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 것은 1663년(현종 4), 두 번째 것은 1666년(현종 7)과 1669년(현종 10), 세 번째 것은 1738년(영조 14), 네 번째 것은 1739년(영조 15), 다섯 번째 것은 1750년(영조 26), 여섯 번째 것은 1756년(영조 32), 일곱 번째 것은 1762년(영조 38)의 것으로 확인된다.

1663년의 첫 번째 자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상은 서원이 풍악 때(풍악서당 시절) 있었던 노비이다以上院在豐岳時奴婢”라고 기재한 주기註記 부분이다. 위의 주기는 도망 노비 1구를 포함한 7구의 노비명단 아래에 부기附記된 것으로 서원으로 되기 이전 풍악서당 당시, 이미 서당노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있다. 이는 풍악서당 당시 왕으로부터 학전學田을 하사받았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 풍악서당의 경제적 규모를 짐작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5) 향촌사회사 자료

■ 「상소上疏」

병산서원에서 올린 상소문을 2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중 1책은 1851년(철종 2) 교리校理 이계로李啓魯가 작성한 상소로 병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내용이다. 다른 1책은 1595년(선조 28)과 1665년(현종 6)에 올려진 상소문을 수록하였다. 이 중 후자는 류중하柳重河(1595~1665)가 올린 것으로, 액외유생額外儒生의 제한 등 향교 운영의 폐단과 그 시정에 관한 것이다.



1851년 이계로 상소(한국고문서자료관)

■ 「경로회안敬老會案」

2책이 전해진다. 1책은 서울의 박정로씨가 소장하고 있으며, 정확한 책명은 「경로회안 1慶老會案 1」로 되어있고 책표지에 '병산서원장屏山書院藏'이란 소장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인지 그 소장처부분이 지워져 있으며, 현재는 '장藏' 자만 남아있다.

「경로회안 1」의 내제內題에는 '풍산경로소품관좌목豐山慶老所品官坐目'이라 기재해 놓았다. 좌목은 1555년(명종 10)에서 1677년(숙종 3)까지의 것을 수록하였다. 「경로회안 2」에는 류규의 서문과 함께 갑자甲子(1804년), 무진戊辰(1808년), 신미辛未(1811년) 세 시기의 경로회 좌목을 수록해 놓았다.

■ 「통보通報」

'병산장무屏山掌務'에게 '풍산서당회중豐山書堂會中'에서 보낸 것이다. 내용은 '삭안削案', 즉 명단 삭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자료의 정확한 작성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동안洞案」

류운룡과 류성룡 당대의 하회마을 동안洞案이다. 하회마을의 동안이 처음 작성된 해는 류운룡과 류성룡 형제가 각각 인동현仁同縣과 예조판禮曹判로 있던 1584년부터이다. 그리고 추追한 맨 마지막 인물들, 예컨대 류경柳慶龍(1564~1612), 류기柳綺(1561~1613), 류심柳禔(1572~1632), 류여柳婁(1578~1605) 등의 생졸년을 검토해보면 류여의 졸년 즉 1605년 이전까지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동안에 등재된 인물로는 위의 두 사람 외에 4차례의 '추입'이 있어 모두 49명이 확인된다.

■ 「향록鄉錄」



향록(유교넷)

경상도 안동 지방의 향안鄉案으로 1589년(선조 22)에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 말미에는 입록入錄, 삭적시비削籍是非와 관련되어 이전의 문기, 즉 기축년己丑年의 원본은 파기하여 보관해 두었다고 나타나 있다. 그 후 새로 부분을 전사하였는데, 본서에 실린 것은 뒤에 베낀 전사본이다. 전사한 해는 무신년戊申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계약契約」

2책으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하회마을의 동약洞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두 책 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契約·작계作契·사상상조死喪相助·정벌定罰·장계유사掌契有司·환난상구患亂相救·강신講信 부중설입의附重設立議·변통變通 등에 관한 약속을 기록해 놓았다.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는데 내용으로 보아 1639년(인조 17), 1642년(인조 20), 1646년(인조 24)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 「상대계첩霜臺契帖」

상대霜臺는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으로, 사헌부 관직자들이 계를 만들어 그 명단을 적은 자료이다. 이 계첩은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가 종손인 류원지柳元之(1598~1648), 류성화柳聖和(1668~1748)가 사헌부 감찰로 재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소장처가 병산서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애 류성룡 종택과 관련 깊은 자료로 생각된다.

모두 6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4책은 류원지, 나머지 2책은 류성화가 상대계의 계원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 4책은 1634년(인조 12)경의 것이며, 나머지 2책은 1731년(영조 7)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 「변무록辨誣錄」

김응조金應祚(1587~1667)가 찬한 변무록辨誣錄, 전라도 유생 정기서鄭武瑞 등의 상소, 경연 등에서 유성룡 변무에 관계되는 여러 문헌들을 편집해 놓은 책이다. 변무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김응조가 찬술한 부분으로서 류성룡이 '주화오국主和誤國'한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류성룡이 기축옥己丑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변무와 관련된 상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2-5-3. 병산서원 소장 전적과 관련 문집

1) 전적 현황

병산서원에 소장되어 오던 전적은 현재 모두 하회마을 충효당의 영모각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그런데 영모각에는 병산서원에 전해지던 것뿐만 아니라 충효당에 전해진 류성룡 종가의 전적들도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고문서나 필사원본류의 경우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가에 전해지던 것인지, 서원에 전해지던 것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문집 및 전적은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선시대 때 작성된 『병산서원서책목록屏山書院書冊目錄』이 전해져 18세기 이전의 소장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 정도이다. 일단 영모각 소장 자료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는 1969년 이춘희李春熙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춘희는 국회도서관에서 1969년 간행한 『이조서원문고목록李朝書院文庫目錄』의 '병산서원屏山書院' 편에 이때 조사한 총 1,071종 3,039책의 문집 및 전적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놓았다.

이때 조사된 것들을 책종 별로 구분하면 경서經書 71종, 역사歷史 52종, 전기傳記 174종, 유가儒家 54종, 천문天文 3종, 의가醫家 4종, 도가道家 1종, 유서類書 8종, 문집文集 693종, 기타 11종이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영모각에 보관된 책자들을 판본별로 구분하면, 주자본鑄子本으로는 갑인자본甲寅字本이 5종 31책으로 가장 많다. 그 외 활자본活字本으로는 을해자乙亥字, 갑진자甲辰字 등 26종 10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618년(광해군 10) 개주改鑄된 무오자本戊午子本(『서전대전書典大全』 8책), 광해군 때에 만들어진 훈련도감목활자本訓鍊都監木活字本을 8종 보유하고 있어 임진왜란 직후 창건된 서원의 특색을 확인 할 수 있다.

병산서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사액이 이루어진 관계로, 철종 연간 이전의 내사본內賜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조 18~23년 각 서원에 하사(下賜)된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 등 10여 종의 정유자본丁酉字本은 금일 현존하는 사액서원에서 쉽게 확인되는 주자본임에도 영모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모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 중 희귀, 귀중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서애류성룡에 의해 남겨진 아래의 필사본이다. 대부분이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란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영모각 소장 희귀귀중본 전적

- 『징비록懲毖錄』, 류성룡 저, 필사본筆寫本, 1책(국보 제132호)
- 『진사록辰巳錄』, 류성룡 저, 필사본, 3책
- 『난후잡록亂後雜錄』, 류성룡 저, 필사본, 2책
- 『근폭집芹曝集』, 류성룡 저, 류성룡 친필본, 2책
- 『중흥헌근中興獻芹』, 필사본, 만력 21년(1593) 4월 28일 ~ 7월 4일, 1책
- 『군문등록軍門謄錄』, 류성룡 저, 필사본, 1책
- 『정원전교政院傳敎』, 승정원 편, 필사본, 만력 20년(1592) 12월 9일, 2책
- 『당장시화첩唐將詩畫帖』, 필사본, 1책
- 『당장서첩唐將書帖』, 왕필적王必迪 등 저, 필사본, 1책

(이상 보물 제140호)

한편, 병산서원은 출판 기능도 수행함에 따라 적지 않은 책판이 전승되어 왔다. 책판도 영모각 건립 시기와 같이 하여, 충효당에 보존되어 오다 2004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위탁되었다. 2004년까지 하회마을 류성룡 종가인 충효당에 보관되어 오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된 책판은 모두 25종 1,907매로, 여기에는 병산서원에서 만들어진 책판과 충효당에서 만들어진 책판이 혼재되어 있다. 구분 없이 주요 책판과 수량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도산급문록변정陶山及門錄辨訂』 51매
- 『도산급문록추변陶山及門錄追辨』 1매
- 『동몽수지童蒙須知』 5매
-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1매
- 『문순공퇴도이선생언행통록文純公退陶李先生言行通錄』 3매
- 『서애선생연보西厓先生年譜』 구판 18매
- 『서애선생연보西厓先生年譜』 신판 74매
-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구판 46매
-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신판 418매
- 『서애선생별집西厓先生別集』 구판 11매
- 『서애선생별집西厓先生別集』 신판 83매
- 『성학십도聖學十圖』 6매
- 『수암선생문집修巖先生文集』 67매
- 『수암선생연보修巖先生年譜』 31매
- 『수암집修巖集』 48매
- 『영모록永慕錄』 54매
-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 140매
- 『오리선생별집梧里先生別集』 48매
- 『오리선생속집梧里先生續集』 98매

- 『오리선생유필 梧里先生遺筆』 2매
- 『우복선생연보 愚伏先生年譜』 49매
- 『임여재선생문집 臨汝齋先生文集』 224매
- 『졸재선생문집 拙齋先生文集』 183매
- 『징비록 懲毖錄』 244매
- 『훈자배학첩 訓子拜學帖』 2매

2) 소장 문집 현황

영모각에 소장된 문집과 유고, 그리고 실기 등을 망라하면 아래와 같다. 문집은 저자, 실기의 경우 편자의 명을 기재하였는데, 병산서원이 남인계 서원이었던 만큼 남인계 인사들의 문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목록은 병산서원과 병산서원 배향자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 수집한 것이 혼재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영모각 소장 문집 목록

제 목	편 저 자	판 본	분 량
가암유고(可庵遺稿)	김익구(金翼耆)	목활자본	2권 1책
가휴선생문집(可畦先生文集)	조익(趙翊)	석판본	10권 5책
간옹선생문집(艮翁先生文集)	이헌경(李獻慶)	목판본	24권 12책
간우유집(艮宇遺集)	이인중(李仁中)	목판본	5권 2책
간재문집(簡齋文集)	변중일(邊中一)	목판본	1권 1책
간재선생문집(艮齋先生文集)	이덕홍(李德弘)	목판본	8권 4책
갈계실기(葛溪實紀)	권도인(權道仁)	석판본	2권 1책
갈암선생문집(葛庵先生文集)	이현일(李玄逸)	목판본	29권 15책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여대로(呂大老)	목판본	3권 2책
강양세고(江陽世稿)	이철(李哲) 등	목활자본	3책[영본]
강좌선생문집(江左先生文集)	권만(權萬)	목활자본	10권 5책
강파선생문집(江坡先生文集)	권상임(權尙任)	목활자본	3권 1책
강포문집(江浦文集)	류홍원(柳弘源)	석판본	3권 1책
강해문집(江海文集)	장심학(張心學)	목판본	2책[영본]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紀)	김진식(金鎭植)	석판본	5권 2책
개암선생문집(開巖先生文集)	김우광(金宇宏)	목판본	3권 2책
검간선생문집(黔澗先生文集)	조정(趙靖)	목판본	4권 4책
검암시집(儉巖詩集)	정언숙(丁彦璠)	목판본	2권 1책
격재선생문집(格齋先生文集)	손조서(孫肇瑞)	목판본	2권 1책
겸암선생문집(謙菴先生文集)	류운룡(柳雲龍)	목판본	6권 4책
겸재집(謙齋集)	기학경(奇學敬)	현활자본	8권 2책
경암문집(敬庵文集)	이재목(李在穆)	목판본	10권 5책
경암선생문집(敬庵先生文集)	허조(許稠)	석판본	6권 2책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이한응(李漢膺)	목판본	13권 6책
경암선생실기(敬庵先生實紀)	황동범(黃東範)	석판본	6권 3책
경암선생실기(敬菴先生實紀)	김호창(金浩昌)	석판본	3권 1책
경연당선생문집(景淵堂先生文集)	이현조(李玄祚)	목활자본	6권 3책
경와선생문집(敬窩先生文集)	김걸(金杰)	목활자본	8권 4책
경은선생실기(耕隱先生實紀)	이인백(李仁伯)	목판본	3권 1책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이민성(李民成)	목판본	13권 6책
경재선생문집(敬齋先生文集)	하연(河演)	목활자본	5권 2책
경재선생실기(敬齋先生實紀)	홍택하(洪宅夏)	목판본	3권 1책
경재선생일집(敬齋先生逸集)	권진(權軫)	석판본	2권 1책
경재유고(敬齋遺稿)	김상효(金相孝)	목판본	2권 1책
경헌설선생문집(敬軒薛先生文集)	설선(薛瑄)	고활자본	4책[영본]
경현재집(警弦齋集)	강세진(姜世晉)	목활자본	4권 2책
계미유고(溪湄遺稿)	김병수(金炳洙)	석판본	4권 2책
계산유고(溪山遺稿)	이안도(李安道)	목판본	6권 3책
계서문집(溪西文集)	권규도(權奎度)	목판본	2권 1책
계암선생문집(溪巖先生文集)	김령(金玲)	목판본	6권 3책
고계문집(古溪文集)	이휘령(李彙寧)	목활자본	8권 4책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	이저(李貯)	목판본	2권 1책
고산선생문집(孤山先生文集)	이유장(李惟樟)	목판본	7권 4책
고촌선생문집(孤村先生文集)	배정휘(裴正徽)	석판본	6권 2책
과해시집(寡諧詩集)	김필태(金必泰)	목활자본	2권 1책
관헌집(管軒集)	도한기(都漢基)	현대활자본	19권 7책
괴암선생일고(乖庵先生逸稿)	이간(李幹)	석판본	3권 1책
괴당선생문집(槐堂先生文集)	이만승(李曼勝)	목판본	2권 1책
괴재선생문집(槐齋先生文集)	배상호(裴尙虎)	목판본	4권 2책
괴천선생문집(槐泉先生文集)	박창우(朴昌宇)	목판본	2권 1책
괴헌문집(槐軒文集)	김형(金瑩)	목판본	4권 2책
구곡문집(鳩谷文集)	권적(權迪)	석판본	1책[영본]
구곡유고(九曲遺稿)	이중육(李重繆)	목활자본	2권 1책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김수인(金守訥)	목활자본	3권 2책
구봉선생실기(九峯先生實紀)	이운정(李運楨)	목판본	2권 1책
구사당선생문집(九思堂先生文集)	김낙행(金樂行)	목판본	1책[영본]
구사당선생속집(九思堂先生續集)	김낙행(金樂行)	목판본	4권 2책
구소선생문집(鳩巢先生文集)	권성구(權聖矩)	목활자본	4권 2책
구암선생문집(懼庵先生文集)	이수인(李樹仁)	목판본	9권 5책
구암실기(懼庵實記)	이중우(李重雨)	석판본	2권 1책
구암유고(久菴遺稿)	한백겸(韓百謙)	목판본	2권 1책
구재선생문집(鳩齋先生文集)	김계광(金啓光)	석판본	4권 2책

구재선생실기(懼齋先生實記)	김득추(金得秋)	목판본	1책
국창유고(菊窓遺稿)	한필형(韓弼衡)	목활자본	4권 2책
권옹선생문집(倦翁先生文集)	류빈(柳賓)	석판본	2권 1책
귀봉선생유집(龜峯先生遺集)	권덕린(權德麟)	목판본	2권 1책
귀산선생실기(龜山先生實紀)	윤탁(尹鐸)	목판본	1책
귀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	이정(李楨)	목판본	2권 1책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	이원정(李元楨)	목판본	12권 6책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	이원정(李元楨)	목판본	10권 5책
규천선생문집(虬川先生文集)	김극항(全克恒)	목활자본	3권 1책
극명당선생실기(克明堂先生實紀)	장내범(張乃範)	목판본	1책[영본]
극암문집(克菴文集)	류흠목(柳欽睦)	석판본	4권 2책
극재선생문집(克齋先生文集)	신익황(申益愷)	목판본	13권 7책
근시재선생문집(近始齋先生文集)	김해(金垓)	목판본	4권 2책
근암선생문집(近庵先生文集)	박재우(朴載祐)	목판본	4권 2책
금강선생문집(錦江先生文集)	장신(張璡)	목판본	6권 2책
금계선생문집(錦溪先生文集)	황준량(黃俊良)	목판본	4권 1책
금계선생문집(錦溪先生文集)	황준량(黃俊良)	목판본	3책[영본]
금남문집(錦南文集)	박규양(朴奎陽)	목판본	4권 2책
금산시고(錦山詩稿)	신정묵(辛廷默)	석판본	2권 1책
금역당선생문집(琴易堂先生文集)	배용길(裴龍吉)	목판본	7권 4책
금주선생문집(錦洲先生文集)	허채(許埰)	목판본	15권 9책
금춘당실기(錦春堂實紀)	강대영(姜大榮)	목활자본	2권 1책
금파선생문집(琴坡先生文集)	이정병(李鼎秉)	석판본	6권 3책
금포실기(錦浦實紀)	김진규(金鎭奎)	목판본	2권 1책
금구당유고(肯構堂遺稿)	김중정(金重鼎)	목판본	2권 1책
기계선생문집(奇溪先生文集)	김노선(金魯善)	석판본	8권 4책
기암문집(起菴文集)	김우창(金禹昌)	석판본	3권 2책
기옹선생문집(畸翁先生文集)	박공구(朴玃衢)	목판본	6권 2책
기우선생문집(騎牛先生文集)	이행(李行)	목판본	3권 1책
기재별집(企齋別集)	신광한(申光漢)	목판본	1책[영본]
기현선생문집(畸軒先生文集)	박용상(朴龍相)	목판본	6권 3책
나은선생문집(懶隱先生文集)	이동표(李東標)	목판본	4책[영본]
나재선생문집(懶齋先生文集)	채수(蔡壽)	목판본	9권 4책
나재선생문집(懶齋先生文集)	채수(蔡壽)	석판본	4권 2책
나졸재선생문집(懶拙齋先生文集)	이산두(李山斗)	목판본	4권 2책
나호선생문집(懶湖先生文集)	최경윤(崔慶胤)	목활자본	2권 1책
낙금헌선생문집(樂琴軒先生文集)	이정백(李庭栢)	목판본	2권 1책
낙북문집(洛北文集)	이재철(李在哲)	석판본	4권 2책
낙애선생실기(洛厓先生實紀)	권영섭(權寧攝) 등	목판본	2권 1책

낙애선생일고(洛厓先生逸稿)	성기인(成起寅)	석판본	2권 1책
낙원선생문집(樂園先生文集)	안숙(安璫)	목활자본	1책
낙의재선생유집(樂義齋先生遺集)	이눌(李訥)	목판본	2권 1책
남계선생문집(藍溪先生文集)	표연말(表沿末)	목판본	4권 2책
남계선생문집(南溪先生文集)	강응철(姜應哲)	석판본	2책[영본]
남곡일고(南谷逸稿)	김진(金潛)	석판본	2권 1책
남천선생문집(南川先生文集)	권두문(權斗文)	목판본	4권 2책
남파선생문집(南坡先生文集)	홍우원(洪宇遠)	목활자본	11권 8책
남헌선생문집(南軒先生文集)	장식(張栻)	목판본	44권 9책
내헌문집(耐軒文集)	이재영(李在永)	목판본	7권 3책
노계선생문집(蘆溪先生文集)	김재현(金載顯)	목판본	3권 1책
노노재선생문집(魯魯齋先生文集)	김만걸(金萬傑)	목판본	4권 2책
노봉선생문집(蘆峯先生文集)	김정(金 1 + 政)	목활자본	4권 2책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김종일(金宗一)	목판본	4권 2책
노애집(魯厓集)	류도원(柳道源)	목판본	10권 5책
노저유집(鷲渚遺集)	이양원(李陽元)	현활자본	1책
노주선생문집(蘆洲先生文集)	김태일(金兌一)	목판본	5권 3책
노촌공유집(魯村公遺集)	정동환(鄭東煥)	목활자본	4권 2책
농눌재유고(雙訥齋遺稿)	변태화(卞泰和)	석판본	1책
농산선생문집(農山先生文集)	이광덕(李匡德)	석판본	4권 2책
농암선생문집속집(龔巖先生文集續集)	이현보(李賢輔)	목판본	2권 1책
농암집(農巖集)	김창협(金昌協)	목활자본	8책[영본]
농와선생문집(農窩先生文集)	박숙(朴瀟)	목판본	4권 2책
농포문집(農圃文集)	정문부(鄭文孚)	석판본	6권 2책
농포집(農圃集)	정문부(鄭文孚)	목활자본	6권 4책
눌연선생일고(訥淵先生逸稿)	정민도(丁敏道)	석판본	2권 1책
눌용재문집(訥傭齋文集)	진성일(陳聖一)	석판본	2권 1책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이광정(李光庭)	목판본	22권 11책
눌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곽전(郭澣)	석판본	2권 1책
능허선생문집(凌虛先生文集)	박민(朴敏)	목판본	4권 2책
단계선생문집(檀溪先生文集)	김해일(金海一)	목판본	4권 2책
단곡선생문집(丹谷先生文集)	곽잠(郭潛)	목판본	6권 3책
담암선생일집(淡庵先生逸集)	백문보(白文寶)	목판본	2권 1책
담인집(澹人集)	신좌모(申佐模)	목활자본	20권 10책
당류선생집(唐柳先生集)	류종원(柳宗元)	목판본	3책[영본]
대계유고(大溪遺稿)	황재영(黃在英)	석판본	3책[영본]
대산선생문집(大山先生文集)	이상정(李象靖)	목판본	52권 27책
대소재문집(大疎齋文集)	권현상(權顯相)	목활자본	4권 2책
대소헌선생일고(大笑軒先生逸稿)	조종도(趙宗道)	목판본	3권 1책

대은선생문집(臺隱先生文集)	권경옥(權景玉)	목판본	2권 1책
덕봉선생문집(德峯先生文集)	이진택(李鎭宅)	목판본	6권 3책
덕은문집(德隱文集)	여대표(呂大驍)	석판본	2권 1책
도와선생문집(陶窩先生文集)	최남복(崔南復)	목판본	3책[영본]
도와선생문집(陶窩先生文集)	박선(朴璿)	목판본	3권 1책
도원선생문집(桃源先生文集)	이말동(李末全)	목판본	2권 1책
도촌선생실기(桃村先生實記)	이경석(李慶錫 + 奭)	목판본	2권 1책
동계문집(東溪文集)	이태순(李泰淳)	석판본	4권 2책
동계실기(東溪實紀)	이종영(李鍾泳)	석판본	1책
동고선생유고(東皐先生遺稿)	이준경(李浚慶)	목활자본	2책[영본]
동명집(東溟集)	송정환(宋鼎鎭)	목판본	4권 2책
동려문집(東旅文集)	안창열(安昌烈)	석판본	6권 3책
동명선생문집(東溟先生文集)	황윤중(黃允中)	목판본	4책[영본]
동소선생일고(桐巢先生逸稿)	남하정(南夏正)	석판본	1책[영본]
동암선생문집(東巖先生文集)	류장원(柳長源)	목판본	14권 7책
동암유고(東庵遺稿)	홍대귀(洪大龜)	목판본	6권 2책
동야집(東莒集)	김양근(金養根)	목활자본	14권 6책
동연문집(東淵文集)	정백휴(鄭伯休)	목판본	5권 2책
동와선생문집(東窩先生文集)	권득중(權得中)	목판본	2권 1책
동호선생문집(東湖先生文集)	이서(李竹 + 舒)	목판본	3권 2책
동국선생문집(東國先生文集)	김귀영(金貴榮)	석판본	4권 3책
동호신공유집(東湖申公遺集)	신택화(申宅和)	목활자본	4권 1책
두릉집(杜陵集)	이제겸(李濟兼)	목판본	4권 2책
두암선생문집(斗庵先生文集)	김약련(金若鍊)	목활자본	10권 5책
둔암선생일집(遯庵先生逸集)	서한정(徐翰廷))	목판본	2권 1책
둔암집(遯庵集)	조덕신(曹德臣)	목판본	6권 3책
등암선생문집(藤庵先生文集)	배상룡(裴尙龍)	목판본	6권 3책
등암선생일고(藤巖先生逸稿)	권징(權徵)	목판본	2권 1책
마암문집(磨巖文集)	조진도(趙進道)	목판본	3권 1책
만곡선생문집(晩谷先生文集)	조술도(趙述道)	목판본	17권 6책
만문유고(晩聞遺稿)	임만휘(林萬彙)	목판본	2권 1책
만성유집(晩省遺集)	이종욱(李鍾煜)	목판본	1책[영본]
만송유고(晩松遺稿)	유병헌(劉秉憲)	석판본	4권 2책
만오문집(晩悟文集)	정유곤(鄭裕昆)	목판본	14권 7책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	신달도(申達道)	목활자본	10권 5책
만와문집(晩窩文集)	김유수(金裕壽)	목활자본	4권 2책
만와재문집(晩窩齋文集)	금영택(琴英澤)	석판본	1책[영본]
만은당집(晩隱堂集)	정우섭(丁友燮)	목활자본	2권 2책
만전선생문집(晩全先生文集)	홍가신(洪可臣)	목활자본	6권 3책

만취동일고(晩翠洞逸稿)	황학(黃學)	목판본	2권 1책
만취선생일고(晩翠先生逸稿)	김개국(金蓋國)	목판본	2권 1책
만포집(晩浦集)	김유중(金瑜重)	목판본	6권 3책
만회당선생문집(晩悔堂先生文集)	장경우(張慶遇)	목판본	4권 2책
만회문집(晩悔文集)	안경시(安景時)	목판본	6권 3책
망와선생문집(忘窩先生文集)	김영조(金榮祖)	목판본	2책[영본]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목판본	5권 3책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목판본	2권 1책
망헌선생문집(忘軒先生文集)	이주(李胄)	석판본	4권 2책
매암선생문집(梅巖先生文集)	이숙량(李淑樑)	석판본	2권 1책
매죽헌문집(梅竹軒文集)	김영진(金英震)	목판본	4권 2책
매창선생문집(梅窓先生文集)	정사신(鄭士信)	목판본	5권 3책
매헌선생문집(梅軒先生文集)	이인형(李仁亨)	목판본	4권 2책
매헌선생실기(昧軒先生實紀)	이준문(李準文)	석판본	2권 1책
면와선생문집(倅窩先生文集)	권상현(權象鉉)	석판본	14권 9책
면우선생문집(倅宇先生文集)	곽종석(郭鍾錫)	현활자본	17책[영본]
면운재문집(眠雲齋文集)	이주원(李周遠)	목활자본	6권 3책
명고선생문집(鳴臯先生文集)	정권(鄭權)	목판본	9권 5책
명암선생문집(冥菴先生文集)	이주대(李柱大)	석판본	5권 2책
명호문집(明湖文集)	이언직(李言直)	목판본	2권 1책
모계문집(某溪文集)	김홍락(金鴻洛)	석판본	9권 5책
모산유고(慕山遺稿)	권헌(權憲)	목활자본	6권 3책
모애일고(茅厓逸稿)	권두규(權斗揆)	석판본	2권 1책
모정선생문집(慕亭先生文集)	이시수(李蓍秀)	석판본	12권 6책
모촌선생문집(茅村先生文集)	이정(李靜)	목판본	1책[영본]
모헌집(慕軒集)	강필신(姜必愼)	목활자본	6권 3책
목서집(木西集)	손영로(孫永老)	목판본	6권 3책
목은집(牧隱集)	이색(李穡)	목판본	58권 18책
목재선생문집(木齋先生文集)	홍여하(洪如河)	목판본	1책[영본]
목재선생별집(木齋先生別集)	홍여하(洪如河)	목판본	1책[영본]
몽재문집(蒙齋文集)	이안도(李安道)	목판본	2권 1책
무릉잡고(武陵雜稿)	주세붕(周世鵬)	목판본	8권 5책
무민재문집(無憫齋文集)	손염조(孫念祖)	석판본	4권 2책
무송헌선생문집(撫松軒先生文集)	김담(金淡)	목판본	4권 2책
무수옹유고(無愁翁遺稿)	권기(權愔)	석판본	1책[영본]
무은선생문집(霧隱先生文集)	정지호(鄭之虎)	석판본	5권 3책
무주선생일고(無住先生逸稿)	홍호(洪鎬)	목판본	6권 2책
무점재선생문집(無忝齋先生文集)	정도응(鄭道應)	목판본	4권 2책
묵산선생문집(默山先生文集)	남기만(南基萬)	목판본	4권 2책

묵암선생문집(默庵先生文集)	허강(許 岡)	목판본	6권 3책
묵와일고(默窩逸稿)	서상열(徐祥烈)	석판본	2권 1책
묵은유고(默隱遺稿)	이회명(李會明)	목판본	3권 1책
묵재문집(默齋文集)	김시화(金時鏞)	목판본	3권 1책
문암집(文巖集)	정지성(丁志成)	목판본	3권 1책
물암선생문집(勿巖先生文集)	김릉(金隆)	목판본	5권 3책
미산문집(眉山文集)	정도휴(鄭道休)	목판본	4권 2책
미촌선생문집(美村先生文集)	김건(金健)	석판본	4권 2책
민산문집(閔山文集)	류도수(柳道洙)	목판본	5권 2책
민와선생문집(敏窩先生文集)	이기상(李驥相)	석판본	6권 3책
밀와문집(密窩文集)	권석원(權錫元)	현활자본	4권 2책
박곡선생문집(朴谷先生文集)	이원록(李元祿)	목판본	4권 2책
박천선생문집(博泉先生文集)	이육(李沃)	목판본	6책[영본]
반간선생문집(槃澗先生文集)	황뉴(黃紐)	목판본	3권 2책
반계선생문집(磻溪先生文集)	이양오(李養吾)	목판본	7권 3책
반구재유고(反求齋遺稿)	권성제(權聖濟)	목활자본	3권 1책
반구재유집(反求齋遺集)	신재사(申在寺)	목활자본	4권 2책
반암집(半巖集)	전구(全球)	목판본	5권 2책
반초당선생문집(反招堂先生文集)	이명익(李溟翼)	목판본	2권 1책
백남선생문집(白南先生文集)	김시빈(金始鎭)	목판본	6권 3책
백담선생문집(栢潭先生文集)	구봉령(具鳳齡)	목판본	4권 2책
백담유집(栢潭遺集)	조우신(趙又新)	목활자본	4권 2책
백불암선생문집(百弗庵先生文集)	최흥원(崔興遠)	목판본	7권 3책
백사선생집(白沙先生集)	이항복(李恒福)	목판본	6책[영본]
백사선생별집(白沙先生別集)	이항복(李恒福)	목판본	2책[영본]
백씨문집(白氏文集)	백거이(白居易)	목판본	2책[영본]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김륵(金玞)	목판본	6권 4책
백우문집(白寓文集)	김재로(金載璐)	석판본	8권 4책
백촌선생문집(白村先生文集)	김문기(金文起)	목판본	6권 3책
벽산유고(碧山遺稿)	강주복(姜周福)	석판본	2권 1책
벽오선생문집(碧梧先生文集)	이대량(李大梁)	목판본	2권 1책
별동선생문집(別洞先生文集)	윤상(尹祥)	목판본	3권 1책
별동선생집(別洞先生集)	윤상(尹祥)	목판본	3권 2책
병곡선생문집(屏谷先生文集)	권구(權榘)	목판본	10권 5책
병곡선생속집(屏谷先生續集)	권구(權榘)	목판본	4권 2책
병산선생문집(鉾山先生文集)	김난상(金鸞祥)	목판본	3권 2책
병산선생속집(鉾山先生續集)	김난상(金鸞祥)	목판본	1책
복천선생유고(復泉先生遺稿)	강학년(姜鶴年)	석판본	1책
봉강집(鳳岡集)	이만여(李晩輿)	목활자본	3권 1책

봉계선생일고(鳳溪先生逸稿)	홍세공(洪世恭)	목판본	2권 1책
부용당선생일고(芙蓉堂先生逸稿)	성안의(成安義)	목판본	4권 2책
부재선생문집(復齋先生文集)	이도자(李道孜) 외	목판본	2권 1책
부원당선생문집(負喧堂先生文集)	김해(金楷)	목판본	4권 2책
북정집(北亭集)	이종주(李宗周)	목판본	5권 2책
분지선생문집(賁趾先生文集)	남치리(南致利)	필사본	3권 1책
불구당선생문집(不求堂先生文集)	김정(金廷)	목판본	1책[영본]
비와문집(卑窩文集)	정중대(鄭重岱)	석판본	4권 2책
사가현유집(四可軒遺集)	김주수(金疇壽)	목판본	1책
사무자유집(四無子遺集)	정재로(鄭載老)	석판본	2권 1책
사미현문집(四未軒文集)	장복추(張福樞)	목판본	11권 6책
사복재선생실기(四復齋先生實記)	권석규(權錫圭)	목판본	1책
사서선생문집(沙西先生文集)	김식(金湜)	목활자본	7권 6책
사암실기(思庵實記)	천석규(千錫奎)	목활자본	4권 2책
사월선생문집(沙月先生文集)	조임(趙任)	목판본	2권 1책
사천문집(沙川文集)	서창경(徐昌鏡)	목활자본	4권 2책
사헌문집(思軒文集)	정내성(鄭來成)	목판본	6권 3책
산은실기(汕隱實紀)	심상로(沈相魯)	석판본	2권 1책
산택재문집(山澤齋文集)	권태시(權泰時)	목활자본	2권 1책
삼당선생유집(三塘先生遺集)	김영(金瑛)	목판본	2권 1책
삼매당선생문집(三梅堂先生文集)	김하정(金廈挺)	목판본	6권 3책
삼성재일고(三省齋逸稿)	손흥례(孫興禮)	석판본	2권 1책
삼송선생일고(三松先生逸稿)	남몽별(南夢鰲)	목판본	1책
삼암선생유집(參巖先生遺集)	권희인(權希仁)	목판본	3권 1책
상화집(常華集)	정호의(鄭好義)	목판본	3권 1책
쌍남정유고(雙南亭遺稿)	석종규(石鍾圭)	석판본	2권 1책
쌍매당선생일고(雙梅堂先生逸稿)	이윤(李胤)	석판본	2권 1책
서계문집(西谿文集)	이득윤(李得胤)	목판본	6권 3책
서계선생일고(西溪先生逸稿)	김담수(金昉壽)	목판본	3권 1책
서귀자선생유고(鋤歸子先生遺稿)	정윤해(鄭允諧)	석판본	2권 1책
서담선생속집(西潭先生續集)	홍위(洪瑋)	목판본	3권 1책
서소선생문집(書巢先生文集)	김종휴(金宗休)	목판본	6권 3책
서소집(書巢集)	송홍직(宋洪直)	목판본	6권 3책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류성룡(柳成龍)	필사본	2책[영본]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류성룡(柳成龍)	목판본	9책[영본]
서애선생별집(西厓先生別集)	류성룡(柳成龍)	목활자본	5권 2책
서천선생실기(西川先生實紀)	홍순(洪淳)	석판본	2권 1책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	임춘(林椿)	목판본	6권 2책
서헌선생문집(恕軒先生文集)	이세형(李世珩)	목판본	4권 2책

석계선생문집(石溪先生文集)	이시명(李時明)	목판본	2권 1책
석계선생문집(石溪先生文集)	이시명(李時明)	목판본	4권 3책
석문시고(石文詩稿)	정영방(鄭榮邦)	석판본	3권 1책
석문선생문집(石文先生文集)	정영방(鄭榮邦)	목판본	4권 3책
석와문집(石窩文集)	권의(權穉)	목판본	4권 2책
설월당일고(雪月堂逸稿)	김익희(金益禧)	석판본	2권 1책
성오당선생문집(省吾堂先生文集)	이개립(李介立)	목판본	3권 2책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신흘(申屹)	석판본	2권 1책
성재문집(省齋文集)	손윤구(孫綸九)	석판본	4권 2책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	허전(許傳)	목판본	32권 16책
성재선생일고(省齋先生逸稿)	안후정(安後靜)	목판본	4권 2책
세효당실기(世孝堂實紀)	이시두(李時斗)	목활자본	2권 1책
소고선생문집(嘯臯先生文集)	박승임(朴承任)	목판본	4권 5책
소산선생문집(小山先生文集)	이광정(李光靖)	목판본	13권 7책
소산선생문집(素山先生文集)	이호우(李浩祐)	석판본	5권 2책
속은재문집(俗隱齋文集)	이귀성(李龜星)	목활자본	6권 3책
손재선생문집(損齋先生文集)	조재호(趙載浩)	목판본	15권 8책
송간선생문집(松澗先生文集)	이정회(李庭檜)	석판본	2권 1책
송강유고(松江遺稿)	정철(鄭澈)	목판본	1책
송계선생문집(松溪先生文集)	이형남(李亨南)	목판본	3권 1책
송계선생문집(松溪先生文集)	김영수(金榮洙)	석판본	11권 6책
송고집(松臯集)	송정흠(宋程欽)	목판본	4권 2책
송만선생일고(松灣先生逸稿)	김헌(金憲)	목활자본	2권 1책
송백당선생문집(松栢堂先生文集)	홍우정(洪宇正)	목활자본	4권 2책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권우(權宇)	목판본	4권 2책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호문(權好文)	목판본	3책[영본]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이로(李魯)	목판본	2책[영본]
송애집(松厓集)	이수대(李遂大)	목활자본	2권 1책
송와선생문집(松窩先生文集)	이종원(李從元)	석판본	4권 2책
송은시집(松隱詩集)	강석필(姜碩弼)	목활자본	2권 1책
송재선생문집별집(宋齋先生文集別集)	이우(李瑀)	목판본	2권 1책
송재선생문집속집(松齋先生文集續集)	이우(李瑀)	목판본	2권 1책
송재시집(松齋詩集)	이우(李瑀)	목판본	2권 1책
송정실기(松亭實紀)	강문필(姜文弼)	석판본	2권 1책
송파선생일고(松坡先生逸稿)	박전(朴全)	목판본	1책
수곡문집(樹谷文集)	권보(權輔)	석판본	5권 3책
수분와실기(守分窩實紀)	유자국(劉自勗)	석판본	3권 1책
수산문집(睡山文集)	김휘철(金輝徹)	현대활자본	6권 3책
수산문집(水山文集)	이성화(李性和)	목활자본	3권 1책

수서선생문집(水西先生文集)	박선장(朴善長)	목판본	4권 2책
수암선생문집(修巖先生文集)	류진(柳珍)	필사본	4책[연보]
수오재유집(守吾齋遺集)	안민수(安敏修)	목판본	4권 2책
수우당선생실기(守愚堂先生實紀)	양천익(梁天翼)	목판본	5권 2책
수월당선생유고(水月堂先生遺稿)	전만교(田萬郊)	석판본	1책
수월일고(水月逸稿)	조검(趙儉)	목판본	2권 1책
수은선생유집(睡隱先生遺集)	이홍조(李弘祚)	목판본	2권 1책
수헌선생문집(守軒先生文集)	류의목(柳懿睦)	석판본	1책[영본]
수헌선생집(睡軒先生集)	권오복(權五福)	목판본	2권 2책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	안정복(安鼎福)	목활자본	23권 15책
순암집(醇庵集)	오재순(吳載純)	고활자본	10권 5책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임화세(任華世)	목판본	4권 2책
시암선생문집(時庵先生文集)	남고(南皐)	목판본	15권 8책
식산선생문집(息山先生文集)	이만부(李萬敷)	목판본	24권 13책
식산선생문집(息山先生文集)	이만부(李萬敷)	목판본	4권 2책
식암선생문집(息庵先生文集)	황섬(黃暻)	목판본	5권 3책
신계선생문집(新溪先生文集)	정천주(鄭天周)	석판본	2권 1책
신당문집(新塘文集)	이성전(李成全)	목활자본	4권 2책
신당선생실기(新塘先生實紀)	정유성(鄭惟城)	목판본	1책
심기당선생문집(審幾堂先生文集)	황계희(黃啓熙)	목활자본	4권 2책
아맹선생일고(亞盲先生逸稿)	권창진(權昌震)	목판본	2권 1책
아석유고(我石遺稿)	정문섭(鄭文燮)	석판본	4권 2책
안분당집(安分堂集)	이희보(李希輔)	목활자본	4권 1책
안재문집(安齋文集)	이덕현(李德玄)	목활자본	2권 1책
암당문집(巖塘文集)	김도혁(金道赫)	석판본	4권 2책
야계선생문집(倂溪先生文集)	송희규(宋希奎)	목판본	3권 2책
야당유고(野堂遺稿)	권혁연(權赫然)	석판본	4권 2책
야운대선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	석 시성(釋 時聖)	목판본	3권 1책
야촌선생문집(野村先生文集)	손만웅(孫萬雄)	목활자본	5권 3책
약재집(約齋集)	권병(權炳)	목판본	9권 4책
양계선생문집(陽溪先生文集)	이복(李馥)	목판본	8권 4책
양민공문집(襄敏公文集)	손소(孫昭)	목판본	2권 1책
양서선생문집(襄西先生文集)	이광윤(李光胤)	목판본	1책[영본]
양파선생실기(陽坡先生實紀)	홍우정(洪宇正)	목판본	4권 2책
어계선생집(漁溪先生集)	조려(趙旅)	목판본	2권 1책
어변당실기(魚變堂實記)	박기우(朴起羽)	목활자본	2권 1책
여헌선생문집(旅軒先生文集)	장현광(張顯光)	목판본	11권 7책
여헌선생속집(旅軒先生續集)	장현광(張顯光)	목판본	4책[영본]
역락재선생문집(亦樂齋先生文集)	김치관(金致寬)	목판본	4권 2책

역안당문집(易安堂文集)	조천경(趙天經)	목판본	4권 2책
역악문집(櫟窩文集)	이세윤(李世胤)	목활자본	2권 1책
역정일고(櫟亭逸稿)	권시중(權是中)	석판본	2권 1책
연강재선생문집(練江齋先生文集)	문후(文後)	목판본	2권 1책
영풍정실기(詠風亭實記)	이시혁(李時赫)	목판본	3권 1책
오강유고(梧岡遺稿)	김정호(金正昊)	현대활자본	1책
오당실기(五堂實紀)	이배원(李培源)	석판본	3권 1책
오봉선생별집(梧峯先生別集)	신지제(申之悌)	목판본	1책
오산문집(梧山文集)	서창재(徐昌載)	목판본	6권 3책
오우당선생유집(五友堂先生遺集)	김근(金近)	목판본	4권 2책
오의정선생문집(五宜亭先生文集)	이의온(李宜溫)	석판본	2권 1책
오죽재문집(梧竹齋文集)	조선양(趙宣陽)	목활자본	6권 3책
오한선생문집(鰲漢先生文集)	손기양(孫起陽)	목판본	4권 4책
옥계유고(玉溪遺稿)	강봉문(姜鳳文)	목판본	2권 1책
옥계집(玉溪集)	김명흠(金命欽)	목판본	2권 1책
옥봉선생문집(玉峯先生文集)	권위(權暉)	목판본	4권 2책
옥천선생문집(玉川先生文集)	조덕린(趙德鄰)	목판본	18권 9책
옥천연방고(玉泉聯芳稿)	강주우(姜周祐) 등	목판본	3권 3책
옹재선생실기(雍齋先生實紀)	박치림(朴致霖)	석판본	2권 1책
외산문집(畏山文集)	류시봉(柳時鳳)	석판본	4권 2책
외암선생문집(畏巖先生文集)	이진화(李鎭華)	목판본	3권 1책
외재선생문집(畏齋先生文集)	이후경(李厚慶)	목판본	4권 3책
용계선생문집(龍溪先生文集)	오흡(吳滄)	목판본	2권 1책
용담선생문집(龍潭先生文集)	박이장(朴而章)	목판본	7권 3책
용봉선생문집(龍峰先生文集)	황익청(黃益淸)	목판본	3권 1책
용산문집(龍山文集)	이만인(李晩寅)	석판본	11권 5책
용암선생문집(龍巖先生文集)	박운(朴雲)	목판본	4권 2책
용재눌재양선생유고(慵齋訥齋兩先生遺稿)	이종준(李宗準) 이홍준(李弘準)	목판본	1책
용재선생문집(慵齋先生文集)	박호(朴滄)	석판본	4권 2책
용천유고(龍泉遺稿)	권정현(權鼎鉉)	목판본	2권 1책
용포선생문집(龍浦先生文集)	이유(李澣)	목판본	4권 2책
우간문집(雨澗文集)	김호운(金虎運)	목판본	6권 3책
우계문집(雨溪文集)	김명석(金命錫)	목판본	4권 2책
우계선생문집(迂溪先生文集)	박담(朴潭)	목판본	2권 1책
우고문집(雨皐文集)	김도행(金道行)	목판본	8권 4책
우곡선생문집(愚谷先生文集)	송량(宋亮)	목판본	4권 2책
우국재선생문집(友菊齋先生文集)	홍경손(洪敬孫)	목판본	4권 1책
우담선생문집(愚潭先生文集)	정시한(丁時翰)	목판본	12권 6책

우복선생문집(愚伏先生文集)	정경세(鄭經世)	목판본	30권 14책
우복선생문집(愚伏先生文集)	정경세(鄭經世)	목판본	2책[영본]
우산문집(虞山文集)	이재수(李在洙)	석판본	4권 2책
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	남구명(南九明)	목판본	5권 3책
우암실기(牛巖實記)	이장복(李章福)	목활자본	1책
우엄유고(愚廣遺稿)	전규병(全奎炳)	목판본	4권 2책
우원선생문집(尤園先生文集)	이정국(李楨國)	목판본	8권 4책
우은문집(愚隱文集)	남석우(南錫禹)	석판본	2권 1책
우제문집(愚濟文集)	오익(吳翼)	목활자본	4권 2책
우재선생문집(愚齋先生文集)	손중돈(孫仲墩)	목판본	4권 2책
우줄재선생문집(迂拙齋先生文集)	정몽양(鄭夢陽)	석판본	2권 1책
우줄재선생실기(迂拙齋先生實紀)	박한주(朴漢柱)	목활자본	2권 1책
우천선생문집(愚川先生文集)	정칙(鄭弼)	목판본	7권 4책
우천선생문집(牛川先生文集)	정옥(鄭玉)	목활자본	7권 4책
우헌선생문집(愚軒先生文集)	채헌징(蔡獻徵)	목판본	7권 3책
운계문집(雲溪文集)	전이생(全以生)	목활자본	4권 2책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이희발(李義發)	목활자본	21권 11책
운산문집(雲山文集)	이휘재(李彙載)	현활자본	13권 6책
운악선생문집(雲嶽先生文集)	이함(李涵)	목판본	3권 1책
운암선생문집(雲巖先生文集)	김주(金軾)	석판본	4권 2책
운암일고(雲巖逸稿)	이흥발(李興浚)	목판본	2권 1책
운와문집(耘窩文集)	채구장(蔡九章)	석판본	4권 2책
운정유집(雲庭遺集)	장승원(張承遠)	목판본	5권 4책
운천선생문집(雲川先生文集)	김용(金湧)	목판본	6권 4책
원정선생실기(原亭先生實紀)	여동연(呂東淵)	석판본	1책
원천선생일고(原泉先生逸稿)	전팔고(全八顧)	목판본	1책
월간선생문집(月澗先生文集)	이전(李堧)	목판본	3권 4책
월봉선생문집(月峯先生文集)	고인계(高仁繼)	목판본	4권 2책
월봉선생실기(月峯先生實紀)	김준식(金俊植)	목판본	2권 1책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이정구(李廷龜)	목판본	5책[영본]
월연선생문집(月淵先生文集)	이태(李迨)	목활자본	2권 1책
월오당문집(月梧堂文集)	안진석(安晉石)	석판본	2권 1책
월오헌문집(月梧軒文集)	김회운(金會雲)	목판본	4권 2책
월하문집(月下文集)	조운직(趙雲直)	목판본	2권 1책
위재문집(危齋文集)	조상덕(趙相憲)	목판본	6권 3책
유암집(楡巖集)	배유장(裴幼章)	목판본	2권 1책
유연당선생문집(悠然堂先生文集)	김대현(金大賢)	고활자본	4권 2책
유일재선생실기(惟一齋先生實紀)	김정흠(金正欽)	목판본	2권 1책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장석룡(張錫龍)	석판본	11권 7책

유회당선생집(有懷堂先生集)	권이진(權以鎭)	목판본	12권 6책
율곡선생문집(栗谷先生文集)	이이(李珥)	목판본	27책[영본]
율헌집(栗軒集)	정일우(丁日宇)	현대활자본	2권 1책
은포공실기(隱浦公實紀)	김상태(金相兌)	석판본	2권 1책
음애선생집(陰崖先生集)	이운(李耘)	목판본	4권 2책
응계선생실기(凝溪先生實紀)	왕세보(王世寶)	목판본	3권 1책
응천집(凝川集)	홍택주(洪宅疇)	석판본	4권 2책
의사남고문집(義士南阜文集)	장성윤(張聖胤)	석판본	2권 1책
의암집(宜庵集)	안덕문(安德文)	목판본	8권 3책
이계선생문집(耳溪先生文集)	남몽뢰(南夢賚)	목판본	6권 3책
이계집(耳溪集)	남몽뢰(南夢賚)	목판본	6권 3책
이계선생속집(耳溪先生續集)	남몽뢰(南夢賚)	목판본	1책[영본]
이상은시집(李商隱詩集)	이상은(李商隱)	목판본	1책[영본]
이우당선생문집(二愚堂先生文集)	권환(權奩)	목판본	4권 2책
이류재문집(二柳齋文集)	이중수(李中洙)	석판본	9권 4책
이치재선생문집(二恥齋先生文集)	신정모(申正模)	목판본	6권 3책
이휴당선생문집(二休堂先生文集)	홍문표(洪文杓)	석판본	2권 1책
익재난고(益齋亂藁)	이제현(李齊賢)	목판본	1책[영본]
인백당선생일고(忍百堂先生逸稿)	김낙춘(金樂春)	석판본	3권 1책
인와선생문집(忍窩先生文集)	이술현(李述賢)	석판본	4권 2책
일봉문집(一峯文集)	조석회(趙錫晦)	목판본	4권 2책
일암선생문집(一庵先生文集)	신몽삼(辛夢參)	목활자본	7권 4책
임연재선생문집(臨淵齋先生文集)	배삼익(裵三益)	목판본	6권 3책
임와선생일고(臨窩先生逸稿)	정일신(丁一愼)	목판본	2권 1책
일휴면진양선생연고(日休勉進兩先生聯稿)	금순기(琴舜基) 금응훈(琴應勳)	석판본	2권 1책
입재선생별집(立齋先生別集)	정종로(鄭宗魯)	목판본	9권 4책
자락당선생유집(自樂堂先生遺集)	권수경(權守經)	석판본	4권 3책
자암집(紫巖集)	이민환(李民奩)	목판본	7권 2책
자양문집(紫陽文集)	주희(朱熹)	목판본	1책[영본]
자유헌선생문집(自濡軒先生文集)	이만백(李萬白)	목판본	4권 2책
잠계문집(潛溪文集)	권창식(權昌植)	석판본	1책[영본]
잠암선생일고(潛庵先生逸稿)	김의정(金義貞)	목판본	5권 2책
잠와선생실기(潛窩先生實紀)	최종겸(崔宗謙)	목판본	4권 2책
장계이고(長溪二稿)	황여헌(黃汝獻) 황효헌(黃孝獻)	목판본	2권 1책
장곡선생문집(藏谷先生文集)	권태일(權泰一)	목판본	3권 1책
장암집(藏庵集)	김창조(金昌祖)	목활자본	1책[영본]
장원선생유고(藏園先生遺稿)	황원선(黃源善)	현대활자본	7권 4책

적암선생문집(適庵先生文集)	김태중(金台重)	목판본	4권 2책
전공재선생문집(戰兢齋先生文集)	김서일(金瑞一)	목판본	4권 2책
점필재집(佔畢齋集)	김종직(金宗直)	목판본	5책[영본]
정무공최선생실기(貞武公崔先生實紀)	최경로(崔慶老)	목판본	4권 2책
정부인안동장씨실기(貞夫人安東張氏實紀)	이유원(李猷遠)	목판본	1책
정사재문집(靜思齋文集)	강도희(姜道熙)	현대활자본	8권 4책
정산선생문집(靜山先生文集)	홍순경	석판본	9권 4책
정산유고(靜山遺稿)	김용하(金溶夏)	현대활자본	4권 1책
정암선생유고(定庵先生遺稿)	곽월(郭越)	석판본	2권 1책
정양당선생문집(靜養堂先生文集)	김윤명(金允明)	석판본	3권 2책
정와선생문집(靜窩先生文集)	조석철(趙錫詰)	목판본	8권 4책
정와선생문집(訂窩先生文集)	김대진(金岱鎭)	목판본	20권 10책
정재선생문집(定齋先生文集)	류치명(柳致明)	목판본	20책[영본]
제산선생문집(霽山先生文集)	김성탁(金聖鐸)	목판본	3책[영본]
제암문집(霽巖文集)	최종겸(崔宗謙)	목판본	6권 3책
제암선생문집(制庵先生文集)	정상리(鄭象履)	목판본	8권 4책
제월당선생실기(霽月堂先生實紀)	이석정(李錫井)	목판본	3권 1책
제정선새문집(霽亭先生文集)	이달충(李達衷)	석판본	4권 1책
조성상선생문집(操省堂先生文集)	김택용(金澤龍)	목판본	4권 2책
존재선생문집(存齋先生文集)	이휘일(李徽逸)	목판본	8권 3책
존재선생실기(存齋先生實紀)	곽준(郭遵)	목판본	2권 2책
줄은선생문집(拙隱先生文集)	이한보(李漢輔)	목활자본	8권 4책
줄재선생문집(拙齋先生文集)	류원지(柳元之)	목판본	14권 6책
줄재선생문집(拙齋先生文集)	류원지(柳元之)	필사본	14권 7책
줄재유고(拙齋遺稿)	류원지(柳元之)	필사본	4책
주봉선생문집(柱峯先生文集)	이협(李峽)	목판본	2권 1책
주자대전문집(朱子大全文集)	주희(朱熹)	목판본	100권 57책
주자대전속집(朱子大全續集)	주희(朱熹)	목판본	11권 3책
주자실기(朱子實紀)	대선(戴銑)	목판본	4책[영본]
죽계선생실기(竹溪先生實紀)	이대임(李大任)	목판본	4권 1책
죽림재문집(竹林齋文集)	박세용(朴世壙)	목활자본	2권 1책
죽봉선생문집(竹峯先生文集)	김간(金侃)	석판본	4권 2책
죽소문집(竹巢文集)	민종혁(閔宗爌)	목판본	2권 1책
죽암선생일집(竹庵先生逸集)	허경윤(許景胤)	목판본	2권 1책
죽오유집(竹塢遺集)	이관오(李觀吾)	석판본	4권 2책
죽유선생문집(竹牖先生文集)	오운(吳濬)	목판본	4권 3책
죽재선생문집(竹齋先生文集)	곽간(郭趕)	석판본	2권 1책
죽헌선생문집(竹軒先生文集)	도신징(都愼徵)	석판본	4권 2책
지곡선생일고(芝谷先生逸稿)	류조(柳組)	석판본	2권 1책

지곡선생유집(芝谷先生遺集)	김정한(金正漢)	목판본	4권 2책
지남선생문집(砥南先生文集)	김남일(金南一)	석판본	2권 1책
지산선생문집(芝山先生文集)	조호익(曹好益)	목판본	5권 2책
지산선생문집(芝山先生文集)	조호익(曹好益)	목판본	6권 3책
지암선생문집(止庵先生文集)	이철보(李喆輔)	석판본	4권 2책
지애선생문집(芝厓先生文集)	정휘(鄭煥)	목판본	7권 4책
지촌선생문집(芝村先生文集)	김방걸(金邦杰)	목판본	4권 2책
진봉선생일고(震峯先生逸稿)	권광(權宏)	목판본	2권 1책
진일재선생유집(眞一齋先生遺集)	류송조(柳崇祖)	목판본	2권 1책
질암문집(質菴文集)	최벽(崔壁)	목활자본	6권 4책
창계선생문집(滄溪先生文集)	문경동(文敬全)	목활자본	4권 2책
창계유고(滄溪遺稿)	이학기(李學基)	석판본	6권 3책
창균선생유고(蒼筠先生遺稿)	김기보(金箕報)	목판본	2권 1책
창대정공실기(昌臺鄭公實紀)	정윤섭(鄭允燮)	목판본	5권 1책
창석선생문집(蒼石先生文集)	이준(李埈)	목활자본	18권 11책
창석선생속집(蒼石先生續集)	이준(李埈)	목활자본	8권 4책
창애문집(滄厓文集)	이중광(李重光)	목판본	4권 2책
창려집(昌黎集)	한유(韓愈)	필사본	1책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박돈복(朴敦復)	목판본	4권 2책
천옹선생문집(喘翁先生文集)	최흥립(崔興立)	목판본	3권 1책
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	이암(李岳) 등	목판본	3권 3책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권상일(權相一)	목판본	16권 10책
청벽선생문집(靑壁先生文集)	이수연(李守淵)	목활자본	4권 2책
청천당선생문집(聽天堂先生文集)	장응일(張應一)	석판본	4권 2책
청풍자선생문집(淸風子先生文集)	정윤목(鄭允穆)	목판본	4권 4책
청취당선생실기(淸曄堂先生實紀)	이기철(李起喆)	목판본	1책
청휴재선생문집(淸休齋先生文集)	김양열(金揚烈)	목판본	2권 1책
초당선생문집(草堂先生文集)	허엽(許曄)	목활자본	4권 2책
초와선생일고(草窩先生逸稿)	박안도(朴安道)	석판본	2권 1책
추담선생문집(秋潭先生文集)	성만징(成晩徵)	목활자본	1책[영본]
추암집(秋菴集)	김하구(金夏九)	목판본	6권 4책
추천선생문집(鄒天先生文集)	손영제(孫英濟)	목판본	2권 1책
추파선생문집(秋坡先生文集)	송인수(宋麟壽)	목판본	8권 5책
추파선생집(秋坡先生集)	송인수(宋麟壽)	목활자본	5권 2책
춘당선생문집(春塘先生文集)	오수영(吳守盈)	목판본	4권 2책
춘정선생문집(春亭先生文集)	변계량(卞季良)	목판본	12권 5책
충재선생문집(冲齋先生文集)	권벌(權檢)	목판본	5책[영본]
충재선생유고(冲齋先生遺稿)	권벌(權檢)	목판본	4권 2책
충효당유집(忠孝堂遺集)	김협(金協)	목판본	1책

취사선생문집(炊沙先生文集)	이여빈(李汝蘋)	목판본	6권 3책
치암문집(恥庵文集)	김석규(金碩奎)	목판본	8권 4책
치암선생문집(癡庵先生文集)	남경희(南景羲)	목판본	12권 6책
치헌선생문집(癡軒先生文集)	김덕오(金德五)	목판본	8권 4책
칠봉선생일집(七峯先生逸集)	김희삼(金希參)	목판본	1책
칠암문집(七巖文集)	김몽화(金夢華)	목판본	4권 2책
칠우정문집(七友亭文集)	권대림(權大臨)	목판본	4권 2책
태계선생문집(台溪先生文集)	하진(河潛)	목판본	6권 4책
태촌선생문집(泰村先生文集)	고상언(高尚彦)	목판본	6권 3책
토헌선생문집(土軒先生文集)	박초(朴礎)	석판본	6권 3책
파산선생일고(巴山先生逸稿)	류중엄(柳仲淹)	목판본	2권 1책
팔사유고(八斯遺稿)	배유화(裴幼華)	목판본	2권 1책
팔오헌선생문집(八吾軒先生文集)	김성구(金聲九)	목활자본	6권 5책
평암선생문집(平庵先生文集)	권정침(權正忱)	목판본	8권 4책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정몽주(鄭夢周)	목판본	1책[영본]
표은선생문집(瓢隱先生文集)	김시온(金是溫)	목판본	4권 2책
품산문집(品山文集)	권용(權鎔)	석판본	2권 1책
풍고집(楓臯集)	김조순(金祖淳)	고활자본	16권 8책
하계문집(何溪文集)	박세도(朴世衡)	목판본	1책[영본]
하당선생문집(荷塘先生文集)	권두인(權斗寅)	목판본	8권 4책
하수선생문집(荷叟先生文集)	박기령(朴箕寧)	목판본	2책[영본]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신즙(申楫)	목활자본	9권 5책
하지유집(下枝遺集)	이상진(李象辰)	목판본	6권 3책
학동선생일고(鶴洞先生逸稿)	이광준(李光俊)	석판본	2권 1책
학림선생문집(鶴林先生文集)	권방(權訪)	목판본	10권 6책
학봉선생문집(鶴峯先生文集)	김성일(金誠一)	목판본	1책[영본]
학봉선생문집속집(鶴峯先生文集續集)	김성일(金誠一)	목판본	1책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류태좌(柳台佐)	목판본	20권 10책
학파선생실기(鶴坡先生實記)	이장찬(李璋燦)	목판본	3권 1책
학파유고(鶴坡遺稿)	조성복(趙星復)	석판본	4권 2책
한강선생속집(寒岡先生續集)	정구(鄭逖)	목판본	9권 3책
한송재선생문집(寒松齋先生文集)	이정보(李楨輔)	석판본	4권 2책
한주선생문집(寒洲先生文集)	이진상(李震相)	목판본	8책[영본]
한호문집(漢湖文集)	이민덕(李敏德)	목판본	4권 2책
항와문집(恒窩文集)	김성탁(金聲鐸)	석판본	4권 2책
항재선생문집(恒齋先生文集)	이송일(李崇逸)	목판본	6권 3책
해은유고(海隱遺稿)	오인태(吳仁兌)	석판본	2권 2책
해장실기(海藏實紀)	고봉상(高鳳祥)	목판본	2권 1책
해창문집(海窓文集)	송기식(宋基植)	석판본	9권 5책

해헌선생문집(懈軒先生文集)	황명하(黃命河)	석판본	1책[영본]
해화선생문집(海華先生文集)	서선(徐選)	목활자본	3권 1책
행당선생문집(杏堂先生文集)	장만걸(張萬杰)	목판본	5권 2책
허백선생속집(虛白先生續集)	홍귀달(洪貴達)	목판본	6권 3책
혜전집(蕙田集)	나헌용(羅獻容)	석판본	4책[영본]
호계선생실기(虎溪先生實紀)	이완집(李完集)	목판본	1책
호고와선생문집(好古窩先生文集)	류휘문(柳徽文)	목판본	19권 10책
호산선생문집(毫山先生文集)	이장(李獎)	석판본	4권 2책
호양선생문집(湖陽先生文集)	권익창(權益昌)	목판본	4권 2책
호우선생유고(湖憂先生遺稿)	이환(李煥)	목판본	4권 2책
호재선생문집(浩齋先生文集)	이정수(李定洙)	목판본	8권 4책
호정선생실기(吳亭先生實紀)	김석규(金錫奎)	목판본	2권 1책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	권주(權柱)	목판본	1책
활산선생문집(活山先生文集)	남용만(南龍萬)	목판본	7권 6책
황면재선생문집(黃勉齋先生文集)	황간(黃幹)	목판본	3책[영본]
황명처사남곡선생문집(皇明處士南谷先生文集)	권상길(權尙吉)	목판본	6권 2책
황암선생문집(篁巖先生文集)	김진하(金鎭河)	석판본	2책[영본]
황파집(黃坡集)	김종걸(金宗傑)	목판본	2권 1책
회곡선생문집(晦谷先生文集)	권춘란(權春蘭)	목판본	2권 2책
회당선생문집(晦堂先生文集)	류세철(柳世哲)	석판본	4권 2책
회재선생문집(晦齋先生文集)	이언적(李彦迪)	목판본	13권 5책
회재선생별집(晦齋先生別集)	이언적(李彦迪)	목판본	5권 3책
효사재선생문집(孝思齋先生文集)	이탁영(李擢英)	석판본	2권 1책
후송재선생문집(後松齋先生文集)	김사정(金士貞)	목판본	2권 1책
후암집(厚庵集)	권렴(權濂)	목판본	8권 4책
훈수선생문집(塤叟先生文集)	정만양(鄭萬陽)	목판본	1책[영본]
훈지양선생속집(塤簾兩先生續集)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석판본	4권 2책
휴암실기(休巖實紀)	공재환(孔在煥)	현대활자본	5권 2책

3) 병산서원 관련 문집

병산서원은 높은 지역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내의 사람을 비롯해 중앙정계의 많은 인사들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문자들을 병산서원과 주고받았는데, 각종 문집에 산 견되고 있는 병산서원 관련 문자들을 채록하면 다음과 같다.

- 권두경權斗經, 『창설재집蒼雪齋集』권4 「병산서원야좌屏山書院夜坐 동하당종형부同荷塘從兄賦」
- 권방權訪, 『학림집鶴林集』권3 「병산서원청액屏山書院請額」

- 권준희權準羲, 『우암집友巖集』 권5 「병산입교당중수山立敎堂重修」, 「병산서원입교당屏山書院立敎堂」
- 김봉조金奉祖, 『학호집鶴湖集』 권3 「대병산서원유생서에서생문代屏山書院儒生祭西厓先生文」
- 김종규金宗圭, 『독산집獨山集』 권3 「병산경로안屏山敬老案」
- 김윤안金允安, 『동리집東籬集』 권2 「구월도병산서원九月到屏山書院」, 권5 「제문祭文 병산서원유생생원 이설등屏山書院儒生生員李滌等」
- 류규柳 奎, 『임여재집臨汝齋集』 권1 「병산서원청액屏山書院請額」, 권4 「통유병원유생문通諭屏院儒生文」, 「병산서원경로회속안屏山書院敬老會續案」
- 류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권1 「시풍악서원유사示豐嶽書院有司」, 별집別集 권1 「병산서원屏山書院 봉별김학봉한조奉別金鶴峯還朝」·「병산屏山 여제군교선사문집與諸君校先師文集 유감정학봉형시자有感呈鶴峯兄侍者」·「무자하戊子夏 여사순제우與士純諸友 회병산會屏山 편퇴계선생문집編退溪先生文集 금십삼년今十三年 이제군복회원중而諸君復會院中 집연보輯年譜 감구흥회感舊興懷 음일률록정吟一律錄呈 행각화지幸各和之 이기일시지사以記一時之事」, 『연보』 권3 「병산서원봉안문屏山書院奉安文」
- 류진柳珍, 『수암집修巖集』 연보 권2 「제문祭文 병산유생이경준등屏山儒生李慶俊等」·「병산서원종향문屏山書院從享文 홍여하洪汝河」
- 신좌모申佐模, 『담인집澹人集』 권8 「봉심병산서원奉審屏山書院 경술敬述」
- 안경일安慶一, 『농와집蠶窩集』 권4 「병산죽도屏山竹島」
- 안정려安鼎呂, 『회산집晦山集』 권7 「병산서원알서애류선생사屏山書院謁西厓柳先生祠」
- 이능윤李能允, 『곡포집谷圃集』 권5 「병산서원屏山書院」
-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권15 「답병산서원동주答屏山書院洞主」
- 이상진李象辰, 『하지집下枝集』 권4 「병산서원屏山書院 통각원문通各院文」
- 이종상李鍾祥, 『정헌집定軒集』 권15 「병산서원屏山書院」
- 이유장李惟樟, 『고산집孤山集』 권1 「병산서원屏山書院 여제우수정서애선생연보與諸友修正西厓先生年譜」·「병증문제우회병산病中聞諸友會屏山 유감이작有感而作」
- 이준李埈, 『창석집蒼石集』 권2 「주과병산舟過屏山 방선생유적訪先生遺迹」, 권11 「답병산산장答屏山山長」·「여병산서원사우與屏山書院士友」·「답병산서원사우答屏山書院士友」·「여병산서원사우與屏山書院士友」·「답병산서원사우答屏山書院士友」, 권13 「병산서원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 속집續集 권6 「병산상향축문屏山常享祝文」
- 이호민李好閔, 『오봉집五峯集』 권15 「병산서원봉안서애선생제문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
- 장현광張顯光, 『여헌집旅軒集』 권4 「병산사우屏山士友」·「답병산사우별지答屏山士友別紙」
-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 권13 「답병산문회答屏山文會」·「답병산원장答屏山院長」·「답삼서원答三書院」, 권16 「병산서원향축屏山書院享祝」·「병산서원서애선생위판재봉안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병산서원서애선생위판재봉안제문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
- 정구鄭述, 『한강집寒岡集』 속집 권7 「병산원생屏山院生」
- 정상리鄭象履, 『제암집制庵集』 권4 「병산서원청액屏山書院請額」
- 정종로鄭宗魯, 『입재집立齋集』 별집 권8 「제문祭文 안동병산서원유생류벽조安東屏山書院儒生柳璧祚」
- 정칙鄭弼, 『우천집愚川集』 권2 「침병산원임忝屏山院任 알묘후구점謁廟後口占」·「재병산서원在屏山書院 여제우회화與諸友會話」·「병산원하屏山院下 소주고성小舟告成 희부喜賦 시동사박여완示同事朴汝完 이자승李子承」·「여제우與諸友 회병산서원會屏山書院 좌상주필座上走筆」, 권3 「사병상동주辭屏山洞主」

- 최효술崔孝述, 『지헌집止軒集』권4「병산회중屏山會中」
- 홍여하洪汝河, 『목재집木齋集』권5「병산용일헌례屏山用一獻禮」, 권7「병산서원수암봉안문屏山書院修巖奉安文」
- 홍주세洪柱世, 『정허당집靜虛堂集』상「병산서원屏山書院」

2-5-4. 병산서원의 현판¹⁷⁾

병산서원에는 정문·누각·강당·사당의 편액을 비롯하여, 동재와 서재, 그리고 강당의 현판 및 기문 등 모두 12점의 현판이 확인된다. 해당 현판들은 모두 해서楷書로 쓰여진 것들이다.

현판목록표

건 물	당호류	기문류	기 타	비 고
사우	尊德祠			
서원	屏山書院			
강당	立敎堂 明誠齋(東) 敬義齋(西)	屏山尊德祠復享記	존덕사향사집사분정 尊德祠從祀位執事分定	
동서재	動直齋(동재) 靜虛齋(서재)		藏書室	
문루	晚對樓			
외삼문	復禮門			
장판각	藏板閣			
전사청	典祀廳			

1) 사우

■ 존덕사尊德祠(82×171cm)

류성룡과 류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는 병산서원 사당의 편액으로 건물 정면 중앙에 걸려있다. '존덕'은 서애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이다.



존덕사



병산서원

17) 「병산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참조.

2) 서원

■ 병산서원 屏山書院(78×226cm)

병산서원의 강학 장소인 입교당 立敎堂 건물 정면에 걸려 있는 편액이다. 보통 서원 이름을 가리키는 편액은 강당 정면 중앙에 걸려 있는데, 병산서원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병산'은 서원 앞 낙동강을 끼고 흐르는 산이 병풍을 두른 듯이 펼쳐져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3) 강당

■ 입교당 立敎堂(81×178cm)

병산서원 강당 입교당의 편액으로, 강당 정면에는 '병산서원' 편액이 걸려 있으며, 그 뒤편 마루 안쪽 중앙에 마당을 바라보며 '입교당' 편액이 걸려 있다. '입교'는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 즉 오교(오륜)를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 명성재 明誠齋(37×88cm)

병산서원의 강당 입교당의 우측방 명성재의 현판으로, '명성'은 『중용』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明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짐을 교敎라 하미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성誠은 성실히 하는 것으로 행行에 해당하고 밝음明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知에 해당하며, 성性은 배우지 않고 본성대로 하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이르고 교敎는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선행을 하는 현인賢人을 이른다.'는 내용이다. 명성재는 훈장들이 기거하던 방이다.

■ 경의재 敬義齋(40×84cm)

병산서원의 강당 입교당의 좌측방 경의재의 현판으로, '경의'는 『주역』「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군자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는 구절에서 인용되었다. 경으로써 내면을 수양하고, 의로써 외부적 행동의 판단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현판은 방문 앞에 걸려 있으며, 서원의 서무를 보거나 강학을 하는 선생들이 기거하던 방이다.



입교당



명성재



경의재

■ 병산존덕사복향기 屏山尊德祠復享記(47×130cm)

병산서원의 강당인 입교당 마루에 걸려 있는 기문記文 현판이므로 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다. 기문은 '승정崇禎 경오庚午 모춘暮春 정해丁亥', 즉 1630년(인조 8) 3월 정해일에 쓴 것이며, 글쓴이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전前 공조참의工曹參議 지제교知製敎 이준李埈'으로 나타난다. 이준은 병산서원의 배향자 서애 류성룡의 고제高弟로 알려진 인물이다.

기문은 류성룡 위패의 이봉과 복향 사실을 기록하였다. 1620년(광해군 12) 병산서원에 배향된 류성룡의 위패는 사람의 공의로 여강서원으로 이봉되었다고 1629년(인조 7) 다시 병산서원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존덕사는 바로 병산서원의 사당으로 이때의 사실을 이준이 기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 존덕사향사집사분정 尊德祠享祀集事分定(1)(29.5×83cm)

병산서원의 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향사시 집사분정판이다.

■ 존덕사향사집사분정 尊德祠享祀集事分定(2)(29.5×83cm)

병산서원의 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종사위 집사분정판이다. 주향主享과는 달리 종향하는 배위의 집사분정판이 별도로 있으며, 분정판의 구성요소도 다르다.



존덕사복향기



존덕사향사집사분정

4) 동재·서재

■ 동직재 動直齋(40×91cm)

병산서원 동재의 큰방 편액으로, 현판은 방문 앞에 걸려 있는데, 동직재는 서재와 함께 원생들의 기숙사로 활용되었다. '동직動直'은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 [일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고 한데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 정허재靜虛齋(38×87cm)

병산서원 서재의 편액으로 '정허'는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 [일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고 한데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 장서실藏書室(51×107cm)

병산서원 서재의 작은방 장서실 현판으로, 장서실 방문 위에 걸려 있다. 장서실은 우측 마루방으로, 말 그대로 병산서원의 서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활용되었다.



동직재



장서실

5) 문루

■ 만대루晩對樓(79×202cm)

병산서원의 누각인 만대루의 편액으로, 복례문을 향해 걸려 있다. '만대'라는 이름은 두보杜甫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두보는 유비劉備가 죽은 백제성을 둘러보고, '취병의만대翠屏宜晩對(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니)'라고 읊었는데, 이 구절에서 '만대'를 따온 것이다.

6) 외삼문

■ 복례문復禮門(67×183cm)

병산서원의 정문인 복례문의 편액으로, 삼문 중 중앙에 걸려 있다. '복례'라는 이름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하여許與할 것이다'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복례'는 '극기복례'극기복례克己復禮의 준말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天理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대루



복례문

7) 기타

■ 장판각藏板閣(31×98.5cm)

병산서원의 강당인 입교당의 후면 왼쪽에 건립된 장판각의 현판으로, 건물 정면 중앙에 걸려 있다. 장판각은 책을 인쇄할 때 쓰이는 목판冊版과 유물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 전사청典祀廳(28×68.5cm)

병산서원의 사당인 존덕사 왼편에 위치해 있는 전사청의 현판으로, 건물 정면 중앙에 걸려 있다. 전사청은 존덕사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제수와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다.



장판각



전사청

2-6. 조직과 운영¹⁸⁾

2-6-1. 원규院規

서원의 운영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규정한 자체 규약으로 '원규'가 있는데, 병산서원의 원규는 임고서원臨臯書院 소장 문서인 「서원규범書院規範」과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에서 확인이 된다. 임고서원의 「서원규범」에는 임고서원 원규를 비롯한 소수서원紹修書院·천곡서원川谷書院·금오서원金烏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병산서원屏山書院의 원규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서원의 원규는 독립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 관련되는 서원의 원규가 함께 나열되어 있다. 또 『병산서원기사』는 1718년 3월 상순에 당시 원장 이협李浹이 작성한 문건으로 『고문서집성20(병산서원편)』의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항례취사개규통문享禮聚士改規通文'·'원사절목院事節目' 등 절목, 완의 등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제례의 봉행 등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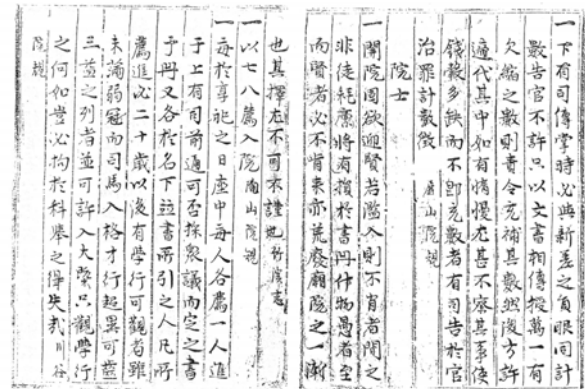
1) 임고서원 「서원규범」

■ 유사有司

- 각자 상·하 유사를 감당할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그 이름을 한 종이에 늘어 적은 뒤 권점한다.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상유사로 삼아 서원 안의 여러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유사는 미포米布의 출납과 공궤供饋·염산斂散, 타작打作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께 보고한 뒤 시행한다.
- 하유사가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차정된 사람과 입회하에 계수하여 관에 고하도록 해야 하며, 문서로만 인수인계하는 것은 불허한다. 만일 수량이 축난 것이 있으면 그 수를 채워 넣은 다음에야 교체를 허락한다. 그중에 만약 태만함이 너무 심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아 전곡이 많이 모자라게 하고도 그 즉시 숫자를 보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유사가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계산하여 징수한다.



임고서원의 「서원규범」 중 병산서원원규-1



임고서원의 「서원규범」 중 병산서원원규-2

18)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25-133 요약정리

■ 원사院士

- 서원에 들이는 절차는 유생이 모두 모여 각기 받아들일만한 사람을 추천한 뒤 연소하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정도를 따를 줄을 조금은 알고 행실에 오점이 없어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취하는데 그 이름을 모두 적어 놓고 권점하여 취한다.
- 여럿이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삼가 예절을 지키며 의리를 강마講廟함으로써 여택麗澤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유생들은 강론의 여가마다 잡스러운 일로 희롱하며 놀아서는 안되며 수시로 관례, 혼례 등과 사상견례士相見禮·투호·향음의 의식을 강습함으로써 옛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를 차린 뜻을 살펴야 한다. 서로 담론할 때에도 향간의 음담패설과 사리사욕에 관계된 일을 거론해서는 안되며 오직 의리와 고금 인물의 현부顯否·치란治亂의 득실·문장의 고하만을 강론함으로써 건문을 넓혀야 한다.
- 회강할 때의 표정은 단정하면서도 엄숙히 하고 여럿이 있을 때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장중하게 하여야 한다. 뒷사람의 우열을 품평하거나 남의 글을 헐뜯어서는 안된다. 고을의 정사나 동향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것만 말하고 잘못은 말하지 않는다.

■ 양현養賢

- 서원에 들어온 유생은 5인을 상공常供하는데, 공궤한 수를 통계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한 궤에 별도로 저장한다. 만약 그 달에 유생이 모이지 않으면 그 비축미를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시 다음 달의 공미에 보태 저장하였다가 공궤한다. 1년 내에 유생들에게 쓰는 달이 적어 비축미가 많이 싸여도 다른 곳에 전용해서는 안된다. 수년 뒤에 공미의 숫자가 많아지고 유생이 평소보다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는 임시로 작성하여 상공하는 5인을 넘더라도 인원을 헤아려 더 제공해도 무방하다.
- 찬가로 1년에 통용하는 잡곡이 3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 매달 2석 5두를 사용하고, 매달 점검하여 별도로 저장해 두었다가 유생이 많이 모이는 달에 공미의 예에 따라 변통하여 다른 용도로 쓴다.
- 상·하 유사와 외부의 빈객으로 무시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유생에게 쓰일 공미를 사용하여 어지럽게 섞이고 불려나가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를 헤아려 공미를 비축하된 얼마간은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도록 허락한다. 이 경우에도 분명하게 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어 훗날의 점고에 증빙 서류로 삼도록 한다.

■ 상정相正

- 여러 유생 중 만약 독서에 힘쓰지 않고 날마다 드나들며 직접 고기를 잡고 사냥하고 제멋대로 잡기를 일삼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경우는 면책하고 중한 경우는 손도한다.
- 남의 짐을 멋대로 풀어보거나 사사로운 편지를 훔쳐 본 자는 면책한다.
- 전복典僕에게 폐를 끼치는 자는 손도한다.

■ 전복典僕

- 무릇 서원의 하인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원장과 유사에게 고하여 치죄토록 한다.

2) 병산서원기사¹⁹⁾

■ 원증가행조건

서원의 경제를 다룬 용재지도用財之道와 교육 및 수양에 관한 조사지방造士之方으로 나뉜다. 대부분은 용재지도에 관한 규정이다. 내용은 원규로서 유생 5인에게 제공해야 할 쌀의 양을 정하는데 2~8월에는 아침·저녁 각 1되씩, 9~10월에는 각 7홉씩 지급된다. 이렇게 나가는 쌀이 1년에 21석이다. 또 방학인 4~7월에 농사비용으로 50석이 지출된다. 반면 수입은 예천군 감천에서 90석 등 각처에서 수백 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밀한 재정 계획을 세워 감독해야 한다. 1년에 소용되는 총지출 예산 : 총 200석, 이중 60석은 유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유사 감독 아래 검찰이 책임을 진다. 50석 봄가을 향사에 쓰이는 것으로 원장이 친히 감독한다. 노비 1인은 학전學田 논 1석락, 밭 1석 두락 정도를 맡게 한다. 창고 앞 외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향사 때 쓰는 밤·대추 등은 안동 정자마을 등에 심은 나무에서 수확하여 쓸 것이다. 노비 관계는 노비안에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원장의 관심사는 효율적인 서원 경영에 있었고, 서원경영의 최대 어려움은 재정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 향례취사개규통문

학궁學宮(서원을 높여 부르는 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향사진행에 관한 규약이다. 이 규약은 도산서원·삼계서원·도남서원의 예를 따라 작성했으며, 이를 각지의 서원 관계자에게 보내 승인을 얻은 공문이라 할 수 있다. 봄가을 향사 때에는 원유록院遊錄을 만들어 참가희망자를 모집한다. 유생은 25인이 임무를 분담한다. 임무수행은 1회에 한하며 재임은 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은 서원과 관계하고 있었던 문종으로 전달하였는데 병산서원에 관련하고 있었던 문종은 서후면 금계동의 안동 권씨, 간동의 진성 이씨, 하회의 풍산 유씨, 풍산 오미동의 풍산 김씨, 풍산 금수동의 진성 이씨, 와룡면 가야동의 풍산 유씨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원사절목

기타 자세한 규약이 열거되어 있다. 향사 전날의 식사 규약은 원장과 서사유생, 재유사만 밥상을 따로 받고, 아헌관 이하 집사자들은 각방에 나뉘어 함께 식사한다. 과거급제자들의 환영연에 대한 규정은 환영연 때 마을 아이들이나 광대패가 입교당 앞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만대루 밖에서 연회를 벌이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원에서는 술을 만들어 마시지 말 것이며, 중대사中臺寺는 서원에 속한 재산이지만 향사 때는 채소를 바치고 겨울엔 종이를 바치고 있으니 곡시 바치는 것은 경감시켜 줄 것이다.

19)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542.

2-6-2. 운영위원회 20)

현재 병산서원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이다. 서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로 손꼽는 춘추제향 때의 원장과 제관을 선정하고, 한 해 결산이 보고된다. 대외 활동이나 서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운영위원 수는 7~9명인데 주로 7명이며 두 명의 당연직과 다섯 명의 선출직으로 구성된다. 두 명의 당연직은 서원 사당에 배향된 주벽의 주손(류성룡의 종손, 운영위원장)과 풍산중고등학교 교장이며, 선출직 다섯 명은 병산서원과 관련된 문중 사람들이다.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때쯤 새로운 다섯 곳의 문중²¹⁾을 정해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문중은 내부 논의를 통해 한 명씩을 추천한다.

병산서원 운영에서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유사(有司)이다. 별유사(別有司) 또는 별임(別任)으로도 부르는 유사는 2년 임기이며 인원은 2~3명이다. 임기는 2년이지만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요즘 상황에서는 계속 연임하여 병산서원 유사로 봉직하기도 한다. 유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자발적이거나 선임 유사의 추천을 받는다.

유사는 서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을 도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춘추제례를 준비한다. 서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역시 유사를 통해 신청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라도 개설되면 교육 기획까지도 감당하고 있다.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여 논의된 내용이나 의결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가 추진한다.

서원의 운영위원회가 서원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의결기구이나 서원 재산의 처분이나 토지의 수용 등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 없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유림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회(堂會²²⁾)가 소집된다. 이때 당회를 주재하는 것은 당회가 소집될 때의 원장이다.

병산서원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구 분	임원구성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병산서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2명	·류성룡 주손 ·풍산중고등학교 교장	·춘추제향 원장과 제관 선정 ·대외활동 및 중요사안의 결정 및 집행 ·운영 결산 보고 ·외부인의 서원 사용권 승인 ·강좌 및 교육 기획
	선출직 5명	·문중에서 선출	
	유사 2명	·실무담당(의결권 X)	

20)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내용 발췌

21)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중은 예안이씨, 안동권씨, 순천김씨, 안동김씨, 풍산김씨, 순흥안씨, 광산김씨, 진성이씨, 재령이씨, 흥해배씨, 영양남씨 등이 대표적이다.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용 참고)

22) 당회는 재지유림들의 결사로서 유회 또는 유림공론이라고도 한다. 당회는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에도 있었으나 유림공론의 성격상 서원이 중심 거점이 되었다. 당회의 성격은 서원 운영에 관한 의결을 비롯하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유림들의 여론을 환기하거나 집결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대의명분에 관계되는 일에는 즉시 당회를 열고 통문을 돌려 여론의 규합을 꾀하거나 자기 서원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2-7. 병산서원 관련 유적

안동 병산서원은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9년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병산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된데에는 흥선대원군의 휘철을 피해 건물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건축·미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배향자 서애 류성룡과 수암 류진, 그리고 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안동부의 사림, 특히 인근 하회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배향자의 후손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7-1. 하회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한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와가瓦家와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성장하고 머문 곳으로도 유명하며,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동쪽 약 6k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서원과 하회마을은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하회마을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고택들이다. 이들 고택에서 배출된 인사들은 오랜 기간 병산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인사들이며, 병산서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회마을에 위치한 주요 고택은 다음과 같다.

■ 양진당養眞堂(보물 제306호)

하회 풍산 류씨의 대종택으로 류성룡의 형 문경공文敬公 류운룡의 종택이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사랑채 정면에는 류운룡·류성룡 형제의 부친인 류중영柳仲郢(1515~1573)의 호를 딴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당호로 쓰이는 양진당은 류운룡의 6세손 류영柳泳의 호에서 취한 것이다. 99칸의 집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53칸만 전해진다. 사당은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류중영의 불천위不遷位 사당이며, 하나는 류운룡의 별묘別廟이다.



양진당 몸채 배면



양진당 큰 사당

■ 충효당忠孝堂(보물 제414호)

병산서원의 배향자인 문충공 서애 류성룡의 종택이다. 류성룡 사후 그의 유덕을 기리는 수많은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장손인 류원지 주도로 처음 건립되었고, 그의 아들 류의하柳宜河(1616~1698)가 확장·중수하였다. 충효당의 현판은 당대 명필로 명망 있던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의 친필이다. 충효당이라는 당호는 류성룡의 증손자로 익찬翊贊을 역임한 류의하 대에 게판揭板된 것이다. 역시 불천위 사당이 위치해 있으며, 1965년에 건립된 영모각永慕閣이 위치해 있다. 영모각은 류성룡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수집 또는 만들어진 각종 전적과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병산서원에서 옮겨진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충효당 몸채(정침)



충효당 사랑채

■ 하동고택河東古宅(중요민속자료 제177호)

이 고택은 류성룡의 후손으로 용궁현감龍宮縣監을 역임했던 류교목柳敎睦(1810~1874)이 1836년(헌종 2)에 건립한 것이다. 하회마을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하동고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동고택 안채



하동고택 사랑채

■ 하회북촌택(河回北村宅)(중요민속자료 제84호)

하회북촌택은 경상도慶尙道 도사都事를 역임한 류도성柳道性(1823~1906)이 1862년(철종 13)에 건립한 고택이다. 류도성은 류성룡의 후손이다. 전형적인 양반 가옥으로 웅장한 안채가 인상적이다. 인근 화산에 위치한 입향조의 무덤에서 바라볼 때, 하회마을 건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북촌택의 안채이다.



북촌택 안채



북촌택 별당채

■ 하회남촌택(河回南村宅)(중요민속자료 제90호)

1797년(정조 21) 형조刑曹 좌랑佐郎을 역임했던 류기영柳驥榮(1825~1880)이 건립한 고택이다. 1954년 화재로 안채와 사랑채가 소실되어 현재는 문간채와 별당, 그리고 사당만 남아 있었으나 안채와 사랑채가 소실되었으나 2011년 복원되었다.



남촌택 사랑채



남촌택 문간채

■ 하회주일재(河回主一齋)(중요민속자료 제91호)



주일재 전경



주일재 안채

류성룡의 증손 류만하(柳萬河)가 충효당에서 분가할 때 지은 집이다. 후에 류만하의 아들 주일재(主一齋) 류후장(柳後章)(1650~1706)이 늘려 지었다고 하는데, 당호는 류후장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一'자 형의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그리고 사당을 갖춘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다.

■ 하회풍산류씨작천택(河回豊山柳氏鵲泉宅, 중요민속자료 제87호)



작천택 안채



작천택 별채

택호는 작천(鵲泉) 류도관(柳道觀)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작천고택은 현재 안채와 별채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문간채도 있었는데, 1934년에 대홍수로 유실되었다. 안채는 목조 기와집이고, 별채는 목조 초가집이다. 작천고택에서는 안채와 사랑채가 별설되지 않고 한 채 안에 같이 있으며, 남녀의 영역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소규모 와가에 유교 예법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7-2. 류성룡을 배향한 서원

류성룡을 배향한 대표적인 서원은 단연 병산서원이나, 그 외에도 류성룡을 배향한 서원이 다수 존재한다. 서원 보급 초창기에는 특정 인물이 복수의 서원에 배향되는 이른바 첩설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당쟁의 심화와 맞물려 문중 의식 강화에 따른 조상추숭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서원은 남설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명망 있는 선비가 복수의 서원에 배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업적에 객관성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류성룡을 배향한 서원도 이러한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안동뿐만 아니라 류성룡과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그의 학문적 교화를 얻은 고을의 유림들은 류성룡의 업적을 기리고 학문을 본받고자 서원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병산서원의 사회적 활동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동권을 대표하던 병산서원이 도내 또는 도를 넘어 대외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는 같은 배향 인물을 모시고 있는 아래의 서원들이 적지 않게 일조를 하고 있었다. 즉, 병산서원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때 안동을 비롯하여 예천·상주의성·군위 등의 유림들이 일조하는 것은 류성룡을 배향하고 있다는 동질성이 무관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여강서원 廬江書院(현 호계서원 虎溪書院,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호계서원 강당



호계서원 전경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77-1로 이건(移建)되어 세워져 있다. 당초 1575년(선조 8) 지역 사람들이 안동부 동쪽 여산촌 오로봉 아래인 백련사 白蓮寺 옛 터에 서원을 건립하여 퇴계 이황의 위패를 봉안하였었다. 그러다 1620년(광해군 12)에 안동권 사람들의 공론이 모아져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을 추향(追享)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병산서원 존덕사에 있던 류성룡의 위패가 한동안 여강서원에 이봉되었던 것이다. 1676년(숙종 2)에는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 '호계서원 虎溪書院'이 되었다.

묘우의 이름은 존도사 尊道祠이고, 강당은 숭교당 崇敎堂이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복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당은 남아 있지 않다. 훼손된 지 7년 만에 강당만 새로 세우게 되었다. 현재 호계서원은 새로 건설된 임하담 경관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한동안 여강서원은 퇴계 이황의 그의 대표적인 두 제자 류성룡과 김성일 배향하며, 이른바 '수서원 首書院'이라 불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병호 시비 때 병산서원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면서, 두 서원은 향론을 분열시키는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 도남서원道南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서원이다. 1606년(선조 39) 사림들에 의해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정여창丁汝昌·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후 도남서원은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1799년(정조 21) 지금의 이름으로 사액받기에 이르렀다. 1617년(광해군 9)에는 노수신盧守愼, 1631년(인조 9) 9월에는 류성룡, 1635년(인조 14)에는 정경세를 추향하였다. 묘우의 이름은 도정사道正祠, 강당은 일관당一貫堂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뒤 근래에 서원 건물을 복설하였다.

■ 남계서원南溪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2리에 위치한 서원이다. 류성룡과 이호민李好閔이 배향되어 있다. 이곳은 류성룡의 조부인 간성군수杆城郡守 류공작柳公緯의 묘소가 있는 곳과도 멀지 않다. 또한 이곳은 류공작의 처향이라는 인연도 있다. 1559년(명종 14) 류공작이 세상을 떠나자, 류성룡은 부친의 외가인 남계南溪의 천석泉石을 장수지처藏修之處로 삼게 된다. 이어 부친 류중영이 현재의 남계서원 인근 송현松峴에서 3년간 여묘살이를 하게 되고, 재실齋室을 지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류성룡이 1586년(선조 19) 3월에 남계서당을 완성함으로써 선친의 뜻을 이루게 된다.

강당은 상로당霜露堂이며, 그 외 영모재永慕齋·완심재玩心齋·연어헌鰲魚軒 등을 갖추고 전체를 남계정사南溪精舍라 현판을 걸었다. 류성룡은 정사가 완성되자 이곳에 머물며 수시로 공부를 하였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1621년(인조 5)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고 서원이 되었다. 이어 1787년(정조 7)에 이호민의 위패를 추향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손되었다. 일부 남아 있던 건물들도 6.25 전쟁으로 전소되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1990년 류성룡의 제자 8문중에서 공의로 복설한 것이다.



도남서원 전경



남계서원 전경

■ 빙계서원 氷溪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3리에 위치한 서원이다. 김안국·金安國·이언적·김성일·류성룡·장현광을 배향하고 그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있다. 1576년(선조 9)에 빙계서원이라 사액 받았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피하지 못하고 훼손되었다. 사당은 충효당 忠孝堂, 강당은 명교당 明敎堂이다.

빙계서원은 본래 중종 연간 효행과 학행으로 이름을 높였던 회당 梅堂 신원록 申元祿(1516~1576)이 1568년(선조 1) 선산에다 장천서원 長川書院을 세워 사액 받았으나, 1600년(선조 33)에 이광준 李光俊이 빙계로 이전하여 서원 이름을 빙계로 고친 것이다.

■ 삼강서원 三江書院(삼강강당 三江講堂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4호)

경상북도 예천군 삼강리 서당마을에 위치한 서원이다. 1643년(인조 21) 사림들의 공의로 정몽주·이항·류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869년(고종 6)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현재 강당만 남아있는데, 강당은 앞쪽으로 둥근기둥을 세우고 옆면과 뒤쪽으로는 네모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었으며, 가운데에 개방된 구조의 마루를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백세청풍 百世淸風'이라는 현판 글씨는 정윤목이 선조 22년(1589)에 부친을 따라 중국에 가서 백이숙제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올 때 베껴온 것이다.



빙계서원전경



삼강서원 강당

2-7-3. 기타 유적들

여기서는 병산서원에 배향된 서애 류성룡과 관련하여, 하회마을 내 고택과 서원을 제외한 주요 유적들을 소개한다.

■ 하회원지정사 河回遠志精舍(중요민속자료 제85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류성룡이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건물로 1573년(선조 6)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하회마을 북쪽의 화천과 부용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하여 정사와 누정이 자리 잡고 있다. 원지 遠志는 약초의 일종인

소초小草로서 '심기를 다스리고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함'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류성룡 자신이 지은 「원지정사기문遠志精舍記文」에서 밝히고 있다. 원지정사의 서쪽으로는 누정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 위치해 있다. 특히 원지정사는 류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정양靜養을 위해 자주 은거했던 곳으로 매우 유서 깊은 장소이다.



원지정사



옥연서당

■ 하회옥연정사河玉淵精舍(중요민속자료 제88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20번지에 위치해 있다. 류성룡이 1586년(선조 19) 화천花川 건너 부용대 기슭에 세운 건물이다. 류성룡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작은 서당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가세가 빈곤하여 걱정하던 중 승려 탄홍誕弘이 10년 동안 곡식과 포목을 시주하여 완공했다고 한다. 류성룡의 대표 저서인 『징비록』을 집필한 유서 깊은 곳으로 유명하다.

■ 류성룡 묘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에 위치해 있다. 묘소에는 '영의정문충공서애류선생지묘領議政文忠公西厓柳成龍之墓'라는 묘전비만 있고, 신도비는 유명遺命으로 인해 세우지 않았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부장附葬되어 있다. 비문은 손재 류원지가 작성하였고, 글씨는 외6대손 이상정李象靖이 썼다. 묘소에서 고개 하나 넘어 재실인 수동재사가 위치해 있다.



류성룡 묘소



수동재사

■ 풍산류씨수동재사 豊山柳氏水洞齋舍(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27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50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 재사齋舍는 원래 류성룡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재실이다. 류성룡의 아들 류초柳初가 지은 『유천선생유고柳川先生遺稿』의 「상로재기 霜露齋記」에 의하면, 류성룡이 세상을 떠난 후 5년이 되던 1611년(광해군 3) 승려 보우甫右의 도움으로 재사를 짓고, '상로재'라는 현판을 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묘소는 손자인 류원지에 의해 이장되고, 그 자리에는 류원지의 셋째 아들인 류만하 柳萬河의 묘소가 마련되었다.

■ 영모각 永慕閣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번지의 충효당 내부에 위치해 있다. 충효당은 류성룡의 후손이 살고 있는 종택이며, 영모각은 류성룡 관련 유물과 전적을 보관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이다. 1965년 당시 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아 지어졌으며, 1966년 6월에 개관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서양식으로 건축되어 하회마을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규모도 작았다. 이에 1977년 6월 지금의 건물로 다시 지었다.

전시 면적은 179㎡이다. 내부에는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물 제160호 『류성룡 종손가 문적』, 보물 제460호 류성룡 종손가 유물을 비롯하여 필첩·영의정임명교지·도체찰사교서 都體察使敎書·선조 친필 밀부유서 密符諭書·광국공신교서 등의 각종 유물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병산서원에 보관되었던 서원 관련 전적들도 종택의 전적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 안동 하회마을에 위치한 영모각에 서애 류성룡의 유물을 보관·전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양반 가문의 생활과 류성룡의 충효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충효당 영모각



수암종택

■ 수암종택 修巖宗宅(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0호)

수암종택은 하회마을이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우물리 110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 집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이자 병산서원에 종향된 류진의 종택이다. 류진이 상주에 정착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풍산류씨 우산파 愚山派로 결집되어 있다. 종택은 좌의정에 올랐던 후손 류후조가 강릉부사 江陵府

使로 봉직하고 있을 때인, 1858년(철종 9)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택에는 류진의 위패를 봉안한 불천위 사당이 건립되어 있고, 종택 뒷산에는 그의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2-8. 병산서원의 지명 유래와 이야기

2-8-1. 풍천면과 병산서원 관련 지명의 유래

병산서원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번지에 위치해 있다. 풍천면은 조선시대까지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의 속현屬縣인 풍산현豊山縣으로 존재했었던 고을이다. 원래 풍산현은 삼국시대까지 신라新羅에 소속되었던 하지현下枝縣이었다. 이어 통일신라시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757년(경덕왕 16)에 영안현永安縣으로 개칭되었으며, 한동안 예천군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초에 풍산현 또는 풍악현豊岳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018년(현종 9) 안동의 속현으로 합속되었다가, 1172년(명종 2)에 감무를 둠으로써 독립되었으나 뒤에 다시 안동에 병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풍산현은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풍현내면豊縣內面·풍남면豊南面·풍서면豊西面·풍북면豊北面으로 나뉘어졌다. 이때 병산서원이 위치한 병산리屏山里는 하회河回·광덕廣德·안심安心·구미龜尾·금계錦溪·신기新基·신성申城·어담漁潭·자개自開·월애月厓·상인금上仁今·하인금下仁今과 함께 풍남면으로 소속되었다. 이어 1934년에는 일제의 군현 개편에 의해 풍남면은 몇 개의 동리를 추가하여 풍천면豊川面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있던 풍산현을 뜻하는 '풍豊'과 고을을 가로지르는 낙동강洛東江을 의미하는 '천川'을 합친 것이다.

병산리는 풍천면에 소재한 동리 가운데서도 절경을 갖춘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안동시내에서 서쪽으로 16km 즈음 가면 풍산읍豊山邑 안교리安郊里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매곡천梅谷川이 위치해 있다. 이 하천의 제방을 따라 가면 널따란 분지 풍산평야豊山平野가 나오는데, 이를 바라보며 916호 지방도로를 따라 6km 떨어진 즈음에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산을 돌아 2km 즈음 동쪽으로 가다가, 낙동강의 남쪽 기슭을 따라가면 3km 못 미쳐 병산절벽屏山絶壁이 보이고 병산서원에 이르게 된다. 풍천면의 병산리는 거의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지는 않으나 산이 병산리의 모두라해도 심한 말은 아니다. 동쪽과 남쪽은 낙동강이며, 건너편은 거의가 절벽이다. 서쪽은 하회마을이고, 북쪽은 풍산평야인 것이다.

병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을 '원병산'이라 부른다. 이 명칭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서원 남쪽의 기이한 절벽에서 비롯되었다. 굽은 것 같은 절벽이 서로 마주보며 깊은 물을 내려다보는 기묘한 경치가 꼭 병풍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병산서원은 직전 화산花山과 병산 사이에 있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 지금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병산서원의 앞 벼랑에 있는 절벽이 병산벽屏山壁이고, 그 절벽 밑에 있는 소沼는 병산담屏山潭이며, 또 그 옆의 나루터는 병산도선장屏山渡船場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병산서원 서편의 벼랑을 따라가면, 병산서원 배향자 류성룡의 후손이 집단 세거하는 하회마을로 이어진다.

2-8-2. 하회구곡河回九曲과 병산屏山

중국 남송시대 주자朱子로부터 연원한 구곡문화九曲文化는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 소재의 무이산武夷山 아홉 굽이 공간에 성리문화性理文化를 구현하려 했던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자의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자의 구곡문화를 이어 받아 널리 향유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산천경승山川景勝이 빼어난 지역이 있으면 어김없이 구곡을 설정하고 그곳의 풍경을 음미하며 심적 수양과 강학에 열중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곡문화는 사대부들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시켰던 영남 지역에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병산서원이 위치한 병산도 일찍이 빼어난 경관 덕분에 사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회구곡河回九曲의 제1곡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하회구곡은 남옹楠翁 류건춘柳建春(1739~1807)이 하회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낙동강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九曲園林이다. 하회구곡은 시내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설정된 일반적인 구곡과는 달리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며 설정되어 있다. 류건춘은 류성룡의 형인 류운룡의 후손으로, 일찍이 성품이 어질고 조리가 전명한여 문학文學과 행검行檢으로 명망을 떨쳤으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뜻을 펴 보지 못하고 산림처사山林處士로 한 평생을 지낸 인물이다. 문집으로는 『남옹유고楠翁遺稿』가 전한다.

류건춘이 하회구곡을 언제 설정하고 경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지은 「하회구곡河回九曲」을 통해 하회구곡을 경영한 실재를 살펴 볼 수 있다. 『남옹유고』 권1에 「하회구곡河回九曲」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류건춘의 구곡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攬歌」를 차운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구곡시가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것과는 달리 「하회구곡시」는 자신이 정한 운을 사용하여 구곡시를 지었다. 둘째,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구곡시가 서시序詩를 앞에 두고 아홉 굽이를 읊은 시를 뒤에 배치하였는데, 류건춘의 구곡시는 아홉 굽이를 읊은 시를 먼저 내세우고, 뒤에 합곡시合曲詩라 하여, 결시結詩를 첨부하는 특이한 구성을 해 놓았다는 것이다.

일찍이 류건춘은 하회마을의 그림 같은 가경佳景을 읊은 시로 아버지 류풍柳澧(1702~1772)이 지은 「하회십육경河回十六景」을 들었었다. 이 시는 하회의 아름다운 경치를 잘 읊었기 때문에, 이에 버금가는 시를 짓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류건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평소 주자의 「무이도가」를 좋아해 이를 모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하회마을을 작은 무이구곡에 비기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시가 바로 「하회구곡」인 것이다.

류건춘이 설정한 하회구곡은 제1곡이 '병산屏山', 제2곡이 '남포南浦', 제3곡이 '수림水林', 제4곡이 '겸암정謙巖亭', 제5곡이 '만송晩松', 제6곡이 '옥연玉淵', 제7곡이 '도포島浦', 제8곡이 '화천花川', 제9곡이 '병암屏巖'이다. 이 중 제1곡 '병산'에서 바로 병산서원이 위치한 동리의 풍경을 읊고 있다. 제1곡 '병산'의 시는 아래와 같다.

洛上源流出自東	낙동강 원류가 동쪽에서 흘러 나오니
巖屏峭壁抱其中	가파른 병풍바위 그 가운데 에워싸네
雲屏作院江環島	구름 병풍 집이 되고 강은 섬을 두르니
一曲名基柳樹風	일곡의 이름난 터전에 버들이 날리어라

하회구곡은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며 아홉 굽이가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제1곡이 단연 병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1곡을 흐르는 강물이 하회구곡 아홉 굽이를 적시며 흐르니, 병산의 맑은 물이 하회의 아홉 굽이를 맑게 한다. 류건춘은 동쪽에서 흘러오는 낙동강의 원류가 병산에 흘러든다고 하였다. 이는 병산이 낙동강 원류가 흘러드는 지점이라는 의미이나 병산이 하회구곡의 원두源頭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구름 병풍이 집이 되고 강은 섬을 두른다고 하였다. 구름 병풍은 병산이고, 집은 병산에 세워진 서원을 뜻하니, 바로 병산서원을 이룸이다.

그리고 강이 두른 섬은 하회마을이 된다. 류건춘은 하회구곡 제1곡의 이름난 터전에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날린다고 하였는데, 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가지는 이 굽이에 병산서원을 세우고 유학은 진흥시킨 풍산류씨 일문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8-3. 병산탈과 병산별신굿

풍산류씨가 세거하고 있는 하회마을은 우리나라를 대표한 양반 마을이지만, 일반 백성들에 의해 전승된 하회탈춤이 전해지고 있다. 이 탈춤은 하회마을의 별신굿 때 행해지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탈들이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것이어서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5점이 전해지는데, 이 중 2점은 하회마을이 아니라 병산서원이 위치한 병산리에서 전해진 탈이어서 주목된다. 즉 병산에서도 별신굿이 행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회탈춤과 유사한 탈춤이 행해졌던 것이다.

병산탈은 1964년 3월 30일자로 국보 121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탈은 병산마을에서 전래하던 것으로, 하회탈과는 작품이 전혀 달리고 있다. 탈의 이름은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아 각각 '갑'과 '을'로 불러 왔으나 1980년에 '대감'과 '양반'으로 지정되었다. 병산탈이 전한 병산마을은 인근 고을이지만 하회탈과 형태가 다르다. 양반과 선비 2점 모두 탈에 턱이 없다. 이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본디 아래턱이 없이 탈꾼의 턱이 탈의 아래턱 역할을 하면서 자유로이 재담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탈춤은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허도령과 관련된 전설에서 비롯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먼저 허도령은 삼십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집안이 가난함은 물론 엄격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는데, 우연히 이웃집 처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장가들지 못하고 번민하던 중에 꿈에 집안에 금줄을 치고 신이 계시한 열 두 개의 탈을 완성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부터 성심성의껏 탈 제작에 임했다. 그 일에 몰두한 지 수 개월 만에 열 한 개의 탈을 제작하고 열 두 개째인 이매탈을 제작할 찰라에 허도령을 사모하던 안씨安氏 처녀가 궁금한 나머지

지 어느 날 밤 담을 넘어 문구멍으로 그 광경을 들여다보자 이상하게도 허도령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고 한다.

허도령이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마을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해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한 형편이라 마을 사람 누구나 성황님을 찾았다고 한다. 하루는 지성껏 기도하던 허도령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현몽하기를 탈 열 두 개를 만들어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허도령은 즉시 산속에 움막을 짓고 탈 제작에 몰두했다. 그러나 여기에 시련이 닥쳤다. 평소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있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움막의 문을 열고 말았다. 결국 허도령은 탈을 다 만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한다.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

위 두 전설처럼 마지막 이매탈을 만들다가 허도령이 죽었기 때문에 열 두 개의 탈 중 이매탈만 턱이 없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구전에 의하면 대체로 고려 중엽까지는 허씨, 그 후에는 안씨, 나중에 류씨가 조선 초기부터 집단적으로 이곳에 들어와 정착한 것 같으며, 또한 탈의 제작자가 허도령이었다는 전설로 미루어 이 하회탈이 고려 중엽의 것이라는 추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병산리에서의 별신굿은 병산리의 금병산 일대에서 1924년까지 호랑이의 해를 피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주민 공동으로 지냈던 무당굿이다. 병산서원이 있는 풍천면 병산리의 각성받이 농민들과, 풍천면 하회리 풍산류씨의 세력권에 생활 기반을 둔 정자골과 효부골 세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는 일절 쇳소리를 낼 수 없다가도 별신굿 때에는 외지에서 무당을 불러와 동네 굿패와 함께 병산서원 뒤 산 등성이에 있는 서낭당(일명 도령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별신굿을 벌였다고 한다.

별신굿을 통해서 살펴보면 서원이 있는 원병산, 그리고 효부골과 정자골 세 개의 자연마을이 모여서 신앙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별신굿을 벌여낸 세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회의 풍산류씨와 서원에 생활근거를 두고 살았으나 하회동의 별신굿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행해졌다. 즉, 병산별신굿을 이루어낸 세 마을 주민들은 하회류씨와 서원이라는 지배 세력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별신굿을 3년마다 벌여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입지를 하회마을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산별신굿의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마을공의

세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음력 정월 초 3일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집에 모여 별신에 관한 마을공의를 연다. 여기서 산주(山主)와 굿패, 광대를 정하게 된다. 산주가 결정되면 서낭대를 만들고 하당(下堂)을 설치한다. 산주는 유고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도산주', '입산주' 두 사람을 뽑는다. 입산주는 제물을 장만하는 뒷일을 보고 도산주가 별신을 주재한다. 하회마을에는 산주라는 한 명의 사제자가 있는 반면 병산의 도산주와 입산주는 한층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하회와 병산의 기본적인 제의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 서낭대 제작

서낭대는 길이 450cm, 지름 30c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만든다. 끝에 솔가지와 땃잎을 달고 긴 직사각형의 천에 '병산별신(屏山別神)'이라고 써서 깃대처럼 달았다고 한다. 또 하당을 별신이 있을 때만 설치하는데, 병산서원 앞의 넓은 밭에 한 발 정도의 나무 3개를 삼발 모양으로 세우고 금줄을 둘러친다. 산주가 결정되면 원병산의 모든 집에서는 매일 물을 떠 놓고 치성을 드리며, 산주는 집 마당에 명석을 깔아놓고 물동이에 물을 매일 떠 놓으며 정결히 한다.

■ 걸립

굿패와 광대가 결정되면 이레부터 열이틀까지 닷새 동안 세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乞粒)을 한다. 이때는 광대와 굿패들이 함께 행동하며 놀 때도 같이 한 장소에서 논다. 서낭대를 항상 앞세우며 이동할 때는 서낭대·초레·광대·동맹이 2명, 그리고 풍물치배 등이 뒤따른다. 굿패들의 복장은 패랭이에 종이꽃을 단다. 행매를 돌리고, 흰 옷에 빨강·파랑·노랑 3색 띠를 허리에 하나, 그리고 어깨에서 허리로 교차되게 맨다. 동맹이란 안동 지역에서 부르는 무동의 명칭으로 효부골에서 1명, 원병산에서 1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 머리에 달비를 해 넣어 치렁치렁 흘러내리게 홍당기를 맨다. 또 길이가 한 발 정도 너비 10cm 정도 되는 긴 천을 머리에 매서 뒤로 늘어뜨리고, 허리에는 커다란 귀주머니를 두서너 개 차고 "돈이야" 하며 구경꾼이 주면 받아 넣었다고 한다. 걸립 때는 둘 다 남장(男裝)을 했다.

■ 무당 합류

열이틀로 걸립이 모두 끝나고 열사흘에 무당이 효부골에 도착해서 그 곳에서 하룻밤을 잔다. 갑자기년에는 안동군 서부 한식골에서 '자돈네'라는 큰 무당을 불러와 '면별신'을 하였다. 자돈·자돈부인·징수 등 3명이 왔는데, 자돈부인은 당시 40대로 얼굴도 예뻐고 춤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여 구경꾼에

게 큰 인기였다고 한다. 4대 이상 이어진 세습무이다. 열나흘 아침에 무당 일행이 아침을 먹고 효부골 사람들과 함께 원병산으로 향하여 떠난다. 한편 원병산에서는 굿패들과 광대 일행이 무당을 마중하기 위해 정자골로 나온다. 이 때 동맹이는 다홍치마에 삼호장한 흰 저고리를 입어 걸립 때와는 달리 여장女裝을 한다. 이 두 패는 중간인 정자골 앞굽은 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만나게 된다. 무당패는 효부골에서 정자골로 꺾어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큰 회나무에서 동군들과 만나 한판 놀고 원병산으로 향한다.

■ 신내림

원병산에 함께 들어와 열나흘 밤 12시에 병산서원 뒤의 서낭당에서 원무가 서낭대에 신을 내림받는다. 내림대를 산주와 동네의 노인들이 붙잡는다. 무당이 신을 청해서 신이 내리게 되면 그 큰 내림대가 저절로 쿵쿵 뛰어서 쓰러지지 않게 꼭 붙잡으려 했다고 한다. 내림을 받으면 15일 아침에 산주와 동군들이 밥을 해서 당에 올라가 차려놓고 두들기며 놀다가 내려온다.

내려올 때 효부골과 정자골, 원병산과 서로 패가 있어서 동맹이를 중심으로 밀고 밀치는 패싸움을 하면서 내려온다. 이 때 동맹이가 다치지 않게 힘센 사람이 동맹이를 받친다. 산등성이를 내려와 서원 앞 강가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굿패와 무당·광대 등이 어울려서 놀다가 해가 지기 전에 하당을 치워버린다. 그 후에 악기의상·탈 등은 병산서원에 보관시키고 별신은 끝이 난다.

3. 서원현황

3-1. 병산서원의 경관

3-1-1. 서원의 경관

1) 서원의 입지적 특성

서원의 설립되는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뛰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²³⁾

이는 서원의 입지 선정에 있어 선현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은둔과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은거하여 학문을 했던 무이구곡을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주희의 학문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무이구곡도_이성길(1562~?)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 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따라서 자각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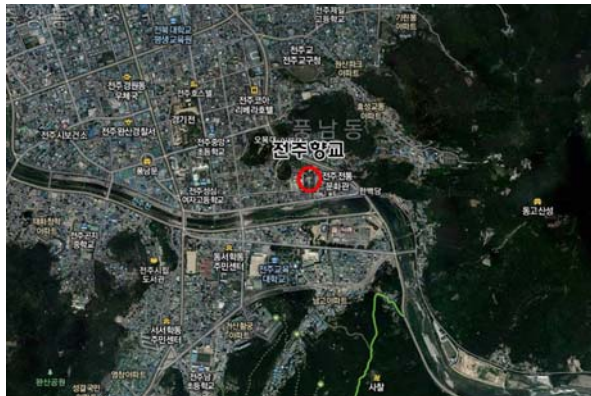
퇴계에 의하면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나 도를 강론하고 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시끄러움을 꺼리어 다투어 많은 책을 안고 지고 한가한 뜰과 적막한 이곳에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그 덕을 쌓고 그 인을 익히어 낙을 삼는 까닭에 들떠 서원을 다닌다. 보건대 향교가 조시朝

23)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361

市, 성곽城郭 중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의 구애가 되고 뒤에는 이물異物의 천탈遷奪이 있으니 그 공교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오직 선비의 학學이 서원에서 힘썼을 뿐 아니라 국가가 현자를 얻는 것도 반드시 서원에서 되며 저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여 서원의 은둔사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²⁴⁾

아울러, 서원이 풍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된 요인은 그 설립의 배경에 있어서 관학인 향교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당당히 독립되었고,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결합되어 행정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학인 향교와 달리 서원은 발생기원에서 유생들의 장수처 역할을 겸했으므로 자연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성원이 산천경개가 소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서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⁵⁾



향교의 입지 특성



서원의 입지 특성



소수서원 입지 현황



소수서원 전경

서원의 입지를 정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풍수지리사상으로 길지인 풍광경수의 뛰어난 곳을 선정하였고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소수서원의 풍경에 대하여 ‘영천²⁶⁾ 서북부쪽, 순흥부에 죽계가 있는데 소백산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들은 넓고 산은 낮으며 물과 돌이 맑고 밝다. 상류에 있는

24)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열당, 1995, p.21

25) 이상해, 앞의 책, p.361

26) 경상북도 영주의 옛지명

백운동서원은 문성공 안휴를 제사하는 곳이다.....중략 소백산과 태백산의 아래와 황강의 상류는 참으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등의 입지에 풍수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원이 설립된 곳을 살펴보면, 배향配享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의 장소성²⁸⁾

건립시기	고향	강학처	유배지	은거	성장지	묘소	합계
~1550	2개소 소수서원 상현서원	1개소 근암서원					3
~1600	3개소 남계서원 임고서원 선암서원	6개소 경광서원 신항서원 이산서원 도산(陶山)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월봉서원	2개소 옥천서원 경현서원	3개소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1개소 충렬서원	15
~1650	1개소 우저서원	4개소 병산서원 희연서원 돈암서원 동낙서원		1개소 서계서원		2개소 자운서원 심곡서원	8
~1700	1개소 임천서원	4개소 노강서원 화양서원 도산(道山)서원 칠산서원			1개소 미천서원		6
~1750		5개소 창계서원 흥암서원 부산서원 도정서원 고산서원	1개소 반곡서원				6
~1800				1개소 고산서원			1
1851~		1개소 단구서원					1

2) 서원의 입지 경관²⁹⁾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자연성이다. 전면에 경자강, 그리고 산이 있어 개방적이고 시원한 전면 경관과 여기서 마을에 다가오는 푸른 산색

27) 김은중, 앞의 책, p.2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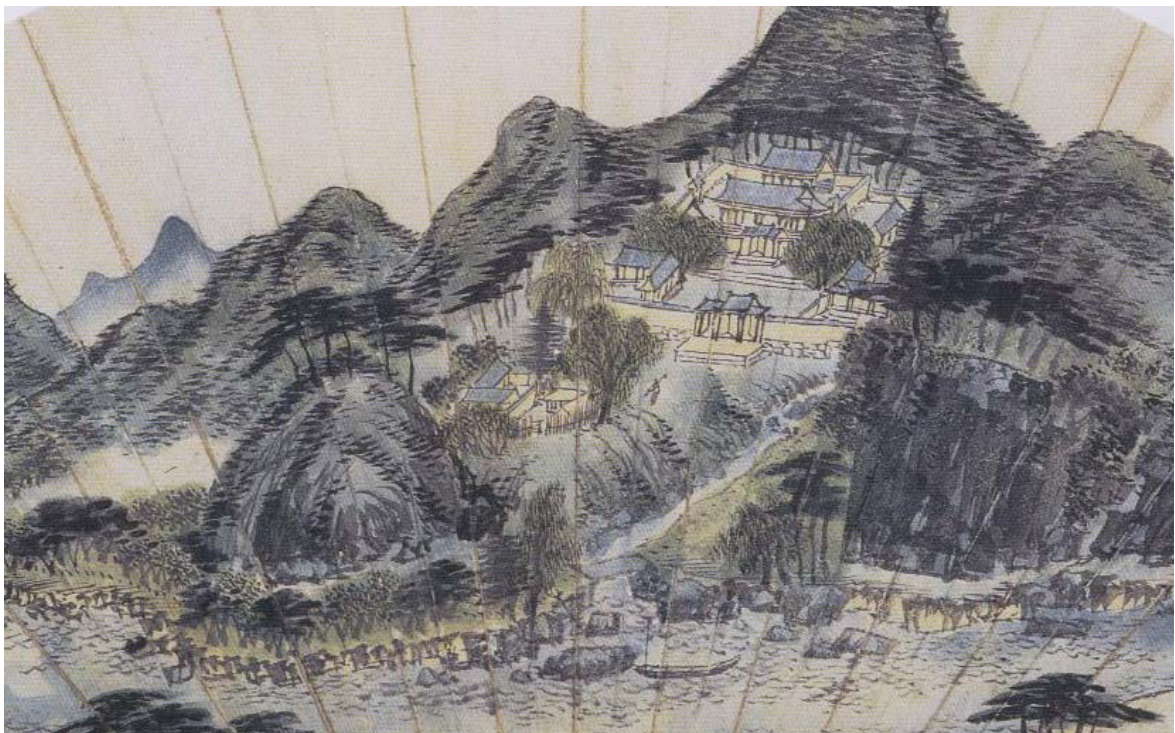
28) 이상선, 한국 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09, p.41 참조

29)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2-30 참조.

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또 서원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하며,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 경관은 첫째 안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개방적 자연 경관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인합일'을 정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다.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원에 진입하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외삼문-안마당-강당-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존경 경관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성격 때문에 서원은 공공적 종교적 시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과는 반대로 매우 개방적이다. 낮은 담장과 벽 없는 기둥으로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마루 공간,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상대향과 복합적 축선 등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자연성은 폐쇄적인 중국 서원과 다르다. 풍수적 자연관과 관련된 위요경관도 시각적·심리적으로 장소를 내부화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계를 제한하기 위한 위요경관이 아니다.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

3) 천인대대(天人對待)의 전망경관

전망 경관은 서원의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이다. 풍수에서는 안대라고 하고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의를 감통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인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경관이다. 서원의 구체적 입지 유형과 서원 창설자들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천인감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다. 서원 문루의 이름과 기

문이나, 관련된 인물의 시문을 통해서 전망 경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입지유형 천인감통 유형

입지	서 원
야경(野景)	확연대공(廓然大公, 필암서원), 음풍영귀(吟諷詠歸, 남계서원)
산경(山景)	취병만대(翠屏晩對, 병산서원)
강경(江景)	추월한수(秋月寒水, 도동서원)
계경(溪景)	관수유술(觀水有術, 구연서원)

- 필암서원 : 확연대공廓然大公의 필암서원은 탁 트여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 경관이다.

夫天地之常，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以其情順萬事而無情，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
- 『定性書』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

- 『정성서』

- 남계서원 : 풍영루風詠樓는 경주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게 생기 있게 보이는 경관이다.

“다락집의 제도가 매우 공결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 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도다. 백암산의 두어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석뢰계石雷溪의 한쪽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논에서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점치도다. 풍월風月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구름과 아지랑이가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보아도 천 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 뜻이 있도다. 두류산頭流山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氣像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되시고 서서 증점증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하였다.”

- 남계서원監溪書院‘풍영루기문風詠樓記文’

- 병산서원 : 취병만대翠屏晩對의 병산서원은 생기 충만한 푸른 산색山色을 마주하며 생의生意체득이 뚜렷한 경관이다.

翠屏宜晚對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니 좋고 - 두보杜甫 시

蒼峭)矗寒空,落日明影翠

만대봉 저녁놀은 푸르고 높아 차가운 하늘과 가지런한데, 푸른 절벽을 선명하게 비추네.

- 주자朱子 시

- 도동서원 :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の 도동서원은 가을 달 찬 강물에 비추는 군자의 마음을 느끼는 경관이다.

恭惟千載心,秋月照寒水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

- 구연서원 : 끊임없이 흘러오는 물에서 자강불식하는 성인의 마음과 물의 지혜를 읽는 경관이다.

龜淵源接泗洙汀 活潑清流繞廟庭

混混續來知有本 悠悠過去自無停

盈科豈憚經千曲 勇進終能達四溟

觀水名樓誠有意 有形觀處覺無形

구연서원의 연원은 수사洙泗의 물가에 닿아,

활발한 맑은 시내 서원의 뜰을 돌아 흐르네.

끝없이 흘러오니 근본이 있음을 알겠고,

유유히 흘러가 스스로 정체함이 없네.

웅덩이를 채운 뒤 흐르니 천 굽이를 꺼리랴,

용감히 나아가 끝내 큰 바다에 이르리라.

관수루라는 이름 참으로 의미가 심장하니,

형체 있음을 보는 곳에서 형체 없음을 깨닫네.



병산서원 입교당에서 본 병산

4) 전저후고의 풍수적 위요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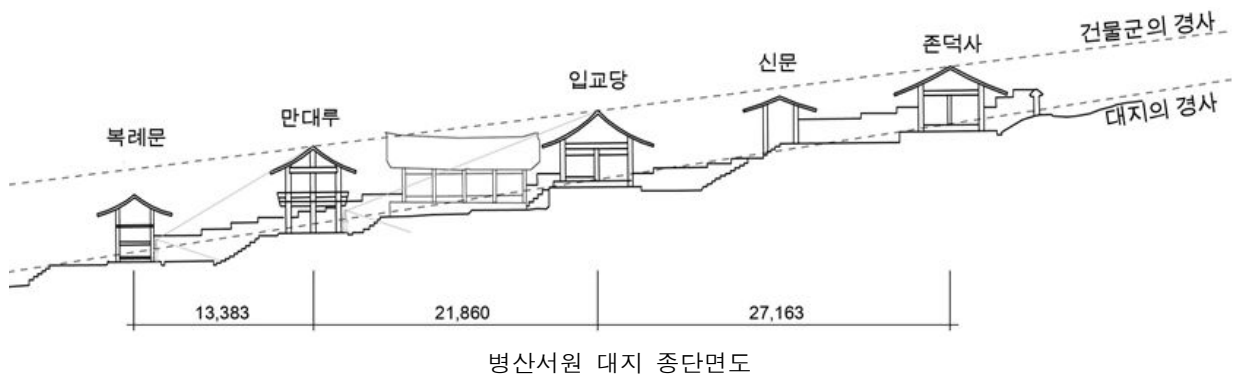
서원은 주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를 타고 갈무리 하도록 둘러싸인 풍수 경관을 이루며, 유교적 관점에서는 서원이 산줄기의 맥을 타는 것으로 연원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위요경관은 바람을 막아 기를 안정시키는 미기후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을 내부 장소화함으로써 보호되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게 심리적·상징적 효과가 크다. 사신사四神砂라고 부르는 풍수적 위요 경관은 주위 산세山勢와 담장과 대문, 강당과 동-서재로 둘러싸인 안마당(중정中庭)으로 인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담장은 주로 돌이나 흙 혹은 돌과 흙을 섞어 울타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낮은 담장을 통해서 서원 외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면서 서원의 인위적 경관을 담장 너머 대자연과 합일시킨다.

서원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의 위요 경관은 내부를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으로 둘러싸서 내부자insider라는 지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산과 담장은 높지 않고, 안마당을 둘러싼 건물도 틈새가 크다.

5) 위계적으로 분절分節된 예禮경관

예를 실천하는 서원경관은 서원의 내부 경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느껴지도록 개별 장소로 분절된 공간으로,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서원의 장소들은 상승 축을 따라서 좌우대칭적 구조에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입구에서부터 지형경사를 따라 차례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진행하도록 한다.



6) 서원의 연못 경관

서원 경관에서 수경관水景觀은 풍수적 취수 집수 기능과 유교적 관조의 대상이라는 상징적 성격이 중복된 연못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방형方形이 많다. 서원 연못은 풍수적 맥락에서 보완경관 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서원의 연못도 취수, 집수, 수구로서 우기 때 집수 장소가 되어 서원 내 배수를 원활 하게 하여 마당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며 화재 때는 수원의 역할을 한다.



남계서원 연지



옥산서원 안마당

7) 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中庭)경관

서원 내부는 가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되는데, 서원의 중심인 강당 앞에는 보통 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데,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서원 후면의 숲으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안마당의 규모는 보통 건물사이의 거리가 20-25m 정도이며, 마당 폭과 건물높이 사이의 비례는 2-3배이고, 마당한쪽 끝에서 반대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양각은 18-27도이다. 이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간격이며,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답하지는 않을 정도의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다. 또 중정의 사면을 막는 건물들 사이 모서리는 연결되지 않고 벌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20-25도로, 중정 사면의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게 하는 크기이다.

8) 수목식재 경관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 식재는 제한적이다. 식재 수종의 특성을 서원 경외는 진입 공간과 담장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과정의 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장소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어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식재가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과목槐木) 등이 있다.



병산서원 장판각 앞 배롱나무 식재



병산서원 만대루 앞 식재현황

9)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

서원의 주위에는 서원 창립자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많은 장소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자연과 합일하려는 서원 창설자의 사상이 바위글자로 새겨져 있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유교적 가치와 관련된 이름이 부여되고 구곡九曲등으로 경영되기도 한다, 이는 주자의 무이정사武夷精舍 사례에서 유래하고, 퇴계의 도산잡영陶山雜詠 병기並記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당 앞 출입하는 곳을 막아서 사립문을 만들고 이름을 유정문幽貞門이라 하였는데, 문밖의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하고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닦으니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아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바로 탁영담에 이르는데, 그 위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어서 새는 날고 고기는 뛰며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하였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넓적하여 배를 매 두고 술잔을 돌릴 만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아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도산서원의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문성공文成公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경敬’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만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면 되지, 어찌 굳이 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고서.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敬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단 말인가? 일찍이 이르기를,‘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이 회옹(주자)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석각石刻이 마멸되지 않아 1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경석敬石'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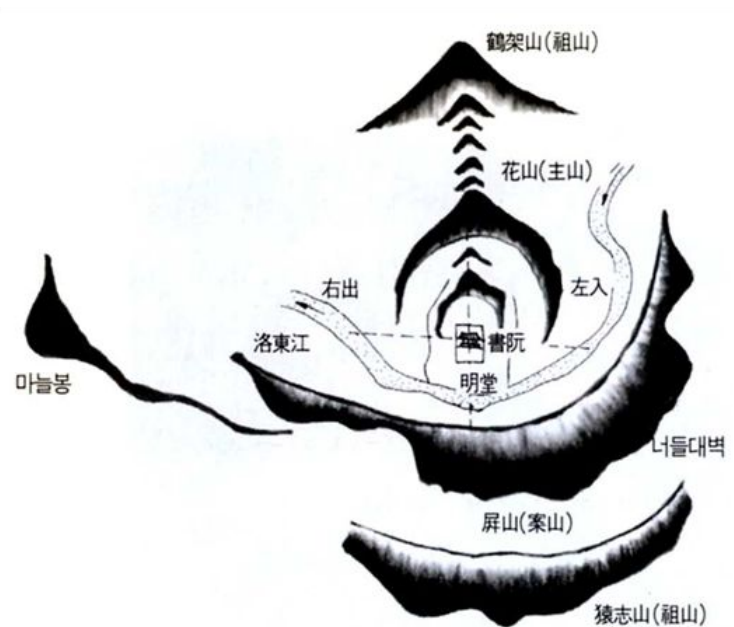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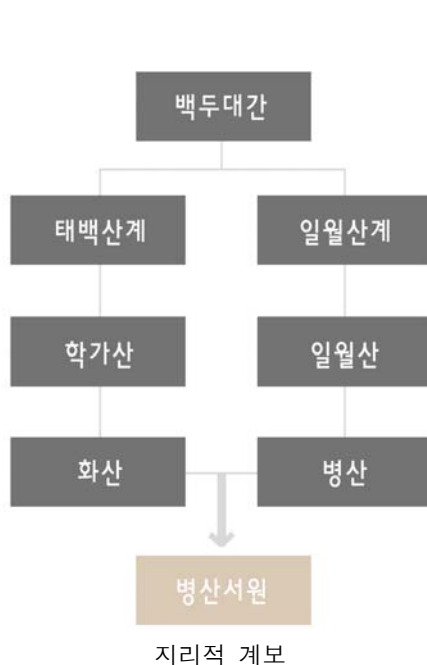
《죽계지竹溪志 권5:잡록雜錄》·《무릉잡고별집武陵雜稿別集 권6:백운동석벽경자白雲洞石壁敬字》

<소수서원 경자敬字바위, 「경敬」*자를 새긴 내력>



소수서원 경자바위

3-1-2. 병산서원의 경관



병산서원 풍수형국도

병산서원의 자연경관은 승경勝景으로 정의할 수 있다. 풍악서당이 있던 시절에 건물은 아마 입교당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입교당에서 보는 병산은 탁트인 절경이지만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차원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경관의 입체감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원경의 깊이를 만드는 방법이 시선차단 장치들을 끼워 넣는 차경借景기법이다.

1) 병산서원 주변의 승경³⁰⁾

- 화 산 : 서원의 주산으로 해발고도는 321m이다.
- 병 산 : 서원의 명칭이 된 산으로 뚜렷한 봉우리가 없는 암벽으로 해발고도 335m이다. 병풍같이 펼쳐진 절벽의 모습에서 병산이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
- 너들대벽 : 병산의 동쪽에 연결된 암벽 산으로 산의 높이와 형상 때문에 소위 “밀개형국”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 황 새 골 : 너들대벽과 병산 사이의 골짜기
- 마 늘 봉 : 해발고도 361m로 하회마을의 안산이며, 병산 쪽에서는 문필봉(文筆峰)이라고 부른다.
- 새 뒀 봉 : 하회마을 어귀의 고개 쪽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이다.
- 풍 산 개 : 풍산평야라고도 하며, 병산서원이 있는 반도와 풍산을 사이의 넓은 들을 말한다.
- 구담습지 : 경상북도 안동시를 흐르는 낙동강은 전체 유로 중에서 중·상류부에 해당된다. 풍산평야에서 병산서원으로 향하는 임도는 낙동강과 화산이 접하는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이 임도를 따라 병산서원으로 가는 동안 낙동강에 형성된 자연습지가 경관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곳에 형성된 낙동강 하반의 자연습지를 구담습지라고 부르는데, 풍천면 기산리 구담교부터 광덕교 사이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구담습지는 피라미·납자루 등 토종서식하고 있고, 수초와 수변식물, 유속이 빠른 여울과 느린 웅덩이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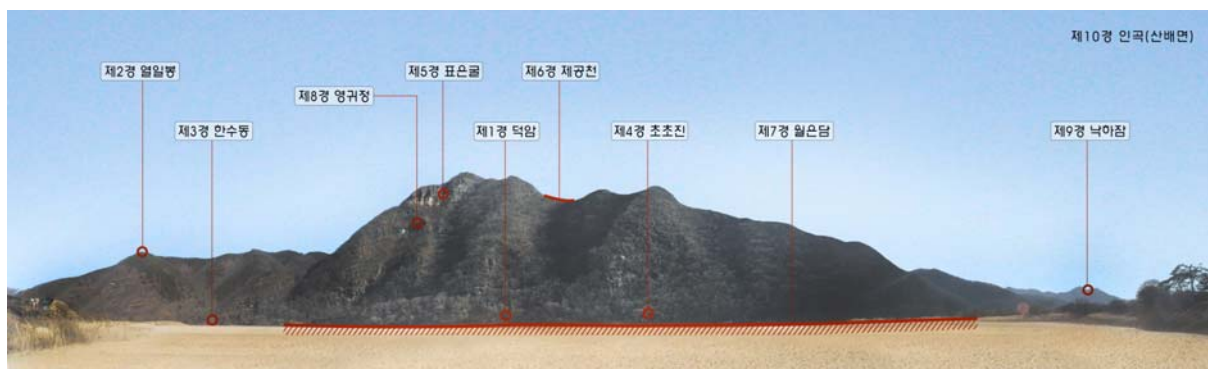


병산서원과 화산(『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1)

30)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545

병산에 대한 승경은 권구權渠(1672~1749)³¹⁾의 병산십경屏山十景³²⁾에 나타나 있는데, 퇴계학파인 권구는 1716년 전염병을 피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마을로 이주하여 이 마을을 병곡으로 고쳐 부르고 자신의 호로 삼을 정도로 주변 경치를 사랑하였다. 병산십경은 덕암, 영일봉, 한수동, 초초진, 표은굴, 제공천, 월은담, 영귀정, 낙하잠, 인곡으로 주로 바위, 나무터, 봉우리, 마을 등이다. 권구의 친구인 포헌通軒 권덕수權德秀(1672~1759)가 권구의 십경시에 차운하여 「차병곡병산십절次屏谷屏山十絶」³³⁾을 지었는데, 권덕수는 이현일 문하에서 함께 공부한 동문인데다가 나이도 같았기 때문에 평생동안 친밀하게 지낸 사이였다. 권구 이후로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점점 잊혀져 오늘날에는 병산십경의 정확한 위치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권구의 병산십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병산십경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병산십경 추정 위치도

- 제1경 덕암德巖은 병산서원 근처의 낙동강 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 제2경 영일봉迎日峯은 병곡마을의 가장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원래 이름이 없었으나 권구가 영일봉이라 명명하였다.
- 제3경 한수동寒水洞은 강변의 절벽 아래 그늘진 곳에 마치 성城처럼 자리 잡은 마을이다. 원래 이름은 한소동大牛洞(큰 소라는 뜻)인데 한소와 음이 비슷한 한수동寒水洞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늘진 곳에 있다고 하여 음동陰洞이라고도 하며 기온이 낮아서 봄이 다 간 뒤에야 바위 언덕이 비로소 꽃이 피는 곳이다.
- 제4경 초초진招招津은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앞에서 병산으로 건너가는 나루이다. 배는 항상 북쪽 언덕인 만대루 앞 모래톱에 매여 있으며 강 건너 병산 쪽에서 절벽 길을 따라 온 나그네가 강을 건널 때는 강 건너에 있는 사공을 큰 소리로 불러서 건넌다.

3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안동(安東). 자는 방숙(方叔). 호는 병곡(屏谷). 참판(參判) 주(柱)의 후손. 선교랑(宣敎郎) 증(丕登)의 자. 외조는 졸재(拙齋) 유원지(柳元之). 이현일(李玄逸)의 문인으로 일찍부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교육에 힘썼다.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탐독했으며, 천문(天文)·주수(籌數)·복서(卜筮)·병가(兵家) 등 백가서(百家書)에 두루 통달하였다. 향리에 사창(社倉)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향약(鄉約)을 실시 교도하여 양풍(良風)을 일으켰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으로 영남에 파견된 안무사(按撫使) 박사수(朴師洙)가 그가 적당히 가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여 서울에 압송되었으나, 그의 인품에 감동을 받은 영조의 특지(特旨)로 석방되었다. 특히 시조(時調)에도 능하여 『병산육곡(屏山六曲)』이 전한다. 평생 향리 풍천(豊川) 가곡(佳谷)에서 학문에 힘써 『병곡집(屏谷集)』을 비롯한 많은 저작(著作)이 있으며, 가곡(佳谷)의 노동서사(魯東書社)에 제향되었다.

32) 「병산십절」은 병곡에 살던 도중에 병산 일대의 대표적 경승 10곳을 스스로 명명하고 10수의 7언 절구를 지은 것이다. (유교넷-병산10경 유교경관정보서비스 원문자료 <http://www.ugyo.net>)

33) 병곡의 병산십절에 차운하다. (유교넷-병산10경 유교경관정보서비스 원문자료 <http://www.ugyo.net>)

- 제5경 표은굴豹隱窟은 병산의 절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표범이 사는 굴이다. 때로는 한 낮에도 표범이 오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 제6경 덕제공천梯空遷은 병산의 절벽 사이를 지나는 비탈길이다. 낭떠러지에 돌로 놓은 잔도를 올라가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제공천이라 명명하였다. 권구는 이 길을 지나며 읊은 「과병산천로過屏山遷路」라는 시에서 “절벽을 감돌아서 오르내리는 산비탈 길, 강 쪽은 천길 절벽 말발굽이 위태롭네. 繞壁高低石路歟, 臨江千尺馬蹄危”라고 읊고 있다.
- 제7경 월은담月隱潭은 강의 북쪽에 있는 깊은 소이다. 달이 뜨면 병산의 절벽이 강물 속에 거꾸로 비쳐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든다.
- 제8경 영귀정詠歸亭은 강북의 언덕 위에 수목으로 둘러싸인 작은 단壇을 쌓고 지은 정자이다. 한가롭게 소요하면서 시를 읊을 만한 곳이다.
- 제9경 낙하잠落霞岑은 병산의 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로 해가 질 때는 으레 노을이 어리는 곳이다.
- 제10경 인곡仁谷은 속명이 이금실인데 한문으로는 인곡仁谷이라고 쓰는 산 아랫마을로 옛 이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내가 병산에 우거寓居한 지 몇 해에 산수 애곡厓谷의 경치가 눈에 익고 마음에 기억되지 않음이 없다. 은거 중 족히 완상하여 심회를 푸는 것이 가히 쇠년衰年の 한 가지 다행이로되, 다만 그 승지勝地가 강의 좌우에 있으나 지명이 없고 간혹 속칭이 있긴 하나 그도 아름답지 못하다. 드디어 찬람贊謚되나 곳에 따라 이름을 짓고 혹은 뜻을 취하니, 모두 십절+絶이며 각각 절구로 기록한다.

덕암德巖

높다란 짧은 산록 낙동강 가에 있으니
옛 사람부터 덕암이라 일컬어 왔다.
진실로 이름에 따라 그 실상을 구한다면
집 옮김을 사양치 않고 이웃을 택하리라.

영일봉迎日峯

높은 산악이 높이 헌함軒檻 밖에 푸르네
봉두峰頭에 때로는 백설이 생겨남을 보겠네.
아침마다 부상扶桑의 해를 토해 낼 때
나의 창문을 비추어 일루一縷를 밝히네.

한수동寒水洞

강변의 응달진 마을 깊숙하고 맑으며
절벽의 층대 밑에 스스로 성을 이루었네.
봄이 지나면 가파른 바위에 비로소 꽃이 피고
시시로 나무로 옮기는 피꼬리를 보겠네.

초초진招招津

날 저물고 가랑비 내리는데 외로운 배 뜨고
길 가는 사람 나루에서 말이 시끄럽네.
종래에 험한 길이라 경복傾覆(기울어져 엎어짐)이 많았으니
풍파를 향해서 망령되이 노 젓지 말라.

표은굴豹隱窟

봉우리 정상에 바위가 쪼개져 백 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안개 짙고 표범이 깊이깊이 숨어 있네.
가련한 저이 몸소 으르렁거리는 뜻은
산중을 진동하며 못 짐승들 겁줄 마음일세.

제공천梯空遷

강에 임한 천 길의 절벽이 비스듬한데
가느다란 잔도棧道(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가 공중에 걸렸고 산세는 높네.
지나갈 때 절벽이 위험하다 걱정을 말라
세상엔 위태한 길 본래 많으니까.

월은담月隱潭

십오일 맑은 밤에 동녘에서 달 오름에
봉우리 그림자 못에 떨어지니 짜증이 난다.
어떻게 하면 앞산을 결연히 잘라 버리고
한빛의 명월을 사와 공중에 있게 할까!

영귀정詠歸亭

낙동강 가에 있는 이 임정林亭을 사랑하노니
1년 가절佳節이며 또 삼춘三春의 봄.
관동冠童의 손 이끌고 읊으며 돌아오던 곳
그 해에 비파 버린 사람이 추억나네.

낙하잠落霞岑

물 서쪽 머리에 청산 몇 점이 있는데
무진無盡한 풍광을 한눈에 바라보니,
제일 좋기로는 석양이 기절奇絶한 곳
노을은 천길 양천羊天에 떠 있네.

인곡仁谷

한 골짜기 뽕과 삼을 심은 산 아래 마을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아름다운 이름 인곡(仁谷) 고금(古金)에 그대로다.
공자가 만일 동이(東夷)에 살고자 한 뜻 이루었다면
마을을 택할 때 이곳을 따를 의론이 있었으리라.

- 권구(權渠), 『병곡집(屏谷集)』

하늘이 기이한 바위를 큰 강기슭에 내어
우뚝하게 서서 정정하게 거인과도 같구나.
너를 덕암이라 부르며 나는 절하고자 하나니
애옹(厓翁)(서애 류성룡)의 사당이 또한 이웃하고 있기에.
— 이것은 덕암(德巖)을 노래하였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동쪽 하늘에 멀리 푸른 산이 모아선 것이니
높은 표치로 해 바귀를 일찌감치 점유하는구나.
야인(농부)은 오두막 처마 아래서 등을 쫓나니
하늘이 어리석은 마음에 한 치의 밝음을 부여하네.
— 이것은 영일봉(迎日峰)을 노래하였다.

층층 벽이 두르고 둘러 맑은 물이 똑똑 떨어지고
구름을 숨기고 비를 머물게 하여 강 마을을 어둡게 하네.
어느 때에야 봄기운이 찬 골짜기에 돌아오려나.
교목이 일천 발로 솟아난 속에 보아하니 꾀꼬리가 나왔군.
— 이것은 한수동(寒水洞)을 노래하였다.

강 어귀에 해 기울자 자줏빛 아지랑이가 날리는데
저물녘에 누대 앞에 마주하여 사람 소리 시끄럽다.
모래밭에 말을 세우고 나의 벗을 기다리나니
서풍아 귀거래의 노를 흔들지 말아다오.
— 이것은 초초진(招招津)을 노래하였다.

일천 인(仞) 높이 허공에 굴이 나서 심방할 수 없나니
푸르른 하늘에 구멍 하나 뚫려 표범이 깊이 숨었구나.
저 동물은 능히 이레 만에 무늬를 이룬다는데
어이하여 인간은 마음을 변화하지 못하는가.
— 이것은 표은굴(豹隱窟)을 노래하였다.

산 그림자가 강에 잠기고 달은 동쪽에 떠오르는데
옥 같은 못이 한 흔적 속에 숨어 있구나.

한번 보게나, 밤 깊어 맑은 빛이 그득히 찰 때
차가운 거울이 아무 티끌 없이 허공에 맑고 맑은 것을.
— 이것은 월은담(月隱潭)을 노래하였다.

강가에 빗긴 벼랑에 오솔길 하나 비스듬하나니
비로소 평평한 곳에서 위태로운 곳으로 바뀌는군.
행인은 마치 허공으로 솟는 듯이 아스라하다만
발 아래엔 분명히 실지(實地)가 많으리.
— 이것은 제공천(梯空遷)을 노래하였다.

무성한 나무가 시원한 기운을 머금어 물가에 임했는데
난초 캐는 풍습이 가는 봄에 있구나.
시 읊으며 돌아오는 때 성인이나 아동이나 일상의 대화를 하다니
그 당시 성인이 하셨던 말씀에 감동함이 어떠랴.
— 이것은 영귀정(詠歸亭)을 노래하였다.

화산에 저녁 해가 봉우리 아래로 질 때
이글이글 양기가 기슭 건너에 걷히네.
하늘 바깥 남은 노을은 여전히 절경이군.
일천 조각을 난만하게 이루어 허공에 가득 떠 있기에.
— 이것은 낙하잠(落霞岑)을 노래하였다.

인자는 만나기 어려워도 여기 인자의 마을이 있어
마을 이름 아름답게 지금도 남아 있네.
옛사람은 집을 아예 옮겨다 가까이 살았나니
집터 택하는 기술은 측은의 강론을 먼저 따랐도다.
— 이것은 인곡(仁谷)을 노래하였다.

- 권덕수(權德秀), 『포헌집(逋軒集)』

권구의 병산에 대한 사랑은 병산십경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병산육곡(屏山六曲³⁴)이라는 시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생활을 읊은 시조이다.³⁵ 이 시조는 이현보(李賢輔)·이항(李滉)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영남 학파 사대부들의 활발한 시조 창작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34) 권구 병산육곡(<http://blog.naver.com/ipsi1004/162636359>)

35) 유교넷-병산10경 유교경관정보서비스 경관이야기(<http://www.ugyo.net>)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제1곡>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라
인생백년이 한가할사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 하오리라.

<제2곡>

천심절벽千尋絕壁 섰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러 간다
백구白鷗로 벼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 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3곡>

보리밥 파 생生菜를 양量 맛차 먹은 후에
모재茅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앞에 태공부운太空浮雲이 오락가락 하낏다.

<제4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5곡>

저 가마귀 짓지 말아 이 가마귀 좇지 말아
야림 한연野林寒烟에 날은조차 저물거늘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업서 하낏다.

<제6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몇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 뒀고 십리 장사十里長沙 내려 가니
연화煙火 수삼 어촌數三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권구 같은 대학자가 명명했음에도 후학들이 '병산십경'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병산 일대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이 아무래도 사대부가 살기에는 부적합했던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곧 병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권구처럼 병산 옆에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가진 사대부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병산서원만 하더라도 장기간 거접居接하는 유생이 거의 없었기에 병산 일대의 자연을 권구처럼 애호愛好한 사람이 뒤를 잇지 못하였던 것이다.

3-2. 병산서원의 건축

3-2-1. 서원의 건축

1) 서원의 건축적 특성

서원 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로서의 강학공간과 제향을 위한 시설인 제향공간 그리고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의 배치는 이들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서원의 건물 배치형태는 일반적으로 강학공간을 앞쪽에 두고, 제향공간을 뒤쪽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형 조건에 따라 소수서원·회연서원과 같이 동쪽에 강학공간을 두고, 서쪽에 제향공간을 배치한 동학서묘東學西廟 방식을 따르는 서원도 있다. 서원의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정문과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정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고, 강당 앞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장서각·장판각·제기고·전사청·고직사 등의 부속건물들은 적절히 배치해놓았다.



도동서원(전학후묘)



회연서원(동학서묘)

서원의 정문인 외삼문은 솟을 대문으로 이루어진 솟을삼문과 평삼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남계서원의 풍영루風咏樓, 도동서원의 수월루水月樓, 필암서원의 환연루廓然樓, 무성서원의 현가루絃歌樓, 금오서원의 읍청루挹淸樓 등과 같이 정문으로 누문을 세운 곳도 있다. 또한 외삼문을 들어서면 옥산서원의 무변루無邊樓, 병산서원의 만대루晩對樓, 서악서원의 영귀루詠歸樓, 자계서원의 영귀루詠歸樓 등과 같이 외삼문과 강학공간 사이에 누각을 세운 서원이 있다.³⁶⁾

36)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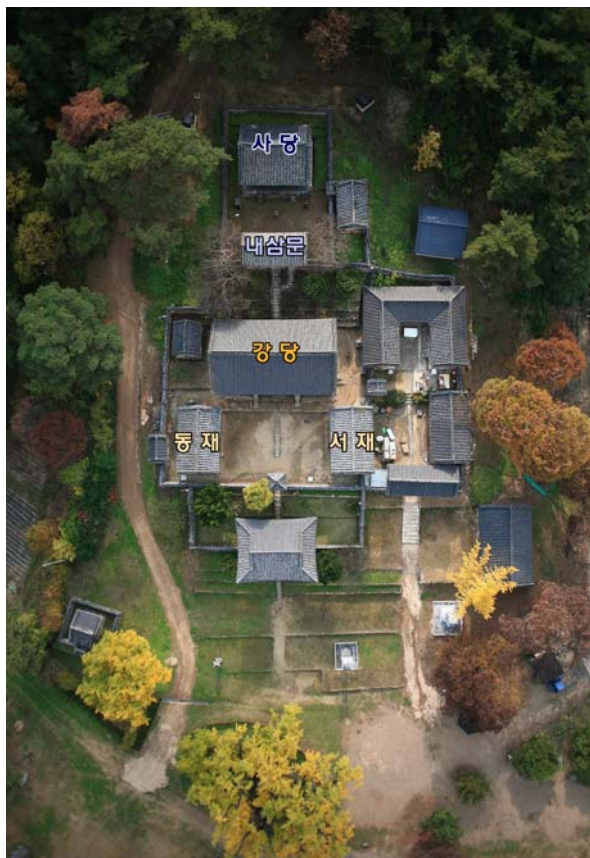


도동서원 수월루



옥산서원 무변루

강학공간은 일반적으로 일당양재—堂兩齋의 원칙에 따라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작은 서원의 경우 강당만 있거나 혹은 동·서 양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 강당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서원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일반적으로 정면 5칸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만들어 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 양측의 각 1칸은 온돌로 만들어 교수진이 사용하였다. 강당의 명칭은 향교의 명륜당과 같이 공통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도산서원의 전교당典敎堂, 무성서원의 무성서원武城書院, 덕양서원의 덕양강당德陽講堂과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쓴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으로서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이 동재, 오른쪽이 서재라 칭하며, 동재에는 선배가 되는 원생들이 기거하였다.



서원 전체 배치



강당 및 양재



사당 및 내삼문

제향공간은 내삼문(신문)과 사당으로 구성되는데, 제향공간은 엄숙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위에 담을 쌓았다. 서원의 사당은 공자를 비롯한 선현과 우리나라 유학자 18현을 봉안하는 향교의 사묘와는 달리 특정한 인물을 배향하므로 향교에 비해 사묘의 크기도 작고 배향인물도 서로 다르다. 사당 건물은 보통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규모로 구성되는데 예외적으로 창절서원은 정면 5칸 규모이다. 이는 봉향자가 1~6명인 다른 서원과 달리 창절서원은 단종 복위와 관련된 사육신을 포함하여 봉향자가 1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당의 명칭도 강당의 명칭과 같이 도산서원의 상덕사(尙德祠), 옥산서원의 체인묘(體仁廟), 필암서원의 우동사(祐東祠) 등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속 공간으로는 강학 공간에 부속된 건물인 장서각과 장판각이 있고, 제향공간에 부속된 건물로는 전사청과 제기고 등이 있다. 장서각은 서책을 보관하고, 장판각은 서책을 찍어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명문 서원에서는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책을 펴낸 뒤 다른 서원에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목판을 장판각에 수장하였다. 장판각은 서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건축구조에 각종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구조적으로도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은 마루로 만들고 창문의 크기는 통풍을 고려해 만들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판각 전후로는 가능한 다른 건물을 띄워서 배치하고 건물을 둘 경우 바람이 장통하도록 배치하였다. 전사청은 제향 때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제기고는 제기와 제례 용구를 보관하는 곳인데, 간혹 전사청과 제기고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사청은 일반적으로 사묘구역 내에 두지 않고 사묘와 별도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데, 함양의 남계서원은 유일하게 사묘구역 내에 전사청을 두었다.³⁷⁾



도산서원 상고직사



돈암서원 장판각

또 교직사(校直舍·주소·주사·주사) 등으로도 불리는 고직사는 서원에 딸린 노비들이 생활하면서 원생들의 식사와 세탁, 제사 음식준비 등을 서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서원에는 향사와 관련된 성생단(省牲壇·관세대·망료위·정료대)와 같은 의례용 시설물들도 있다. 제사에 쓰일 가축을 생(牲)이라 부르는데, 제수를 마련하기 전날 향사의 관계자들이 희생 제물로 쓰일 '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쓰일 생이 정결한가를 검사하였다. 이때 '생'을 올려놓는 단을 성생단이라 부른다. 성생단은 소수서원과 같이 흙을 쌓아 만든 곳도 있으나, 돌을 쌓아 만든 석

37)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19.

단과 넓적한 돌로 만든 것도 있다. 또한 관세대는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대야를 올려놓는 시설물이다. 그리고 망료위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또한 정료대는 밤중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사당이나 강당 앞에 세워놓는데, 제사는 한밤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정료대 위에 관슬 불을 올려놓아 불을 밝혔다.³⁸⁾



성생단



관세대



망료위



정료대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어,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 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또 서원 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중에는 도동서원 외 8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고산서원 외 많은 서원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된 서원들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들 지정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남계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38)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4.

2) 서원 건축물의 가치³⁹⁾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시대 왕조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중 서원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조말 훼손을 면한 47개 서원은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 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서원중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과 미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서원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지정된 서원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3-2-2. 배 치

완만한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세운 병산서원은 풍산 유씨의 교육기관인 풍악서당豊岳書堂을 전신으로하여 건립되었다. 원래 풍악서당은 풍산을 있었는데 주위에 집이 많이 들어서고 시끄러워지자 학문을 닦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이 157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서당의 명칭도 병산서당으로 고쳤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607년에 중건하였으며, 1613년 류성룡의 제자인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1563-1633)·창석蒼石 이준李埈(1560-1635) 등 문인들과 유림이 힘을 모아 존덕사尊德祠를 세우고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한 뒤 제향을 올림으로써 비로소 강학 기능과 제향 기능을 갖춘 서원으로 위상이 바뀌었다.⁴⁰⁾ 또 전사청은 존덕사와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으며, 1864년에 '병산屏山'이라는 사액을 받고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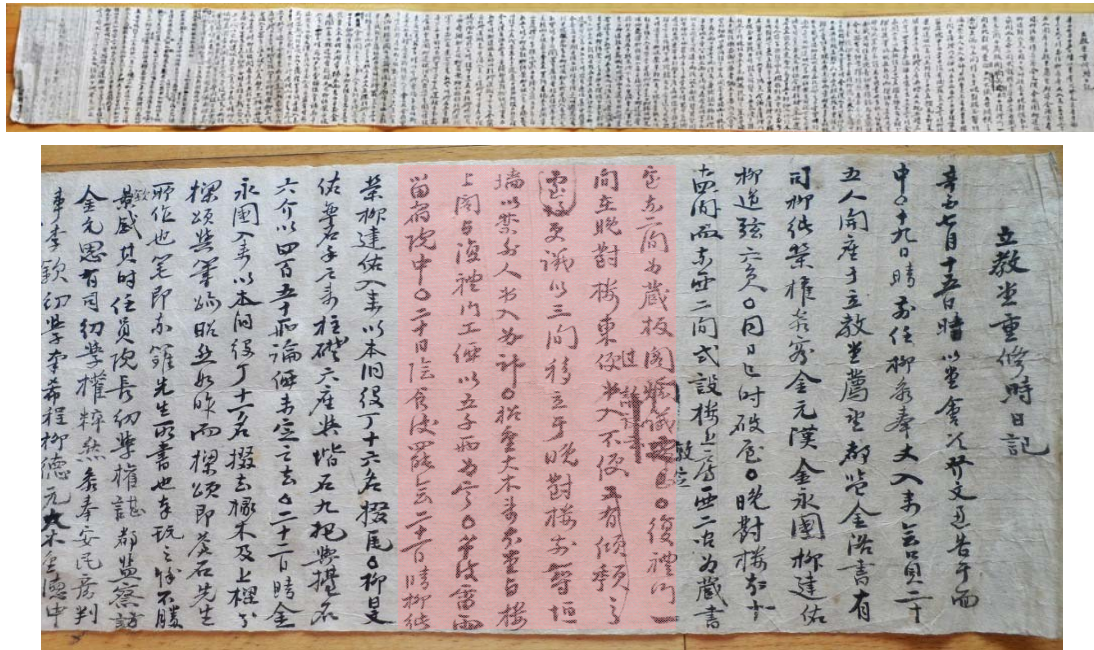
최근의 중건·중창 기록을 보면 1921년 강당인 입교당이 중수되었고, 만대루 동쪽에 있었던 대문인 복례문이 만대루 정면으로 이건하여 중수하였으며, 존덕사는 1937년에 중수되었고⁴¹⁾, 1971년 만대루

39)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1

40)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207-208.

41) 이때의 공사기록은 「입교당중건일기(入敎堂重建日記)」와 「尊德祠重建日記」로 전하고 있으며, 강당과 사당을 다시 짓는

와 서재의 보수를 시작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⁴²⁾



입교당중수시일기



존덕사 건립이전 추정 배치도

존덕사 건립 후(1921년 이전) 추정 배치도

데 각각 5달씩 걸렸고, 공사조직과 공사비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또 「입교당중건일기」에 의하면 원래 만대루 동쪽에 대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만대루 전면으로 이 건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현재 만대루 동쪽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42) 이승희, 「전통조경공간에 나타나는 美意識에 관한 연구」,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2.

병산서원은 일반적으로 강당이 앞에 있고 사당이 뒤쪽에 위치하는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중심축 상에 외삼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형식과는 다르게 사당공간이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사당의 건립 시기로 볼 때, 사당 공간이 강당공간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나, 학문적 성향⁴³⁾과 서애 류성룡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당堦에 대한 생각으로 이러한 공간 배치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 류성룡은 묘와 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은 묘가 당의 뒤를 바라보고 앉는 형상이어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 듯하다. 그와 같은 생각은 1604년 정경세가 도남서원道南書院을 건립하면서 류성룡과 나눈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나타난다.

院占地在山腰。勢不平行。層層除地。設廟堂齋樓。逐層有階累級。而廟前堂後之階則又高數仞許。廟與堂雖相直。而高下懸絕。似無背坐未安之礙。以上下言則上廟下堂。以內外言則內廟外堂。自外而觀之。位置齊整。入其中而視之。等級截然。而廟與堂俱占中央不偏之位。似爲恰好。今欲依此排設。但念易東，陶山。廟宇皆在堂後東偏。有如家廟之位。當時排置深意。雖不敢測知。而竊以事勢度之。則兩處地勢平行。廟若正值堂後。則面背相當。前後遮掩。日用周旋之際。亦多不便。其勢必須稍就東偏。使相參差。此外如無他義理。則今之立祠位置。雖不相同無害。如有義理必從東偏爲是。則地勢之偏正。位置之參差。皆所不計。望賜開示。

附西厓答

地勢雖下。背坐終是未安。易東既經先生指定。其制必不苟。姑從易東之規。近東恐無妨。廟中位次。以中爲尊。古無此說而創於皇朝。帝王廟亦伏羲居中 其是非得失。非所敢論。然禮曰。席南嚮東嚮皆尚右。西嚮北嚮皆尚左。古人之坐皆從一頭排起。一二三四循此而坐。至於太廟祫享之坐。雖太祖居中。而此非一行之坐。太祖居西。則乃是不遷之本坐。群昭群穆之祫入者。左右分坐。南北相向。其次序行列。整截不紊。今作一行南向之坐於北壁之下。而以中爲尊則既不應禮經尚右之文。又非太廟昭穆之坐。而左右交互之序。疑於錯雜。今從朱子神坐尚右以西爲上之說爲定。似不必更究神制。未知如何。今文廟之坐。乃是聖師中堂。群弟環侍之象。其左右分行。又與昭穆之坐相似。與此自不同。

附西厓答

皇朝近世諸儒之議。皆以中爲是。然其言之合義與否未可知。從朱子尚右之說。以西爲上亦無妨。朱子書有濂溪兩程祠堂記。又有四賢祠記。其坐次排置。必有已行定禮。更詳考得。據而行之則尤善也。

書院當有名號。而未得美名。或欲因其地名而號曰洛淵。兼取伊洛淵源之義 或欲撫其事實而號曰道南。未知何者爲勝。或俱不穩貼則別錫嘉名。以貴道宇。尤爲幸甚。

43) 영남학파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중심으로 사(祠)·교(敎)의 기능이 지형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대등한 개념으로 강학공간과 사당공간이 구성되어 각각의 구심점(求心點)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당의 축이 강학공간 동측으로 이동한 서원은 병산서원뿐만 아니라 역동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 자계서원, 삼계서원 등에서도 보이는데, 덕천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은 모두 퇴계의 학풍이 강한 안동권에 위치하고 있다.

附西厓答

道南之號甚美。且與易東義相近。恐不須他求。如何如何。⁴⁴⁾

<정경세> ...(중략)...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은 묘우廟宇가 모두 당堂뒤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가령 가묘家廟의 위치와 같습니다. 당시 배치한 뜻을 비록 감히 헤아려 알 수 없으나...(중략)... 묘가 만약 당 뒤로 바로 마주친다면 얼굴과 등에 상당하여 앞뒤가 가로막혀서 일상의 움직임에 역시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입니다...(중략)...가령 의리상에서 반드시 동쪽을 따라 치우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지세의 치우침과 바름, 위치의 어긋남은 모두 따질 바가 아닐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룡> ...(중략)... 지세가 비록 하향한다 해도 뒤로 앉히는 것은 끝내 편안치 못합니다. 역동서원은 이미 선생(퇴계)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반드시 일시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역동의 규제를 따라 동쪽에 가깝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기에서, 지형의 여건보다 묘우를 강당의 동쪽에 치우쳐 배치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 주목되며 이러한 완고함은 영남학과 계열의 서원이 하나의 뚜렷한 유형으로 형성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⁴⁵⁾ 존덕사가 건립되기 전의 병산서원은 다행히도 이와 같은 사당의 배치규제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입교당 동쪽 공지는 강당부분과 나중에 지어진 사당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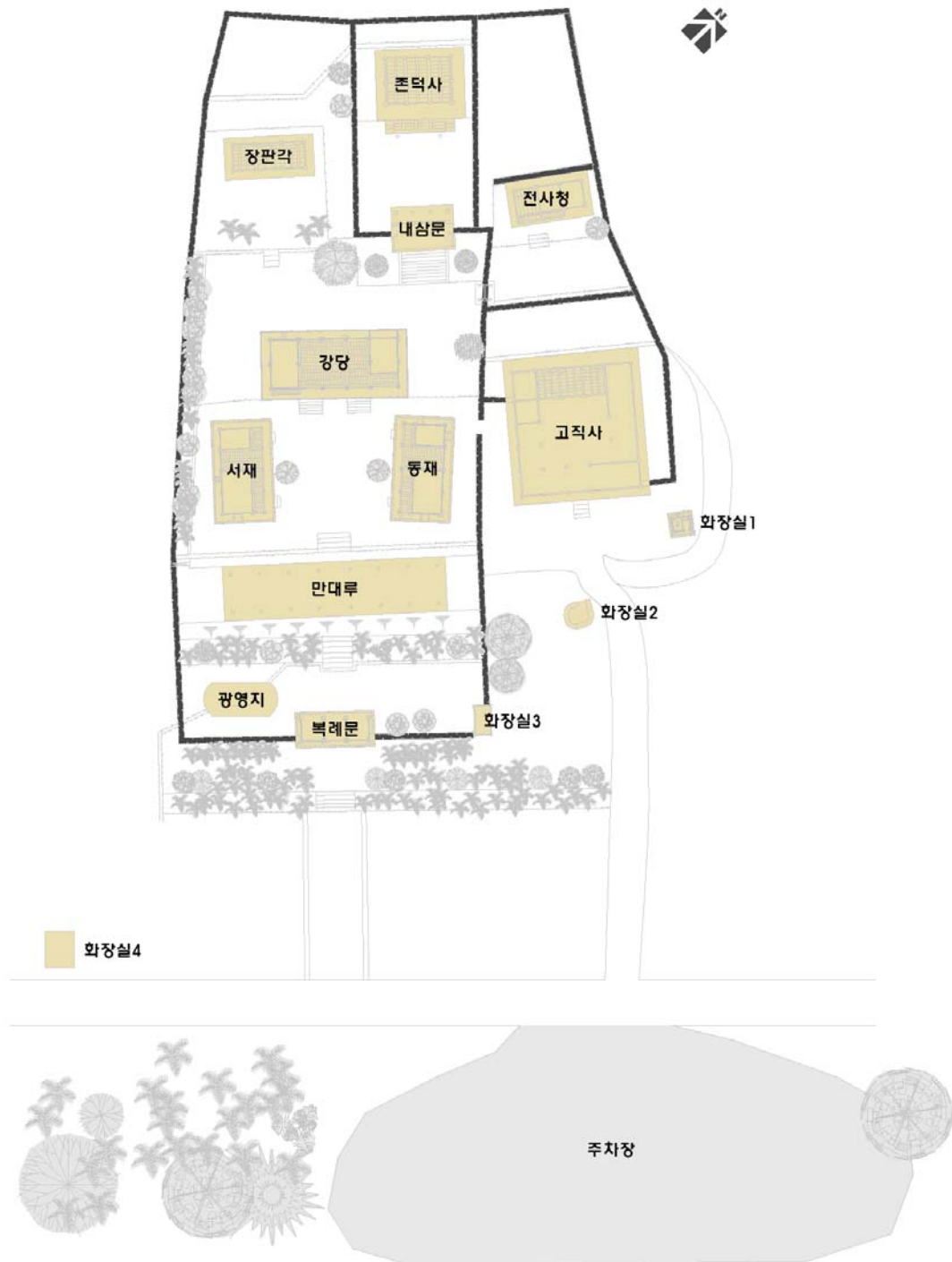
입교당과 존덕사의 축

44) 愚伏先生文集卷之九 書 上西厓先生稟目(한국고전DB <http://db.itkc.or.kr>)

45) 하현정, 유인호,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1호, 2003, p.163.

입교당과 만대루 사이에 있는 동재와 서재는 동재가 안쪽으로 틀어져 있어 만대루 쪽에 면한 부분의 마당 폭이 입교당 쪽보다 좁아지도록 되어 있으며, 사당 양측에 각각 위치한 장판각과 전사청 또한 대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어긋나 있다. 이렇게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기보다 공간과 공간이 어긋나거나 비껴나게 한 공간구성은 병산서원의 전체 건물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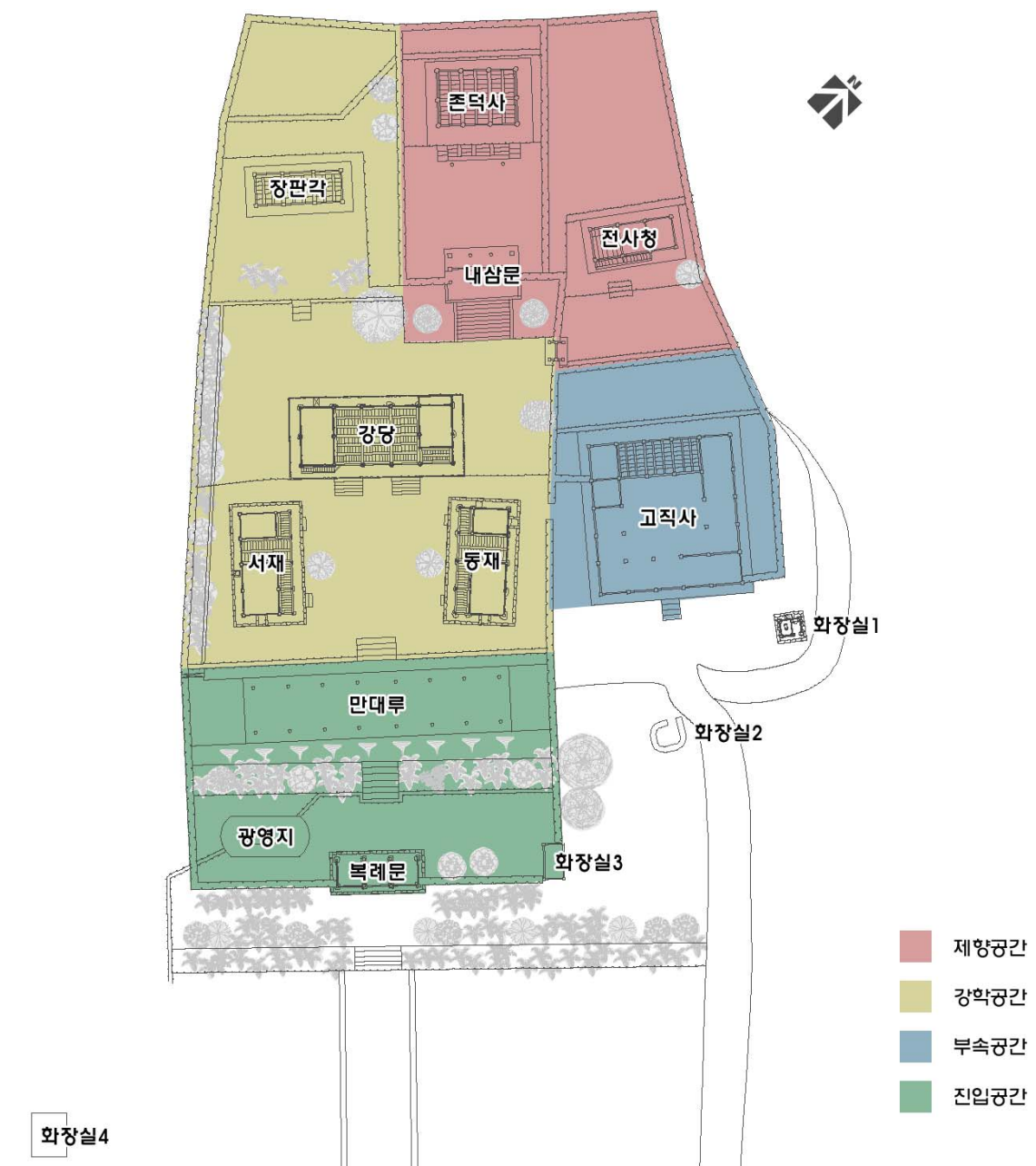
노비들이 기거하는 고직사는 일반적으로 위계가 낮은 서원의 서쪽에 위치하지만 병산서원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류성룡의 연고지가 하회마을로 병산서원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병산서원 전체 배치도

3-2-3. 건축물 현황

약간 비탈진 곳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세운 병산서원은 크게 4개의 공간 즉, 교학을 위한 강학공간과 제향을 위한 제향공간, 그리고 부속공간과 진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입공간은 복례문復禮門과 만대루晩對樓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은 입교당立敎堂과 동東·서재西齋, 장판각藏板閣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향공간은 신문神門, 존덕사尊德祠, 전사청典祀廳으로, 부속공간은 고직사庫直舍로 구성되어 있다.



병산서원 공간 배치도

1) 진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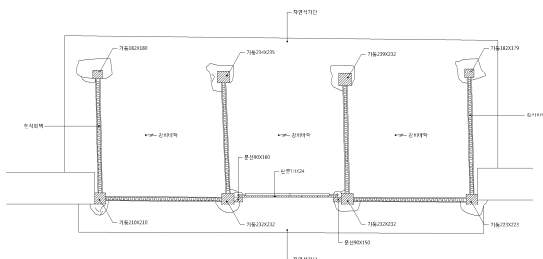
서원의 정문인 복례문은 원래 만대루 동쪽에 있던 대문을 1921년에 이전하여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솟을대문이다. 가운데 문은 판문板門으로 출입문이고 좌우문은 담장과 구분되는 벽채를 한 칸씩 두고 있는데, 서쪽 칸은 선반을 걸어 제수를 운반하는 작은 가마를 걸었고, 동쪽 칸도 탈것 등을 보관하였다. '복례'라는 이름은 『논어』「안연顔淵」편에 나오는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에서 따온 말로 “자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감이 인이다”라는 뜻으로 세속적인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극복하고 예를 다시 갖추라는 뜻을 갖고 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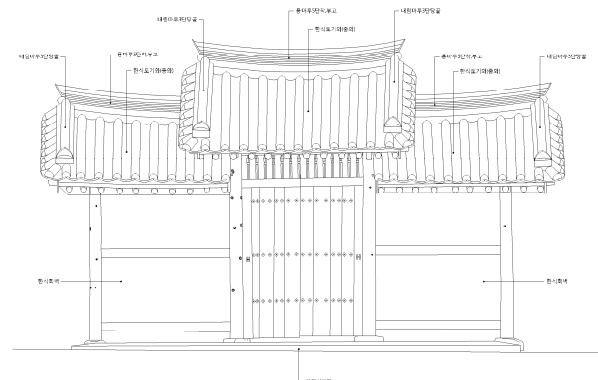
복례문 정면



복례문 배면



복례문 평면도



복례문 정면도

정문을 들어서면 앞으로 2층으로 구성된 만대루가 가파른 계단 위에 옆으로 길게 서 있는데, 만대루의 초창은 1614년~1717년 사이로 추정되며⁴⁷⁾, 1921년과 1992년, 2002년에 수리한 기록이 있다. 101717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만대'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한구

46)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129.

47) 1717년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가운데 원사절목(院事節目)의 규정에 보면 “서원 급제자들이 귀향하면 광대패들이 유희를 벌이는데, 절대 서원 안에는 들어오게 하지 말고 만대루 바깥에서 연회를 벌이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아 만대루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존덕사와 같은 영조척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존덕사 건립(1614년)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승희, 「전통조경공간에 나타나는 美意識에 관한 연구」,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3-104.참조)

절인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백곡회심유白谷會深遊'에서 따온 말로,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물 무렵에 마주 대할만하고, 흰바위꼴짜기는 여럿이 모여 늦도록 즐기 좋다'는 뜻이다.⁴⁸⁾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건물로, 아래층은 막돌기단, 덩벙주초, 자연스런 형상 그대로의 나무 기둥이 열을 지으며 이층 누를 받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층은 반듯하게 다듬은 기둥들이 정제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물마루, 계자난간이 절제 속에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성리학적인 자연관과 조선 유학의 깨끗하고 청정한 맥이 동시에 아래·위층 건물에 살아나 있는 듯하다.⁴⁹⁾ 만대루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당 안마당에서 통나무계단을 이용해서 오르게 되는데, 이 계단은 널판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나무를 계단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다⁵⁰⁾. 만대루는 유생들이 유식도 하고 풍광을 보며 시회詩會를 가졌던 곳으로, 누에 오르면 서원이 입지한 뛰어난 주변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만대루 정면



만대루 배면



만대루 상부



만대루 하부

만대루와 복례문 사이에 가로 8m, 세로 4m 규모의 타원형의 작은 연못인 광영지光影池가 있는데, 방형의 연못 가운데에는 직경 1m 정도의 둥근 섬 즉 원도圓島가 조성되어 있다. 광영지는 1979년 보수하였는데, 보수하면서 형태가 타원형으로 변했다고 한다. 원래 광영지는 각진 방형의 연못과 그 안에 둥근 섬이 있는 방지원도方池圓島를 조성하였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

48)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23.

49)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129.

50) 서원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원래 난간이 있는 널판으로 만든 계단이었으나, 낙수물로 인해 계단이 훼손된 후에 통나무를 이용해서 지금의 나무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계단의 형태와 교체 시기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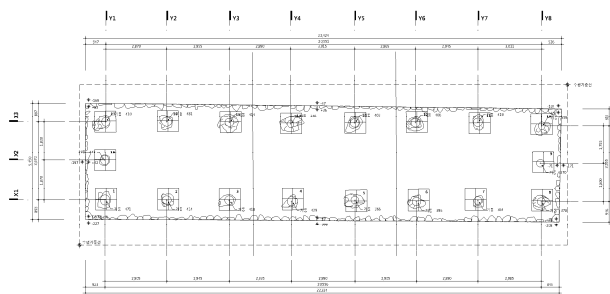
圓地方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 네모난 모양의 연못은 땅과 여성을 상징하고, 둥근 인공 섬은 남성을 상징한다고도 한다. 원도에는 1979년 보수 당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 고사하였고, 연못의 물은 연못바닥에 샘이나 용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유출수가 모이는 형태로 가뭄때에는 연못에 물이 없다고 한다. 연못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쪽에 배수구를 설치해 놓았으며, 연못 주위에는 배롱나무와 오죽이 식재되어 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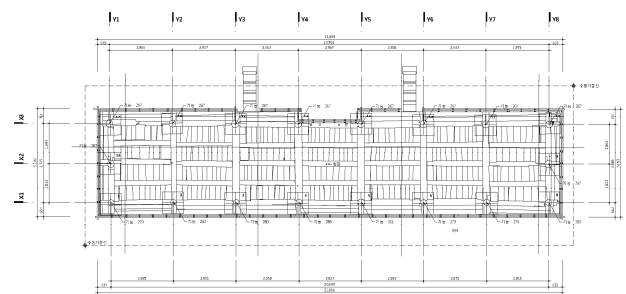
광영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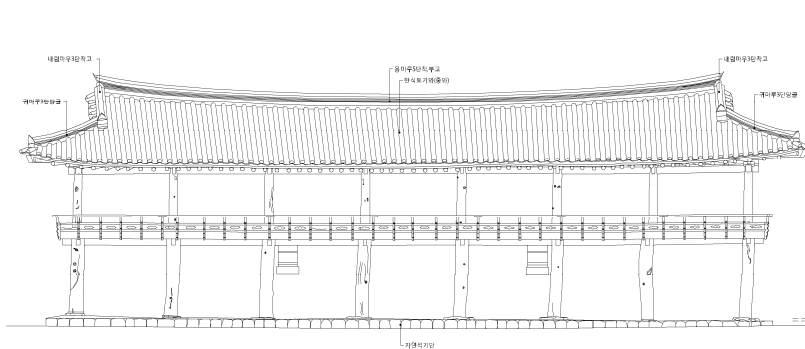
광영지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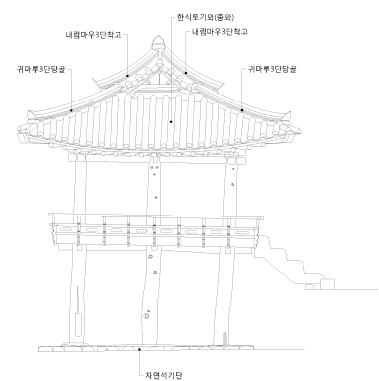
만대루 하층평면도



만대루 상층평면도



만대루 정면도



만대루 우측면도

51)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601.

2) 강학공간

강당인 입교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5량가 건물로, 중앙의 3칸 대청마루와 양쪽 각 1칸씩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었다. 입교당은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숭교당崇敎堂 또는 명륜당이라고 불렀다.⁵²⁾ 동쪽의 온돌방은 명성재明誠齋, 서쪽의 온돌방은 경의재敬義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뒷마루를 둔 명성재는 원장이 기거하던 곳이고 서쪽의 경의재는 교무실과 같은 곳으로 교수 및 유사有司들이 기거하였다. 명성은 『중용中庸』 21장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짐을 가르침이라 하니 ... 밝아지면 성실해진다”에서 따온 말이며, 경의는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의 “경건함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올바름으로 내 향동을 반듯하게 한다.”에서 따온 말이다. 원장이 기거하던 명성재에 앞으면 서원 모든 곳이 한눈에 들어온다. 앞쪽으로는 동·서재, 만대루와 병산이, 동쪽 협문 밖으로는 고직사가 보이며, 강당 대청 뒤 판문으로는 장판각이, 그리고 강당 동북쪽 뒤로는 전사청과 사당이 보인다.

입교당의 대청마루에서는 만대루를 통해 병산과 낙동강이 보이는데, 만대루의 7칸 기둥 사이로 하늘과 병산과 낙동강이 7폭의 병풍이 되어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이다.⁵³⁾ 지금의 입교당 건물은 서원의 1921년에 중건된 것으로, 1979년에는 지붕변와, 미장공사 등이 행해졌고, 1980년에는 기단공사 등을 하였다.⁵⁴⁾



입교당 정면



입교당 내부 전경



입교당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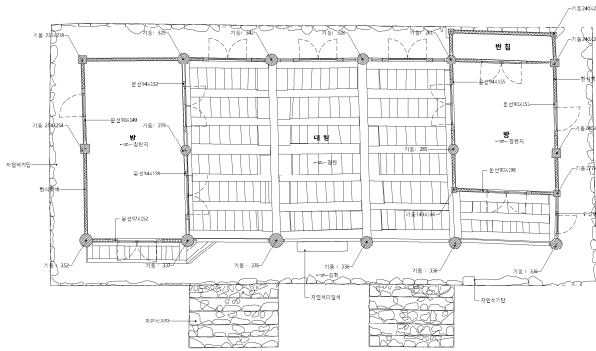


입교당에서 바라본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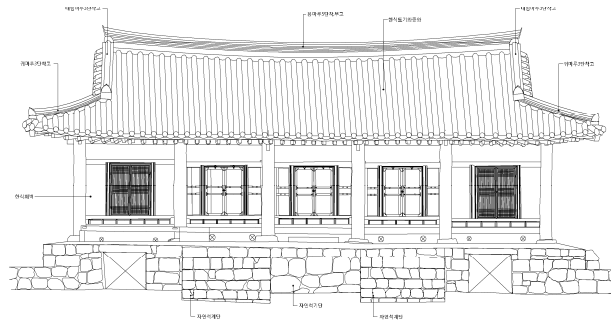
52)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6.

53)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214.

54) 최민용,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에 관한 研究」,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1.



입교당 평면도



입교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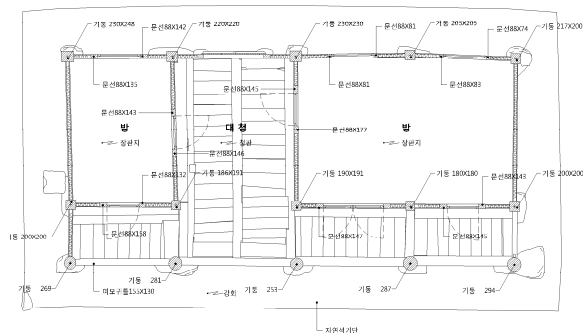
입교당과 만대루 사이의 마당의 좌우에는 원생들이 기거하며 수학하던 동재와 서재가 위치해 있는데, 각각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맞배지붕의 민도리집이다. 동재와 서재는 중앙에 1칸의 마루를 두고, 좌우로 1칸과 2칸짜리 방을 두고 전면에 퇴간을 조성하였다. 동재는 상급생이 기거하는 건물로 1칸짜리 작은 방은 유사(儒士)라고 부르던 학생회장이 쓰던 방이며, 큰방에는 동직(東直)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동직'은 행동거지에 있어 정직하라는 의미이다. 서재는 하급생들이 기거하는 건물로 강당 쪽 1칸짜리 작은 방은 마루방으로 서원의 서책을 보관하던 장서실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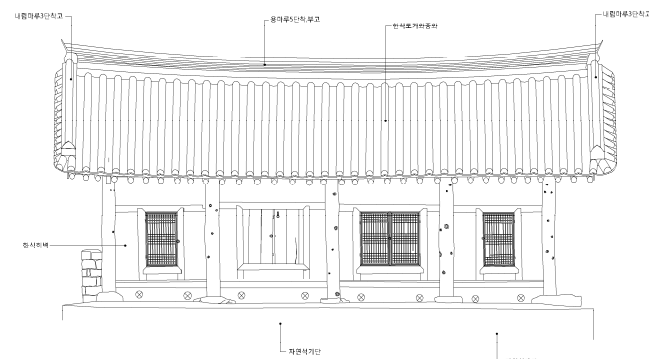
동재



서재



동재 평면도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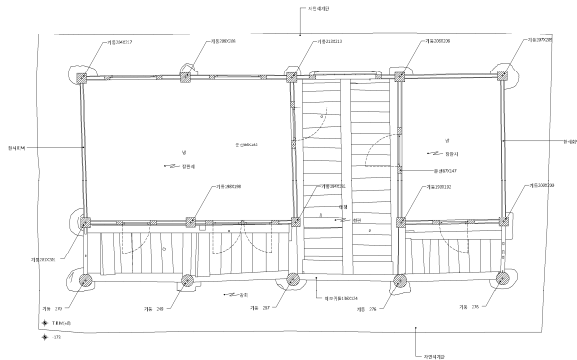


그림 151 서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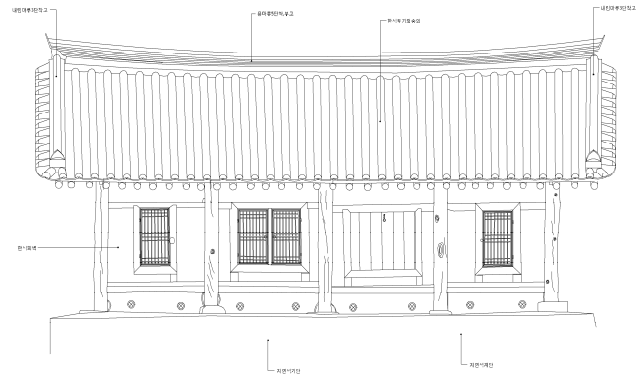


그림 152 서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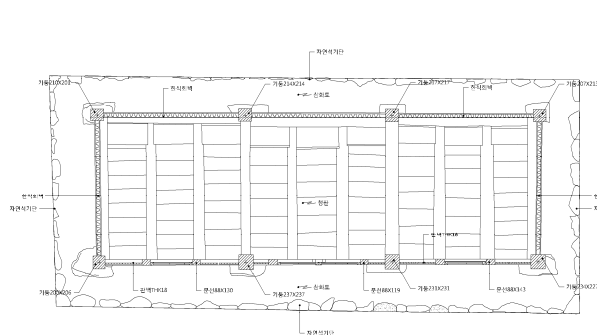
문집 등을 간행할 때 만든 책판冊版과 유물을 보관하는 장판각은 입교당 뒤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민도리집이다. 습기를 피하기 위해 바닥 밑을 띄우고 정면에 모두 판문板門을 달았으며, 화재를 막기 위해 다른 건물과 충분히 거리를 두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⁵⁵⁾ 서책 및 유물들은 도난과 분실의 위험으로 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가 비어 있어 어떤 식으로 목판을 보관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장판각은 서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서원의 명성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판본의 소장량이 그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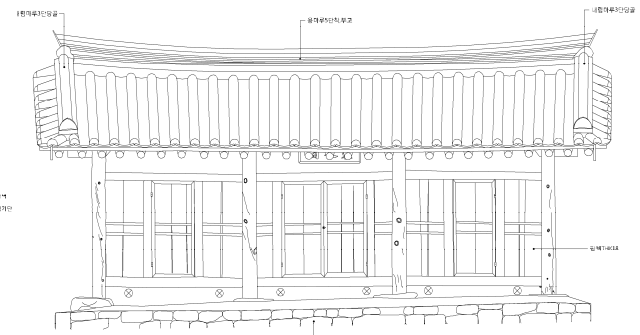
장판각 정면



장판각 배면



장판각 평면도



장판각 정면도

55)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214.

56) 최민용,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에 관한 研究」,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1-32.

3)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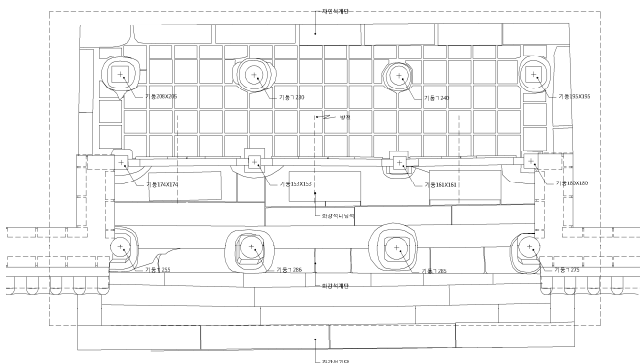
강당 동쪽 옆을 돌아 뒤로 들어가면, 서원의 내삼문(內三門)에 해당하는 신문이 있다. 신문은 향사(享祀) 때 제관과 제물이 출입하는 문으로 향사례에서 집례를 맡은 임원들만 신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 유생들은 신문 밖 마당에서 참관하는데, 신문을 출입할 때에는 동쪽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의 문으로 나온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삼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문 위에는 모두 홍살을 설치해서 사당 입구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내삼문은 존덕사와 같이 병산서원에서 유일하게 단청한 건물이다. 단청의 형식은 반주화머리초를 이용한 모로단청이며, 세 개의 문에는 태극이 그려져 있고, 4개의 초석에는 붉은 색으로 주역의 팔괘가 2개씩 그려져 있다. 평상시에는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굳게 닫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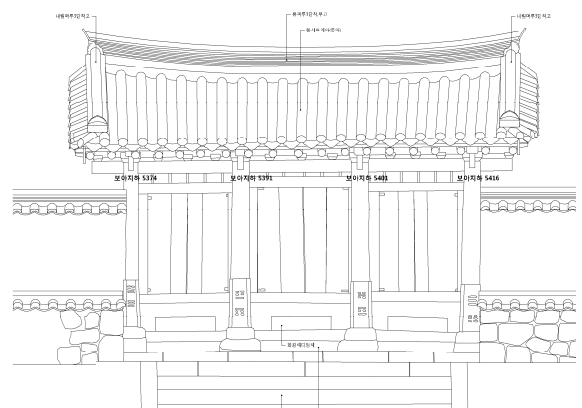
내삼문 전경



내삼문 배면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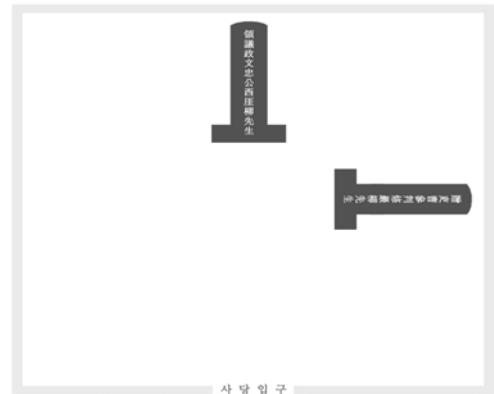
내삼문 정면도

사당인 존덕사는 내삼문을 지나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로 담장을 둘렀다. 서애 류성룡과 그의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사당 내부의 북벽에 류성룡 선생을 주벽으로 모셨고, 동벽에 류진선생을 종향하고 있다. 존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풍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내삼문과 같이 반주화머리초문양을 이용한 모로단청을 하였다. 좌우에 계단이 있고 기단 앞 양측에는 야간 조명을 위한 8각 석주 위에 반원구의 돌을 얹어 놓은 정료대가 있으며, 동쪽 계단 옆에는 제향을 올릴 때 손을 씻는 대야를 올려놓는 석조물인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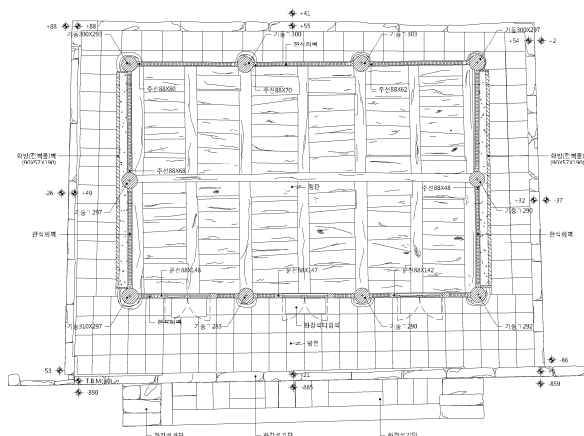
대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존덕사의 초창은 1614년이며, 1937년에 중수⁵⁷⁾하였다고 한다. 병산서원에 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初丁日}에 제사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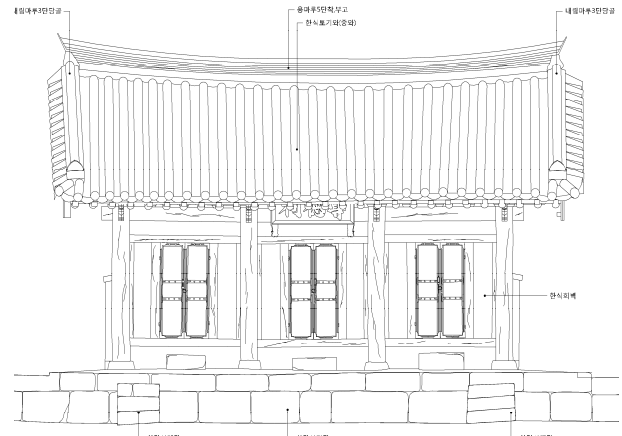
존덕사 정면



병산서원위차도(屏山書院位次圖)



존덕사 평면도



존덕사 정면도

입교당 뒤 내삼문으로 오르는 계단의 동쪽에 전사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전사청은 향사에 올릴 제수를 준비하던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당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나, 병산서원에서는 사당과 전사청이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당과 연결된 통로도 없다. 이러한 배치는 기존의 상황에 새로운 질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절충의 결과로 이해 될 수 있다. 전사청을 사당의 울타리 내에 배치할 경우, 사당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기존의 여건상 사당 영역의 일부가 고직사의 뒤쪽으로 물려서 확장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원에서 가장 위계가 낮은 고직사의 뒷면을 바라보고 사당이 배치되는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상 불편하더라도 사당의 부속시설인 전사청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당공간의 폭을 좁힘으로서 기존 구성의 여건에 위계의 질서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⁵⁸⁾ 전사청의 평면유형은 대략 7가지가 있는데, 병산서원의 경우 일반 민가처럼 한 측면에 흠바닥, 중앙에 온돌방, 그리고 한쪽에 마루방을 두어 구성하였으며,⁵⁹⁾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57) 1937년도에 작성된 「존덕사중수시일기(尊德祠重修時日記)」에 다섯 달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병산마을·하회마을·정자마을 주민들을 노역에 동원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다.(『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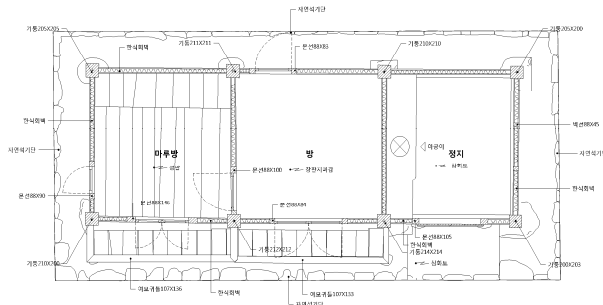
58) 하현정, 유인호,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1호, 2003, p.163-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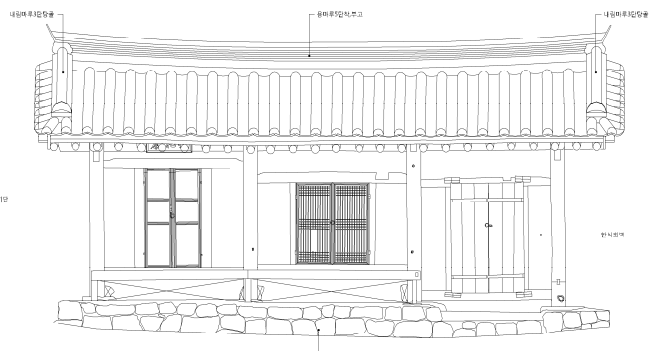
전사청 정면



전사청 출입문



전사청 평면도



전사청 정면도

4) 부속공간

강학공간의 동측 담장밖에는 'ㄱ'자 평면의 고직사가 있다. 고직사는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사당을 관리하는 묘지기·유사를 보좌하는 장무·학생들의 식사를 마련하는 정지지기등 노비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안동지방 고유의 살림집인 뜰집 유형을 차용하여 헛간, 고방, 방앗간, 부엌, 장독대 등이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으며, 정방형의 모양은 아니고 정면이 측면보다 짧아 장방형의 형태이다.

서원 밖 고직사 앞에 있는 화장실은 진흙 돌담을 달팽이처럼 시작 부분이 끝 부분에 가리도록 동그랗게 감아 세우고 토담 위에 이영만 엮고 하늘이 뚫린 채인 뒷간으로 양반이 아닌 서원의 머슴들이 사용하던 뒷간이어서 '머슴뒷간'이라고도 부른다. 옛날에는 토담대신 대나무로 벽을 돌렸다고 하며, 병산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될 때 포함되었다.⁶⁰⁾

59) 최민웅,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에 관한 研究」,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2.

60)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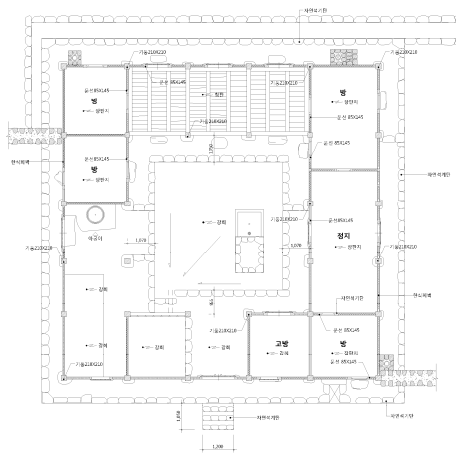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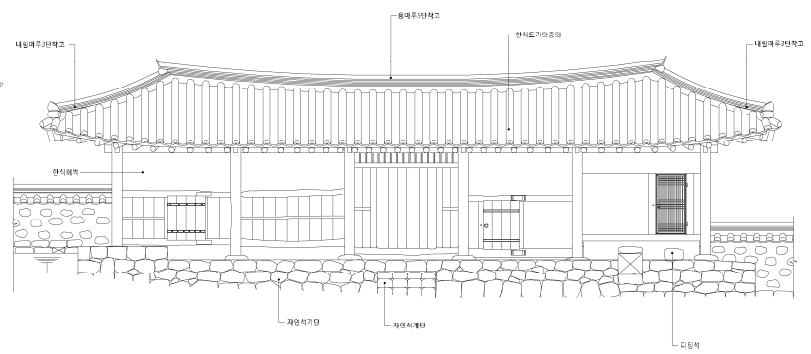
고직사 전경



달팽이 뒹간



고직사 평면도



고직사 정면도

3-3. 병산서원의 조경

3-3-1. 조경 현황

병산서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인 1979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서원 경내의 건물 보수정비 외에도 서원 내외부의 수목 식재를 비롯한 서원정화 및 경관미화사업을 함께 실시하였다. 병산서원 내외부의 수목식재 구역, 주차장, 서원진입부의 녹지구역, 진입도로 등의 형태가 이때에 정해졌으며 현재 보이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1983년에 실시된 수목 식재의 결과물이다.

서원의 조경 공간은 경내와 경외로 이분할 수 있으며 경내는 강학 공간에 속하는 만대루, 강당, 장판각 구역과 사당 공간에 속하는 사당, 전사청 구역, 고직사 공간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경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원 정문 진입로 구역, 주차장 구역, 서원 동쪽 녹지 구역 등 3개의 공간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특히 주차장과 서원 동쪽 녹지 구역은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병산서원 조경 현황



1. 서원 정문 진입로 현황



2. 주차장 현황



3. 서원 동쪽 녹지 구역 현황

건물 이외에 서원 내부에 조성된 시설물들은 정료대, 관세대, 감坎, 연못 등이 있다. 밤에 이루어지는 향사에 필수적이었던 조명시설인 정료대는 사당 전면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강당 전면에도 1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강당 앞에도 사당과 마찬가지로 2개의 정료대가 있었으나 2개 모두 소실되고, 현재는 2005년에 복원된 정료대 1개가 강당 기단 전면 중앙에 세워져 있다. 관세대는 제

사를 행하기 전 손을 씻는 대야를 올려놓는 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당 전면 계단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문을 접어 보관하는 장소인 감은 사당 서쪽 평지에 자리하는데 평시에는 기왓장으로 덮여 있다.



강당앞 정료대



관세대



감

서원의 정문인 복례문 왼쪽 담장 가까이에는 연못이 있으며 이름은 광영지(光影池)로 긴 타원형의 가로 8m, 세로 4m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직경 1m 정도의 원형의 섬 즉 원도(圓島)가 구성되어 있다. 광영지(光影池)는 1979년 보수하였는데 보수하면서 형태가 타원형으로 변했다고 한다. 광영지는 원래의 모습은 각진 방지(方池) 형태의 연못과 그 안에 원형의 섬이 있는 방지원도(方池圓島)였었다. 원도(圓島)에는 1979년도 보수 당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 고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연못의 물은 연못바닥에 샘이나 용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유출수가 모이는 형태인데 가뭄 때에는 연못에 물이 들지 않는다고 전하며 연못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쪽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놓았다.



광영지

3-3-2. 식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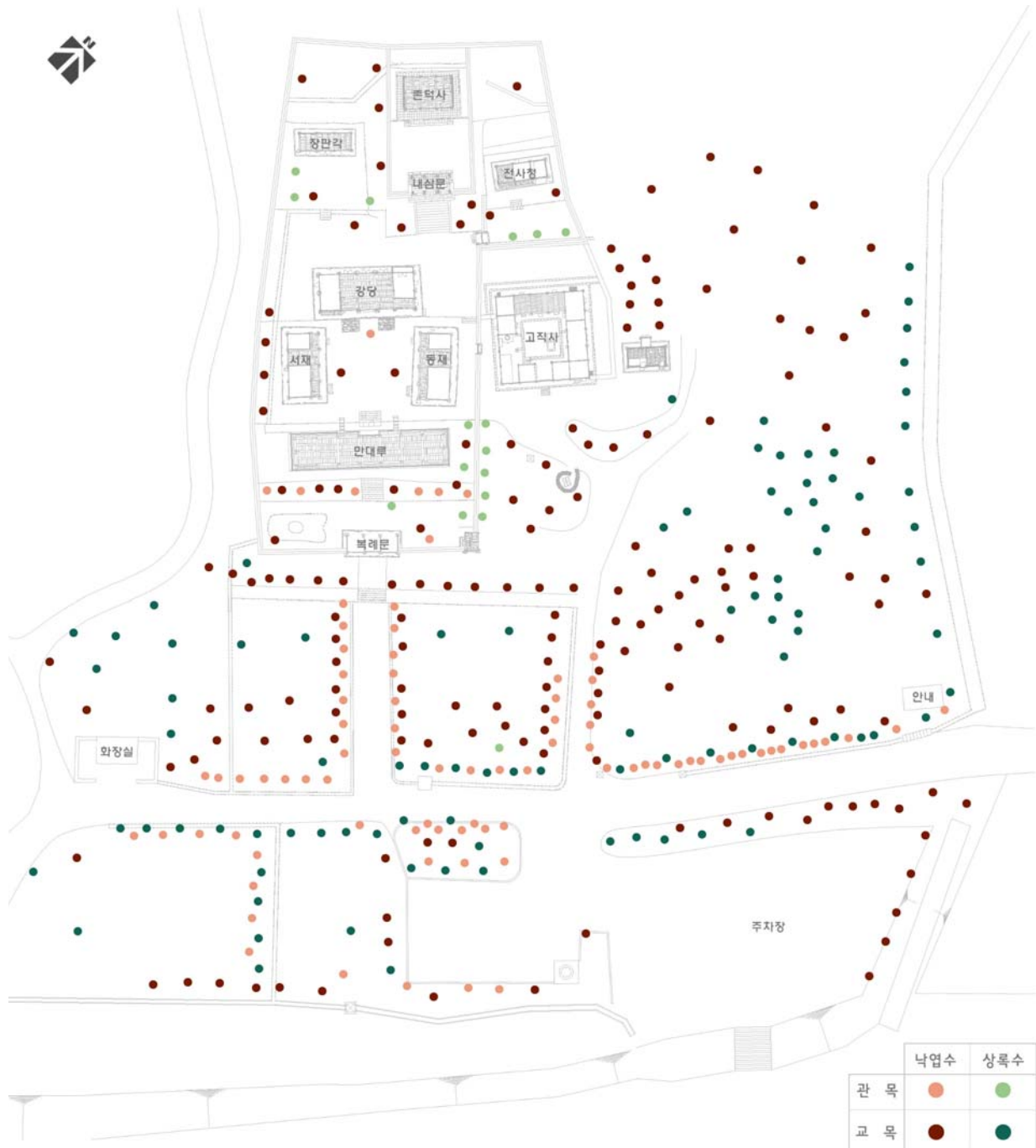
서원의 식재 구역을 경내와 경외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별채목이나 고사목은 이번 조사에서 배제하였다. 우선 서원의 정문인 복례문으로 진입하면 일차로 만대루가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전면 입구 지반보다 약 2m 높은 곳에 위치하고 만대루 기반 전면에는 경사지가 형성되어 있어 1979년도 서원 정화사업과 1983년 대대적 정비를 할 때 수목을 식재했다. 만대루 서남쪽 모퉁이에는 조성 당시에 식재된 것이라고 전해오는 배롱나무가 현존한다. 광영지 물가에 식재된 오죽 역시 1983년 정비 당시 식재한 것이나 최근 낙엽이 지고 있어 수세 회복을 위한 벌채를 실시하고 있다. 강당 공간에는 조성 당시의 시설물이나 수목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1983년 서쪽 담장에 붙여 폭 1.5m 정도로 조성한 화단에 배롱나무, 산수유나무, 오죽 등을 식재하였으며, 강당 전방에 위치하는 동서재 앞에는 1983년도에 매화나무를 식재하였다. 장판각 북쪽 화계에는 새로 심은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장판각 주변 평지에도 새로 심은 배롱나무, 주목, 오죽 등이 있다. 서쪽 담장 화단에 식재된 오죽 역시 만대루 광영지의 오죽과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원 후방에 위치한 사당, 장판각, 전사청 등 각각의 건물 후면에는 완경사로 이루어진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사당 북쪽 완경사 화계에는 아무것도 식재되어 있지 않고, 사당으로 들어가는 내삼문 전면에는 병산서원 건립 당시에 식재하였다고 전해오는 배롱나무가 3그루 심어져 있다. 전사청 공간에는 북쪽 완경사 화계에 1983년에 새로 심은 감나무가 있고, 전사청 전면 축대에 병산서원 조성 당시에 식재된 것이라고 전해오는 배롱나무가 현존한다. 고직사는 북쪽에 완경사 화계가 조성되어 있으나 아무것도 식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서원 경외에는 서원 전방의 서원 진입부 화단, 주차장, 주차장에 부속된 잔디 광장과 녹지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휴게 및 편의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원 진입부는 1979년 공간이 형성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원 동쪽 녹지 구역은 수목 재배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다양한 수목들이 일정한 패턴이 없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산서원 내·외부 수목별 현황

구 분		수 종	수 고(m)	직 경(cm)	수관폭(m)	수 량	
						주	m²
낙엽	교목	배롱나무	2~8	7~85	1.5~10	96	-
		은행나무	5~10	10~40	1~8	17	-
		매화나무	2~6	15~35	2~6	14	-
		청단풍나무	3.5~6	15~25	1~3	14	-
		홍단풍나무	2~3	8~20	1.5~5	7	-
		모과나무	5	15~20	3~5	6	-
		밤나무	7~10	25~32	3~6.5	6	-
		벚나무	5~7	27~40	6~8	5	-
		감나무	5	35	4	1	-
		고로쇠나무	5	15	-	1	-
		느티나무	8	30	8	1	-
		꽃사과나무	1.5	10	1.5	1	-
		산수유나무	6	25	3.5	1	-
		살구나무	2.6	10	2.5	1	-
		팽나무	6	-	3	1	-
	계	15	1.5~10	7~85	1~10	172	-
	관목	산철쭉	0.6~1	1.5~2	0.4~2.5	33	-
		명자나무	0.6~1	1~4	1.2~2.5	28	-
		박태기나무	1.5~3	4~32	1~2	18	-
		무궁화	2	14	1.2	1	-
		개나리	1.5	-	2×15	-	30
	계	5	0.6~3	1~32	-	80	30
합계		20	0.6~10	1~85	1~10	252	30
상록	교목	동근소나무	1~3.5	-	1~3	52	-
		소나무	2~10	10~30	1~8	34	-
		잣나무	6~10	6	3~8	14	-
		전나무	8~11	34	3~8	4	-
		오죽	5~8	-	균식	-	205
	계	5	2~11	6~34	1~8	104	205
	관목	동근주목	1.5~3	1.5~20	1.5~4	15	-
		사철나무	1.5	1.5	5	2	-
		눈향나무	1	-	3.5	1	-
	계	3	1~3	1.5~20	1.5~5	18	-
합계		8	1~11	1.5~34	1~8	122	205
총계		28	0.6~11	1~85	1~10	374	235



전체 수목 분포 현황

1) 낙엽수

서원의 내·외부 구역에 식재된 낙엽수의 총 수량은 상록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원에서는 배향인물인 류성룡이 생전에 좋아하던 수목이라 하여 지속적으로 배롱나무를 주종으로 하는 식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서원 안팎으로 100여주 가까이 식재되어 있다. 그밖에 은행나무와 매화나무, 청단풍나무가 각각 10주 이상 나타났으며 모과나무, 밤나무, 벚나무 등의 기타 수종들은 10주 이하로 분포하였다. 서원 진입로와 주차장, 동쪽 녹지 구역에는 동선과 연접해서 명자나무와 산철쭉

이 60여주 가량 분산 식재되어 있으며 서원 정문 좌우로 개나리가 군식되어 있다. 특히 주차장 구역에 식재된 낙엽 교목류들은 봄에서 가을까지 달려있는 잎이 시야를 가리게 되어 서원 정문에서 낙동강으로의 조망에 불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롱나무



은행나무



매화나무



청단풍



홍단풍



모과나무



밤나무



벚나무



감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꽃사과나무



산수유나무



살구나무



산철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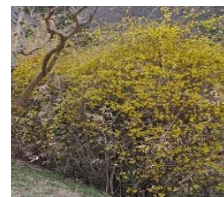
명자나무



박태기나무



무궁화



개나리

낙엽수 현황

2) 상록수

서원 내·외부에 식재된 상록수는 서원 전체 식재 수량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내에는 관목인 등근 주목과 등근 소나무가 10여주 식재되어 있으며 교목류는 대부분 주차장 구역과 동쪽 녹지 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죽은 1983년 서원 경내 광영지 물가에 처음으로 심었던 것인데 광영지 주변에서 번식하면서 점차 면적이 확대되자 서원 강당 동쪽 담장 화단 등에 분주하여 식재하고, 서원 동쪽 담장 밖과 서쪽 담장 밖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현재 오죽은 낙엽이진 상태로 수세 회복을 위해 단계적인 벌채를 실시하고 있다. 서원 진입로 구역에 눈향나무가 1주 식재되어 있으며 서원의 정문 좌우측에는 사철나무가 산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차장 구역에 식재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교목류들은 앞으로 거목이 되면 인근에 식재된 낙엽 교목들과 마찬가지로 병산서원 내부 만대루에서 낙동강을 바라볼 때 시점장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록수 분포 현황



소나무



동근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눈향나무



동근주목



사철나무



오죽

병산서원 상록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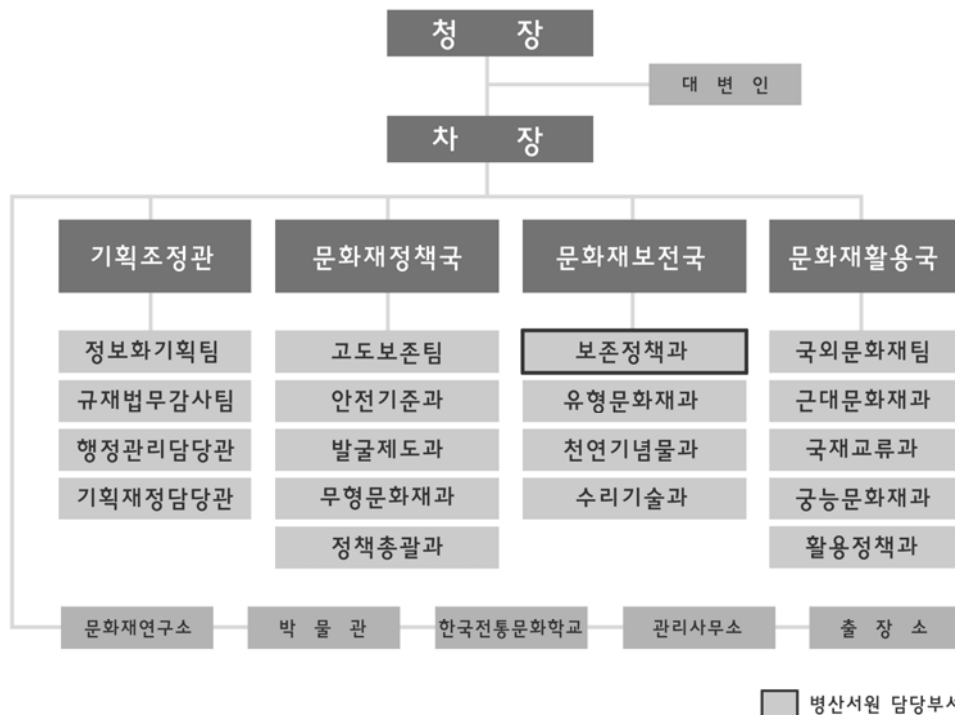
4. 관리현황

4-1. 관리조직 및 현황

4-1-1. 문화재청

사적으로 지정된 병산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의 보존정책
과로 병산서원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적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 사적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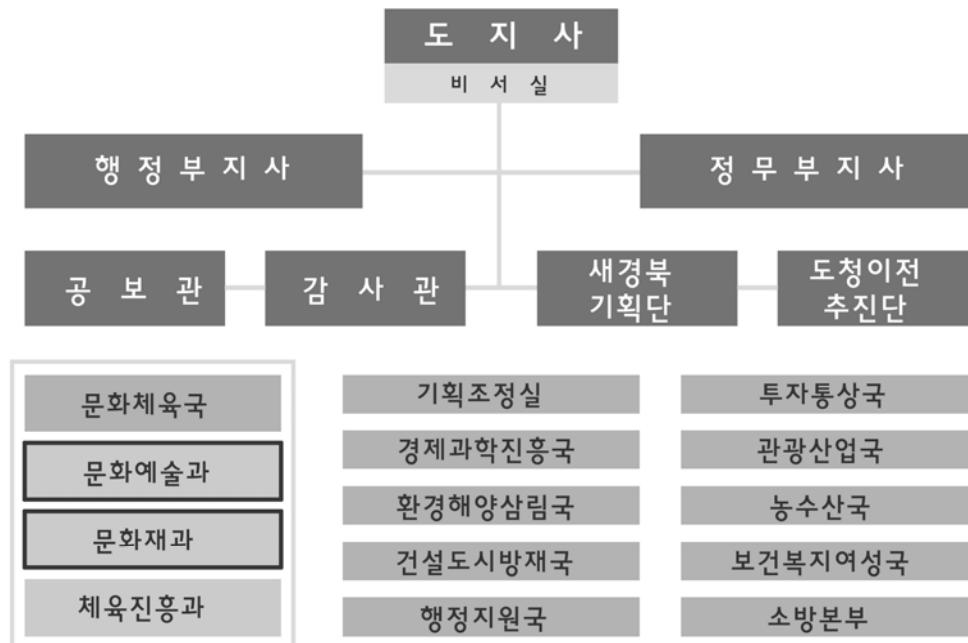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4-1-2.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상북도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병산서원의 보존관리에 관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국 소속의 문화재과이다. 문화재과 업무 가운데 사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 문화재보수 및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이외에도 관광산업국의 각 부서에서는 문화관광마케팅과 관광컨텐츠 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상북도 행정조직도

4-1-3. 안동시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병산서원의 원형보존을 위해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와 함께 보수에 대한 조사 및 보수사업,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 병산서원 관광지화 계획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시 문화예술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심사분석, 기술지도 및 설계실시
- 고가옥박물관, 유교문화센터, 연계도로망
- 유교문화권 개발계획거점화, 루트화 사업
- 유교문화권 개발중점정비, 관광개발사업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발굴
- 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지정
-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 관리



안동시 행정조직도

4-1-4. 관리사무소(하회마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서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 병산서원 진입로에 안내소가 설치되어 해설사가 상시 대기한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업무는 병산서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존 및 시설물 관리와 병산서원 방문관광객 관리 및 문화재 안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병산서원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

업 무	내 용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 지원	서원에 상주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 파손 및 훼손여부를 조사 및 안동시에 보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비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수목관리와 환경정리 안내사무실 관리 관광지 부대시설 운영에 효율화
방문 관광객관리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정신문화 중심도장으로서 역할 수행 전통문화의 가치제고와 감각적인 홍보활동 실시 하회마을과 연계된 병산서원 프로그램 홍보 관광객에게 안내 정보 제공 병산서원 홍보자료 배부

4-1-5. 일반관리현황

현재 병산서원의 관리체계는 지자체, 풍산 유씨 문중, 현장관리인 등으로 구분된다.

지자체는 건물 유지보수 및 서원 주변 수목에 대한 병충해 예방 및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등의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한 관리의 예산산정 및 집행을 시행하며, 풍산 유씨 문중은 향사를 주관하며 서원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며, 서원 전반에 관해 현장관리인의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풍산 류씨 일가로 안동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서원관리, 관광안내, 수목관리 등 서원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원 개폐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09시에 개방하고 일몰시에 문을 닫는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 등 일체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4-2. 보수정비 현황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인 1971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1978년 사적으로 지정된 후인 1979년에 건물기단 및 계단과 서원 경내 담장 보수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원 주변 민가를 보호구역 외부로 옮기고 서원 내외부에 대한 수목식재를 비롯한 서원정화 및 경관미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내외부의 수목식재 구역, 주차장, 진입도로 등 현재의 병산서원의 형태가 이때에 정해졌다.

1983년에는 서원 내외부에 대한 수목 식재가 시행되었는데 현재의 수목들이 대부분 이때 심어진 것이다. 1992년에는 만대루 진입계단의 정비 보수가 있었으며, 1997년에는 건물의 방충, 방연도포를 하였다. 2002년에는 만대루를, 2003년에는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입교당과 동재 등을 정비하였으며, 2005년에 강당 앞 정료대 1개를 복원하였다. 2006년에는 대문채와 서재를 보수했으며, 2007년에는 관리사를 보수하였고, 2010년에 소방시설과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병산서원 수리이력

년도	내용	
1572년	- 현 위치로 풍악서당 이건	
1592년	- 임진왜란 때 소실	
1607년	- 중건	
1921년	- 대대적인 보수공사와 함께 강당중건 - 동쪽에 있던 복례문을 만대루 전방으로 이전 - 만대루의 동서 두 칸씩에 장판각과 장서실을 설치했다는 기록 있음	「입교당중수일기」
1937년	- 존덕사 중건	「존덕사중수시일기」
1971년	- 일부건물 보수공사 진행	예산:2,000,000원
1979년	- 보수정비사업실시 - 담장 및 계단, 축대 등 수리 - 광영지 정비	예산:56,315,000 (건물12동,담장280m)
1980년	- 기단보수 및 정화사업	예산:144,100,000
1983년	-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년	- 서원실측	예산:10,000,000
1992년	- 만대루 진입계단 정비 보수	예산:1,350,000
1997년	- 건물방충,방연도포	
2002년	- 만대루 보수	예산:285,714,000
2003년	- 입교당, 동재 보수	예산:92,857,000
2005년	- 강당 앞 정료대 1개 복원	원래 2개 추정 (사당 앞 2개있음)
2006년	- 대문채, 서재 보수	예산:300,000,000
2007년	- 관리사 보수	예산:201,000,000
2010년	- 소방시설 설치	예산:100,000,000
2010년	- 배수로 정비	예산: 50,000,000
2012년	- 정밀실측조사	예산:200,000,000

4-3. 소방방재 현황

소방시설로는 복례문 앞, 입교당 좌측면, 동재 배면에 옥외소화전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원은 수압6kg/㎠이상, 관경 80mm로 광역상수도에 연결되어있다.

소화기는 개별 건축물 마다 배치되어 있지 않고 존덕사, 내삼문, 전사청, 강당, 서재, 동재 등 6개소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서원 내부에는 연기와 열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작동중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외에 기계의 시스템 오류 시에도 감지기가 작동된다. 이 방재시스템의 관리는 지정업체에서 맡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업체·안동시·소방서에서 신호가 감지되어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서원관리자들에게도 문자로 문제점이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단거리 소방서는 하회마을 입구에 풍천119지역대가 있는데, 소방대원 3명이 3교대로 1인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5통 소방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방재시설현황

5. 활용현황⁶¹⁾

서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을 들 수 있는데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교육기능은 풍산중고등학교를 통해 실현되고 제향 기능만이 남게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산서원을 찾고 있다. 서원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적은 편이지만 건물과 경관이라는 하드웨어는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병산서원이 현대와 만나는 방식은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사회단체 등 건물의 적극적인 외부 개방과 풍산중고등학교의 춘추향사 제관 참석 기회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풍산금속의 경우 신입사원 연수나 간부 워크숍 등을 서원에서 갖고 있으며, 풍산금속 외에도 연구기관들이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병산서원에서 연수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건물의 외부 활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병산서원은 전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적 실용이 구축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춘추향사에 제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이제는 병산서원 향사의 전통이 되었다. 매년 제향 때마다 신청을 받아 10명의 학생들을 제관으로 참여시키는데, 학생들에게 서원에서 제공하는 제례복을 입고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2010년부터 봄·가을로 사회저명인을 초청하여 만대루와 입교당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강좌는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고 참가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장소의 한계성으로 1회 80~100명 정도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서애류성룡함 西厓柳成龍艦'⁶²⁾의 승조원들을 병산서원에서 교육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하회마을과 서애류성룡함의 자매결연의 후속사업으로 승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번에 40명 정도씩 여섯차례에 걸쳐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류성룡의 일대기와 전쟁수행능력, 사상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서원향사체험 현황

61)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30-132.

62) '서애류성룡함'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세 번째 이지스구축함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하여 바다와 물에서 왜적을 막았으며, 재상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류성룡의 이름을 붙여 2012년 9월 취역했다.

IV. 기본구상

1. 정비 기본방향
2. 정비 기본구상



IV. 기본구상

1. 정비 기본방향

1-1. 기본개념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와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 기준(ii),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하였다.
 - 기준(iii),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 준다.
 - 기준(iv),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을 반영한다.
 - 기준(vi),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 기능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 분	기 준	사 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공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1-1-1.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한다.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한다.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1-1-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1-1-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해서는 안된다.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1-1-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1-1-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건축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 서원 주변 자연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문화가치가 산업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2. 기본방향

■ 유적 정비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여 진정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 정비

-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자연 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계획은 과거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하되, 주변 경관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정비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 기본구상

2-1. 유적 정비에 관한 구상

-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등으로 정비하여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2-2.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구상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도록 한다.

■ 주변경관 보전에 관한 구상

- 주변 경관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한다.
- 낙동강 조망 확보 및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경관을 조성하며, 호안지역의 경관보존 및 관리와 역사문화경관에 이르는 진입을 정비토록 한다.

사적지 조경 정비의 대상

분류 구분	경관	식물	시설물							
			휴게시설	편의시설	장식시설	포장시설	안내시설	홍보 전시시설	방재 방법시설	토목시설
전통 조경 유구	지형 지물 수림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樓亭臺 평상 石楊	계단·담장·우 물·석등·샘·정 료대	괴석·석함·대 석·석지·석조· 석수·造山·壇· 연못	박석포장 전돌포장 디딤돌	하마비 신도비 공적비	-	울타리	화계 배수로 다리[橋]
현대 시공 조경	-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정자 의자 평상 퍼걸러	주차장 화장실 경계웬스 음수대 가로등 휴지통	화단·화계·괴 석·석함·대석· 석지·석조·석 수·造山	보도블럭포장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황토포장	설명판 안내도 방향지시판	전시시설 교육시설	소화전 방수층 CCTV 방법센서	배수로 집수정

2-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 관람편의시설에 관한 구상

- 음수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의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한다.
- 안내판의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안내판은 서원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소방방재시설에 관한 구상

- 소화전은 장내 매립 또는 지중화 등으로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전 함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정비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구상

- 서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현대식 재료 사용은 최소화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계량기, 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키도록 한다.
- 조명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정비한다.
- 전시시설·체험 학습 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의 어느 정도 규모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적 지정지 밖에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사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의 규모 및 의장이 과대해지지 않아야 한다.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2. 시설물정비계획
3. 경관정비계획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1-1. 서원건축물

- 병산서원은 크게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간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진입공간은 복례문과 만대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은 입교당, 동서재, 장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존덕사와 신문, 전사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공간은 고직사로 구성되어 있다.
- 병산서원은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중수나 수리과정에서도 건물의 확장 및 이건 등과 같이 건물구성 및 공간 구성의 골격 자체가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병산서원의 건물구성은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 각 건물들이 비교적 잘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위주로 정비계획을 한다.
- 건축물 정비는 구조, 양식 기법 등은 변형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문화재수리원칙에 의거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문화재수리원칙

1.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2.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3.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5.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6.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1-1-1. 복례문

- 「입교당중수시일기」에 의하면 서원의 정문인 복례문은 원래 만대루 동쪽에 대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복례문이 만대루 전면에 남향하여 있었는지, 지금의 화장실 위치에 동향하고 있었는지 또 형태도 지금의 솟을삼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복례문 위치의 복원은 명확한 고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지금의 자리에 보존하도록 한다.
- 복례문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대문 하부의 문둥테가 훼손되어 있어 보수하도록 하고, 배면 선반의 제수를 운반하는 작은 가마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데, 수리하여 서원제례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부 문둔테



복레문 배면 선반

1-1-2. 만대루

- 만대루 건물전체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전면 중앙부와 서쪽 모서리부분 난간에서 청판 일부가 파손된 것이 확인되므로 수리하도록 한다.



측면 청판파손



전면 청판 파손

- 만대루에 오르는 계단은 지금의 통나무 계단이 아닌 난간이 있는 계단이었다는 서원관계자의 전언이 있으나 현재 옛 모습을 정확히 고증할 사진자료나 기록은 보이지 않고 지금의 통나무 계단도 이질적이지 않은 만큼 계단의 복원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서원관계자의 전언과 수리기록을 살펴보면 만대루의 계단은 1978년 문화재로 지정된 후 1979년, 1992년, 2002년 3차례에 걸쳐 변형되어져 왔다.
- 만대루 계단은 1979년 서원의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난간 계단이 통나무 계단으로 바뀌고 1992년에 다시 보수 정비하였으며, 2002년 지금의 계단으로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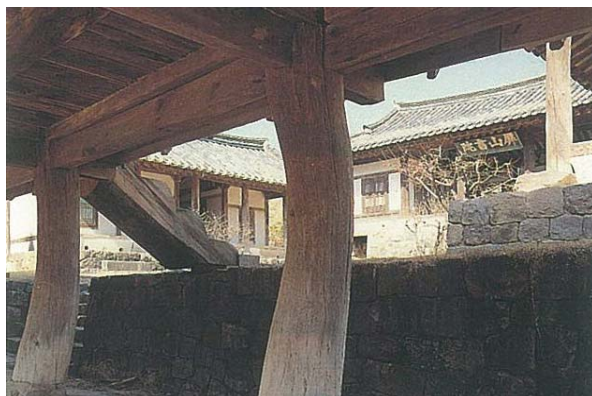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통나무계단은 국내산소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지금의 통나무는 외산소나무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계단은 지금의 계단과 달리 나무의 반을 잘라 계단으로 깎았으며, 뒷면은 소나무 껍질만 제거한 채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계단은 많이 투박하고 뒷면도 인위적으로 가공한 상태이다.



만대루 계단



만대루 계단 측면



만대루 계단(『서원』,悅話堂,1998년)



만대루 계단 측면(『서원』,悅話堂,1998년)

- 많은 서원에서 전면에 루를 배치시킨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누의 밑에서 누마루를 뚫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귀틀마루계단으로 되어 있다. 도산서원처럼 계단 없이 배면에서 바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산서원의 만대루와 옥산서원 무변루와 같이 배면에 계단을 두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 옥산서원 무변루의 계단도 만대루 계단과 같이 난간 없는 통나무 계단이다. 또 안동 묵계서원은 귀틀마루계단이나 난간을 계단 한쪽에만 설치하였는데, 계단난간은 머름형난간으로 청판에 연화두형의 풍혈을 뚫어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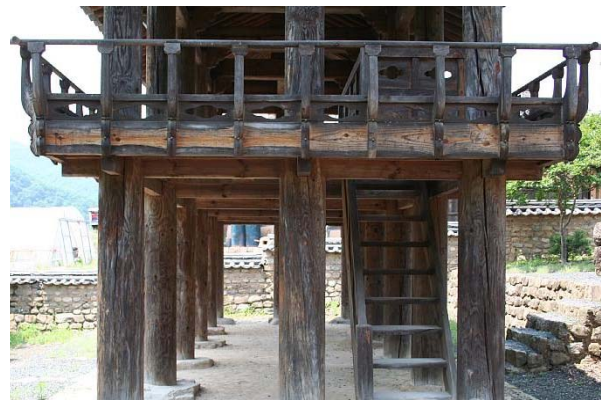
옥산서원 무변루 계단



도동서원 수월루 계단



무성서원 헹가루 계단



목계서원 계단

1-1-3. 광영지

- 현재 광영지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남쪽의 일부분에서 석축파손이 확인된다. 1979년 보수 시 방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보수 시 방형으로 다시 복원하도록 한다.



광영지 석축 파손



광영지 석축파손 상세

1-1-4. 입교당

- 입교당은 1921년에 중수된 이후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중대한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청마루 일부에서 훼손이 보이며, 초석하부는 보강을 위해 시멘트로 보강해 놓은 상태로 정비가 필요하다.



입교당 마루파손



입교당 초석 변형 현황

1-1-5. 동·서재

- 입교당과 마찬가지로 현재 동재·서재의 건물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동재 마루 부분의 천정에서 누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재 우측의 세살외여닫이문의 문살이 파손되어 있어 시급히 보수하도록 한다.
- 서재는 좌측마루 일부가 내려앉은 상태이고 좌측의 세살외여닫이문 아래 틀이 파손된 상태로 정비하도록 한다.



동재 누수 현황



동재 외여닫이문살 파손



서재 마루 파손



서재 외여닫이문틀 파손

1-1-6. 장판각

- 장판각은 전면 기단석의 파손으로 기단상부가 파인상태로 기단보수를 하도록 하며, 배면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변을 정비하도록 한다.



장판각 기단 파손



장판각 배면 적재물 현황

1-2. 방재시설

1-2-1. 현황

- 병산서원 내에는 3개의 옥외소화전과 6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수의 화재감지기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작동 중에 있다. 화재발생 시 감지신호가 안동시, 소방서, 서원관계자에게 모두 전달되어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소방서는 풍천면 하회리와 갈전리에 풍천119지역대가 있고, 풍산읍에 풍산119안전센터가 위치

하고 있다.



복례문 밖 동측 소화전



입교당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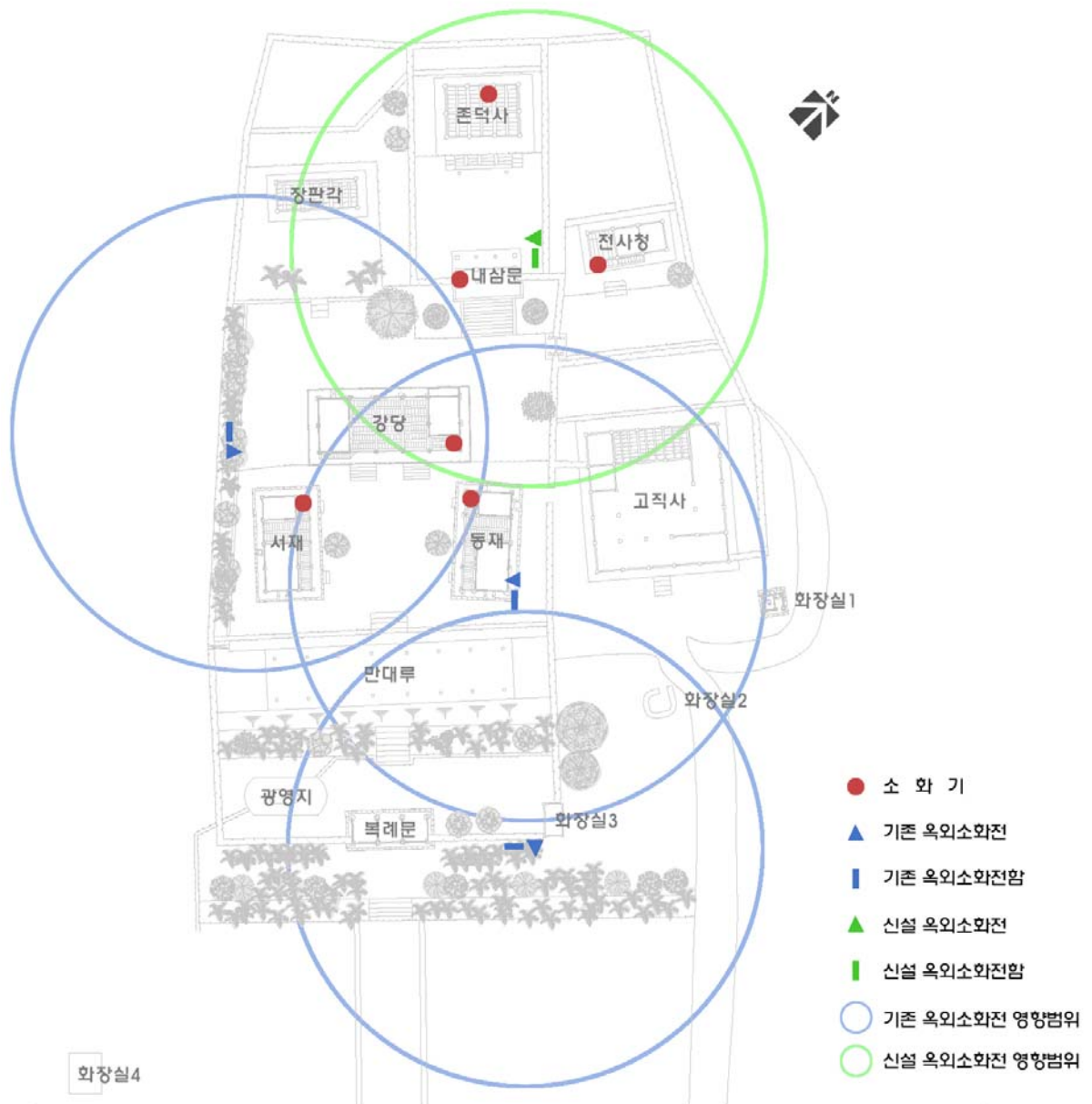
감시카메라



열 감지기

1-2-2. 정비계획

- 병산서원의 소방 방재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목조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화재 시 초동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 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수접속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서원내의 3개의 소화전을 이 기준에 맞추어 영향범위를 살펴보면 제향 공간에 옥외소화전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전사청 좌측으로 소화전을 설치하여 존덕사, 내삼문, 전사청이 반경 범위에 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소화기가 없는 건물도 있으므로 개별 건물마다 소화기의 설치하여 초동 진압이 가능하도록 한다.



병산서원 소방시설현황 및 계획

1-3. 배수로정비

1-3-1. 현황

- 병산서원은 주산인 화산의 남쪽 완경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저북고·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우수나 기타 낙수물이 배수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원 앞의 낙동강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다.

- 병산서원의 배수로는 자연석으로 5곳에 설치되어 있다.
 - 존덕사 서쪽 담에서 시작되어 장판각 배면의 서쪽담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 장판각 석축밑으로 동에서 서로 배출되는 배수로
 - 장판각 석축 서쪽끝에서 시작되어 입교당 우측과 서재 배면으로 지나는 배수로
 - 중정석축과 만대루 기단사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수로
 - 만대루 동쪽 석축밑에서 광영지로 이어져 담밖으로 배출되는 배수로
- 그러나 오랜 세월로 인해 바닥의 구배가 변형이 되어 현재 입교당 앞 중정으로 해서 만대루로 곧장 배수가 되는 상태로, 중정바닥이 배수로 인해 훼손되어 있으며, 만대루 하부기둥의 부식 등 건축물의 피해도 예상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판각 배면 배수로



동재 배면 배수현황



중정 배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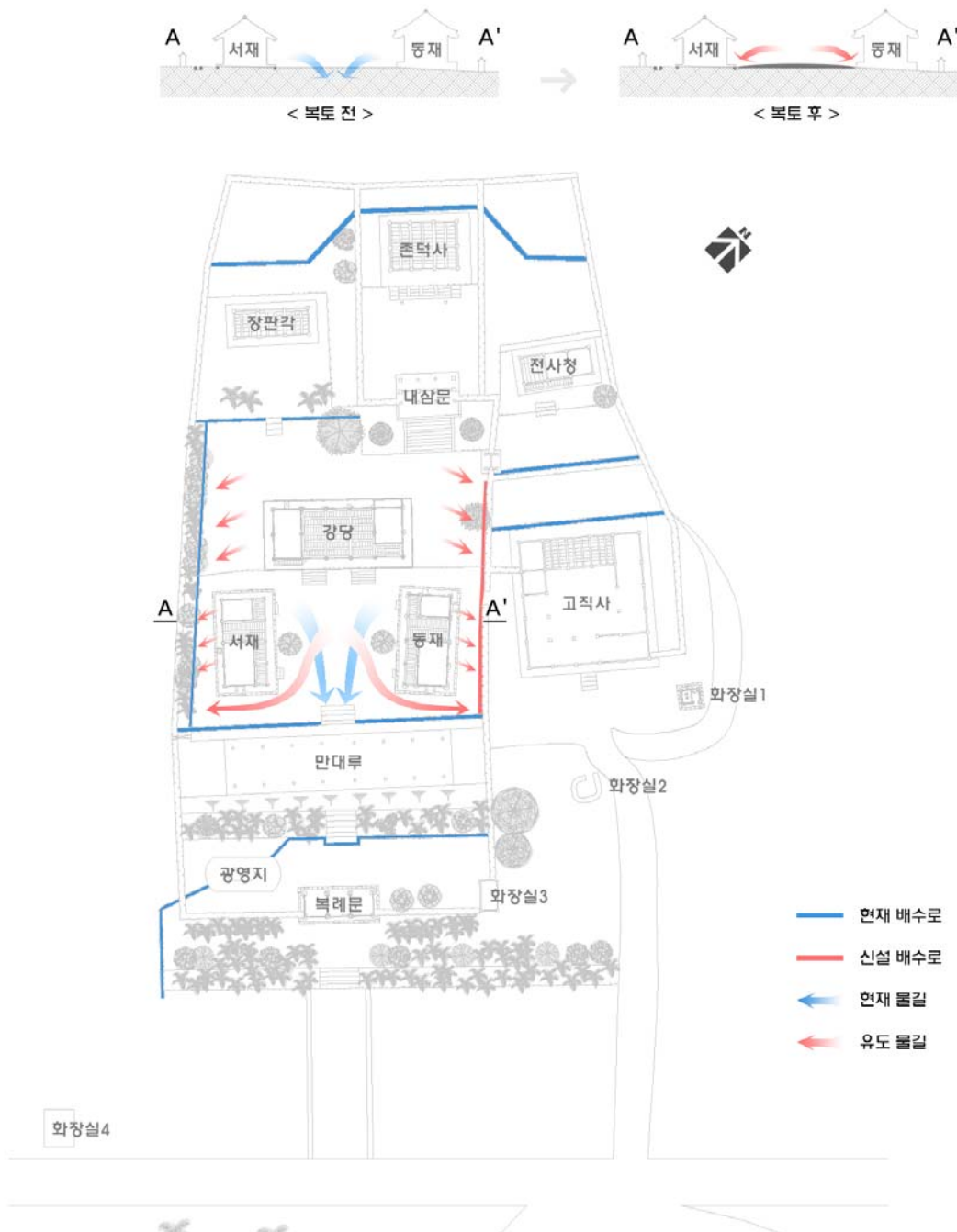
고직사 옆 배수현황

1-3-2. 정비계획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병산서원의 배수로는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충실 할 수 없는 상황
이므로 바닥의 구배를 맞추어 배수로의 기능을 복구시키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남저북고·동고서저의 지형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동쪽을 복토하여 우수나 낙수물이 동쪽에서 서

쪽으로 흘러 기존의 배수로로 배수되도록 정비한다.

- 또 입교당 앞 중정을 복토하여 물길로 인해 훼손된 중정마당을 복구하는 동시에 우수나 낙수물이 동·서재 배면으로 배수되도록 동재 배면에 새로이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즉 병산서원의 배수는 지형이 높은 동쪽에서 서쪽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 다시 더 낮은 남쪽으로 흘러 만대루 앞 광영지로 집결되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배수처리 계획이 필요하다.



병산서원 배수현황 및 계획

2. 시설물정비계획

2-1. 관리사무소 건립

2-1-1. 현 황

- 현재 병산서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서원의 우측 33번지에 가설시설물 형태의 안내소를 두고, 공무원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검하고 있다.
- 또한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어 유림회의, 모임 등과 같은 행사를 병산서원 강당에서 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사시에는 관람객에게 제약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람객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 화재, 자연재해 등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배정과 관리사무소의 건립이 필요하며, 수시로 개최되는 유림의 회의 공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병산서원 안내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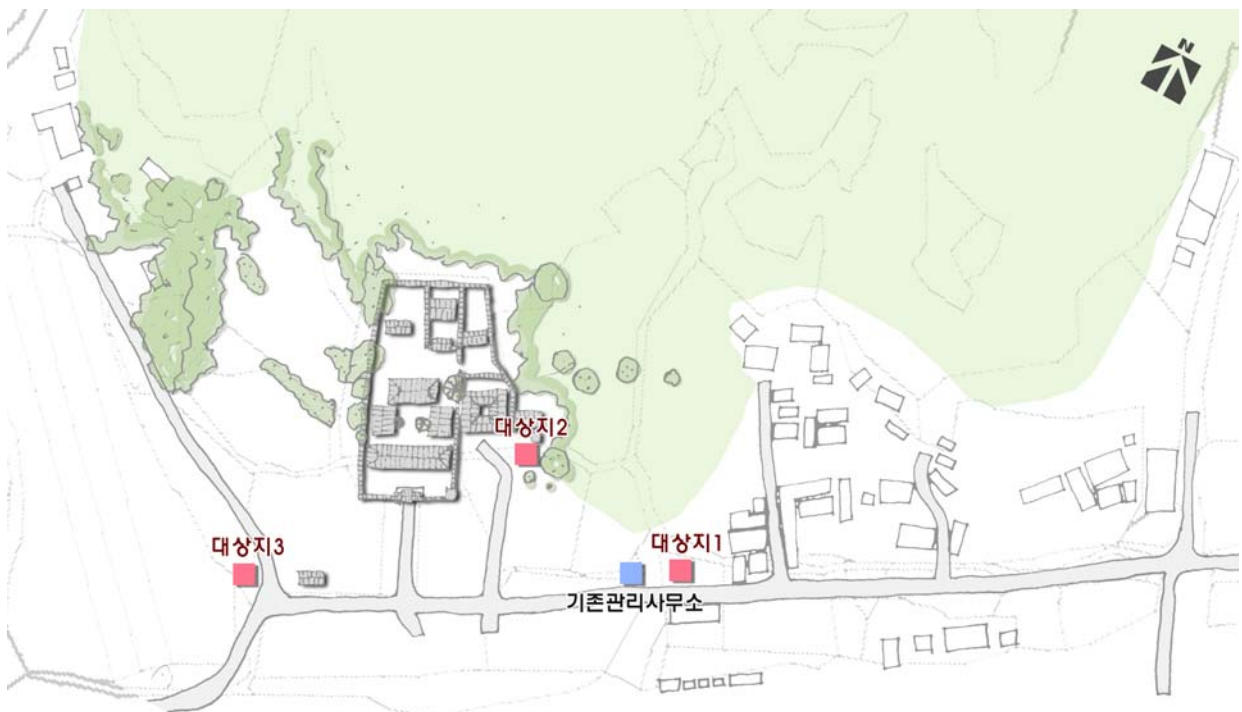
병산서원 안내소-2

2-1-2. 정비계획

- 관리사무소는 병산서원 옛 원형과 관련이 없는 건물이나 현재의 서원 관리나 운용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가급적 전통양식으로 건립하도록 하며, 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건립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는 상주 관리인원과 유림의 수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며, 가급

적 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규모 산정 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로 한 건물에 두 기능을 수용하도록 하며, 적정 규모 이상으로 판단될 때에는 분동 형식을 고려한다.

- 진입로 계획과 관련하여 하회마을로 연결되는 옛 길이 정비계획에 포함될 시에는 현재의 진입로와 하회마을로 연결되는 옛 길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 대상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대상지 1은 기존 안내소가 위치하는 곳으로 서원진입로 입구라 서원관리와 관람객의 이용이 용이하나, 경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 대상지 2는 관리자 좌측 전면으로 서원과 인접하므로 서원관리에 용이하나, 서원경관에 저해 요소로 작용된다.
 - 대상지 3은 서원 우측 하회마을 가는 길과 화산 등산로의 갈림길에 위치한 현재 공가 위치로 하회마을로 연결되는 탐방로의 개발 시 서원과 탐방로 관리가 용이한 위치이며, 서원과 이격되어 있어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나, 서원과 이격되어 있어 서원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서원 주 진입로와 이격되어 있어 관람객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 건립 대상지 위치도



PLAN1 계획대상 대지



PLAN2 계획대상 대지



PLAN3 계획대상 대지

관리사무소 대상지 현황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상지 1	33	대	655	-	학교법인병산교육재단
대상지 2	36	전	1,240	-	류충우
대상지 3	36	전	1240	40.96 (주택-25.84, 창고-15.12)	유학진 주택, 1층, 토조, 스텔리지붕

2-2. 주차장 정비

2-2-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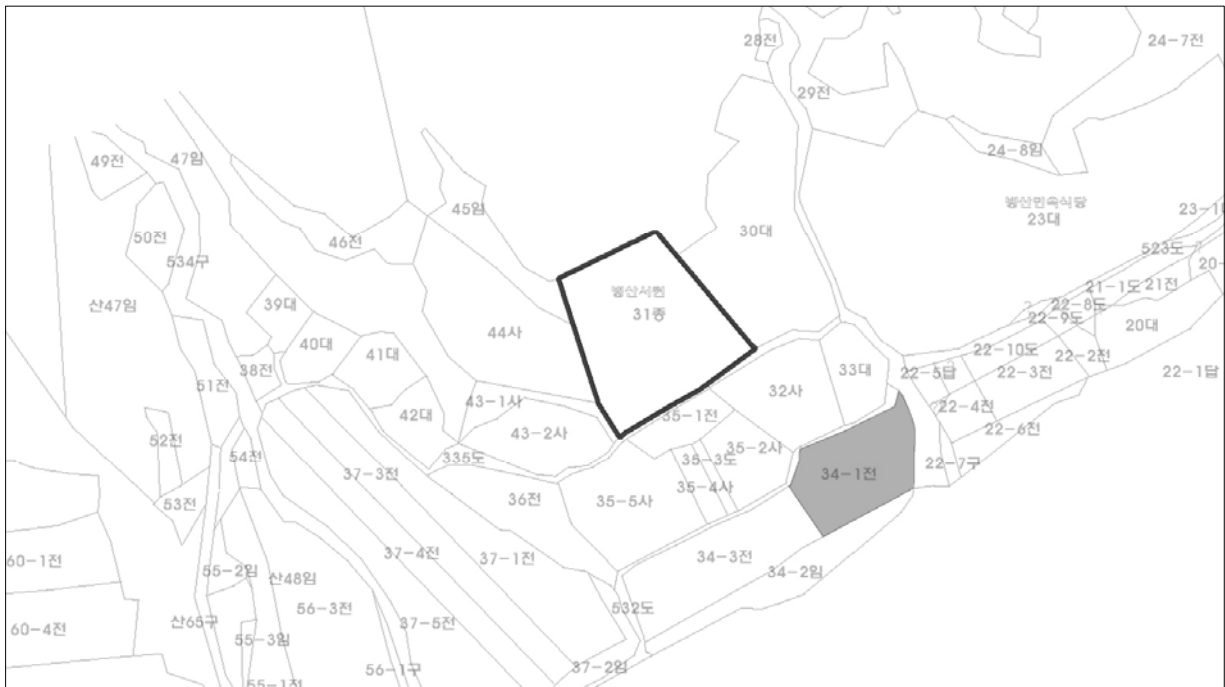
주차장 현황-1



주차장 현황-2

- 현재 병산서원 주차장은 병산서원과 낙동강 사이에 34-1번지를 활용하고 있다.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의 바닥마감은 자연흙길로 되어 있고, 면적은 1,519㎡로 협소하며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병산서원의 주요 조망시점인 만대루에서 바라볼 때, 수려한 경관인 병산과 낙동강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일부 노출되어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병산서원 관람객 수는 2009년 기준으로 연간 18~19만명 정도로, 현 주차장의 면적은 협소한 실정이며, 양방향 교행이 힘든 상황이므로 새로운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



현 주차장 위치도

2-2-2. 정비계획

- 공용주차장의 위치는 병산서원의 주요 경관에서 노출되지 않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동시에 차량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선정한다.
- 주차장의 규모는 방문 관람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병산서원의 경우 하회마을, 병산서원, 탈춤공연장 등을 포함한 일괄적인 통계 값이 있어, 관람객의 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본 계획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3곳의 관람지에 연간 18-19만명이 관람객이 왔을 경우 병산서원을 다녀가는 수는 50%라고 가정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였다. 병산서원을 다녀가는 관람객 수는 9만명이고, 1일 250여명이 다녀간다. 이 수치를 8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32명이 다녀간다.

- 일반적으로 소형차량에 3명, 대형차량에 30명이 승차한다고 가정하면 소형1대 대형 1대의 주차만이 필요하다. 하지만 병산서원은 관광지 특성상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이 주된 탐방객 층을 이루고 있다. 대학생 체험단과 관람객이 집중되는 8월과 수학여행철인 4~5월에 관람객이 많다. 이를 감안하여 소형 20대와 대형 4대의 규모로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 공용 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서원으로부터 약 200m지점인 15-19, 15-20번지의 면적 1,366㎡와 약 500m지점인 13-5번지의 면적 1,400㎡로 하고, 전면에는 주차장이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전통수종으로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주차장의 바닥마감은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럭으로 조성한다.
- 특히 대형버스가 충분히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주차장 내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대상지 1은 서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으로 서원과의 이격거리도 적당하며 원병산마을의 시작위치에 놓여있어 현재 자동차교통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지 2는 서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외곽으로 시설 설치 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나 서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원까지 가는 탐방로에 도보에 용이하도록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 계획 대지 현황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	
대상지 1	15	19	과수원	188	최지선
	15	20	과수원	1,178	최지선
대상지 2	13	5	전	1,400	김홍달



PLAN1 계획대상 대지



PLAN2 계획대상 대지



잔디블록 예시-1



잔디블록 예시-2

2-3. 관람편의시설정비

2-3-1. 문화재안내판 및 이정표

1) 현황

- 현재 병산서원에는 종합문화재안내판과 개별안내판, 이정표, 표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종합문화재안내판은 현재 병산서원 전면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개별 안내판은 강당인 입교당과 내삼문의 전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이정표는 문화재 진입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 위치 및 출입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 관람객들의 탐방동선을 고려하였을 때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색바래고 일부 파손부분이 확인된다.



제향영역 안내판



강학영역 안내판



병산서원 이정표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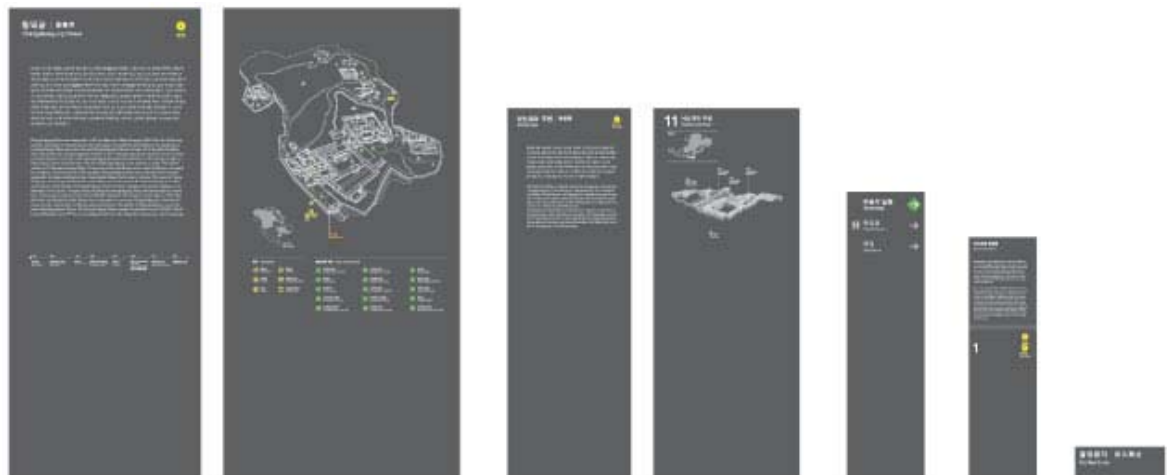
병산서원 이정표 현황-2



병산서원 종합안내판

2)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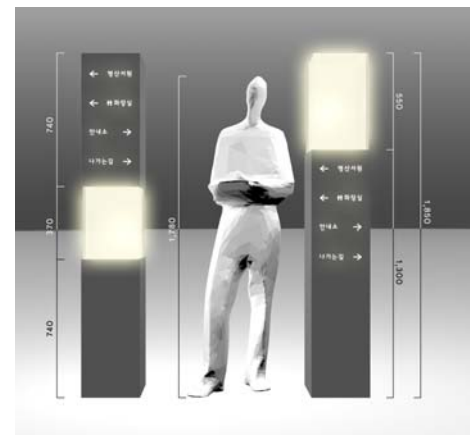
- 문화재 안내판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고 안내판의 종류와 수량도 적정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개별안내판의 경우 색바래고 일부 훼손이 확인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 이정표는 서원에 설치된 안내판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같은 재질로 정비하도록 하며, 이정표가 관람자의 보행 동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정표와 가로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서원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경관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의 안내판 크기



안내판 정비예시-1



안내판 정비예시-2

2-3-2. 화장실

1) 현황

- 병산서원의 경우 내부에 전통양식의 화장실과 외부에 머슴들이 사용하던 달팽이 뒷간과 정비를 통해 마련된 현대식 화장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 외부 현대식 화장실은 2×1칸 규모의 남·녀로 구분되어진 맞배지붕 건물이며, 남쪽으로 진입부를 두고 토석담장을 설치하였다.



내부 전통식 화장실



외부 현대식 화장실



달팽이 뒷간



달팽이 뒷간 내부

2) 정비계획

- 기존의 전통식 내부 화장실과 고직사 앞 달팽이뒷간은 병산서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통해 많이 알려진 볼거리로 예전의 화장실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문화 자료로 별도의 정비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 현대식 화장실의 경우 형태 및 재료의 사용에 있어 문화재의 경관에 어울릴 뿐 아니라 현재의 문화재 관람객들의 편의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3-3. 휴게시설

1) 현황

- 현재 병산서원에는 주차장 옆에 설치된 음수대와 몇 몇의 벤치만 있을 뿐 따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분리수거통도 외부 현대식화장실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휴게시설 현황-벤치



휴게시설 현황-음수대



휴게시설 현황-분리수거통

2) 정비계획

- 휴게시설은 공간특성,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기능 위주의 최소 규모로 계획하며, 성인과 아동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심플한 구조와 개방감 있는 형태로 계획하며 한 공간 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자연적 느낌의 재료를 도입하여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 벤치는 일반적으로 관람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원 진입로 주변과 서원 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강변과 현 주차장에 나무그늘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음수대는 양호한 편으로 청결한 관리에 힘쓰도록 하고 분리수거통은 외관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로 하여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하며 서원 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 등 외곽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휴게의자 사례-1



휴게의자 사례-2



퍼걸러 사례



음수대 사례-1



음수대 사례-2

3. 경관정비계획

3-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3-1-1. 서원의 경관 가치

■ 고유성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었는데,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는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중국 송양서원(후주)



중국 악록서원(송나라)



중국 응천서원(송나라)

■ 조화성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과 책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꾀해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아호서원 입지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3-1-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 전제조건

서원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천인합일’의 사상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현재 서원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 서원의 경관을 심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본 경관



도동서원 주변 경관

과거의 현재의 경관을 통해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

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⁶³⁾

■ 보존 방향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정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 서원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힘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을 발굴하는 것

조선의 서원은 서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자연이 빼어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하고 구곡시가九曲時歌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곡도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면서 성리의 이념을 꽃피우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구곡문화九曲文化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곡문화를 조사·발굴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서원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여 서원경관의 활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을 발굴·도입한다. 단 도입하는 경관은 기존의 서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1-3. 보존영역의 설정

■ 서원경관의 보전 범위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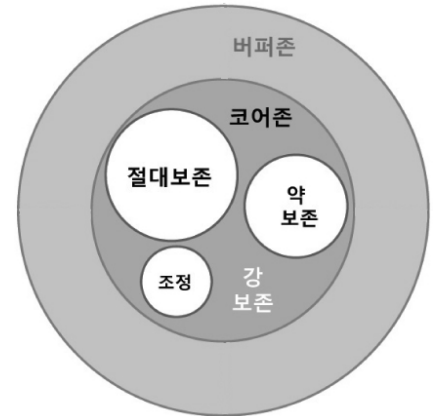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63)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보전관리 계획, 2010, p.1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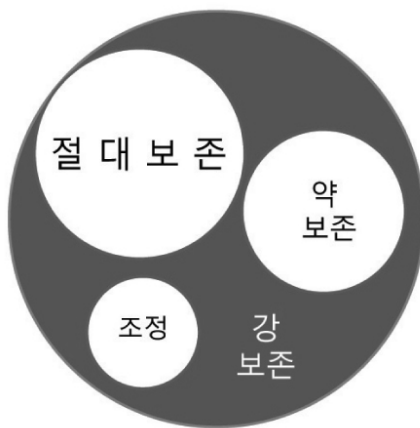
■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존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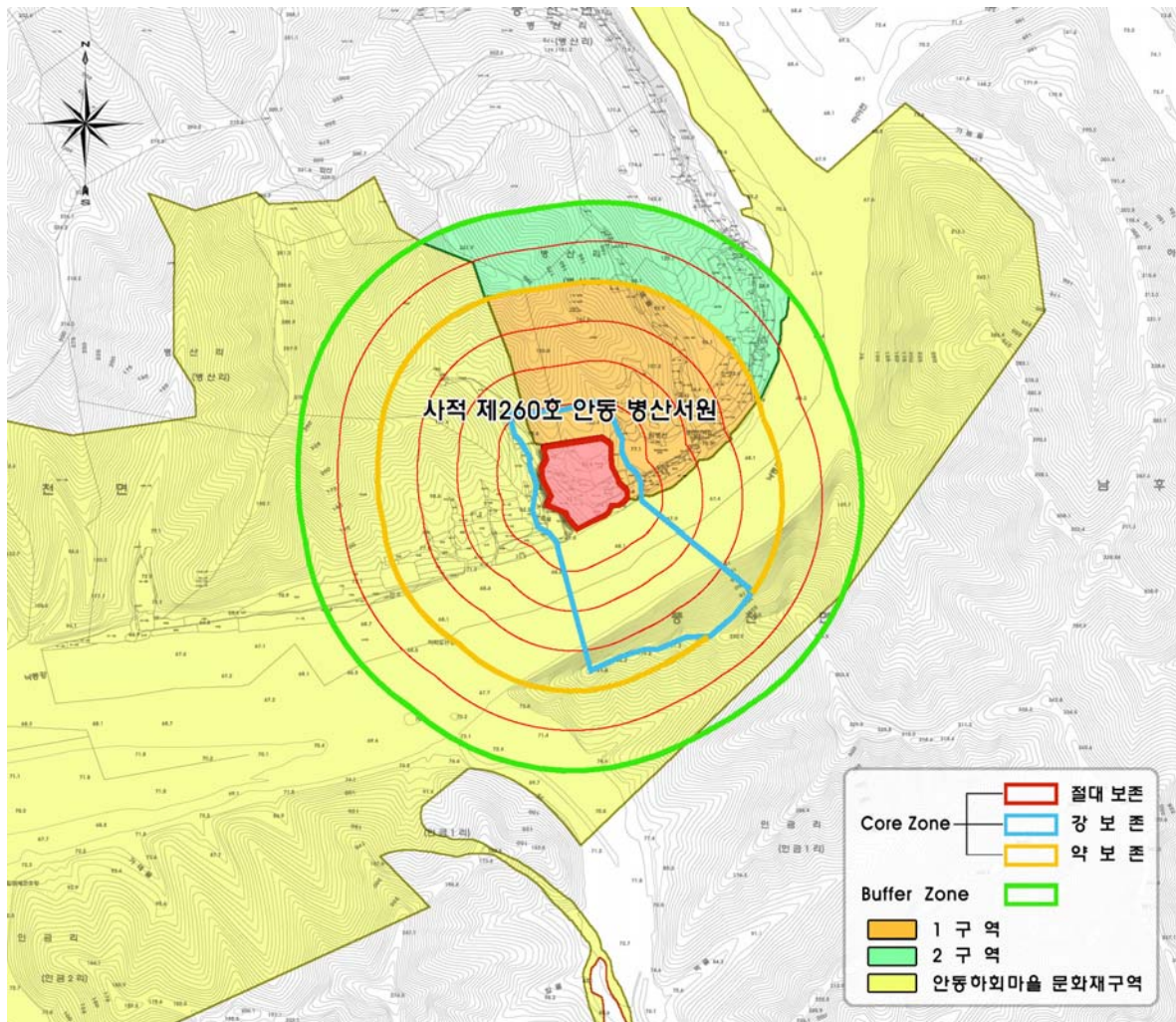
서원의 보존 범위



절대보존지	절대적인 보존 가치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동결보존이 필요한 곳
강보존지	'절대보존지'보다는 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절대보존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완기능 수행 및 주로 문화재를 제외한 건물 및 외부공간이 해당
약보존지	보존가치가 낮으며, 마을 중심과 이격되어 있어 마을 전체적인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융통성 있게 흡수하여 마을의 생명력을 유지, 확장 할 수 있는 곳
조정지	원형에서의 변화 정도가 가장 심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이며, 입지상 마을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의 도입이 가능한 곳

보존 위계 설정

3-2. 경관보존구역 설정



병산서원 경관보존구역 설정

3-2-1.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의 설정

■ 코어존

병산서원을 기점으로 병산서원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연계하여 구역을 설정하여 보존한다.

병산서원의 가시·조망권에 들어오는 서원 전면의 산능선 내부와 병산서원이 입지 배경이 되는 화산봉우리를 기점으로 좌우 능선을 경계로 코어존을 설정하여 병산산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지조건을 보존하도록 한다.



병산서원 배면(화산) 조망



병산서원 우측(동측) 조망



병산서원 좌측(서측) 조망_만대루에서



병산서원 전면(병산) 조망_만대루에서

■ 버퍼존

병산서원 경관의 간접영향권으로 코어존의 기준이 된 서원 주변 산능선에서 조망되는 2선의 산능선을 연결하여 버퍼존으로 설정하여 병산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공간이 되도록 한다.

3-2-2. 코어존 내부의 구역설정

■ 절대보존구역

병산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자연 경관구역으로 서원을 포함하여 만대루 전면의 낙동강과 백사장 구역으로 동결보존하도록 한다.



병산서원 근경



병산서원전면 백사장과 병산풍

■ 강보존구역

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주는 보완적 공간으로 절대보존지역의 전면의 백사장과 조망이 되는 전면의 병산 절벽 부분을 강보존 구역으로 설정한다.

■ 약보존구역

병산서원의 배경이 되는 화산정상부로부터 좌우 능선과 강보존지역 좌우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서

원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이며 보존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서원의 고유한 입지조건에 포함되어 서원 경관의 완전성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으로 약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3-3. 주변경관정비

3-3-1. 현황

- 병산서원은 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화산 남쪽 완경사지에 남향으로 위치하며, 서원 전방으로 낙동강이 백사장과 함께 흘러가고 강 건너 편에는 병산의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매우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 서원으로 진입하는 가로경관은 은행나무가 한쪽으로 열식 되어있고, 서원 뒤쪽은 소나무림으로 산림경관을 이루고 있다.
- 서원 내부는 배롱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꽃사과, 오죽, 박태기나무, 무궁화, 눈주목 등이 전통조경적 경관을 이루고 있다. 장소별로는 진입공간에는 배롱나무, 눈주목, 박태기나무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에는 매화나무, 무궁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당 앞마당과 장판각 지역에는 배롱나무, 주목, 오죽 등이, 전사청 지역에는 감나무, 배롱나무, 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광영지에는 부들, 부레옥잠, 좀개구리밥 등 수생식물로 이루어져 있다.
- 특징적으로 사당공간의 안은 식재구역이 없으며, 강학공간도 무궁화와 매화나무만으로 매우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당의 경우 봄, 가을로 거행되는 향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강당의 경우 전정은 재야 유사들의 결사 내지 집회거점의 역할을 해 온 유회가 열린 곳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강학공간 전면의 연속공간으로서의 진입공간은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단을 지어 연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식생구조의 경우, 단식의 경우 강학공간을 제외하고 배롱나무의 비중이 높고, 강학공간의 경우 입교당 앞에 무궁화 한주, 동·서재 앞에 매실나무 한주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편 복레문과 만대루 사이의 계단에는 박태기나무와 배롱나무가 혼식되어 있다.

- 주차공간 및 주변 휴게공간은 은행나무, 아까시나무, 왕버들, 배롱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반송, 전나무, 왕벚나무, 개나리, 잣나무, 무궁화 등이 조성되어 있고, 기타 환삼덩굴, 쇠뜨기, 강아지풀, 갯이밥, 질경이, 바랭이 등이 자생하고 있다.
-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자원은 유교문화길을 따라 하회마을까지 탐방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원의 뒤로는 소나무군락으로 이루어진 화산과 만대루 전방으로 병산, 낙동강, 백사장이 펼쳐진다. 서원 내 위치하는 배롱나무 보호수와 진입로 주변 느티나무 보호수 2주가 있고, 가까운 주변에 풍산평야, 구담습지, 마늘봉이 분포한다.
- 또 지금은 병산십경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잊혀졌지만, 병산과 낙동강과 병산서원이 만들어내는 경치는 옛 운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문헌 및 전언을 통해 병산십경을 조망해 볼 수 있다.
- 병산으로의 조망은 문화재 내부에서 외부까지 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원의 웅장한 건물은 인공적인 서원 건축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 건물의 기둥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과 병산은 마치 7폭의 병풍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문화재 외부공간에서 병산으로의 조망점 또한 오픈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 및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편의 시설(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 하회마을의 만송정처럼 병산서원에도 비보림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병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살기를 막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1971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는 송림이 확인되나 현재의 사진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두 그루의 소나무에서 송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내부에서의 조망



만대루 조망



배롱나무 보호수 조망



느티나무 가로 조망



백사장 조망



노송 조망



서원 앞 송림-1971년 항공사진



서원 앞 노송-현황

3-3-2. 정비계획

■ 만대루 주변 경관

- 만대루 조망점에서 좌측으로 밀식된 오죽은 낙동강의 조망 및 개방감을 방해하고 있으며 주변의 불량한 건축물을 감추기 위한 조치는 건축물 주변으로 차폐식재를 함으로써 조치해야 한다.
- 우측으로 조망되는 전나무는 전방의 조망을 방해하고 이질적인 높이감을 보여줌으로써 서원 진입공간의 배롱나무와 병산의 스카이라인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수목을 이식 또는 제거하여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
- 배롱나무는 병산서원의 배향인물인 류성룡이 선호하던 수종으로 남부지방의 지역적 풍토에도 가장 잘 어울리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현재도 많은 서원에서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다. 병산서원을 대표하는 수종이므로 서원 입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한 축선의 설치가 요구되어 동선에 연결하여 배롱나무와 명자나무를 교호식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원 경외인 입구부에 식재되어 서원 건물이나 조망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서원 입구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식재법이긴 하나 정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추후 자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자연풍경식 식재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백사장 조만대루 좌측



백사장 조망

■ 제방 주변 경관

- 병산서원 진입공간 및 주차공간과 붙어있는 제방주변은 잡목으로 경관이 불량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제방은 병산서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자연과 역사공간의 경계로써 주요 조망지점이 됨에 따라 잡목제거 및 기존 조성된 수목을 활용하여 제방산책로를 만들어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서원 전면 제방 현황-1



서원 전면 제방 현황-2

■ 서원 주변 경관

- 서원 주변에는 안내시설판, 공가, 4륜바이크, 인공구조물 등 역사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불량한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 안내시설판은 재료, 색채, 위치 등을 잘 선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제작하고, 주변 공가는 서원과 어울리게 정비하여 체험이나 기타 공간으로 활용한다. 기타 불량시설물과 서원내 CCTV용 인공구조물은 제거 및 교체한다.
- 병산은 병산서원의 경관 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외부 조망 경관 정비의 일부로 병산으로의 조망을 관찰할 수 있는 조망 안내판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 현재 남아 있는 병산에서 병산십경의 흔적을 찾아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크기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주변 안내시설



주변 공가



상업시설물



인공구조물



병산십경안내판 예시-1 (서울 생태문화길)



병산십경안내판 예시-2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 명소 안내판)

■ 수목경관

- 병산 및 낙동강 백사장의 조망을 방해하는 잣나무, 느티나무 등의 교목류는 이식하거나 가지 치기하여 탐방객에게 수려한 전경관을 제공토록 한다.
- 서원 내 광영지 주변의 밀식된 오죽은 이식 및 제거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진입공간 주변 개 나리도 제거하여 진입공간에서 바라보는 서원경관을 확보한다.
- 제방 주변으로 남아있는 노송 2주는 보존하고 주변 일부 지역을 병산서원 전면에 형성되었던 송림으로 서원관계자의 전언과 1971년 위성사진 등을 검토하여 복원토록 한다.
- 병산서원 전면에 형성되었던 비보림인 송림을 서원관계자의 전언과 1971년 위성사진 등을 검토하여 복원하도록 한다.



서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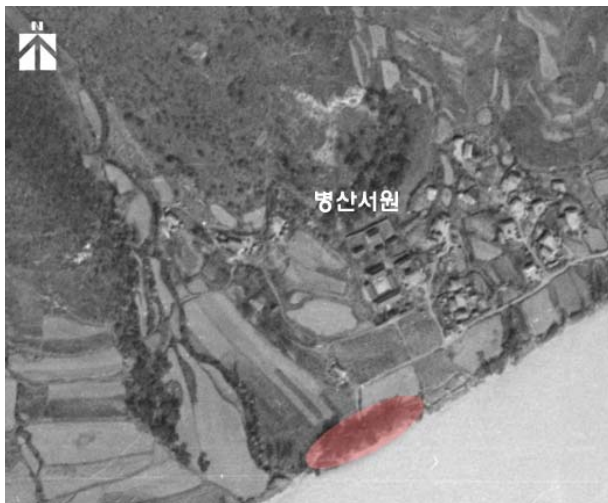
광영지



복례문 앞 개나리 밀식



제방주변 노송



송림구역-1971년 항공사진



송림복원 계획구역



송림 정비 모델-하회 만송정



송림 정비 모델-하회 만송정

3-4. 마을 정비

3-4-1. 현황

- 병산서원으로 진입로를 따라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기준으로 동북방향으로 60~200m거리의 범위로 형성되어 있다.
-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거를 기본으로 하며 상업(기념품 판매장, 민박, 레저스포츠 시설물), 문화집합시설(미술관) 외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나타난다.
- 대부분의 상업용도 건축물은 진입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상업의 용도를 알리는 간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 사용하지 않는 가옥이 나타나며, 가옥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 및 담장 등이 붕괴되어 있는 구간이 확인된다.



마을 위치도



간판 설치 현황-1



간판 설치 현황-2



간판 설치 현황-3



간판 설치 현황-4



상업시설 현황-1



상업시설 현황-2



상업시설 현황-3



문화집합시설 현황



담장 파손 현황



시설물 파손 현황



마을 조망점



조망 1-1



조망 1-2



조망 1-3



조망 1-4



조망 2-1



조망 2-2

3-4-2. 정비계획

- 마을이 병산서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경관 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가옥의 외관 및 기타 시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가옥의 외부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경우 색상 및 재질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마을에 어울리는 전통 양식의 재료 및 형태로 정비하도록 한다.
- 도로변의 상업시설의 상호 및 용도를 알리는 간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병산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질의 간판 디자인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정비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단기에는 도로면의 가옥에 대한 입면 리모델링을 장기에는 가옥의 입면 및 지붕재료 등을 정비하여 병산서원과 어울리는 마을로 정비하고자 한다.
- 특히 진입로 좌측편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집합시설(미술관)은 현재 서원에서의 조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차폐를 위하여 서원 만대루 좌측으로 식재를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만대루에서의 경관조망 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폐를 위해서는 미술관의 우측으로 차폐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미술관을 매입하여 철거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원병산마을은 병산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보존구역)에 속하므로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이 가능하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병산서원 주변 정비대상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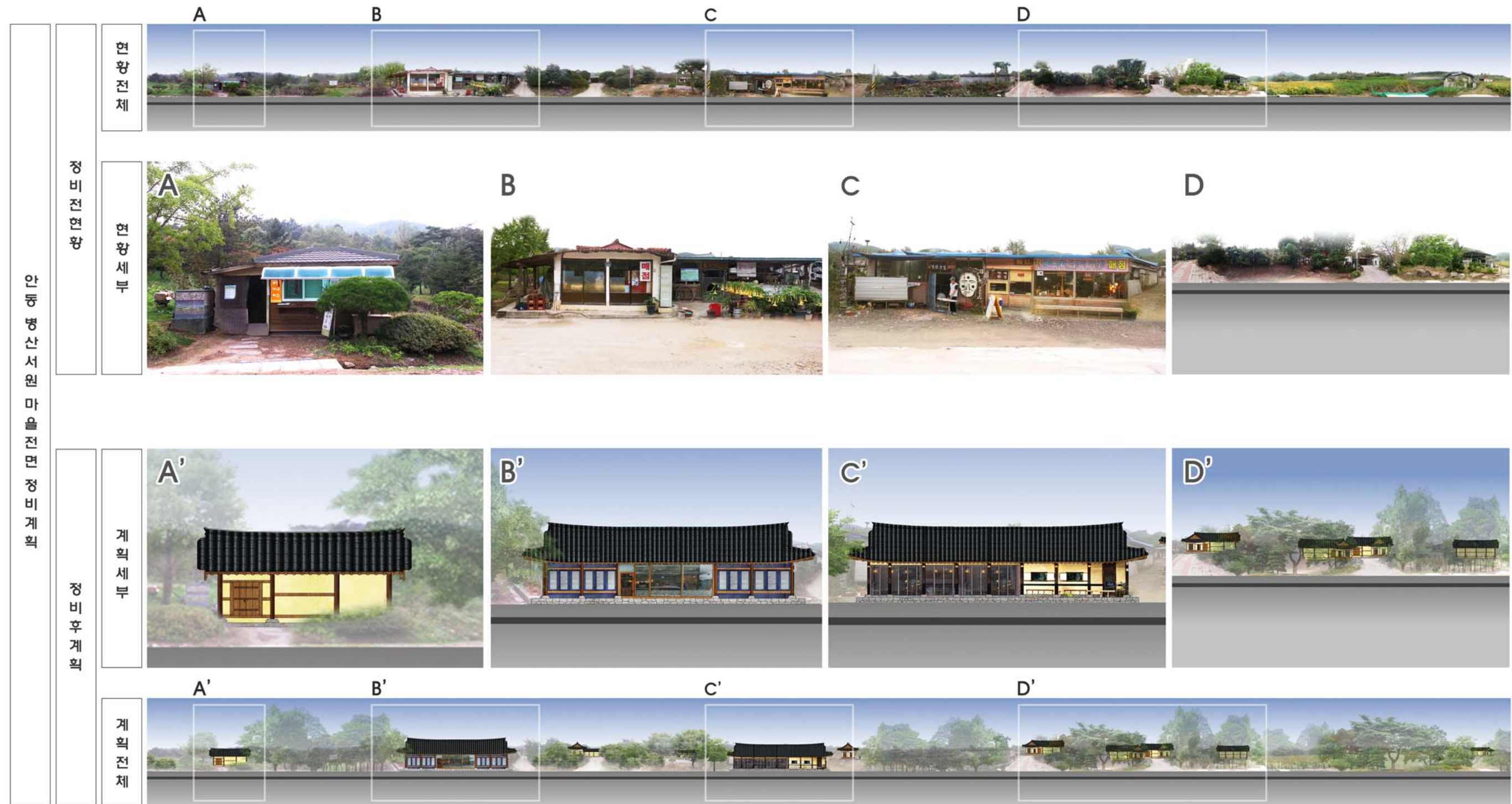
■ 가옥별 현황 및 정비 형태

번호	지 번	가옥 전경	위 치	현 황	정비계획
1	374번지		입 면	조적조(시멘트블록) 가설확장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2	372번지		입 면	조적조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3	368번지		입 면	조적조(시멘트블록) 가설확장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4	368-1번지		입 면	조적조(시멘트블록)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번호	지 번	가옥 전경	위 치	현 황	정비계획
5	366번지		입 면	조적조(시멘트블록)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6	362번지		입 면	목조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7	360번지		입 면	조적조(파이프, 비닐)	한식회벽
			지 붕	골슬레이트	한식기와



원병산마을 정비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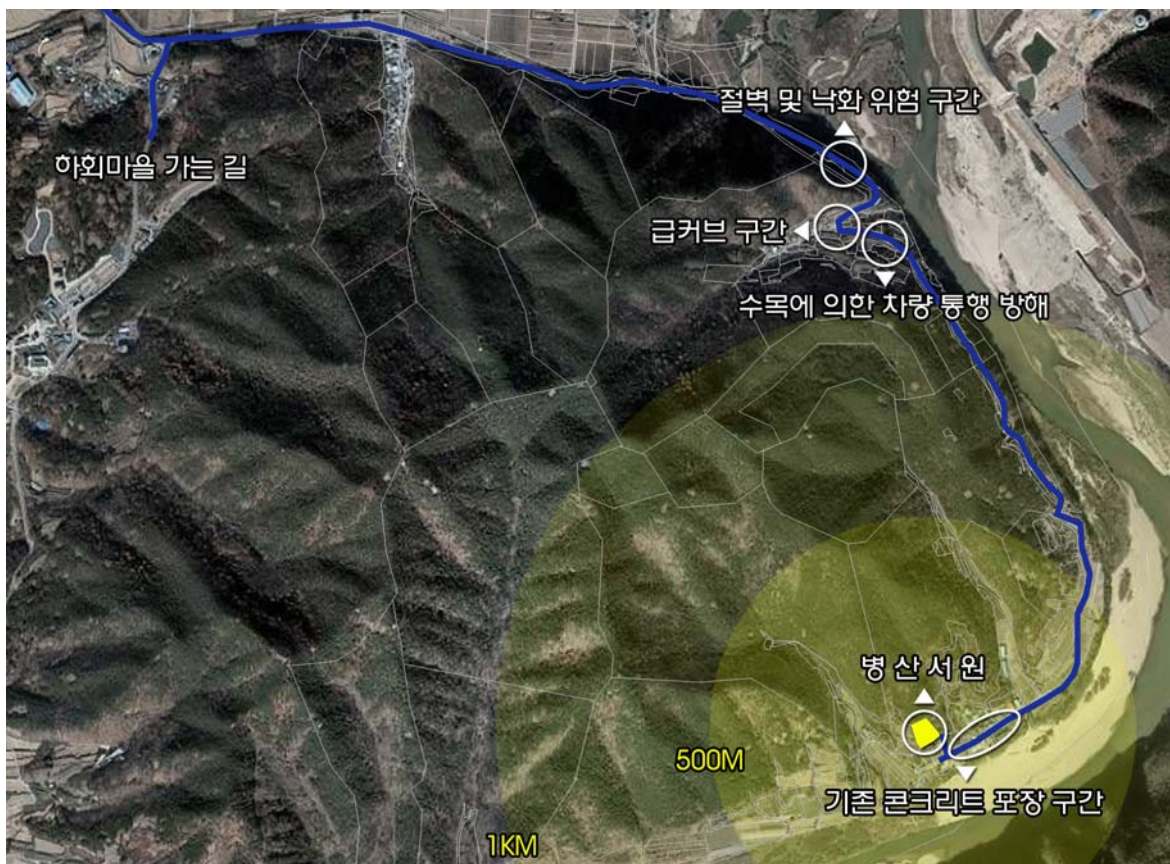


원병산마을 정비 상세도

3-5. 진입로 정비

3-5-1. 현 황

- 도로명은 군도 5호선으로써 어담~하회간 도로이며, 도로길이는 약 L=3km, B=4m(비포장구간)로써 효부골~병산서원까지이다.
- 비포장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진입과 교차통행이 어렵고, 악천후 시 일부 급경사 및 급커브구역의 통행곤란과 낙동강과 인접한 도로 쪽은 일부구간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절벽으로 형성되어 낙차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 비포장 흙길로써 건조한 날씨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우천 등으로 인한 도로 세굴현상으로 노면이 불량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매년 우천 등으로 도로노면 불량 시 도로관리 부서인 안동시 건설과에서 수시로 깐자갈, 막자갈, 흙을 사용하여 노면 정비를 하고 있으며, 연평균 5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병산서원 진입도로 현황



관광안내소 입구(마을주변) 포장구간



병산서원 진입로 포장구간



급커브구간



급경사구간



낙석위험구간



추락위험구간



가지에 의한 통행방해



뿌리 및 수간에 의한 통행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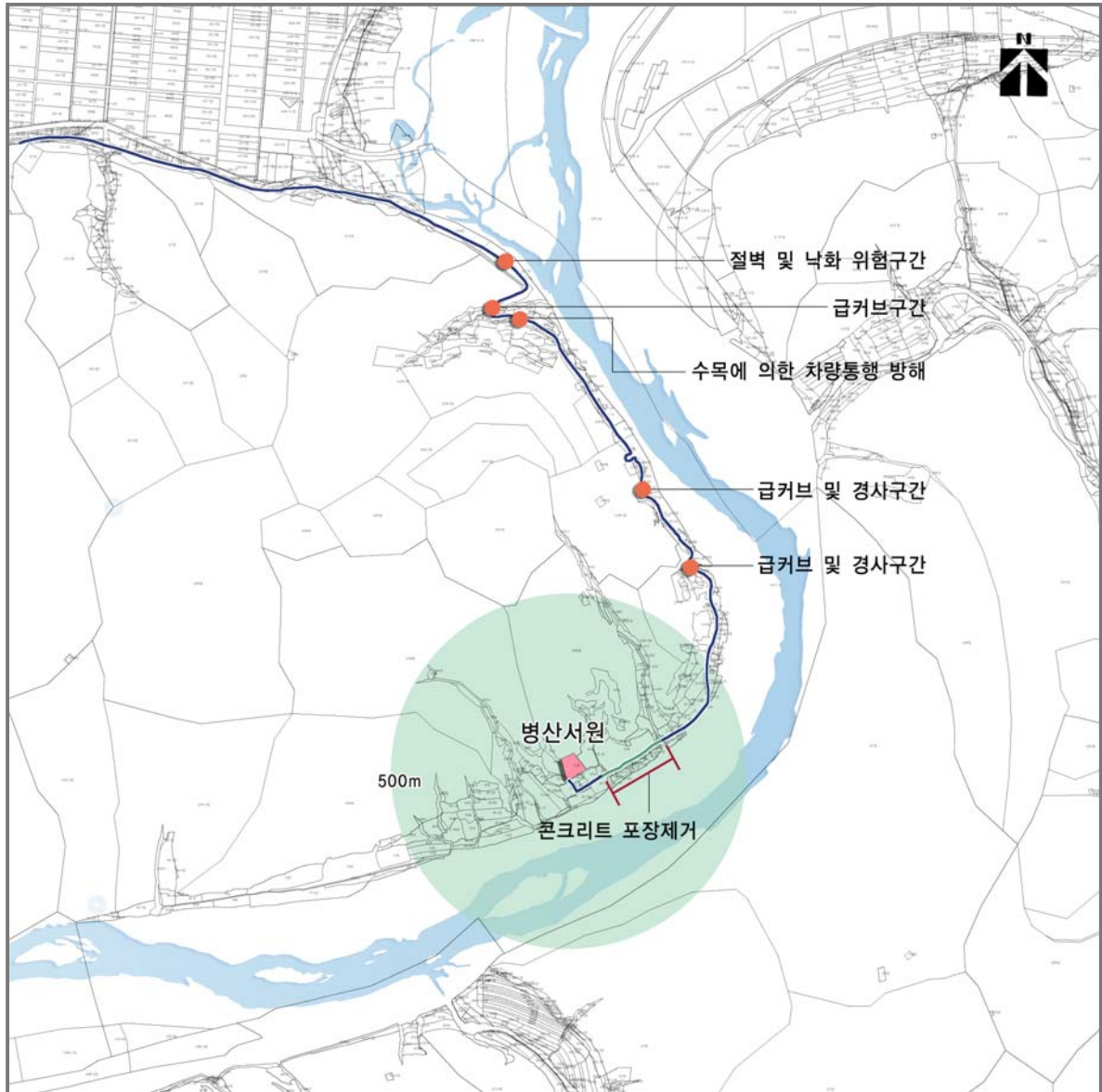
공사자재 적치



진입로주변 콘크리트담장

3-5-2. 정비계획

- 최대한 기존 흙길을 유지하면서, 위험구간에 대한 탐방객의 최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위험구간만 포장하여 낙동강변과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진입로가 되도록 한다.
-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대한 기존 포장구간을 제외한 흙길에 대하여 위험구간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포장을 함으로써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 위험구간 포장을 제외한 구간은 기존의 자연친화적인 흙길을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낙동강과 인접하여 절벽으로 이루어진 위험구간은 도로 안전구간을 확보하고 가드레일 등 낙차사고를 방지한다.
- 급커브지역이나 주행시야가 확보되기 힘든 구간은 도로반사경 등의 시설물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진입로 주변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수목은 가지치기나, 수목이식 및 제거를 통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 진입로 입구 마을길 도로포장은 모두 제거하고 자연친화적 흙길로 복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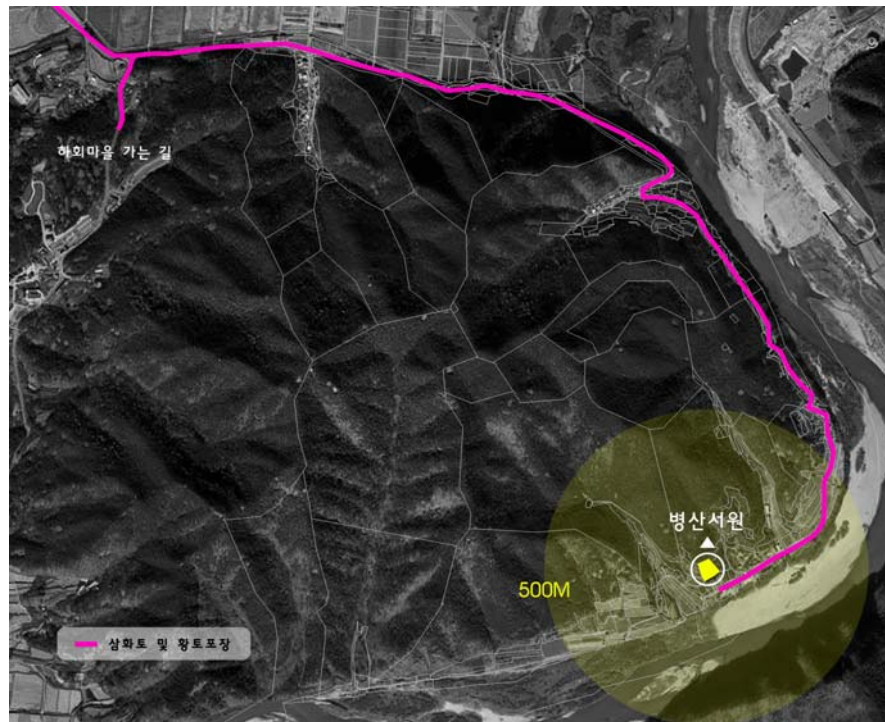


진입로 정비계획 공통사항

3-5-3. 세부 정비계획안

▪ 1 안 (삼화토 , 황토흙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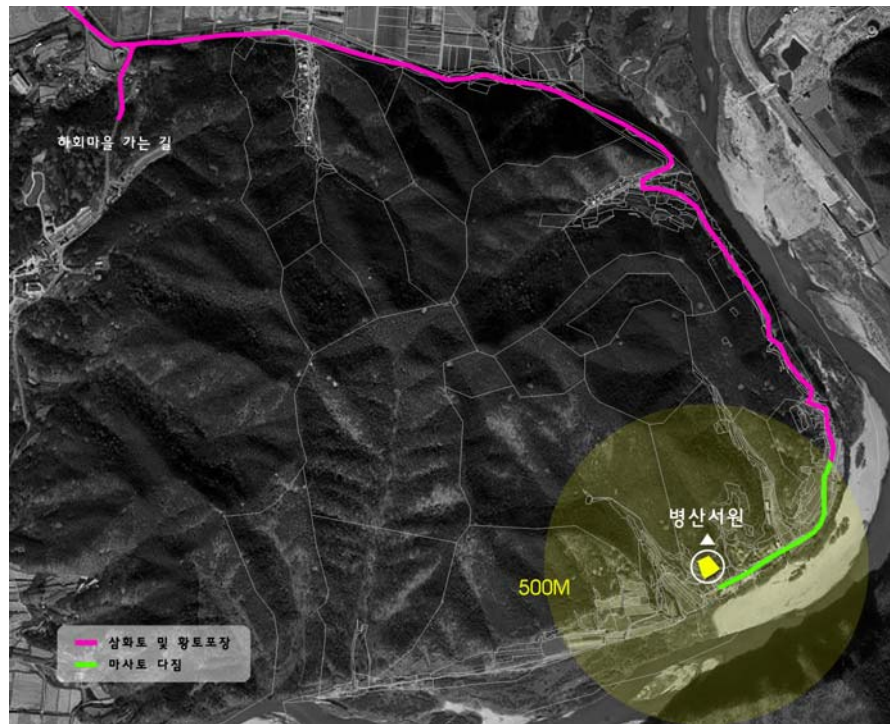
- 탐방동선 전부를 삼화토 및 황토흙포장으로 포장하는 안이다.
- 현재 길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주민의 숙원인 비산 먼지 등의 발생을 없앨 수 있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재료도 인공적인 것으로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서원이 가지는 역사경관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



진입로 정비 1안

▪ 2 안 (자연친화적 흙길+삼화토 및 황토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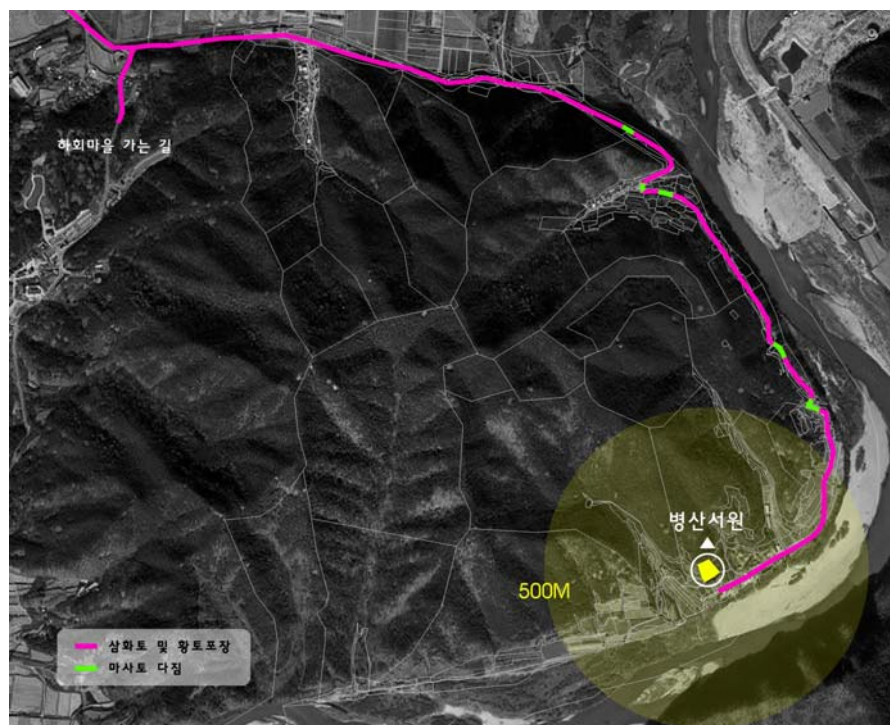
- 병산서원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500m) 내 도로는 마사다짐 등의 부분적 정비만 실시하여 기존의 자연친화적 흙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급커브·절벽·낙하위험구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외의 구간에는 삼화토 및 황토흙포장을 하는 안이다.
- 아울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내의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구간인 마을 주변의 진입로는 주차장 이전계획으로 인해 차량이 교행하지 않게 되므로 자연친화적 흙길로 복원하도록 한다.



진입로 정비 2안

▪ 3 안 (자연친화적 흙길+위험구간 부분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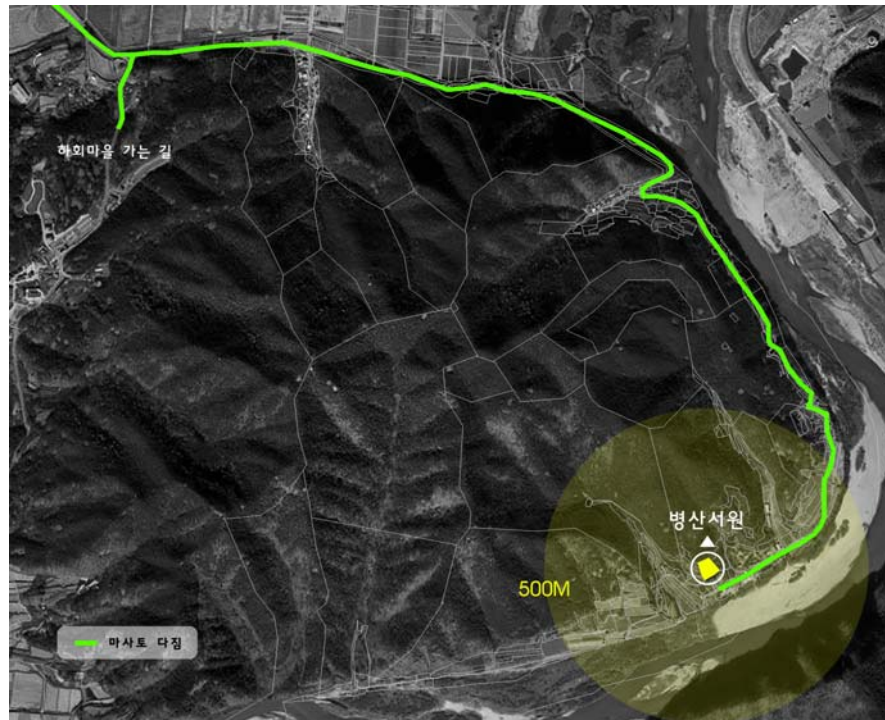
- 기존 병산서원 진입도로는 마사토다짐 등의 부분적 보수로 자연친화적 흙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절벽 및 낙하위험구간, 급커브구간, 경사구간 등의 위험구간들에 부분적으로 삼화토 및 황토포장을 하는 안이다.



진입로 정비 3안

▪ 4 안 (자연친화적 휴길)

- 현 상태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서 탐방동선 전부를 마사토다짐 등으로 최대한 자연친화적 휴길을 유지하는 안이다.
- 현재의 역사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통행에 비산먼지의 발생과 도로노면 세굴현상 등의 단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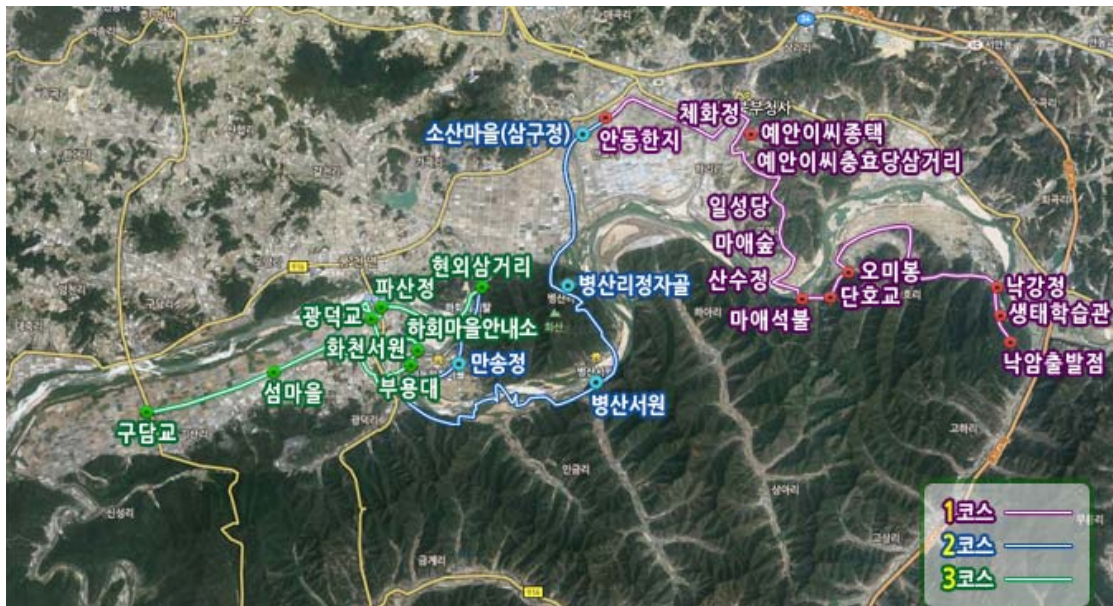


진입로 정비 4안

3-6. 탐방로 정비

3-6-1. 유교문화길

- 현재 병산서원 주변으로는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소산마을을 비롯하여 예안 이씨 충효당(보물 제553호), 삼구정(경북 유형 제213호) 등 무수히 많은 유교 문화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 현재 「문화유산과 이야기가 있는 유교문화길」이란 이름의 탐방로가 조성되어있는데, 총 3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병산서원은 제2코스에 속해 있다.



유교문화길

3-6-2. 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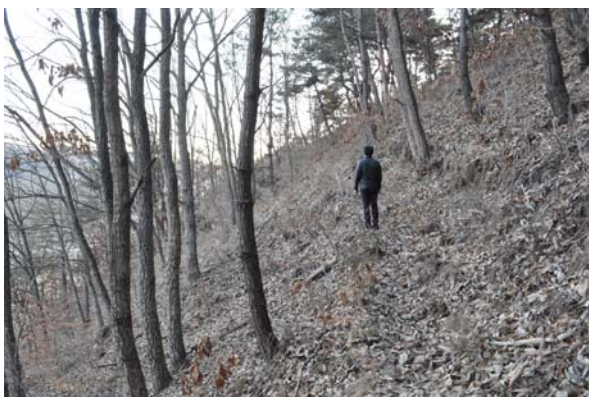
1) 현황



탐방로 현황-1



탐방로 현황-2



옛길 추정지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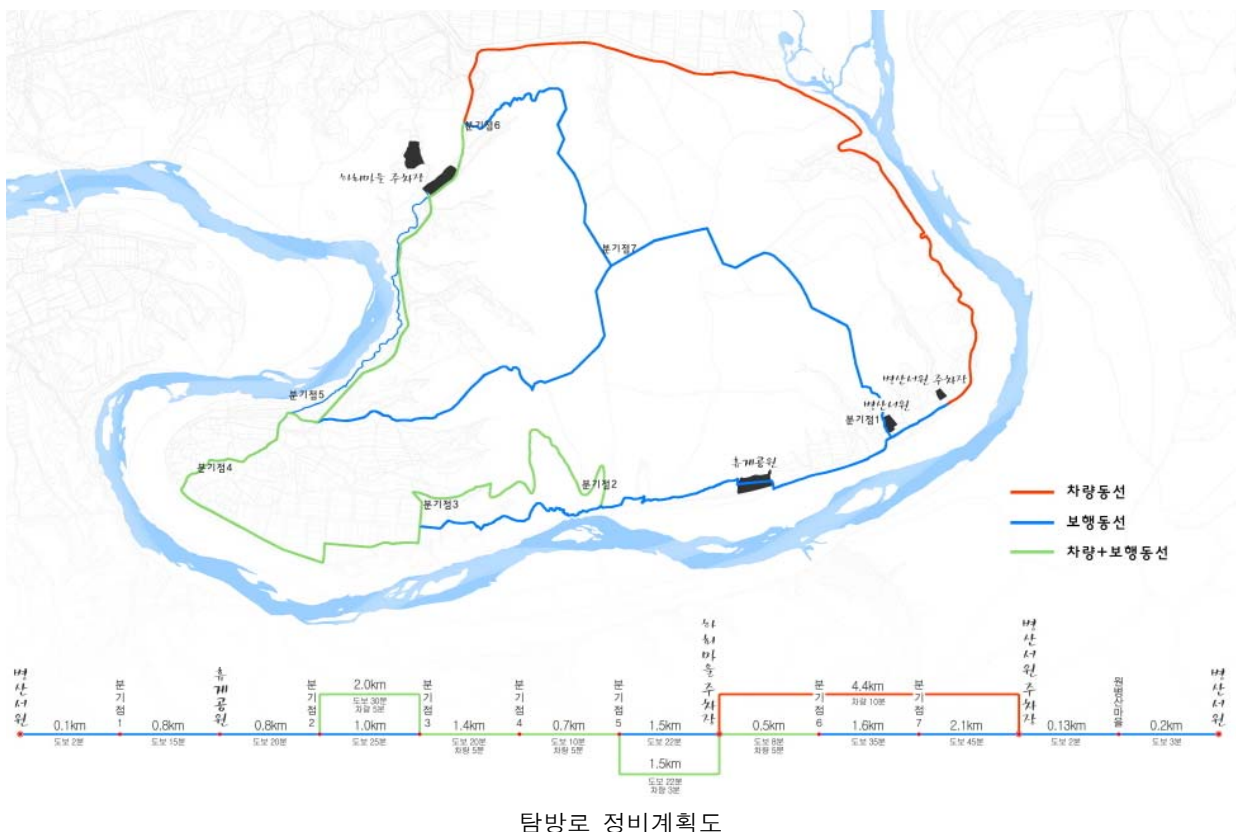


옛길 추정지 현황-2

- 전언에 따르면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있어 하회마을의 유생들이 그 길로 병산서원으로 왔다고 한다.
- 옛길은 산 능선 아래쪽으로 나 있어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 마을주민의 전언에 맞는 옛길을 찾아 본 결과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좁고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정비계획

- 하회마을에서 병산서원으로 오가던 상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까지 약 3km구간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 현재 약 2km의 구간은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일부구간이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약 1km구간은 안전난간대 설치 및 길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 또한 옛 길에서 병산과 낙동강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쉬어갈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여 탐방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탐방로 정비사례

	삼화토 포장		경화흙포장(습식)		황토포장(건식)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색으로 자연스러운 모래길 느낌을 가짐 - 경차 진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색으로 포장면이 매끄러움 - 차량 출입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색으로 자연스러운 황토길 느낌이 남 - 차량 출입 불가 	
사례						

4. Master plan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 서원관리계획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3. 관리현황종합
4. 활용계획
5. 홍보방안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 서원관리계획

1-1.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목적

관리 및 활용의 구체적 목표는 문화재청에서 발간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서원을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⁶⁴⁾,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태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서원의 건축물 보존관리, 고문서(서적)과 자료의 보존관리, 경관 보전관리, 안전 관리 등으로 구분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의 목표

대상		구체적 목표
서원의 관리 및 활용	건축물	·서원의 보수 및 정비 활용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고문서(서적)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에 대한 사항
	자료	·서원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경관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 대한 사항
	안전	·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1-2. 계획의 범위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계획의 범위는 기존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⁶⁵⁾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64)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문화재의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자산, 기풍과 저서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특히 고고학적 유적이나 역사적 건축물, 시가지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은 예술적, 창조적 우수성에 관한 것이며 진실과 진짜를 강조하고 있다.<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베니스 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등 참조

65) 문화재청, 201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서원은 건축, 제향, 인물, 고문서, 의례 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종합적 문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보존·관리는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⁶⁶⁾인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주형 문화유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원의 보존이란 단순히 원형 그대로 문화적 상징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완전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보존관리실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서원의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서원보전의 목적을 제시하고 보존 시행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원의 보존관리주체⁶⁷⁾는 법이 제시한 기본 목적과 시행의 틀을 적용하여 보존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로 서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크게 법에 의해 임명된 주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6)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발췌한 용어로 하회·양동 마을과 같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주형 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67) 현재 도산·병산서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 [서원 운영·존현의례(운영위원회), 양사(선비문화수련원), 시설관리(관리사무소-안동시), 서책·목판보존(한국국학진흥원)]

3. 관리현황종합

3-1. 관리주체

병산서원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서원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로 서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 경상북도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등의 도정 업무를 통해 서원관리와 활용 정책 및 지원에 관여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비해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취한다.
- 안동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병산서원의 보전관리를 위임 받은 대표적 관리주체로 마을의 유지보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공적 성격의 보전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동시는 조례에 따라 병산서원관리사무소를 두어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객 관리를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다.
- 서원에는 병산서원 운영위원회가 있다.

3-2. 서원관리체계의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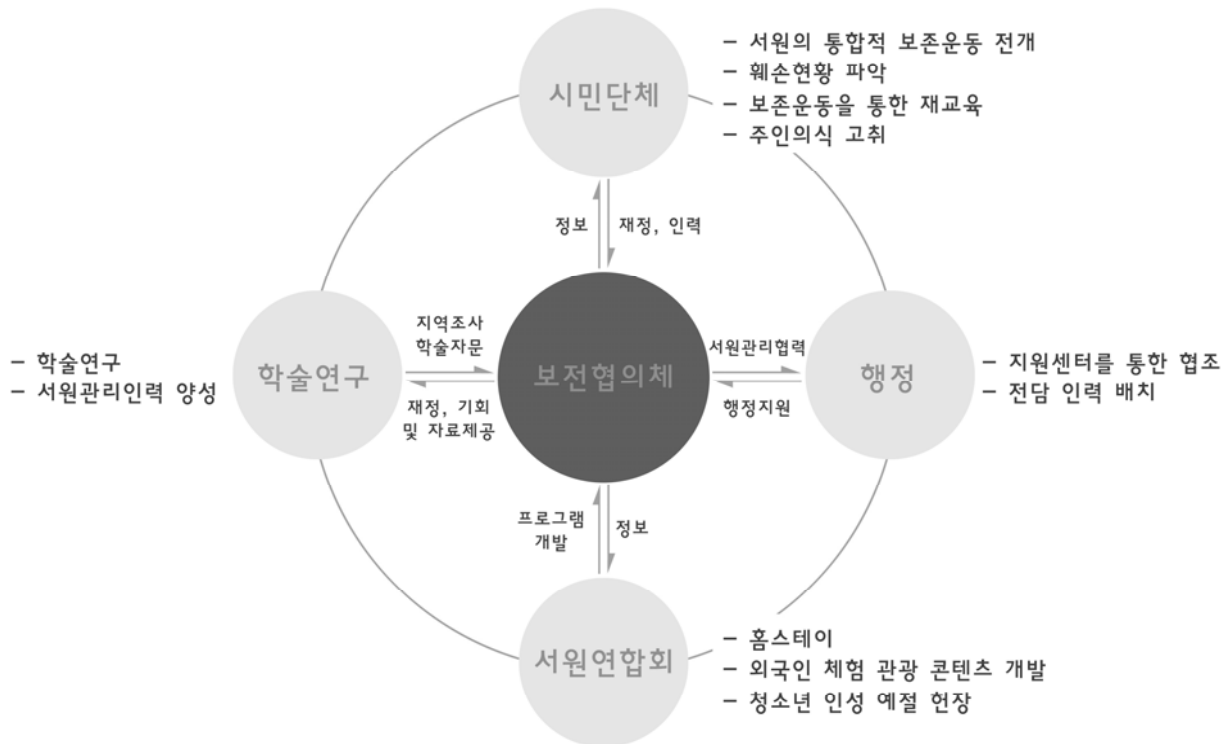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병산서원의 보존관리는 사적으로서 개념적으로는 광역보존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보존 및 복원행위는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점적 보수에 집중되고 있다

-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하향식 보존관리 및 점적·물리적 문화재 중심의 유지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에 위치한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 국가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설계에 한정되어 서원 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어렵다.
-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원 관리의 불편이 있고 전통경관의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3-3. 준공공단체 수립의 제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안동시, 병산서원 운영위원회, 전문가 및 단체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구상하여, 병산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지자체-서원 운영위원회>의 순환적 체계에서 병산서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재구성 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단체인 병산서원 보존협의체를 수립하여 관련 집단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원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존협의체를 활용한 협업네트워크 구성

- **시민단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관리, 홍보에 대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원 보존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술연구** : 병산서원의 학술연구 조직으로는 부설양사기구,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촉지 유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술연구 조직을 활용하여 병산서원 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보존, 관광, 홍보 등 서원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존협의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행정** : 해당 지자체인 안동시청 내에 보존협의체 지원센터를 두고 서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한다. 공무원과 보존협의체의 긴밀한 행정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원관리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서원연합회** : 방문객의 수와 관광유형을 조절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 관광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을 교육하여 관광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한다.

3-4. 준공공단체 수립의 전제 조건⁶⁸⁾

서원의 보존·활용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협의체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주체, 대상, 주체와 대상이 구성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그 기본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다.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요소

요소	기본 목표	내용
주체	활동의 모체가 되는 조직의 확보	역사유산의 이해 / 활동의욕
	행정의 협동체계	교육 / 주체 활동의 지원 / 계획의 수립
대상	정주환경의 지속성	생활환경 보전 및 향상 / 경제적 기여
	문화유산의 지속성	자원의 발굴 / 재인식 / 보존
	방문객 만족도의 지속성	환대의식 / 정보제공 / 쾌적한 환경
체계	정보공유와 협동체계 정비	정보 및 정책결정의 공유
	수익환원 체계 형성	관광 수익에 의한 자원 확보
	모니터링의 결과 반영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3-4-1. 주체

- 병산서원의 보존 및 활용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조직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는 보전협의체가 중심역할을 하며, 향후 필요한 실무인력과 공무원, 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을 확보한다.
- 보존·활용에 관련된 마을의 조직과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유산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마을관광의 계획과 실무에 의욕적인 활동을 보일 것이며, 마을 외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얻는다.

3-4-2.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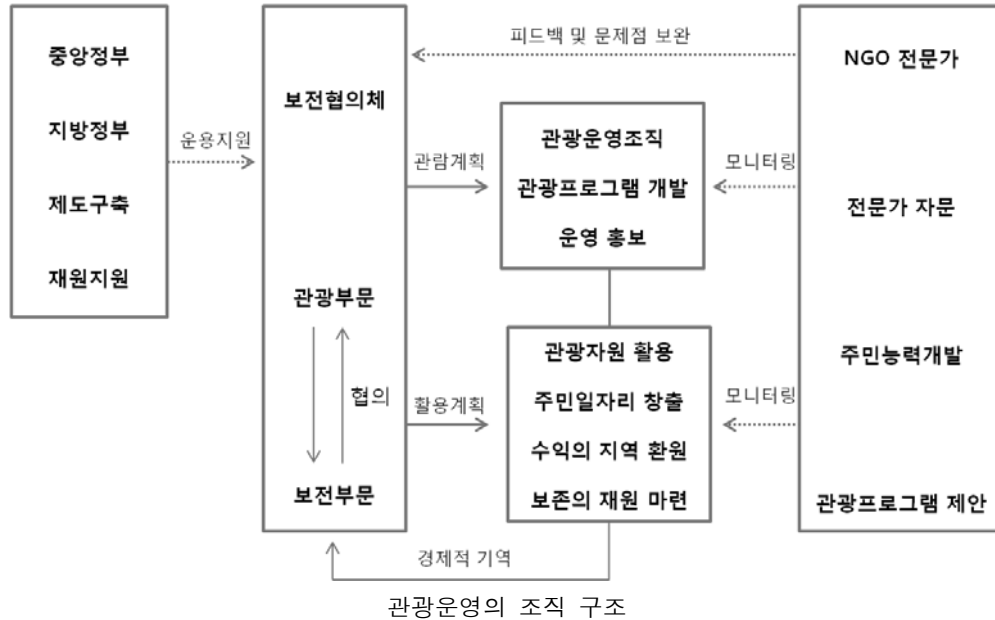
- 병산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고유의 문화적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서원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또한 마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현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쾌적한 환경과 환대 속에서 방문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3-4-3. 체계

- 병산서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원의 보전협의체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장하고, 관람자원을 관리할 운영조직을 갖춘다.

68)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Appendix2. 보전관리 계획), 문화재청, 2008년, 인용 및 활용

- 보존협의체 내에서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원에서 진행할 관광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서원의 보존·관리프로그램과 운영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할 예산을 뒷받침할 관람수익을 확보하는 경제 구조를 갖춘다.
- 정부는 보존협의체와 관람운영조직이 조직되어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보존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초기 재원을 지원한다.



3-5. 준공공단체 조직 구성

3-5-1. 보존협의체

보존협의체는 병산서원 운영위원회가 보존·활용에 대한 초기 기획과 내용을 제안하고 향후 보존협의체 내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보존협의체는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결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행한다.

보존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

	주요 활동 내용
보존협의체	연간 관광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관광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주요 보직의 임명
	관광운영조직의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 인력의 채용, 모니터링 결과의 승인
	관광객의 방문에 응대하는 방법과 태도, 권리 등에 대한 주임 교육
	관광 수익의 관리 및 마을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3-5-2. 관광운영조직

관광운영조직은 관광 실무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병산서원은 운영위원회가 관광운영조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보전협의체가 운영위원장Director, 학예사Curator 2~3인, 사무국장Office Manager, 감사Auditor를 임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다른 인력은 학예사와 사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고용하도록 한다.

관광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주요역할
관광운영조직	연간관광 계획의 작성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관광 운영인력의 고용과 교육
	관광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
	방문객 서비스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이용 요금 등의 징수
	폐기물, 하수, 쓰레기 등의 처리
	방문객의 안전확보, 문화유산의 보안, 훼손 예방 및 관리
	관광 홍보

3-5-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전협의체와 관광운영조직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주요내용	상세내용
문화재청	재원 지원	마을환경의 개선,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 전시시설 설치
	교육 지원	마을 주민에 대한 문화재 관련 교육 실시
	제도 마련	관광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제도 마련
경상북도 안동시	인력 지원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광 담당공무원, 보전협의체와 연계
	행정 지원	관광운영조직 구성, 법적 자격 취득에 관한 행정적 지원
	교육 지원	마을보존·활용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능력개발에 대한 기회 및 교육 지원
	재원 지원	초기 운영 재원 지원

4. 활용 계획⁶⁹⁾

4-1. 기본원칙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 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프로그램 유형		주요 내용
체험	교육의례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유림과의 토론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교육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주요 인물 관련, 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서운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69)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인용 및 발췌

4-2. 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서원은 제향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로서 각각의 공간에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건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등
-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프로그램 유형		활용공간	활용내용
교육의례	제향	사당, 재실, 전사청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전통교육	한자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예절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답사	동아리 학습	강당, 재실	취미나 학습 동아리 활동
	한옥 체험	재실	전통 한옥 휴게 체험
	현장 답사	서원 전체 및 주변 경관	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관광 및 홍보	전시 공간	전시장 및 서원영역	서원의 역사·인물·유물 전시

4-3. 시설물 관리와 활용의 주의사항

서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상실한 원형은 형태를 재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사성은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보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위적으로 변형 된 자연 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4-4. 활용 방안

4-4-1. 유교문화 활용 소재

■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 수백년간 지속되어져온 서원의 전통문화유산은 긴 세월동안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의 유·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도서출판, 의례, 청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공간까지 잘 남아 있다. 서원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 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총본산인 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지성사의 거점 기능

- 서원은 학맥과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며, 저명한 성리학자의 제향, 한국 서원 교육, 역사 변천의 증거물, 거점공간으로서 서원의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향의례의 전통

- 서원의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이들 의례는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지역 정체성 확립

- 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데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서원에는 해당지역에 유서를 둔 명현들이 제향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서원의 강학례의 원래 목적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러한 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서원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통 교육 공간의 유산적 가치

- 서원의 대표적 기능인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원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원 자체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 활용가능 콘텐츠

- 긴 세월을 이어온 교육, 의례, 운영기록문서

- 학칙규약의례 : 원규, 절목, 계(약)헌, 홀기, 의례
- 교육, 성적기록 : 강안, 강회록, 고강록, 장서, 출판
- 재정, 운영 전답안, 노비안, 명문
- 창건, 연혁기록 : 상량문, 창건통문, 중수기, 중기, 수리기, 공적비
- 학맥, 정치 : 통문, 소청, 시도기, 고왕록, 시회 등

서원의 문화적 재활용은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며, 서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원형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입하여 박제화 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4-2.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⁷⁰⁾

병산서원은 오래 전부터 대학교나 기업, 단체들에게 서원을 개방해 왔다. 건물의 외부 활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병산서원은 전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적 실용이 구축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또한 서원이 갖고 있던 교육의 기능이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곳의 학생들은 춘추향사 제관 참석 등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제향의 전통 또한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의 체험을 유도한다.

- 병산서원에서는 매년 춘추향사 때마다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10명을 제관으로 참여시키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때 학생들은 서원에서 제공하는 제례복을 입고 **제향을 참여함**으로써 서원을 체험으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 매년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에서 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풍산금속의 경우에는 **신입사원 연수와 간부 워크숍**을 이곳에서 가진다.
- 우리 해군의 세 번째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 승조원들을 병산서원에서 교육한 인연으로 해군과 하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구축함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병산서원에서 **류성룡의 일대기와 전쟁수행 능력, 사상 등을 교육**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봄·가을에 **사회 저명인을 초청한 강좌**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고 참가 신청을 받아서 병산서원의 만대루나 입교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70)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인용 및 발췌



병산서원 향사 사례¹⁾

4-4-3. 서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병산서원은 도동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손꼽힌다. 전학후묘의 구성 원리에 따라 정문에서 시작하여 앞쪽에는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강학공간으로 구성하고, 중앙의 강당을 지나 서원 뒤쪽 가장 높은 곳에 배향 공간인 사당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공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서원향사체험
- 주변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한글백일장 개최
- 바둑대회 개최(서애 류성룡의 바둑 일화⁷¹⁾를 활용)
- 시조 및 음악 공연(만대루를 활용한 소공연 활성화)
- 류성룡과 병산서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연수 유치
 - 류성룡의 사상과 리더십에 대한 교육 실시

71)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선조에게 대국을 요청하자 그는 우산에 구멍을 뚫어 훈수함으로써 이여송을 무릎 꿇게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바둑의 애호가였다. <두산백과, 류성룡 참조>

병산서원 영역별 주요 건축물

영역별 공간구분	영역별 주요 건축물
강학공간	복례문, 만대루, 동서재, 강당(입교당), 장판각
제향공간	존덕사, 전사청, 내삼문
부속공간	주소, 달팽이 뒷간, 광영지 등



서원향사 체험 사례



서원 백일장 사례



서원 공연사례



서원 강연

4-4-3. 서원 체험 프로그램 활용⁷²⁾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인 병산서원을 보고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답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병산서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서원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교육적·체험적·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72) 참고 사진은 서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eowonstay.com/>), 체험프로그램 사진 발췌



서원 예절 교육 사례



소수서원 선비 체험 사례



병산서원 답사 사례



병산서원-하회마을 답사 사례

도산서원스테이의 종류

<p>체험형 서원스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학체험, 제향체험, 서원의 건축 이야기 · 동재 · 서재에서 숙박 · 활인심방, 예절교육 및 선비 체험을 통해 힘든 일정이지만 일정을 거치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과 효과 제공
<p>휴식형 서원스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9곡을 따라 풍광체험 · 아름다운 도산서원의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며, 기초적인 규칙과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의 의미를 부여

- **서원스테이⁷³⁾** : 서원이 갖고 있는 강학과 제향만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건축, 음식, 예절 등의 복합적인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병산서원-하회마을 선비 길⁷⁴⁾ 활성화** :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로 이어지는 과거의 선비 길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병산서원에서 선비의 정신을 체험하고, 선비 길에서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느끼

73) 한국의 전통 서원에 머물면서 서원의 일상 생활을 체험하고 한국 유교의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템플스테이가 불교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서원스테이는 서원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은 도보로 20분~30분 정도의 선비 길로 이어져 있다. 서원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약 5km 길이의 구간으로 바깥으로 낙동강변이 펼쳐져 자연풍광이 수려한 코스이다.

고, 하회마을에서 마을의 정취를 느낌으로 전통 민속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서애 류성룡 관련 유적 탐방프로그램 개발** : 류성룡 증가와 류성룡 관련 유적이 있는 하회마을과 연계하여 증가체험, 선비체험 등 류성룡 관련 유적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서원순례프로그램운영** :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호계서원을 비롯한 안동지역 대표적 서원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안동문화와 서원, 배향인물 및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고 각 서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병산서원 사액재현**
 -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국왕의 추천을 받는 사액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도 제외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전통적인 서원이다.
 - 병산서원이 사액받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관람객들과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애 류성룡선생의 본산인 병산서원에서 사액을 재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사액재현 예시-1



사액재현 예시-2



사액재현 예시-3



사액재현 예시-4

5. 홍보방안

- 병산서원은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으나, 리플렛leaflet 및 행사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 병산서원을 소개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도산서원 기본 정보 안내하고 자체 행사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그 뿐 아니라, 안내 사진 및 추가 관광 정보를 담고, GPS를 통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각종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QR코드를 이벤트 등과 접목하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한다.
- QR코드로 접속하여 도산서원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QR코드 예시

5-2. 병산서원 E-BOOK 제작

- 관람객들에게 서원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선 서원을 관람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서원의 역사, 사건, 인물 등을 기록하여 E-BOOK으로 제작한다. 또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재되어 있는 도산서원의 책판, 목판 등을 국역화 하여 E-BOOK으로 제작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도산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산서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에 대한 사항을 월간지로 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개인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등에 탐방 수기를 올린 사람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BOOK 예시 1



E-BOOK 예시 2

Ⅶ.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2. 사업투자계획



Ⅶ.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미 훼손 서원 중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건립 당시의 정신, 역사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현재의 역할까지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한 사적지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문화재 보존을 우선하되 특히 정비사업과 실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부분을 원형으로 최대한 환원하도록 하며, 사적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병산서원 일대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병산서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변경관을 정비해야 한다.
- 사업시행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기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안동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장래 관광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종합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 관광수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수립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의 집약적 조성과 공간별 사업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병산서원 주변에서 이루어질 일부 개별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현상변경이 초래하더라도 무분별하지않고 기본계획안에서 유적과 조화로우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2. 단계별 추진방향

- 전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추진은 정비의 우선 순위 및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단 계	사 업 내 용	
1단계 (서원영역정비)	문화재정비	병산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관람편의시설정비	관람의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의 정비
2단계 (서원시설정비)	해당 문화재의 이해도모를 위한 시설 및 각종 관리·운영시설 정비	
3단계 (서원주변정비)	당해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수용하여 우수한 실행모델을 완성하고, 도산서원 외곽지역은 과거 도산서원 옛길 재현로 등 유적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보다 경내 환원 사업을 우선시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사업은 제반여건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기간구분은 민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실시한다.

구 분 의 기 준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식
사업소요시간
필수사업과 부차적인 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기준

1-2-1. 1단계 : 서원영역정비(2013년 하반기~2014년)

- 서원영역정비 선정의 기준 : 최우선 시행사업
 - 병산서원 내 유적보존과 직접 관련된 부분 및 보수정화사업으로 인한 변형부분
 - 재원마련이 용이하거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사업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초기 추진단계 부터 시작
- 서원영역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경미한 보수, 배수로정비 및 기타
 - 주변정비 : 소방시설정비, 광영지정비
 - 관람편의시설 : 음수대, 벤치 설치, 탐방로 정비,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야간조명시설 등
 -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 실시
 - 서원활용계획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용역 발주
 - 서원진입로정비

1-2-2. 2단계 : 서원시설정비(2014년~2015년)

- 서원시설정비 선정의 기준
 - 1단계 연장선의 사업
 - 유적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선행되어야 할 사업
 - 재정조달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
- 서원시설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관리사무소 건립 : 추후 개별용역을 통하여 규모, 외형 등을 결정
 - 주차장 이전 건립
 - 서원 전방의 낙동강변 소나무식재

1-2-3. 3단계 : 서원주변정비(2015년~2017년)

■ 서원주변정비 선정의 기준

- 서원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사업
- 재정조달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 서원주변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원병산마을정비 : 서원입구의 마을 가옥 입면 리모델링 및 서원입구의 미술관철거, 기존 상업 시설물 철거 등

단계별 정비계획

단 계	항 목	사 업 내 용	비 고
1단계	진입로정비	진입로 정비	병산서원영향검토구역 외 포장
	서원정비	경미한 보수	창호, 마루, 기단돌 등의 정비
		배수로 정비	중정 복토 및 배수로 신설
	주변정비	광영지 정비	훼손된 석축 정비
		마을 정비	서원입구 경관정비
	방재시설	소화전 설치	옥외소화전 설치
	관람편의시설	퍼걸러 1개소	
		음수대 2개소	
		벤치 10개소	
		탐방로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종합안내판, 개별 안내판, 이정표 등
		야간조명 시설 설치	태양광 LED
	탐방로	옛길복원	병산서원-하회마을 간
2단계	시설물 정비	관리사무소 건립	
		주차장 이전	
	조경정비	경내 이질수목 제거	
		낙동강변 소나무식재	
3단계	주변정비	마을정비	주변 가옥 입면 리모델링 등

2. 사업투자계획

2-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전체사업의 일괄 실행은 불가하므로 시기별·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도록 한다.

단계별 추정사업비

(단위:천원)

단 계	항 목	사 업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1단계	진입로정비	진입로 정비	폭 5m 길이 1km	m²	320	1,600,000
	서원정비	경미한 보수	1	식	45,000	45,000
		배수로 정비	32	m	350	11,200
	주변정비	광영지 정비	1	식	10,000	10,000
		마을 가옥 정비	1	식	45,000	45,000
	방재시설	소화전 설치	1	식	3,000	3,000
	관람편의시설	퍼걸러 1개소	1	개	2,600	2,600
		음수대 2개소	2	개	20,000	20,000
		벤치 10개소	10	개	350	3,500
		탐방로	폭 3m 길이 330m	m²	320	316,800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1	식	50,000	50,000
		야간조명 시설 설치	1	식	80,000	80,000
	탐방로	옛길복원	폭0.8m 길이 1km	m²	150	120,000
2단계	시설물 정비	관리사무소 건립	1	식	200,000	200,000
		주차장 이전	1,500	m²	400	600,000
	조경정비	경내 이질수목 제거	6	주	400	2,400
		낙동강변 소나무식재	24	주	5,500	132,000
3단계	주변정비	마을경관정비	1	식	1,600,000	1,600,000
합 계						4,841,500

- 1단계에서는 건축물정비, 주변정비, 관람편의시설정비를 추진하며 건축물정비에서는 59,200천원이 발생되며 내용으로는 건물보수, 배수로정비, 방재시설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주변정비에서 1,775,000천원이 발생되며 내용으로는 진입로정비, 광영지 정비, 진입로주변 마을가옥 정비, 탐방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람편의시설 정비에서 472,900천원이 발생되어 1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금액은 2,307,100천원이다.
- 2단계에서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건립과 조경정비가 이루어지며, 각 800,000천원과 134,400천원이 소요된다.
- 3단계는 주변마을정비계획을 실시하게 되며 총 소요비용은 1,600,000천원으로 책정된다.
- 따라서 총 공사소요금액은 4,841,500천원이 발생하게 된다.

■ 부 록

1. 서원관계자 의견
2. 관계전문가 자문
3. 건축물 조사표
4. 사진자료
5. 도면자료



1. 서원관계자 의견

1-1. 류한욱(병산서원 유사)

- 어른들의 전언에 따르면 만대루 계단은 현 통나무 계단이 아닌 난간이 있는 계단이므로 원래 대로 복원되길 희망한다.
- 광영지 석축정비가 필요하며, 우천 시 만대루 하단으로 많은 물이 흘러내려 훼손위험이 있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
-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현 주차장은 서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전이 합당하다.
- 서원 진입로 입구의 검은집은 매입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 복레문 앞의 개나리철거 및 만대루 앞 식재 정비가 필요하다.
- 어른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정에 있는 나무들은 예전부터 있었으므로 철거를 원하지 않는다.
- 현 주차장 전면에 현재 소나무 2그루가 있으나 원래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 현재 안내소 위치쯤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바란다.

1-2. 류시석(병산서원 현장관리인)

- 서원 진입의 미술관은 1999년 김춘○씨가 건축 후 2004년 부인 이와다떼마사에(일본인, 주소지 일본) 소유권 이전한 건물로 현재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 미술관을 포함하여 서원 진입로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안내소는 한 칸의 규모로 관리사무소와 안내소를 겸하고 있다. 서원관리를 위한 공간과 안내소, 서원관계자들의 회의 장소가 필요하므로 화장실을 포함한 4칸규모의 관리사무소의 신축이 필요하다.

2. 관계전문가 자문

2-1. 자문의견서 (2012. 3.)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자문 의견서

도산 병산서원, 두 서원과 관련된 공통 권고 사항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의 일부 내용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완충구역 설정, 서원 경관의 보존계획 등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 팀과 조율하여 보고서 내용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내용 상호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의 서원 관리 체계 및 주체 등에 관한 사안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 팀과 조율하여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도산 병산서원의 관람편의시설 (문화재 안내판 등), 관리사무소 건립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 서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향후 서로 협의하여 작업을 할 것을 권고함.
- 우천 시 서원 경내 및 입구의 지면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도산 병산서원의 식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 관리 및 정비 방안을 총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함.
- 2013년 3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그리고 2013년 4월 18-19일 장성 필암서원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본 보고서의 목차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포함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에 향후 기존 건축물을 보수, 정비할 것에 대비하여 건물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지침 또는 원칙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신축, 추가할 경우 서원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최종안을 인쇄하기 1달 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을 권고함.

병산서원과 관련된 권고 사항.

- 하회마을 입구에서 병산서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정비 방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병산서원 앞에 위치한 현재의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병산서원 동쪽에 위치한 서원마을 정비를 포함하여 서원 주변 환경 및 경관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병산서원에서 서쪽으로 낙동강변을 끼고 하회마을로 넘어가는 기존의 보행자 길을 옛 운치를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본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 복레문은 현재 위치 그 자체로 병산서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지금의 자리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자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2-2. 중간보고 검토의견 (2013. 04. 11 - 문화재청)

완충구역 설정	이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 설정과 서원관리체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팀과 협의하여 조율하였으면 함
	이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 설정 원칙의 경우 각 서원별로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등재팀과 함께 적용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 설정은 허용기준과 충돌, 민원발생부분 등을 수립 및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9개 서원과의 기본적인 지침 조율이 필요함 완충구역설정의 설득력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 설정범위가 확대 되었을 시 문제점 파악, 지역주민의 양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범위가 확정 되었을 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함
관리사무소	이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원활한 보존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며, 관리자가 기거하며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 문제의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 평면이나 자세한 부분은 설계 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은집	류한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변의 검은집을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관보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음
배수로	류한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로 문제에 현대적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송림	류한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 전면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과거의 송림을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진입로	문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 정비 시 차 없는 거리를 적용하여 주차장을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조성하여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안 마련
	심중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산서원 진입로 포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살수차를 이용하거나 시장 지시사항으로 황토길 포장을 검토중에 있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경우 진입로에서 서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통행에 불편함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의 경우 시민과 관람객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하여 경관보전을 위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없다면 먼지가 나지 않는 소재로 보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김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통행이 없는 도로는 토양과 비슷한 색의 야자수매트 또는 생태매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3. 최종보고 검토의견 (2013. 05. 21 - 문화재청)

주변 마을정비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정비를 할 경우 지붕개량비를 지급하여 정비
	이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옥정비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현재 불법으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들에 간판, 지붕 교체 지원금을 보조하지 않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자비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주변 마을도 서원의 일부로 봐야함
	남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지붕 개량 시 혜택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검토
진입로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산서원의 진입로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수 입안되었으나 부결됨,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비를 시행하여야 함 마을길은 2~3년 마다 수리를 하더라도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정비하는 것이 옳음, 또한 마사토 경화포장을 할 경우 노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을 두겹게 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해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진입로가 현재와 같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원형을 찾고 홍살문의 유·무와 홍살문이 존재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파악해야 함
	손상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비산먼지에 관련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 포장은 꼭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통행을 제한하되 통행가능 시간을 설정하는 방안 고려
	김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 구간을 500m까지 포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하회 - 병산 연결로	장원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회 - 병산 연결로는 위험구간을 정비해야한다고 판단됨 - 안동시청 손상락 계장 답변: 현재 하회 - 병산 연결로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위험구간의 경우 목재데크로 정비함
주차장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상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계획 1안의 경우 토지매입이 불가능 했으며, 2안으로 할 경우 총효당 소유의 대지에 안동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다고 판단됨
	김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에서 500m이격된 주차장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은집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은 집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완충구역	장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의 경우 용역기간내 수립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적인 기초자료 정도 까지 수립
	이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 설정은 9개서원과 함께 진행해야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범위를 500m로 정하되 필요에 의하면 범위를 추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제안함 완충구역 설정은 문화재보호법을 기반으로 500m정도의 범위 안에서 안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김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구역의 경우 잠정목록 9개 서원을 별도의 용역에서 수립중에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과는 무관함

활용계획	박소현	• 활용적인 측면이 부족하며,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왕기	• 보존관리 다이어그램의 관광업체를 서원관계자, 유림, 서원연합회 등으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준	• 현황조사 자료가 활용과 연계되지 않았음, 또한 활용에 대한 예산배정이 없음 • 외주 발주 시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시계획, 활용방안 등의 원고를 받아 참고해야함
진정성	이왕기	• 진정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원형으로 복원하는 부분의 현실적인 정비 범위 설정이 필요함 • 서원이 가지고 있는 형상 등의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변형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남효대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장대석으로 변형된 부분을 50년이 지난 지금 원형으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성을 찾는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가 진정성인가?
	박소현	• 서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장현덕	• 서원의 원형시점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해준	• 건물 한 동을 짓는다고 진정성을 찾는 것이 아님, 꼭 건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를 참조해야함
문중 협의사항 수록	남효대	• 문중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라
	장원덕	• 관련 문중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함
단계별정비계획	박소현	• 단계별 정비계획을 더욱 세분화 해야함
정비 전후 비교자료 제작	장현덕	• 정비 전과 후의 비교 자료를 제작하라
기타	박소현	• 현황조사는 충분히 잘 했으나 정리가 필요함, 현재 관람객 이용추이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이용행태 등을 파악해야함,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남효대	•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정은 역사보존지구의 분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름 • 현재의 상황 및 문제점을 데이터화 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후일 근거가 될 수 있게 정리해야함
	손상락	•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후 수립안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하고 있음, 도출된 안을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타 서원 사례조사	남효대	• 다른 9개 서원의 정비사례를 참고해야함

2-4. 문화재청 보완지시 내용(2013. 08. 22)

보완지시내용	반영내용	반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정비 계획을 명확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하도록 함(현황사진, 정비 전·후 배치도 등). - 병산서원 주변 조경, 식재, 경관 - 안내판, 편의시설, 탐방로 - 내삼문, 존덕사 단청 등에 대한 원형 여부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현황사진, 정비 전·후 배치도를 보완하여 보고서 수록 • 내삼문과 존덕사 단청에 관한 자료분석 및 고증 결과 원형의 훼손여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활용계획을 지양하고, 도산서원(병산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서원(도산 및 병산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활용계획 수립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3. 건축물 조사표

복 레 문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3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 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 유 자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장	▶담장	보호책,보호각	▶없음
배 수 시 설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없음
안 내 판	▶없음	기 타 시 설 물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없음	방 재 시 스 템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없음	전 기 시 설	▶조명등 설치
가 스 시 설	▶없음	기 타 시 설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21					지금의 자리로 이전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2006					대문채 보수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 상부 강회다짐, 상태양호	사진 4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사진 5
	고 막 이	▶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 없음	
	기 등	▶ 사각기둥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사진 1
	창 호	▶ 판문 / 하부문문데웨손	사진 12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사진 6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8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9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6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10
	기 와	▶ 상태양호	사진 11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좌측면



사진 3_배면



사진 4_기단



사진 5_초석



사진 6_상부가구



사진 7_우측면상부가구



사진 8_대문칸상부가구



사진 9_정면좌측처마



사진 10_박공및목기연



사진 11_지붕



사진 12_판문



사진 13_문둔테훼손



사진 14_판문철물



사진 15_복례문현판

만 대 루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3량가, 팔작지붕, 흙처마
 규 모 | 정면 7칸 / 측면 2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
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 수 시 설 ▶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 내 판 ▶ 없음

기 타 시 설 물 ▶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 없음

방 재 시 스 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 없음

전 기 시 설 ▶ 조명등 설치

가 스 시 설 ▶ 없음

기 타 시 설 ▶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1992					계단 보수
2002					보수
2010					소방시설 설치 /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 상부 삼화토마감, 상태양호	사진 5
	계 단	▶ 배면에 통나무계단 2개 있음 / 상태양호	사진 6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사진 7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하층 : 삼화토 마감 / 상층 : 우물마루	사진 3,4
	기 등	▶ 원기둥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사진 8
	벽 체	▶ 없음	
	창 호	▶ 없음	
	난 간	▶ 계자난간 / 일부 청판 파손	사진 9
가구부	공 포	▶ 익공	사진 14
	보	▶ 상태양호	사진 11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13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13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11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17
	기 와	▶ 상태양호	사진 18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상층



사진 4_하층



사진 5_좌측면기단



사진 6_계단



사진 7_초석



사진 8_창방



사진 9_계자난간



사진 10_계자난간청판파손



사진 11_상부가구



사진 12_총량



사진 13_도리밋장여



사진 14_공포



사진 15_선자연

현 황 사 진



사진 16_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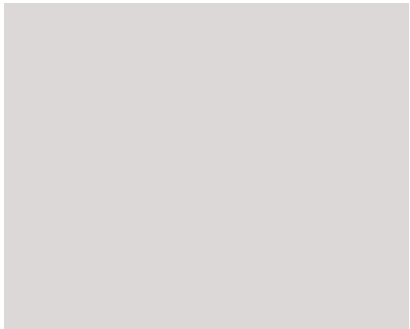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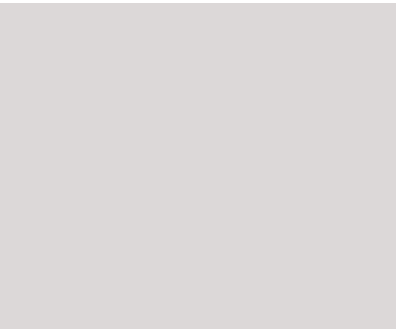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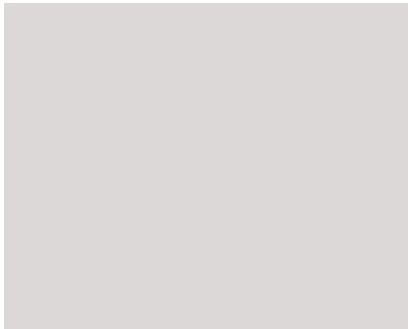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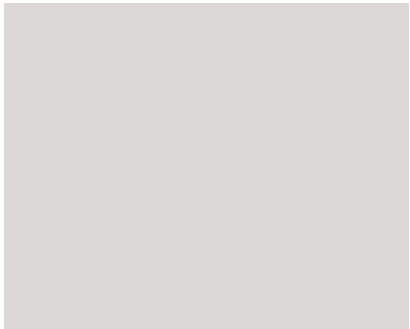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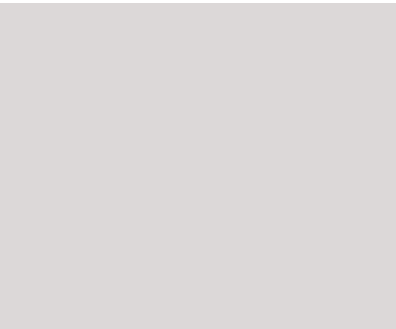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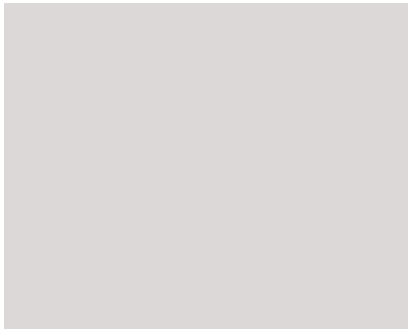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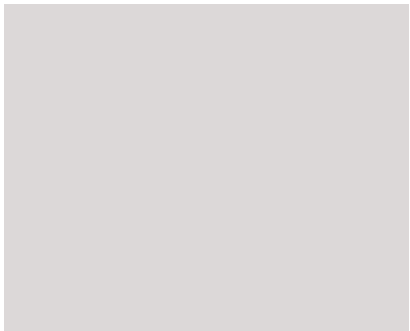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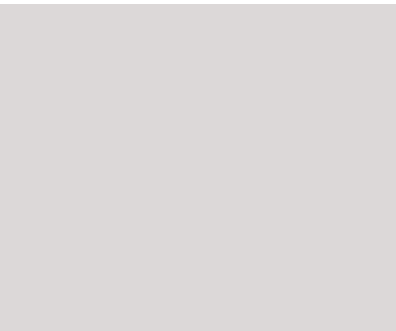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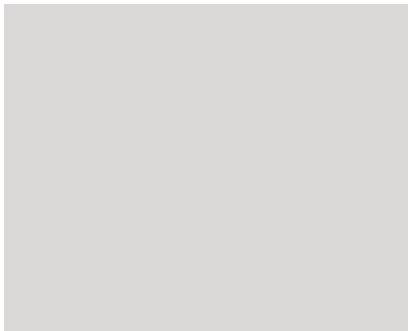
사진 17_합각부



사진 18_기와



사진 19_만대루현판



입 교 당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5량가, 팔작지붕, 겹처마

규 모 | 정면 5칸 / 측면 2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 수 시 설	▶ 정비필요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 내 판	▶ 있음 / 일부분체손	기 타 시 설 물	▶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 분말 소화기 1개	방 재 시 스 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 없음	전 기 시 설	▶ 조명등 설치
가 스 시 설	▶ 없음	기 타 시 설	▶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21					중건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03					보수
2005					입교당 앞 정류대 1개 설치
2010					소방시설 설치 /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사고석기단 부분사용 / 상부 강회다짐, 상태양호	사진 5,6	
	계 단	▶ 상태양호	사진 7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사진 8	
	고 막 이	▶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 어칸 : 우물마루 / 좌·우측칸 : 온돌	사진 16,17	
	기 등	▶ 원기둥, 사각기둥 부분사용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사진 2	
	창 호	▶ 어칸 : 판문 / 좌·우측칸 : 세살창호	사진 2,15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사진 9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10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11,12	
	천 장	▶ 어칸 : 연등천장 / 좌·우측칸 : 고미반자	사진 9,18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13	
	기 와	▶ 상태양호	사진 14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좌측면



사진 3_배면



사진 4_내부



사진 5_배면기단



사진 6_정면기단



사진 7_계단



사진 8_초석



사진 9_상부가구



사진 10_주심도리및장여



사진 11_정면겹처마



사진 12_배면흘처마



사진 13_합각부



사진 14_지붕



사진 15_배면대청우리판문

현 황 사 진



사진 16_우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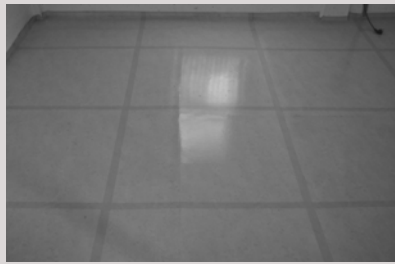


사진 17_온돌방



사진 18_좌측방고미반자



사진 19_병산서원현판



사진 20_입교당현판



사진 21_경의재현판



사진 22_명성재현판



사진 23_병산존덕사복향기현판



사진 24_집사분정판

동 재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5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 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 수 시 설	▶ 정비필요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 내 판	▶ 없음	기 타 시 설 물	▶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 소화기 1기	방 재 시 스 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 없음	전 기 시 설	▶ 조명등 설치
가 스 시 설	▶ 없음	기 타 시 설	▶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03					보수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 상부 강회다짐, 상태양호	사진 2
	계 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사진 3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온돌	
	기 등	▶ 원기등 / 사각기등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창 호	▶ 널판문 / 세살창	사진 9,10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사진 4,5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6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7
	천 장	▶ 연등천장 / 대청부분 누수	사진 6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8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기단



사진 3_초석



사진 4_상부가구(대량및종량)



사진 5_상부가구(퇴량)



사진 6_상부가구(도리및장여)



사진 7_처마



사진 8_박공부



사진 9_정면세살창



사진 10_널판문



사진 11_아궁이



사진 12_굴뚝



사진 13_동직재현판



사진 14_누수현황

서재

소재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5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1.5칸
소유자	병산교육재단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 옹벽, 담장	▶ 없음	보호책, 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정비필요	관람, 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없음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소화기 1기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조명등 설치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연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06		보수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 상부 강회다짐, 상태양호	사진 2
	계 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온돌	
	기 등	▶ 원기둥 / 사각기둥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창 호	▶ 널판문 / 세살창	사진 7,8,9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사진 3,4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5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6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5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3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기단



사진 3_측면가구



사진 4_상부가구(퇴량)



사진 5_상부가구(도리밋장여)



사진 6_처마



사진 7_정면세살창



사진 8_세살창파손



사진 9_널판문



사진 10_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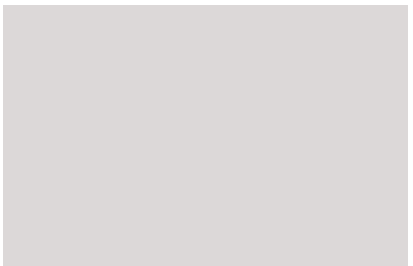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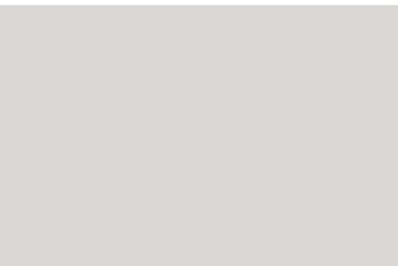
사진 11_굴뚝



사진 12_마루파손



사진 13_장서실현판



장 판 각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3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 모 | 정면 3칸 / 측면 1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
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 수 시 설

▶ 정비필요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 내 판

▶ 없음

기 타 시 설 물

▶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 없음

방 재 시 스 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 없음

전 기 시 설

▶ 없음

가 스 시 설

▶ 없음

기 타 시 설

▶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 기단 / 상부 강회다짐, 기단훼손	사진 4,10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대양호	사진 5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사진 3
	기 등	▶ 사각기둥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사진 2
	창 호	▶ 판문	사진 9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대양호	사진 6
	도 리	▶ 상대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대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누수	사진 6
	박 공 / 풍 판	▶ 상대양호	사진 8
	기 와	▶ 상대양호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내부



사진 4_기단



사진 5_초석



사진 6_상부가구



사진 7_측면상부가구



사진 8_박공부



사진 9_정면창호



사진 10_기단파손현황



사진 11_장판각현판



존 덕 사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립년대 | 조선시대

구조, 양식 | 5량가, 맞배지붕, 겹처마

규모 | 정면 3칸 / 측면 2칸

소유자 | 병산교육재단

관리자 |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 옹벽, 담장

▶ 없음

보호책, 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상대양호

관람, 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없음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소화기 1기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37					중건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화강석장대석기단 / 상부 전돌마감	사진 3
	계 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원형 초석 / 상태양호	사진 4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사진 13
	기 등	▶ 원기둥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사진 5
	벽 체	▶ 한식회벽 / 화방벽	사진 11
	창 호	▶ 판문	사진 12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익공	사진 7
	보	▶ 상태양호	사진 6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8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9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6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사진 10
단청	단 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내부



사진 3_기단



사진 4_초석



사진 5_창방



사진 6_상부가구



사진 7_공포



사진 8_도리및장여



사진 9_처마



사진 10_지붕기와



사진 11_우측면화방벽



사진 12_정면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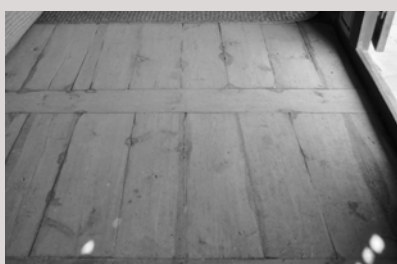


사진 13_내부우물마루



사진 14_존덕사현판

내 삼 문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립년대 | 조선시대

구조, 양식 | 3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모 |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 병산교육재단

관리자 |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 옹벽, 담장 ▶ 담장 / 상대양호

보호책, 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상대양호

관람, 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정비가필요함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소화기 1기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37					중건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화강석기단 / 내부 상부 전돌마감	사진 3,4
	계 단	▶ 상태양호	사진 5
축부	초 석	▶ 원형초석, 장주초석 / 상태양호	사진 4,5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없음	
	기 등	▶ 원기등 / 배면 사각기등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사진 7
	벽 체	▶ 없음	
	창 호	▶ 판문	사진 11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익공	
	보	▶ 상태양호	사진 6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7,8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9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8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10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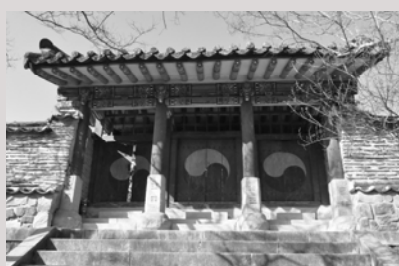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외부기단



사진 4_내부기단



사진 5_외부초석



사진 6_상부가구



사진 7_창방및도리·장여



사진 8_홍살



사진 9_처마



사진 10_박공부



사진 11_판문

전 사 청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3량가, 맞배지붕, 흙처마
 규 모 | 정면 3칸 / 측면 1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장	▶담장 / 상대양호	보호책,보호각	▶없음
배 수 시 설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없음
안 내 판	▶없음	기 타 시 설 물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소화기 1기	방 재 시 스 템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없음	전 기 시 설	▶조명시설
가 스 시 설	▶없음	기 타 시 설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기단 / 강희마감	사진 3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초석 / 상태양호	사진 4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마루 / 온돌	
	기 등	▶ 사각기둥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창 호	▶ 판문 / 세살문	사진 8,9,10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7
	천 장	▶ 연등천장	사진 6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사진 5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출입문



사진 3_정면기단



사진 4_초석



사진 5_측면가구및박공부



사진 6_상부가구



사진 7_처마



사진 8_창호(우리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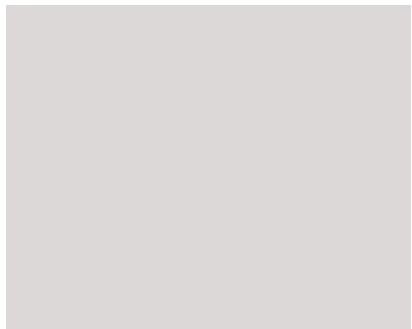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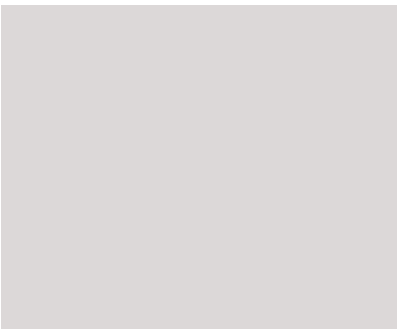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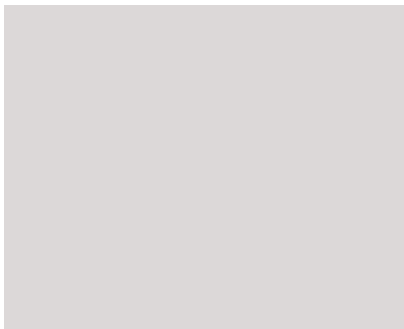
사진 9_창호(세살문)



사진 10_창호(판문)



사진 11_전사청현판



고 직 사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건 립 년 대 | 조선시대

구 조 , 양 식 | 3량가, 팔작지붕, 흙처마

규 모 | 정면 5칸 / 측면 5칸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관 리 자 | 안동시



부 대 시 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 수 시 설

▶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 내 판

▶ 없음

기 타 시 설 물

▶ 없음

소 방 및 안 전 관 리

소 화 기

▶ 없음

방 재 시 스 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 기 시 설

▶ 없음

전 기 시 설

▶ 조명시설

가 스 시 설

▶ 있음

기 타 시 설

▶ 내·외부 CCTV설치

보 수 관 리 실 적

년	도	시	행	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1983					서원 내·외부에 수목식재시행
1989					서원실측
2007					보수
2010					소방시설 설치
2010					배수로 정비
2012					정밀실측조사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자연석기단	사진 3,5
	계 단	▶ 상태양호	사진 5
축부	초 석	▶ 자연석초석 / 상태양호	사진 6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마루 / 온돌	
	기 등	▶ 사각기둥	
	창 방 / 평 방	▶ 없음	
	벽 체	▶ 한식회벽 / 판벽	사진 1,2,3,4
	창 호	▶ 판문 / 세살문	사진 2,5,9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없음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사진 7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사진 7,8
	천 장	▶ 연등천장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없음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좌측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계단



사진 6_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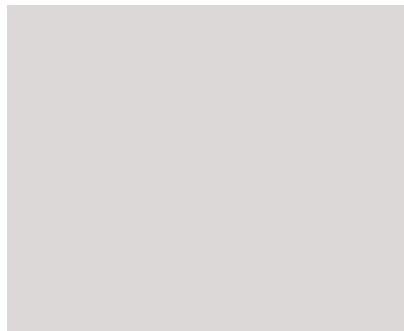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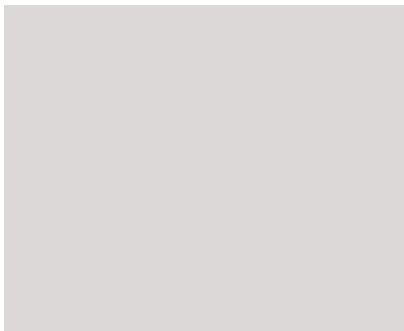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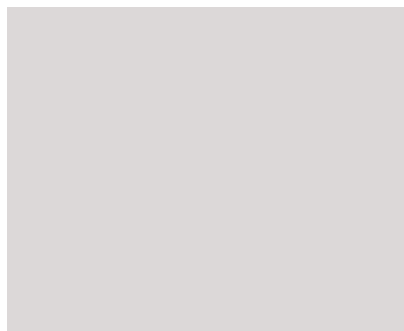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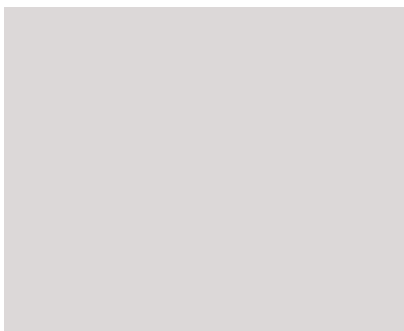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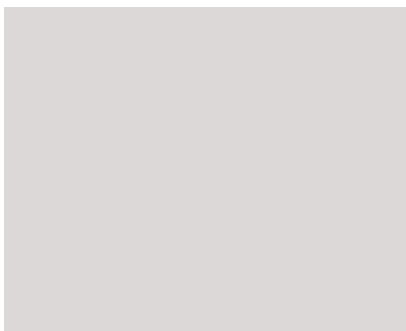
사진 7_상부가구



사진 8_회첨마루



사진 9_판문



4. 사진자료

4-1. 항공사진



병산서원 항공사진 1



병산서원 항공사진 2



병산서원 항공사진 3



병산서원 항공사진 4

4-2. 위성사진



1971년 항공사진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1988년 항공사진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1995년 항공사진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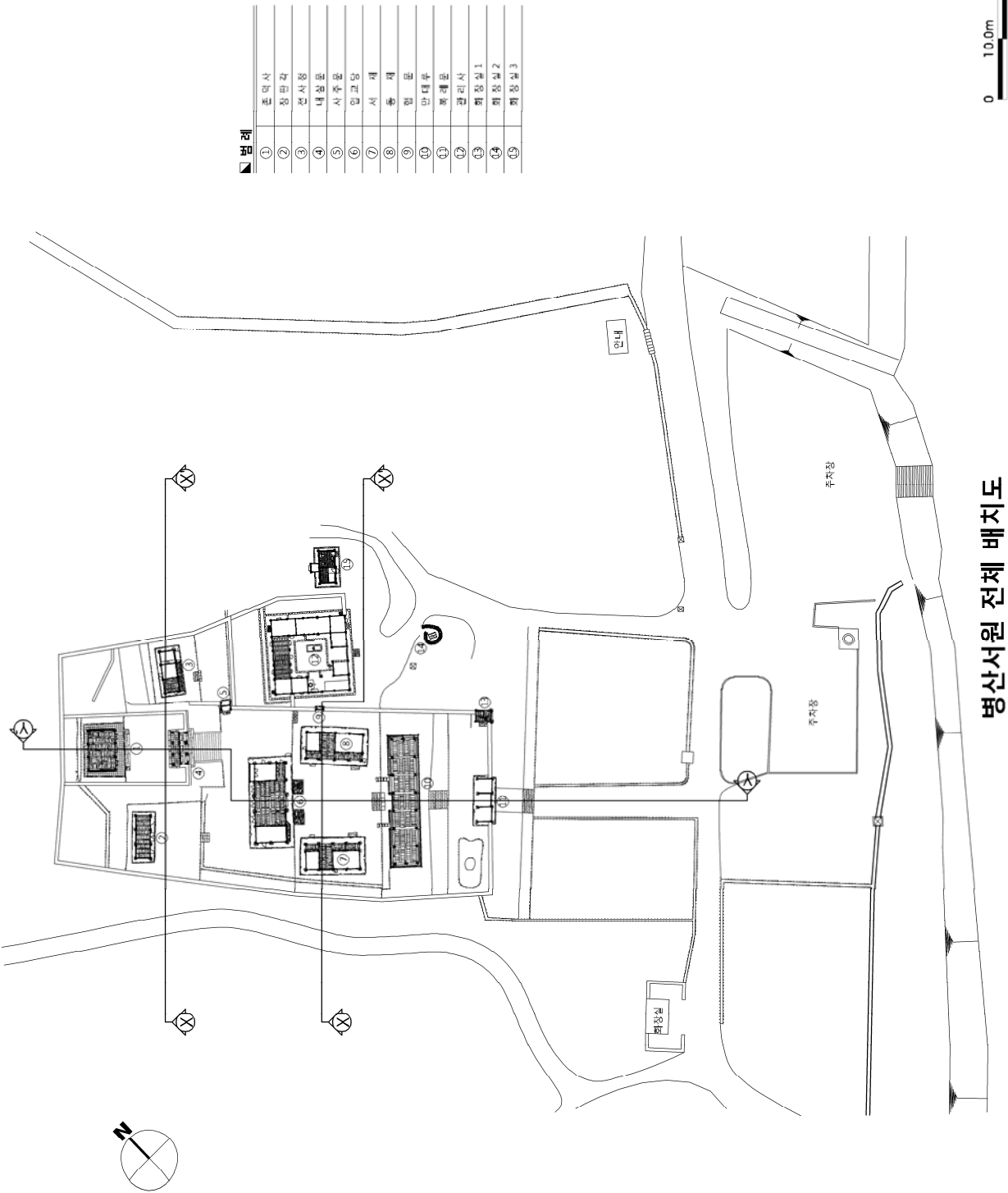
2005년 항공사진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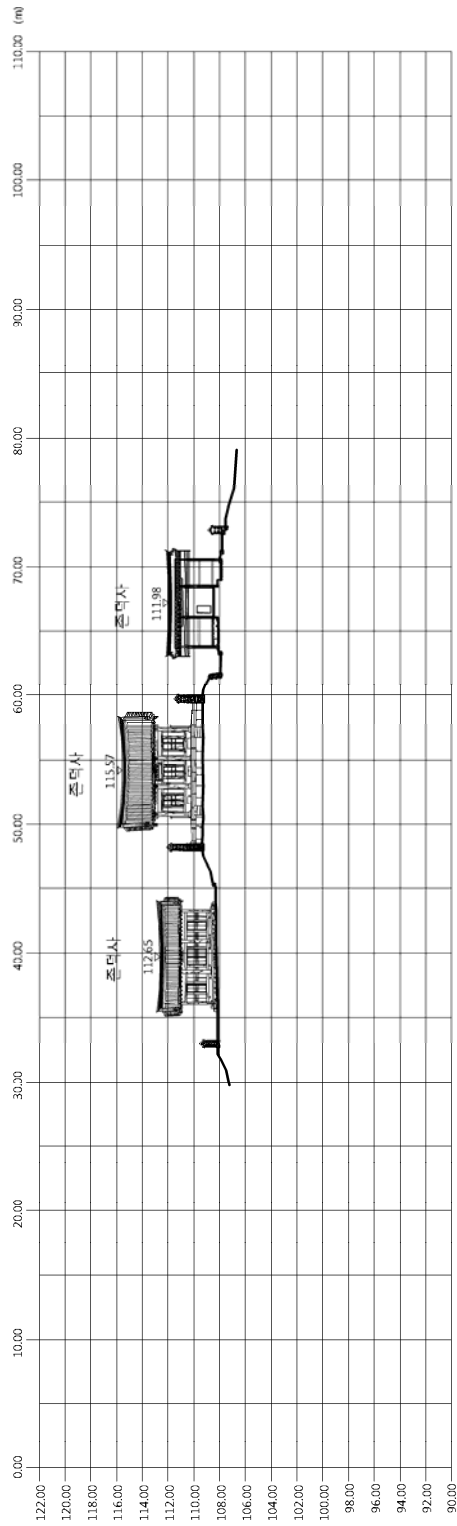
2013년 위성사진_<http://map.daum.net/>

5. 도면자료

5-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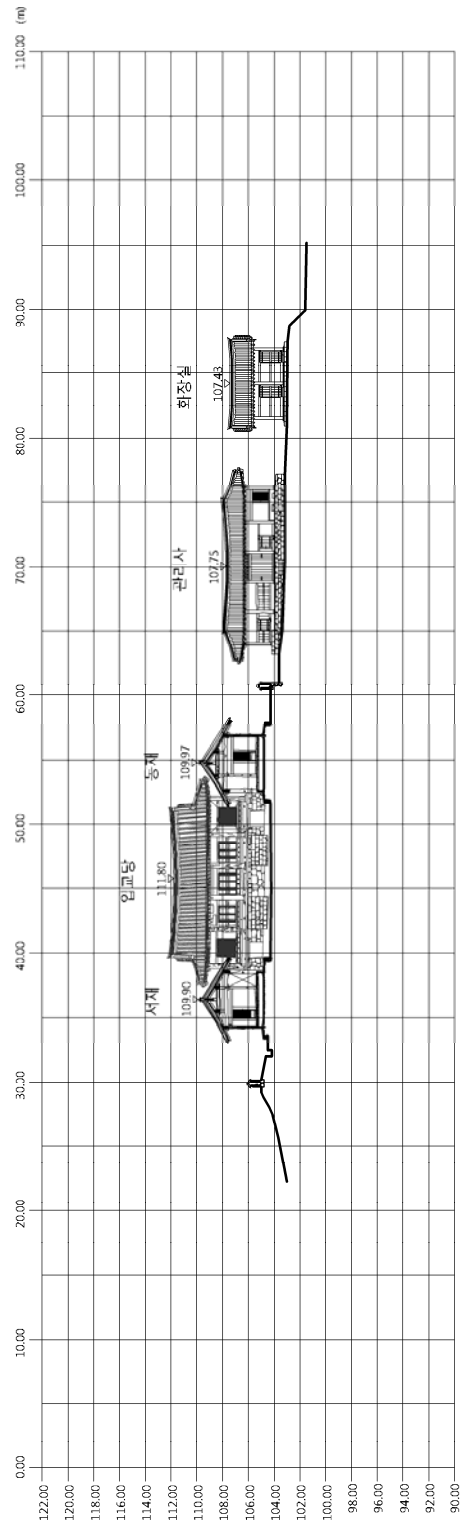


병산서원 전체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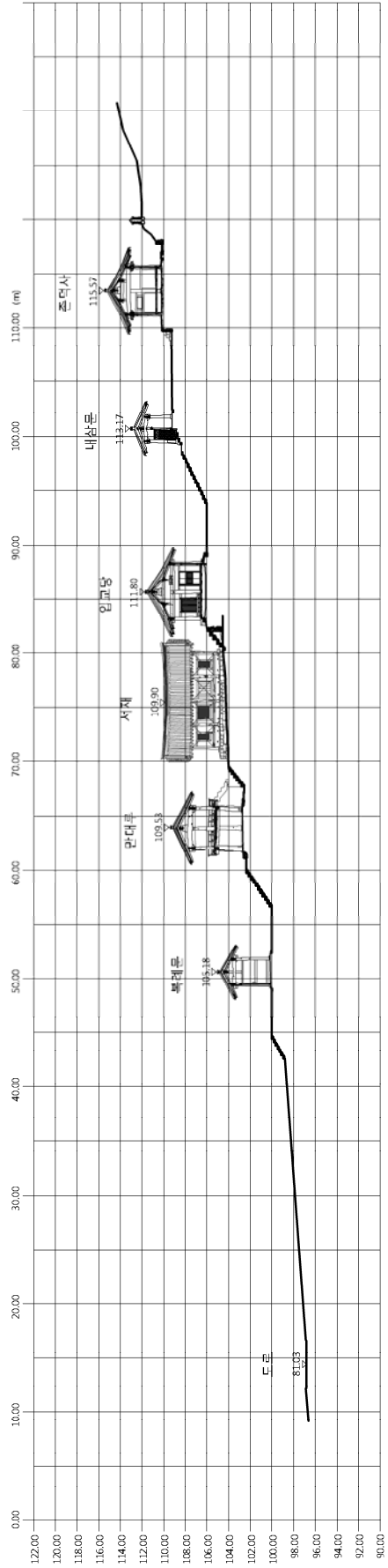
X-X' 대지 횡단면도-1

병산서원 대지 횡단면도



X-X' 대지 횡단면도-2





병산서원 대지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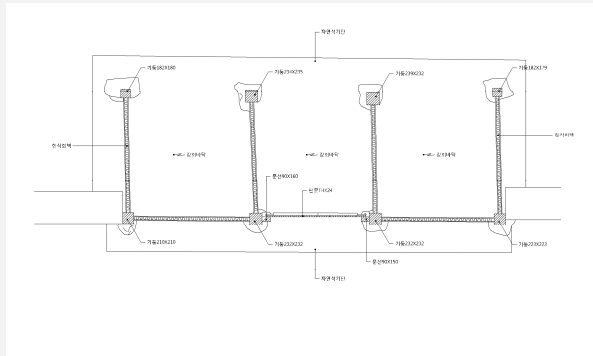
도관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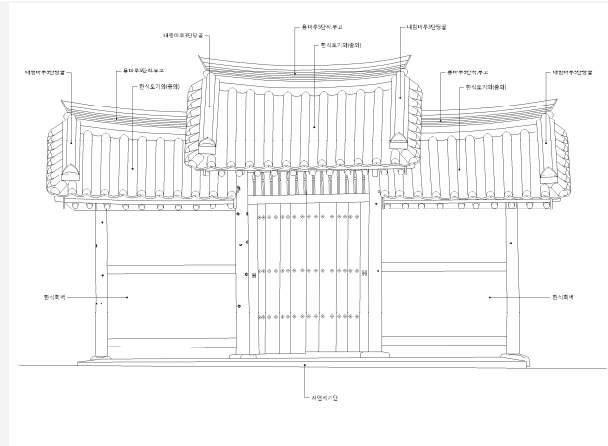
Y-Y' 대지종단면도

5-2. 개별 건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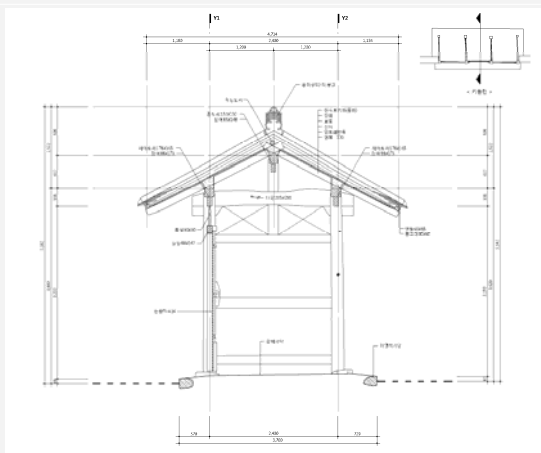
복레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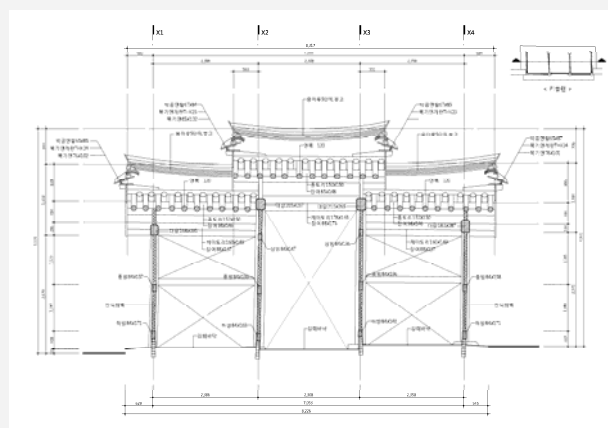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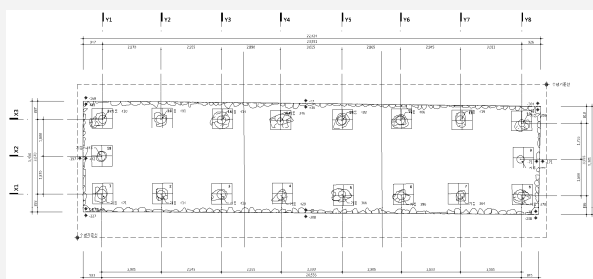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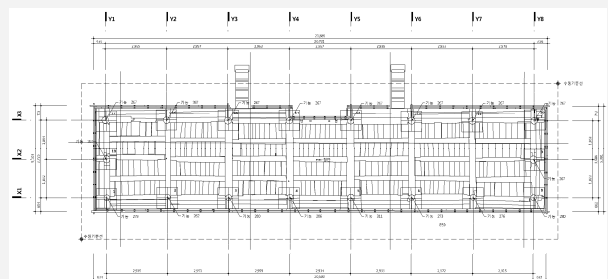


횡단면도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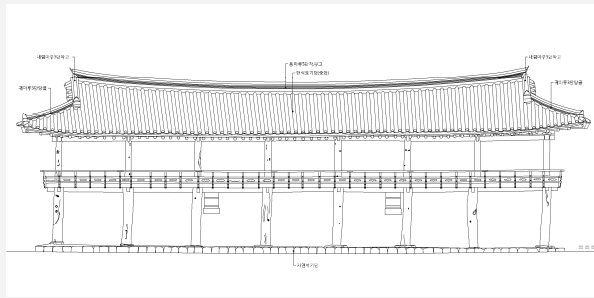


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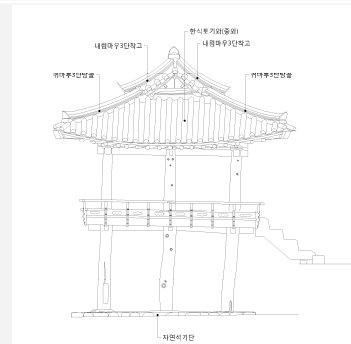


상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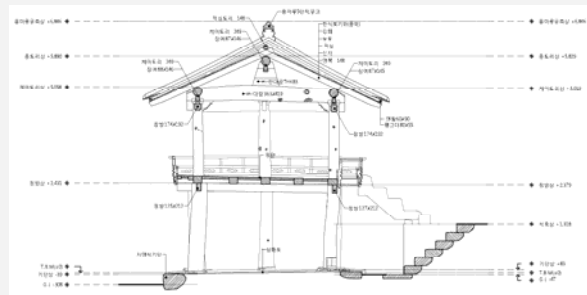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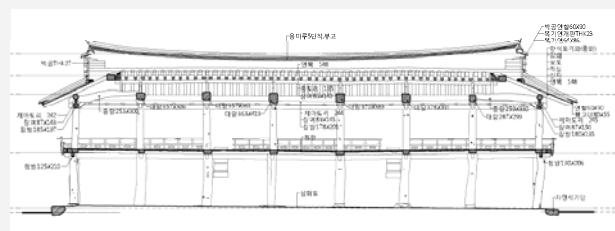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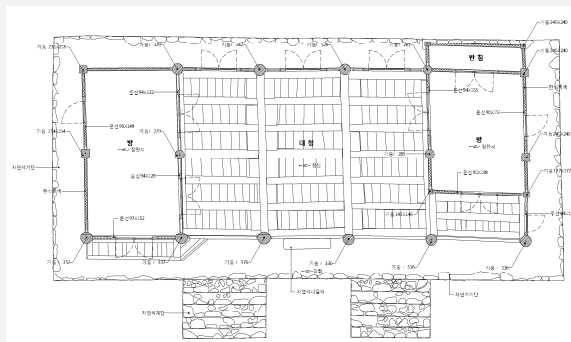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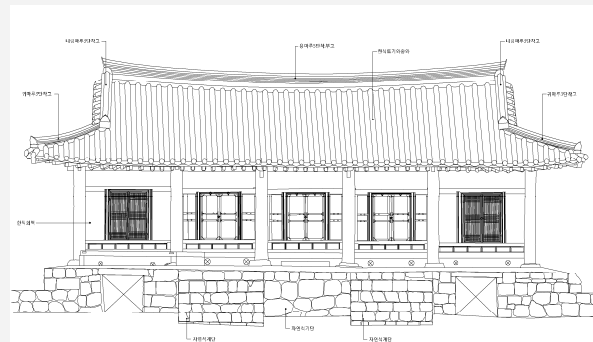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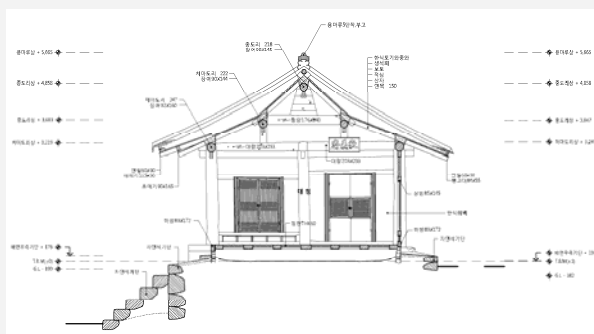
입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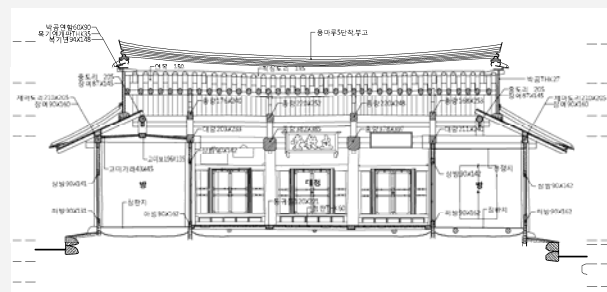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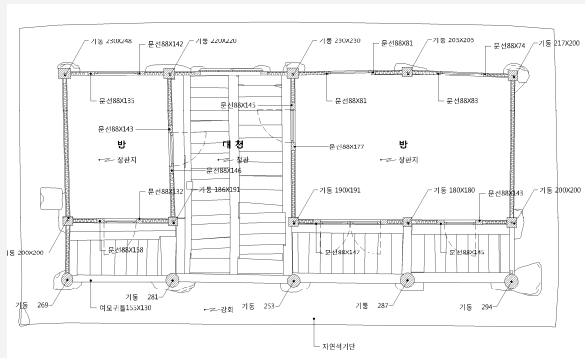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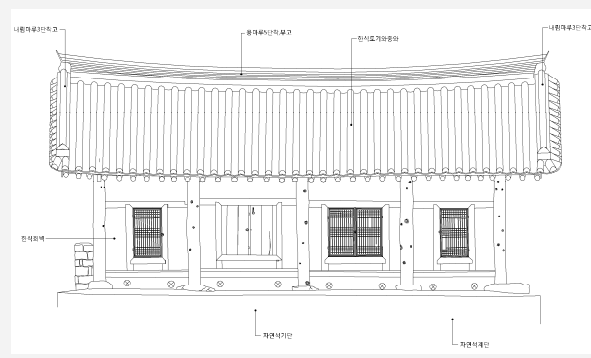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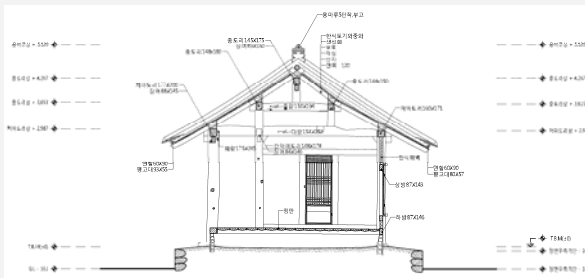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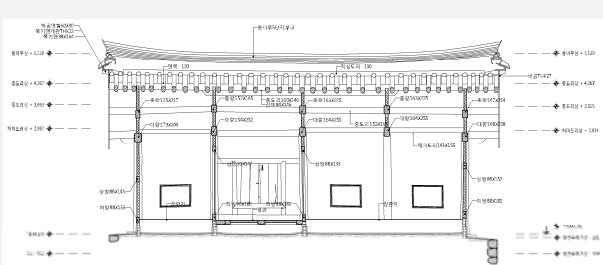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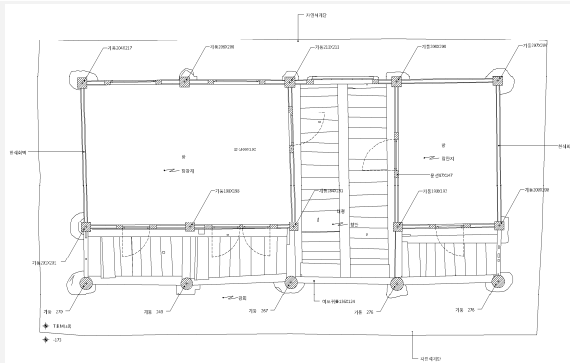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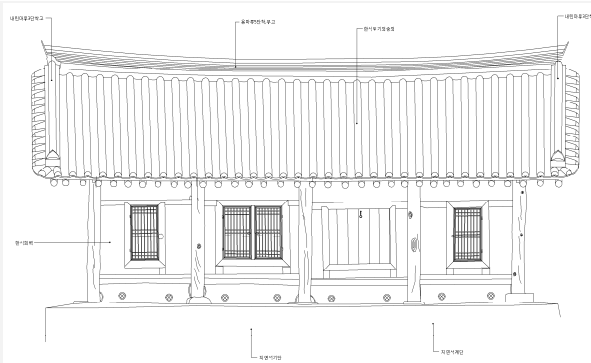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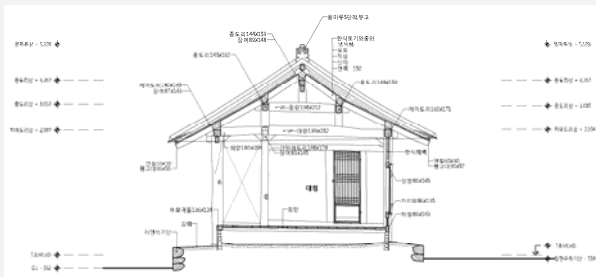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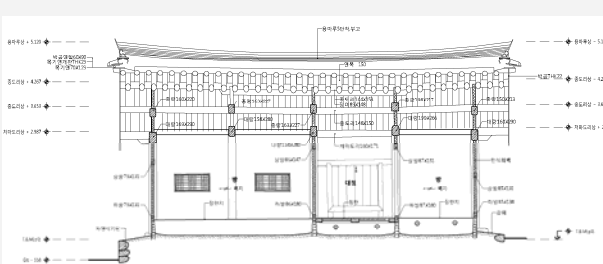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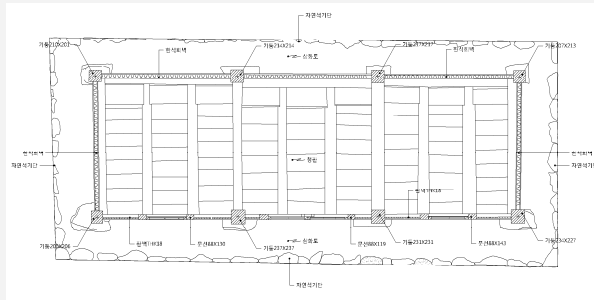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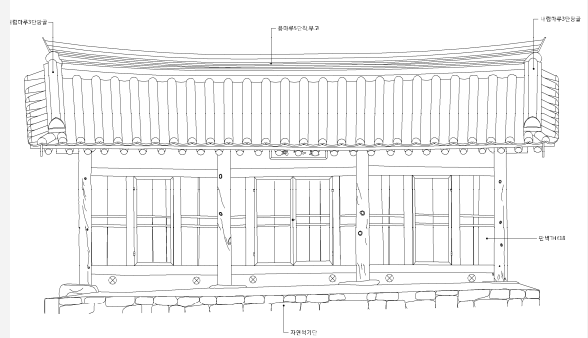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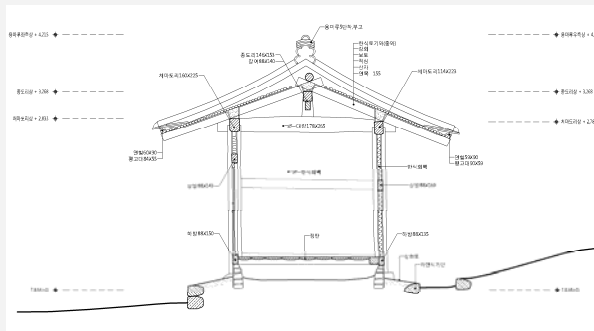
장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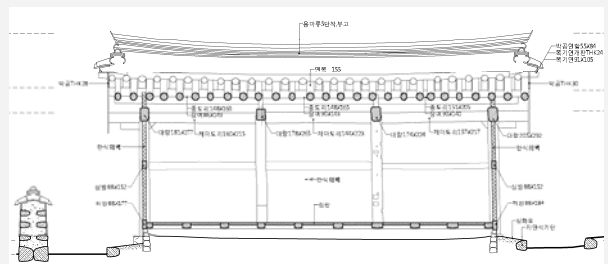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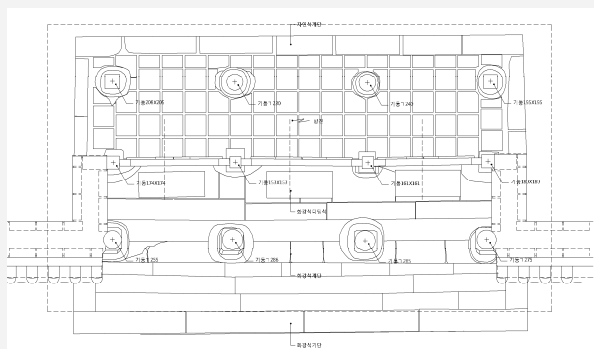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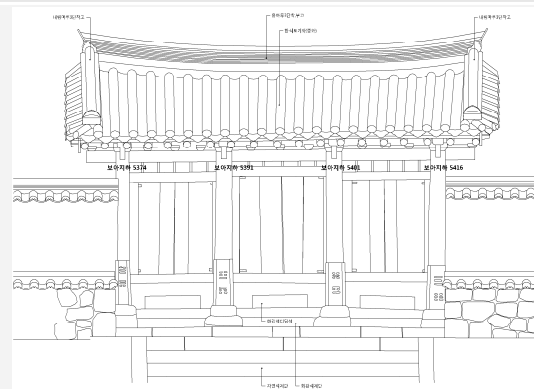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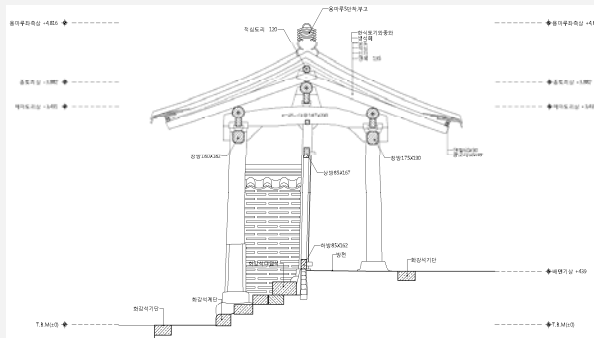
내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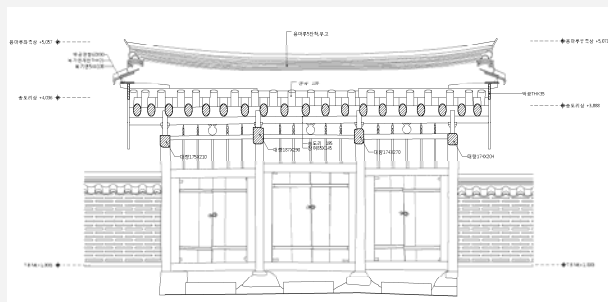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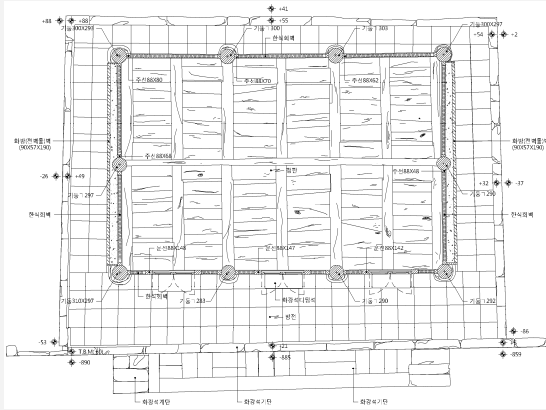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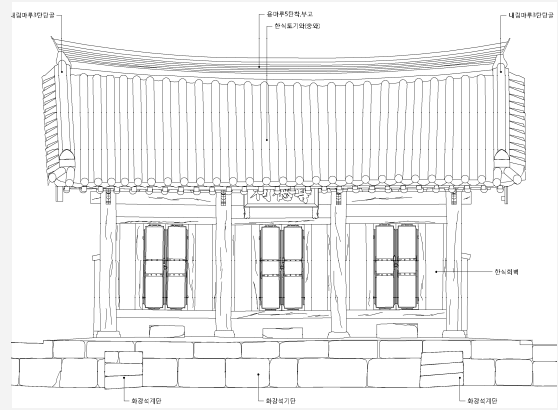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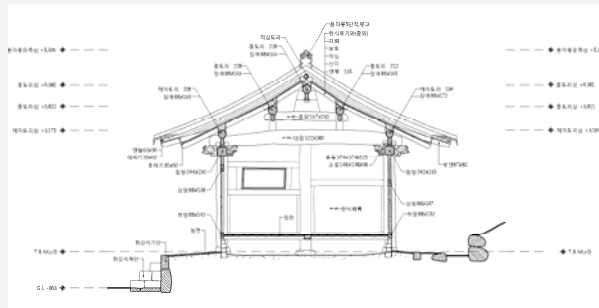
존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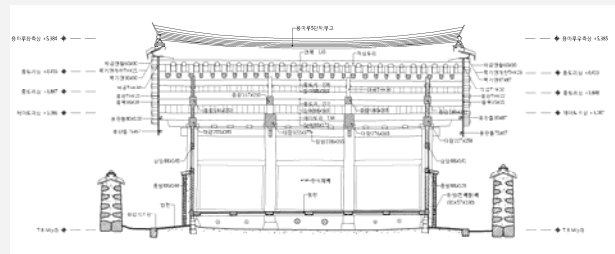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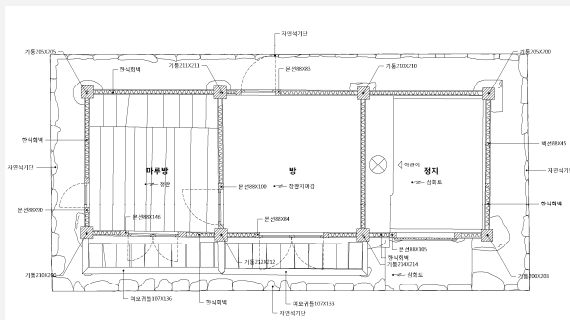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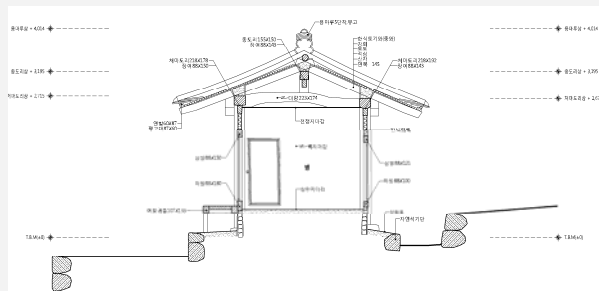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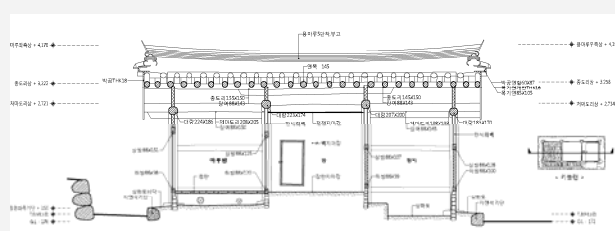
전사청 평면도



전사청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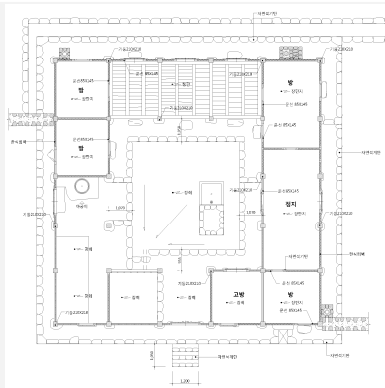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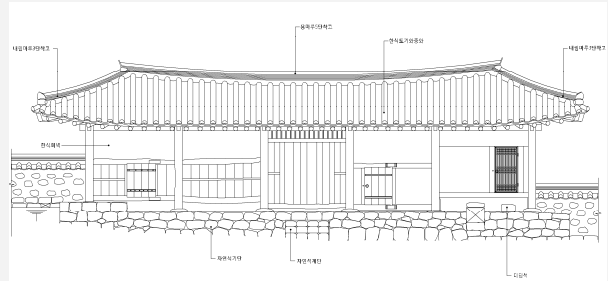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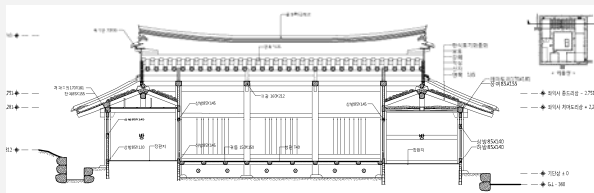
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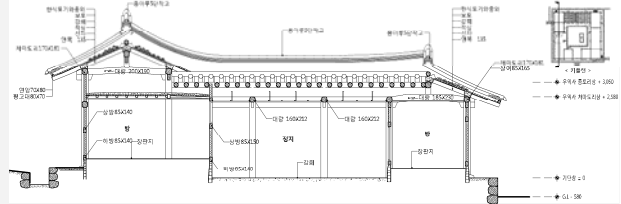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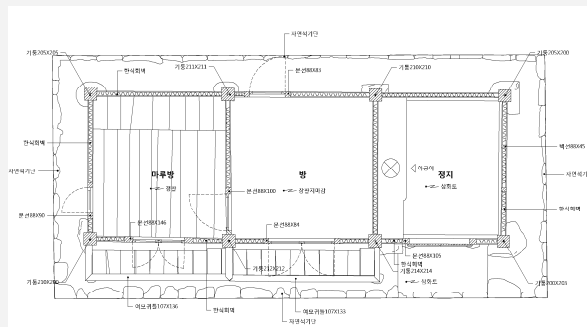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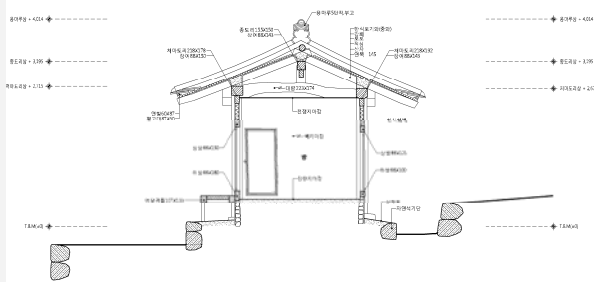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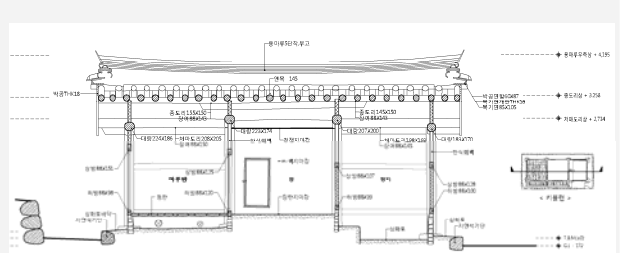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종단면도